《선종 10년 6월, 도병마사가 〈박원작이 만든 천균노는 참으로 위력한것이기때문에 언제나 성밖에서 쏘기를 연습하였는데 지금은 그만둔지 오래오니 원컨대 금년부터 다시 옛법대로 실행하도록 해주시기기를 청하옵니다.〉라고 아뢰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고려사》 제81권 지제 35에서—

제1장

1

1040년(고려 정종6년) 가을 어느날이였다.

서경성의 대동문을 나선 북계병마도감사 박원작은 대동강을 따라 장사진을 친 인파를 보자 가슴이 울렁거렸다. 여기에 온 서경성사람들이 다 모여든것 같았다.

새로 만들어낸 《신기한 병기》의 하나인 수질구궁노의 발사시험을 치른다는것을 알리지도 않았건만 어떻게 알고 장사진을 이루었는지…

수천수만의 시선을 느낀 박원작은 전복속의 제몸이 보잘것없이 작아보이면서 더 쫄아드는것 같았다. 당황해난 까닭에 가없이 펼쳐진 맑은 하늘아래 푸른 물 늠실대는 대동강의 아름다운 자태도 눈에 안겨들지 않았다.

그의 심중을 엿보았는지 련장행수 근달이 백발의 수염을 흩날리며 다가왔다.

《병마도감사님!》

근달의 부드러운 부름소리에 박원작은 이내 마음의 안정을 어느정도 되찾았다.

마음의 여유를 느낀 박원작은 대동문앞에 벌려선 병마도감의 장공인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이 하나같이 름름하고 씩씩하게 안겨왔다.

두사람씩 조를 무었는데 매 조마다 새로 만든 수질구궁노가 갖추어져있었다.

사람이 끌고다닐수 있도록 작게 만든 손수레우에다 발사통이

라고 하는 참대토막 9개를 올려놓은것이 수질구궁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큰 칼도마만한 널판자에다 3층으로 된 매개 층에 한주먹의 간격으로 3개의 구멍을 나란히 뚫고 거기에 호미자루같은 참대토막을 한개씩 끼워넣은것을 손수레우에다 든든히 설치하였다.

겉보기에는 예리한 칼 하나도 갖추어져있지 않아 저게 무슨 병쟁기로서 구실을 할가 하는 의문이 가지만 이제 저기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무서운 불소나기가 쏟아져나올것이다.

박원작은 8모나무방망이에 구리를 씌운 거포(지휘봉)를 천천히 추켜들었다. 그러자 장공인들이 재치있는 동작으로 발사통이라고 하는 참대토막들에 화살을 먹이였다.

발사통에 먹이는 화살은 보통 화살이 아니다. 불화살이라고 하는데 얼핏 보기엔 대우전(깃을 크게 댄 화살)같으나 화살촉의 뒤가 북(방추)처럼 생겼다. 그것을 약통이라고 부르는데 그안에는 화약이 들어있다. 화살촉의 뒤에 붙어있는 천과 종이로 감싸맨 약통에는 명주실을 여러겹으로 꼬아만든 불심지가 끼여있다.

발사통들에 불화살을 먹인 장공인들이 수질구궁노를 안아들었다. 그들은 대동강의 복판에 띄워놓은 거루배를 겨누었다.

자신심이 넘쳐있는 장공인들을 미덥게 바라보며 박원작은 높이 쳐든 거포를 힘껏 내리웠다.

《쏴!—》

박원작의 구령소리에 수질구궁노를 겨누어든 짝패들이 저저마다 숯불이 이글거리는 화로에서 화심(불꼬챙이)을 집어들고 불화살에 드리워있는 불심지에 가져다댔다.

불심지들에서 흰 연기가 피여오르더니 이어 콩볶는듯한 폭발소리가 울렸다. 그와 동시에 수질구궁노들에서 화살들이 연방 하늘로 날아올랐다.

수십개의 수질구궁노들에서 쏘아대는 불화살로 하여 검은 연기가 대동강의 하늘을 온통 뒤덮었다.

《맞았다!—》

누군가의 웨침에 사람들이 환성을 터치였다. 불화살들에 얻어맞

은 거루배가 삼단같은 불길에 휩싸인것이였다.

불길에 휩싸인 거루배를 보는 순간 박원작은 너무 기뻐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아, 드디여 우리 군사들에게 그 어떤 적진도 손쉽게 불살라버릴수 있는 간편하고도 위력한 병기를 안겨줄수 있게 되였구나. 저 수질구궁노들앞에 이 땅을 침범하는 오랑캐들은 뼈도 추리지 못하리라.

근달이 목메여 부르짖었다.

《병마도감사님! 끝내 뜻을 성취하셨소이다. 수질구궁노까지 만들어냈으니 어느 오랑캐가 감히 우리 나라를 넘겨다보겠소이까.》

거포를 안은 박원작의 눈에 눈물이 글썽했다.

그렇다. 《신기한 병기》를 가진 고려군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군사로 되였다. 이제 애국의 충정으로 불타는 우리 군사와 맞설 적이 이 세상 또 어데 있으랴!

병마도감의 장공인들, 서경성사람들의 성실한 모습이 불시에 눈앞에 어리며 그들의 도움이 아니였다면 수질구궁노와 같은 《신기한 병기》들을 거듭 만들어내지 못했을것이라는 생각이 가슴뿌듯이 샘솟았다.

서경에서 보낸 8년과 멀리 흘러간 개경살이 20여년이 주마등같이 떠올랐다. 열정과 환희로 수놓아진 보람있는 서경살이 8년을 어찌 잊을소냐!

《병마도감사님.》

근달의 은근한 부름소리에서 박원작은 그 말뜻을 읽었다. 눈길을 드니 방금 수질구궁노를 쏜 자리에 《신기한 병기》들인 팔우노 한문과 뢰등석포들, 수질노들이 주런이 자리를 잡고있었다. 병마도감사로 부임해온 그 첫해에 새롭게 만들어냈던 병기들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신기한 병기》들을 만들어 북계(오늘의 평안남북도, 자강도)와 동계(오늘의 함경남도와 강원도 일부)를 지키는 군사들에게 보내주었던가. 경군(중앙군)도 저런 병기들로 그쯘하게 장비했다.

이 병기들은 서경군에 주려고 요새 또 만든것들인데 수질구궁노

와 더불어 그것들의 일제사격의 위력을 다시한번 시위하려고 내오게 한것이였다.

팔우노는 《신기한 병기》들중에서 으뜸가는 거물이다. 이 병기의 시위줄을 당기는데 황소 8마리가 끄는 힘이 든대서 팔우노라고 부른다. 팔우노에는 수십개의 불화살이나 쇠화살을 재울수 있는 발사통이 있다.

한아름이 잘되는 참나무로 네 기둥을 세우고 그 틀우에 수십근짜리 큰 활이 세개나 묶어져있는데 거기에 발사통이 붙어있는 굵은 시위줄이 매여있다. 힘쎈 장정 백명이 달라붙어야 시위줄을 만궁으로 당겨놓을수 있다.

팔우노에 보통 화살들을 재워 쏘면 이삼백보에 이를수 있고 불화살인 경우에는 천보를 능히 날릴수 있다.

더우기 아군이 적의 성을 칠 때 팔우노에 철전을 재워 쏘면 엄청나게 센 힘으로 날아난 철전들은 굳은 성벽에 박힌다. 아군이 바로 성벽에 박힌 철전을 디디고 손쉽게 성을 넘어들어갈수 있으니 얼마나 유익한 병기인가.

수질노는 지팽이만한 참대토막으로 되여있는데 불화살을 한개 재울수 있다. 한번에 한개의 불화살밖에 쏠수 없는 부족점을 메꾸려고 새로 만든것이 수질구궁노이다.

팔우노와 수질노가 화살을 날린다면 놋쇠(청동)로 만든 뢰등석포는 아름드리 돌탄을 쏘아 적진을 짓뭉개버릴수 있다.

번개와 우뢰를 일으킨다고 하여 뢰등석포라고 하는 화포를 쏠 때면 붉은색, 풀색, 푸른색, 남색, 감색, 누른색의 여섯가지 불꽃을 멋있게 날린다. 그래서 륙화석포라고도 부른다.

뢰등석포는 긴 단지모양의 약통과 그우에 올려놓을수 있게 된 절구모양의 완구로 나누어져있다. 각각 백근이나 되는 완구와 약통은 든든한 나무포가우에 설치되여있다.

박원작은 천천히 거포를 쳐들었다.

그러기를 기다리던 장공인들이 벌떼처럼 팔우노에 달라붙었다. 바줄을 당기듯 엿—싸, 엿—싸 힘을 모아 소리를 지르면서 장공인들은 팔우노의 시위줄을 당겼다. 팽팽하게 만궁으로 당겨진 시

위줄이 팔우노의 걸개턱에 걸렸다.

뢰등석포들에 달라붙은 장공인들의 모습도 볼만하다. 불심지가 든 약통에 화약을 다져넣고 그우에 참나무격목을 맞춘 장공인들이 완구아가리로 80근짜리 돌탄을 집어넣느라고 떠들어댔다.

박원작은 수질노들에도 불화살이 재워졌음을 확인하고서야 힘있게 거포를 휘둘렀다.

《쐇!―》

여러 장공인들이 화로에서 시뻘겋게 단 화심을 집어들었다.

수질노들, 뢰등석포들, 팔우노에서 거의 동시에 불심지들이 타들며 연기를 토했다. 이어 현란한 화광이 번쩍― 충천하더니 쾅!― 하는 요란한 포성이 울렸다. 뢰등석포가 먼저 불을 토한것이였다.

단숨에 하늘을 짓뭉갤듯 아름드리 돌탄들이 공중으로 날아오르고 그에 질세라 무수한 불화살들이 꼬리를 물었다.

또다시 대동강에 띄워놓은 거루배들로 뢰등석포에서 쏜 돌탄이 날아들었다.

와당탕!― 마사지는 소리에 이어 거루배들은 산산쪼각이 났다.

박원작은 대동강건너기슭에 과녁으로 무져쌓은 짚단에로 불화살들이 내려꽂히고 이어 거기에 불길이 치솟는것을 보았다. 와― 와― 흥분으로 설레이는 사람들 못지 않게 박원작도 격정에 휩싸여 가슴을 그러안았다.

아버지가 살아계시여 오늘을 보았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가. 아버지가 없었다면 아마도 저 《신기한 병기》들은 쉽게 만들어지지 못했을것이다.

근달이 백발수염을 부여잡고 소리쳤다.

《화전을 날려라!―》

그 소리에 수십명의 활든 장공인들이 대동문앞에 벌려섰다.

화약통이 붙어있는 불화살을 화전이라고 부른다.

궁수들이 일제히 화전을 시위에 먹이자 불망치를 쥔 사람들이 바삐 돌아가며 화전의 불심지에 불을 달아주었다.

궁수들은 너도나도 만궁으로 당긴 시위줄을 놓았다.

핑! 핑!—

화전들은 자욱히 연기를 뿜으며 하늘높이 날아올랐다.

활에다 화전을 재워 쏘는 화전놀이는 박원작이 서경에 와서 생겨난 놀이이다.

그가 병마도감사로서 제일먼저 만들어낸것이 화전이다.

화전을 만들어낸 날 그는 너무 기뻐 대동강반의 밤하늘에 무수히 화전을 날리게 하여 불야경을 이루게 했었다.

그때부터 병마도감에서는 새로운 병기를 만들어낼적마다 화전을 날려 경사를 뜻하게 하였다.

연방 하늘로 날아오르는 화전들을 하염없이 지켜보는 박원작은 이루다 말할수 없는 기쁨으로 하여 가슴이 터져나갈것 같았다.

아, 내 한생에 이런 날이 있을줄 일찌기 상상이나 했던가.

박원작은 멀리 개경쪽 하늘을 바라보며 세운 뜻을 성취하고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를 그려보았다.

2

박원작이 거처를 정한 집은 경상골에 있었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는데 웃방을 환히 밝힌 쌍초대는 박원작의 모습을 대낮처럼 드러냈다.

시원하게 펼쳐진 넓은 이마, 그아래에서 정기가 번쩍이는 어글어글한 반달눈…

앉은뱅이책상을 마주한 박원작은 오늘 낮에 있은 수질구궁노의 위력사격때 체험했던 흥분을 되살리며 일찌기 떠나간 아버지와 스승 최충을 생각했다.

십년 공부라더니 8년세월을 하루와 같이 나라의 병기를 일신시키려 분발한 끝에 아버지가 바라고바라던 그 소망을 이루었다. 아버지가 그려보았던 팔우노며 수질노, 뢰등석포들을 다 만들어냈을뿐아니라 새로운 수질구궁노까지 나라앞에 내놓았으니 이제는 나

서 자란 개경으로 떳떳이 돌아갈 때가 되였다.

오늘의 공적은 바로 그 뿌리에 깊은 연원이 있을진대 독불장군이라고 스승이 힘써주지 않았더라면 어림도 없었을것이다.

박원작의 생각은 8년전으로 거슬러갔다.

8년전 박원작의 벼슬은 병기를 만드는 일과 전혀 인연이 없었다. 그때 나라의 병기를 만드는 군기감에서 주부(정8품관)라는 말직벼슬을 지낸 아버지의 뜻을 따르자고 하니 제일 큰 장애물이 관직을 옮기는 일이였다.

학식도 깊고 매사에 깐진 그의 일솜씨를 헤아려서인지 조정에서는 박원작에게 임금의 행차시에 앉을자리며 수라상, 물품을 차리는 일을 주관하는 상사국의 상사봉어를 맡겨주었다. 정6품관으로서 벼슬품계는 비록 높지 못해도 상사봉어는 상사국의 주인자리였다.

임금을 충정으로 받들어모심이 신하된자의 제일가는 도리이고보면 상사봉어를 그만두고 병기를 만드는 관청으로 전직하겠다는것은 사실 불충하고 무엄한 청이 아닐수 없었다.

그렇다고 화약을 구워내는 비방과 함께 화약의 힘으로 오랑캐를 물리칠수 있는 《신기한 병기》들을 만들어낼수 있는 비결을 남겨준 아버지의 뜻을 외면할수도 없었다. 상사봉어의 직분은 아무나 맡아할수 있지만 《신기한 병기》를 만드는 일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닌것이다.

박원작은 생각다못해 나라의 정사를 펼치는 중서문하성에서 우간의대부벼슬을 하는 최충을 찾아갔다. 그에게 있어서 최충은 스승이고 은인이였다.

최충을 처음 만나던 때가 엊그제같은데 벌써 스무해가 지나갔다.

그가 17살나던 봄날이였다. 박원작의 집은 개경 오정방 지네산기슭의 사직동마을에 있었다. 토지신과 오곡신에게 올리는 제를 보려고 사직골에 왔던 최충은 우연히 박원작이네 집앞을 지나다가 느티나무아래에서 책을 읽는 그를 보게 되였다.

더하고 덜고 곱하고 나누는 비결을 적은 산학에 대한 책이 최충과 박원작의 인연을 이어놓았다고 할가.

남들같으면 사서3경을 따라외우느라 열성이겠는데 산학책에 심취되여있는 박원작을 보고 최충은 걸음을 멈추었다.

《젊은인 어찌하여 산학을 파고드나?》

자색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붉은 띠를 띤 그우에 누런 금어(물고기모양의 금장식품)를 찬 벼슬아치가 말을 건네자 박원작은 너무 긴장하여 미처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한참만에 박원작은 산학을 배우는것은 아버지의 분부라고 대답하였다.

《아버지의 분부란 말이지. 옳아, 옳은 분부시다. 산학을 통달한 사람들이 많아야 나라의 문명이 빨라질수 있는거니까. 바란다면 나도 자네의 글공부를 돕겠네.》

이렇게 되여 박원작은 최충을 알게 되였고 그의 문하가 되였다.

최충의 집에는 고금동서의 책이 가득하였다. 산학에 대한 책들도 적지 않았다. 박원작은 그 책들을 마음껏 볼수 있었다.

한해가 지나자 최충은 그를 국자감의 산학과에 넣어주었다.

정말 꿈같은 일이 아닐수 없었다. 아버지가 벼슬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보잘것없는 군기감의 말직벼슬을 하는 집 자식이 국자감에 들어간다는것은 실로 하늘의 별을 따는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였다.

국자감은 나라에서 제일 큰 학당으로서 국자학과, 대학과, 사문학과, 률학과, 서학과, 산학과 등 6개의 학과가 있었다.

정작 산학과에 들고보니 박원작은 한미한 집안출신으로서 분에 넘치긴 해도 아수한감을 금할수 없었다. 앞으로 높은 벼슬을 지내려면 국자학과나 대학과, 적어도 사문학과쯤은 다녀야 한다고 생각됐던것이다.

말타면 견마잡히고싶다더니 무슨 변덕이 이렇담. 분발하고 또 분발해서 국자감시절에 산학을 배우면서 국자학과와 대학과의 학문을 자습으로 습득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배심을 가지고 박원작은 열심히 공부하였다.

국자감을 마친 후에도 최충은 박원작이 더 깊은 학식을 닦도록 남다른 관심을 돌려주었다. 하여 과거에 급제할수 있었고 상사

봉어로까지 출세한것이였다. …

스승의 집이 있는 부산동을 찾아가니 최충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찾아온 사연을 들은 스승은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었다.

《벌써 그랬어야지. 난 언제건 이런 날이 오리라고 믿었네.

그러나 상사국에서 전직하려면 상감마마의 어지를 받아야 해. 그러니 자네가 직접 상주문을 올리라구.》

그날로 박원작은 화약을 쓰는 병기를 만들고싶다는 상주문을 지어올렸다.

며칠후, 상사봉어 박원작을 북계병마도감의 주인인 병마도감사로 전직시킨다는 어지가 떨어졌다.

리부에 나가 임금의 어지를 받은 그날 박원작은 스승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였다.

그가 쓴 상주문이 올라가자 최충은 곧 임금을 청대하였다.

만사에 달통한 넓고 깊은 학식을 소유했을뿐아니라 청렴하고 강직한 최충을 사람들은 《조정의 송죽》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임금은 그에게 충언을 하는 우간의대부직을 맡긴것이였다.

최충은 박원작이 찾아온 날 벌써 맞춤한 자리를 생각하고있었다. 그자리가 바로 서경에 있는 북계병마도감의 주인인 병마도감사직이였다. 그자리야말로 박원작이 자기의 뜻을 한껏 펼수 있는 명당자리였다.

나라의 형편을 손금보듯 환히 꿰들고있는 최충은 북계병마도감의 실태를 잘 알고있었다.

북계를 지키는 군사들에게 병쟁기를 만들어보내주는 서경의 병마도감은 개경의 군기감 못지 않게 재간좋은 장공인들이 많고 시설도 그쯘하였다. 게다가 북계병마도감의 벼슬품계가 정6품이니 박원작의 상사봉어와 같았다.

나라의 법에 벼슬품계는 30개월에 네번 일한 성적을 매겨 《상》을 받았을 때라야 한품계 올려줄수 있게 되여있다. 그러니 박원작을 기일을 끌지 않고서도 전직시킬수 있는 자리는 동급벼슬인 북계병마도감사였다.

어떤 일이든 그 성패여부는 일을 맡은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부

여해주는가에 크게 달려있는 법이다.

북계병마도감사자리에 박원작을 앉히면 병마도감의 주인인 까닭에 누구에게도 제압당하지 않고 마음먹은대로 만사를 내밀수 있을것이다. 허나 개경군기감은 사정이 다르다. 거기에는 3품관인 판사아래에 4품, 5품관들인 감, 소감 등 여러 벼슬아치들이 또 있어 군기감으로 박원작을 돌려놓는다 해도 자기 생각대로 일판을 벌리기 어려웠다.

더우기 군기감은 박원작에게 아물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입혀놓은 곳이다.

최충은 박원작을 제자로 삼은 그날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주부라고 하는 군기감의 말직벼슬을 하던 박원작의 아버지는 보다 위력한 병기를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이였다.

군기감의 벼슬아치들은 그가 하는 일은 애당초 허황한짓이라면서 훼방을 놀았다. 벼슬아치들은 고구려의 조상들이 염초를 구워내서 그것을 재운 불화살로 적진을 불태웠다는 그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군기감의 벼슬아치들이 일찌기 그의 주장을 허심하게 받아들였더라면 고려는 이미전에 화약을 가질수 있었을것이다.

그는 그후 어려운 속에서 《신기한 병기》에 쓸 새로운 화약을 굽다가 뜻밖의 재변을 당해 목숨을 잃었다.

이것을 참작하여 최충은 박원작을 서경으로 보내는것이 좋겠다고 아뢰였다.

최충의 도움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박원작이 부임지로 떠나자 북계군을 통솔하는 병마사에게 그가 요구하는것이라면 다 들어줄것을 긴히 부탁도 하였고 여러차례 서경에 내려와 병마도감의 실정을 알아보고 걸린 일감을 풀어주었다. …

웃방문이 열렸다.

안해 해연이 조용히 들어서며 나직이 말했다.

《그러다 뜬눈으로 밤을 밝히겠나이다.》

박원작의 얼굴에 미소가 어려들었다. 한떨기 꽃처럼 청초한 젊은 안해를 대할 때면 마음이 즐거워지는 그였다. 서경미인을 안해

로 맞았으니 이 또한 복이다.

《이젠 그만 앉아계시고 내려가 쉬시오이다.》

박원작은 벌씬 웃으며 대꾸했다.

《목소릴 낮추오. 그러다 애가 깨여나겠소.》

《깨여나면 뭐라오이까.》

해연에게 이끌린 박원작은 아래방으로 내려가 잠자리에 들었으나 스승에 대한 생각은 인차 지워지지 않았다.

3

다음날, 여느날처럼 아침일찍 말을 달려 병마도감에 이른 박원작은 한동안 넓은 마당에 서서 감회롭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상서로운 기운이 떠돈다 해서 서기산(해방산)이라 불리우는 아담한 야산을 배경으로 넓은 부지에 터를 잡은 병마도감은 개경군기감에 비길만큼 크고 웅장했다.

여기서는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병기도 쾅쾅 만들어낼수 있었다. 개경군기감처럼 쇠를 녹이고 단련하는 련장, 화살을 만드는 전장, 화살촉을 깎아내는 전두장, 검과 창을 벼려내는 장도장과 모장, 쇠갑옷이며 가죽갑옷을 짓는 백갑장, 피갑장, 화살통과 노살통을 만드는 노통장같은 장들이 그쯘하다. 어찌 그뿐인가. 아직은 개경군기감에 없는 염초장까지도 있었다.

염초장이야말로 서경의 자랑, 고려의 자랑이라고 소리칠만 하다.

오늘은 염초장에서 화약을 만드는 날이다. 염초장에서 장공인들이 염초를 구워내면 박원작은 그것을 가지고 직접 화약을 만들었다.

날이 밝자마자 병마도감에 나와있던 돌석이 그를 띠여보고 급히 달려와 절을 차렸다.

《병마도감사님! 밤새 편안하셨소이까?》

《아, 자넨가?》

박원작은 누런 베옷을 깨끗하게 차려입은 돌석을 유심히 훑어보았다.

보통키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큰데 며칠전과 달리 코밑에 제법 수염이 돋아있었다.

(허— 이녀석이 언제 수염을 다 길렀나.)

스무살을 겨우 넘긴 돌석은 병마도감의 여러 행수들가운데서 나이가 제일 어리다. 련장행수 근달의 막내아들이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른 행수들한테서 젖비린내난다고 놀림을 받군 한다. 아마 그것이 싫어 코수염을 길렀으리라.

《가자구.》

박원작은 돌석이를 뒤에 달고 염초장으로 향했다.

염초장은 다른 장들과 달리 서기산으로 치우쳐서 병마도감의 한끝에 있었다. 박원작이 북계병마도감사로 부임되여와서 새로 지은 염초장은 한길높은 담장으로 둘러쳤는데 그안에 넓은 뜨락을 가진 배집지붕의 기와집이 있다.

박원작은 화약의 비방을 엄수하려 파악이 있는 근달행수의 아들 돌석이에게 염초장을 맡기였다.

서경에 와서 제일먼저 낯을 익힌 근달은 지내보니 대가 세고 정직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돌석이도 믿음이 가는 젊은이였다.

염초장은 병마도감에서 제일 바쁜 일터의 하나다.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염초장이다보니 한해에 수만근의 화약을 만들어내야 했다. 염초장에서는 수십명의 장공인들이 허리 펴볼사이없이 온종일 힘들게 일한다.

박원작은 돌석이 열어주는 대문으로 들어섰다. 흙무지며 재무지들이 뜸으로 덮여있고 수십개의 크고 작은 독들이 널려있는 넓은 뜨락이 한눈에 안겨왔다.

뜨락을 지나 박원작은 주먹 넷을 합친것만한 자물쇠가 걸려있는 기와집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돌석이 급히 허리춤에서 장도칼만큼 큰 열쇠를 뽑아들었다.

《덤비지 말게.》

《알겠소이다.》

돌석이 열쇠를 들이밀어 철컥 자물쇠를 열었다.

박원작은 제 손으로 문고리를 쥐고 천천히 문을 당겼다. 삐꺽—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안에 들어선 박원작은 흐뭇하였다. 습기가 찰세라 불을 땐 방은 훈훈한데 벽에 기대앉힌 궤짝마다에는 염초며 버드나무숯가루가 가득하였다.

얼마나 깨끗하게 거두었는지 살림방같았다. 키큰 놈 싱겁지 않은 놈 없다는데 여느때는 싱겁기 짝이 없는 돌석이 염초장만은 늘 깐깐하게 살피고 일솜씨 또한 알뜰하기 그지없다.

《그럼 일해볼가.》

박원작의 말에 돌석이 구석에 세워둔 멍석을 안아다 바닥에 폈다.

박원작은 웃동을 벗고 되박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궤짝에서 염초부터 퍼내 멍석우에 쏟았다. 되박질을 하면서 그는 속으로 셈세기를 하였다.

염초 80되박에 버드나무숯가루를 20되박 섞은것이 박원작이 만든 화약이다. 그러고보면 화약을 만드는 일이자 염초(KNO_3)를 구워내는 일이라고 말할수 있다.

염초를 얻어내자면 먼저 흙을 바로 취할줄 알아야 한다. 이를 《취토》라고 한다. 제일 좋기는 가마밑이나 온돌밑의 흙이고 그다음은 마루바닥이나 담벽밑의 흙을 취해야 한다. 흙맛을 보면 맵거나 달거나 써야 하며 짜면 습기를 빠는 흙으로서 좋지 않다.

《취토》 다음에는 《취회》라고 다북쑥재나 벼짚재를 모아들이는 일이다. 소나무재는 쓸수 없으며 잡초재나 나무재도 그닥 좋지 않다.

좋은 흙에 좋은 재가 마련되면 《교합》을 하는데 그것은 흙과 재를 각각 10말씩 고루 섞는것이다. 그다음 밑에 잔구멍들이 여러개 뚫린 독을 가져다 그안에 우물 정자로 나무를 얹고 그우에 가는 발을 편다. 그리고 교합한 흙과 재를 넣고 물을 부으면 독밑으로 물이 새여나온다. 독밑으로 흘러나온 물을 받아 가마에 넣고 끓일 때 코를 찌르는 오줌내 비슷한 냄새가 난다. 계속 불을 때여 물

을 다 날려보내면 거무스름한 깡치가 남는다. 그 깡치를 맑은 물을 타서 달이고 다시 물에 타서 세번 달이면 희유스름한 가루가 되는데 그게 바로 염초다.

염초를 얻으려고 두번째 달일 때 아교를 넣으면 습기가 끼는것을 막고 나쁜 기운을 없앨수 있다.

염초를 퍼내는 박원작의 눈에 문득 아버지의 모습이 우렷이 안겨왔다.

어린시절 박원작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나가살다싶이하는 아버지는 어쩌다 집에 들어와도 날이 밝기 바쁘게 다시 군기감으로 나가군 하였다. 하여 박원작은 거의나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자랐던것이다.

그가 아버지에 대해서 좀 알수 있었다고 말할수 있은 날은 그에게 있어서 잊을수 없는 슬픔의 날이였다.

그날은 그가 국자감에 들어간지 한해가 지난 여름날이였다. 첫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인데 산학박사(산학교원)가 찾아와 하는 말이 집에 급한 사정이 생겼으니 어서 돌아가보라는것이였다.

아침에 집을 나올 때도 아무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일가.

책을 꿍져들고 집에 돌아오니 뜨락에 낯익은 사람들이 서성댔다. 가끔 땔감도 해오고 음식감도 가져오던 군기감의 장공인들이였다.

여느때같으면 훌륭한 일을 맡아하는 아버지를 모시고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그들이 그날은 박원작을 보고 말을 걸기는커녕 본척도 하지 않았다.

장공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어둑컴컴했다.

불안한 생각이 갈마들어 허둥지둥 달려가 방문을 여니 웬 사람이 아래목에 누워있는데 그곁에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있었다. 누워있는 사람은 뜻밖에도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병이 났을가?…)

방에 들어선 박원작은 눈이 휘둥그래졌다. 아버지의 얼굴이 험상하게 터져있었던것이다.

소스라치게 놀란 그는 몸부림을 치며 소리쳤다.

《아버지!— 이 어찌된 일이오이까?》
장공인들이 따라들어와 박원작을 부축했다.
《이 사람, 진정하게. 아버지는 화약을 태우는 시험을 하다가 그만…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다치셨네.》
인차 의원이 왔다. 한참 아버지를 살피고난 의원은 한숨을 내쉬였다. 그가 약을 발라주고 또 어떤 약을 먹이였는데 아버지는 깊은 잠에 든듯 깨여나지 못하였다.
새벽녘에 피딱지가 앉은 아버지의 입술이 우물거리더니 《원작아—》하는 가냘픈 목소리가 새여나왔다. 아버지의 머리맡을 지켜 앉아있던 박원작은 정신이 펄쩍 들었다.
《아버지! 소자 예 있소이다.》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책을… 하나 줄게다. 거기… 이 아비가 하는… 일이 적혀있다. 그… 그걸 부탁한다.》
좀 있어 아버지의 몸이 서서히 굳어졌다.
《아버지!—》
아버지는 그렇게 갔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날 어머니는 책을 하나 꺼내주었다. 표제가 없는 책인데 첫장을 펼쳐보니 아버지가 쓴 글이 적혀있었다.
그 내용은 대체 이러했다.
… 여러 옛 기록을 보면 선조의 나라 고구려에는 침노하는 오랑캐들을 무리로 불태워 족칠수 있는 《신기한 병기》가 있었다고 한다. 기름을 쓰지 않고서도 적진을 불지를수 있는 고구려의 《신기한 병기》는 바로 염초라는 신기한 보배에 그 비결이 있다.
나의 부친은 경술년(1010년)에 거란오랑캐의 괴수 성종이 끌고 기여든 40만대군과의 싸움에서 잘못되였다. 그때 부친은 별장(정7품관의 무관)으로서 곽주성을 지키였다. 강승약패라고 병기가 취약하고 그마저 부족한탓에 군사들은 굴함없이 싸웠건만 성은 무너지고말았다.
아, 실로 원통하고 분한 일이 아닐수 없다. 고구려처럼 고려에도 적을 불지르는 《신기한 병기》가 있었더라면 거란오랑캐

에게 그런 수치를 당할수 있었겠는가. 천추만대에 길이길이 통탄할 일이로다. …

몇장을 또 번지니 이런 글이 안겨왔다.

…항간에 남아있는 옛적 고서들을 찾아 읽고 많은 늙은이들을 만나보니 고구려의 《신기한 병기》들에 쓰인 보배의 륜곽이 어렴풋하게 잡힌다. 몇해동안 고심하여 마침내 그 보배가 다름아닌 염초라는것을 알게 되였고 이 손으로 그것을 구워낼수 있었다. …

아버지는 자기가 구워낸 염초의 비방을 또박또박 적은 다음 그에 대한 평도 써놓았다.

… 염초를 화살대에 매달아서 불태워 날리니 적진을 불지름에 있어서 실로 위력하기란 상상도 할수 없다. 허나 옥에도 티가 있다고 그 염초에도 부족함이 있었다. 염초가 더 빠르고 더 고르게 탄다면 보다 더 위력할게 아닌가. 지금의 염초는 빨리, 고르게 타지 못하여 센불과 센 힘을 얻지 못한다.

후세는 전세대보다 현명하다는 말이 있다. 후진들을 고무격려하려는 선대들의 뜻이 어려있는 명답이라 해야 할것이다. 마땅히 후세는 전세대를 앞서나가야 한다. 고구려의 선조들이 물려준 염초를 보다 더 위력해지도록 만드는것은 그 후손들의 응당한 도리일것이다.

이런 마음을 안고 몇해 고심하니 염초를 더 빨리, 더 고르게 태울수 있는 비방을 알수 있었다. 바로 흔한 숯, 더 좋기는 버드나무숯이나 오동나무숯을 가루낸 그것이 염초를 더 세게, 더 고르게 탈수 있게 하는 비결이였다.

수십수백번의 시험끝에 염초 8말과 버드나무숯가루 2말을 섞은것이 제일 위력하다는것을 밝혀냈다. 그것을 염초와 구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타는 약, 즉 화약이라는 이름을 새로 붙이였다. 아직은 입에 설지만 장차 그 말이 나라에 있어서 보배스런 이름으로 불리워질것이다. …

또 몇장을 넘기니 수질노와 팔우노, 뢰등석포들의 그림이 그려져있었다.

아버지가 실지 그런 병기들을 만들어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첫

눈에 그것들을 만들어내고싶은 욕망이 솟구쳤다.

그날 비로소 박원작은 왜서 아버지가 노상 집을 나가 살다싶이했는지 알수 있었다.

그런데 납득되지 않는것은 화약과 《신기한 병기》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비방을 알고있는 아버지가 어이하여 화약을 태우는 시험을 또 하다가 그런 참변을 당했는가 하는것이였다.

그 의문은 썩 후날에 가서야 풀수 있었으니 아직까지는 그것이 수수께끼로밖에 될수 없었다.

자식의 제일 큰 도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것이다.

그날 박원작은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기어이 해내리라 마음다지였다.

그러나 앞길은 가고싶은데로 열려지는것이 아니였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서니 생각밖에 임금을 가까이에서 섬겨야 하는 상사국의 벼슬이 맡겨졌다.

신하된자로서 조정의 분부를 공손히 받드는것이 충정일진데 어찌 거역할수 있단 말인가.

박원작은 임금을 모시는 일에 사소한 흠이 생길세라 온갖 심혈을 다 바치는 그속에서 틈을 내여 제 손으로 염초를 구워냈고 화약을 빚어 불태워보면서 《신기한 병기》를 만들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였다. …

염초를 퍼내다말고 우뚝 서서 자기 생각에 빠진 박원작을 지켜보다못해 돌석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병마도감사님.》

거듭 부르는 소리에 생각에서 깨여난 박원작은 어색해하며 얼버무렸다.

《허… 이거 야단났군. 몇되박을 퍼냈는지 알수가 있나.》

《되박질이야 다시 하면 뭘하나요? 소인에게 주시오이다.》

《좋아.》

돌석이의 손에 되박을 넘겨준 박원작은 새로 만든 수질구궁노의 위력사격이 뜻대로 되였으니 이 기쁜 소식을 속히 조정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4

양각도를 마주한 외성의 고리문근처에는 고래등같이 큰 기와집이 있었다. 북계병마도감에서 병마도감사 다음가는 소감벼슬을 하는 남권부가 사는 집이였다.

일찌감치 저녁상을 물린 남권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애젊은 안해와 비단이불을 쓰고 자리에 들었다. 안해 마씨는 조금 뒤치락거리는것 같더니 어느새 쌔근쌔근 잠들어버렸다. 하지만 남권부는 앙앙불락하는 마음이 그냥 치밀어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눈이 말똥해서 저 혼자 속으로 병마도감사를 욕질했다.

박원작이 어쩜 그럴수 있단 말인가. 이 남권부가 병마도감의 두번째 주인으로서 개경에 놋쇠를 가지러 갔으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수질구궁노의 위력사격을 하는게 옳지 제 혼자 그 큰일을 수염 빽 쓸고 해치워야 옳단 말인가.

이건 박원작이 이 남권부를 하찮게 본다는것이다. 그가 언제부터 나를 그렇게 대하기 시작했단 말인가.

이번일이 처음이긴 해도 그건 이제 시작에 불과한것이라고 생각됐다. 어제 개경에서 돌아와 소문을 들으니 며칠전에 박원작이 이 남권부도 모르게 수질구궁노를 성공했다면서 그것을 많이 만들어 군진에 보내주겠다는 표문을 임금께 올렸다고 한다.

그 표문을 받아보게 되면 임금은 분명 박원작이만을 크게 알아주고 내세워줄것이다.

그래 이게 공정한 처사란 말인가. 이러나저러나간에 8년세월 함께 손잡고 일했으면 가장 큰 자랑거리를 두사람의 이름으로 임금에게 알리는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제 임금은 박원작이에게만 큰 상도 내리고 높은 벼슬도 하사할것이요 적어도 개경군기감의 주인자리쯤은 맡겨줄게 뻔하다. 그러면 《신기한 병기》에 도통한 박원작은 곧 군기감의 판사로 출

세하여 공명과 부귀를 떨칠것이다.
박원작이 선손을 써서 군기감으로 올라가면 이 남권부만 홀로 남아 개밥의 도토리신세로 종신 타향살이를 면치 못할것이다. 아니, 그것으로 끝나면 오죽이나 좋겠는가. 보나마나 조정에서는 선심이나 쓰듯 병마도감사의 자리에 이 남권부를 눌러앉힐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불없이 나의 무식이 드러나 조만간에 파직은 갈데가 없을것이다.
이럴줄 알았으면 애초에 박원작을 쫓아 서경행을 하지도 않는것인데…
남권부는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 시름깊은 한숨을 내뿜었다.
권세도 당당하고 만금재물도 가진 큰 벼슬아치가 되라는 뜻에서 권부라는 이름을 지어준 그의 아비는 조정에 술과 감주를 빚어 바치는 량온서란관청에서 말직벼슬을 지냈다. 원래 욕심이 사나운 그는 몰래 나라의 술을 팔아먹다가 덜미를 잡혀 벼슬살이 몇해만에 파직되였고 그것이 울화병으로 번져져 죽고말았다. 남권부는 국자감도 나오고 맨 말석의 성적으로나마 과거에 급제하였지만 아비의 좋지 못한 행실때문에서인지 조정에서는 그에게 나라의 잡다한 토목공사를 주관하는 관청인 장작감에서 그것도 마지막벼슬자리나 내주었다. 먹을알이 별로 없이 날마다 토목공사에 부대껴야 하는 벼슬에서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그에게 몸살이 날 지경으로 지겨운 나날이였다.
바로 그때 상사봉어벼슬에서 북계병마도감사로 전직된 박원작이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었다. 박원작은 그가 국자감을 다닐 때 같은 학과는 아니지만 같은해에 입학하여 글을 배운 동배였다.
때로는 별치 않은 일이 한생에 잊지 못할 인연을 맺어주기도 하는것 같다. 국자학과에 적을 둔 남권부로서는 박원작과 동배라고는 하지만 학과가 다르다보니 겨우 풋낯이나 아는 정도였다.
어느날 남권부는 말을 타고 달리다가 굴러떨어져 발목을 상한 일이 있었다. 때마침 길을 가던 박원작이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하고 제멋대로 날뛰는 말을 나꿔채여 남권부를 태운 다음 그의 집

으로 데려다주었다.

이것이 곧 인연이 되여 남권부는 박원작과 남다른 친교를 맺게 되였다.

후날 그때의 정을 잊지 않고 함께 서경으로 가서 병기를 만들어보자고 박원작이 청했을 때 남권부는 눈물이 나도록 고마왔다. 남권부는 이어 박원작의 주선으로 장작감에서 나와 서경행을 하여 병마도감사 다음가는 벼슬인 병마소감이 되였고 주로 병기를 만드는데 소용되는 놋쇠를 개경에서 받아오고 또 병마도감에서 만든 병기들을 여러 군진들에 나누어주는 일을 맡아하였다. 그 일은 장작감의 일자리에 비하면 먹을알도 있고 땅짚고 헤염치기만치나 헐한 일이였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아들였던가. 박원작의 그늘밑에서 개경시절때는 도저히 바랄수 없었던 횡재를 해왔는데 그가 이제 개경으로 가버린다면 돈벼락줄도 조만간에 끝장나고말것이다.

보나마나 박원작이 군기감으로 출세해올라가면 이곳의 염초장도 옮겨가려고 할것이다. 그러면 더는 화약을 빼내서 팔아먹지 못하게 될것이다. 이것은 분명 내 신세에 비낀 망조가 아니라 할수 없다.

남권부는 생각할수록 밸이 뒤틀려 그만 비단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앉았다.

운수가 기울어져가고있는데 속수무책할수 있는가.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가. 제일 좋은 상책으로는 조정의 세도가한테 매여달리는것인데…

이사람 저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지꿎게 생각을 톺던 남권부는 어느결에 무릎을 쳤다.

이번에 중추원의 지원사(종2품관)로 출세한 리자연이 불쑥 생각키웠던것이다.

임금에게 올리는 상주문을 받아들이고 어명을 하달하며 군사에 관한 일을 맡은 중추원에서 종2품의 지원사를 하는 리자연이라면 당당한 권신이라고 할수 있다.

국자감시절 국자학과에서 함께 학문을 닦은 리자연에게 낮추붙어 손을 내밀면 자기의 소청을 들어줄것 같았다. 물론 그가 높

은 벼슬에 오르자 남권부를 쓴외보듯 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한테는 남권부보다 더 가까운 학우가 없었다.

사실 남권부는 지난날 리자연을 학우로서가 아니라 상전으로 여기고 섬기였다.

관청의 술을 탕진하다 파직된 아비가 울화병으로 죽어버리자 가난에 시달리게 된 남권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벼슬아치가 되여 부귀영화를 누려야 한다는 야심으로 이를 갈았다. 집에 들면 몰락한 집안이 가져다준 생활고가 여기저기에 서려있고 밖을 나서면 잘사는 량반집자식들의 깔보는 눈초리가 그의 야심에 부채질을 하였다.

어떻게 해야 남을 디디고 올라서서 큰소리치며 잘살아볼수 있을가? 지금 당장은 굴욕스럽다 해도 세도줄을 쥐는것이 땅수일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세도줄을 어떻게 타야 할가?

기다렸다는듯 그런 기회가 찾아들었다. 그때가 남권부의 나이 열여섯살이 나던 겨울일것이다.

수창궁곁에 있는 마을복판에는 대궐같이 큰 추녀높은 기와집이 있었다. 그 집에서 상서우복야(상서성의 종2품관)라는 높은 벼슬을 가진 고관이 살고있었다.

어느날 그집 맏아들인 리자연이 연띄우기를 하였다. 한동네에 산다지만 하바닥 량반집쯤은 왼눈으로도 안보는 리자연이여서 남권부는 그와 통성조차 할수 없었다.

저만 사람이라 우쭐대던 리자연이 날리던 연은 볼꼴사납게 매에 쫓기는 까투리처럼 갑자기 곤두박질을 치더니 동네앞의 느티나무가지에 걸리고말았다.

어떻게 하면 동네에서 제일 큰 벼슬아치집과 가까와질수 있을가 하는 생각으로 리자연의 주위에서 맴돌던 남권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속으로 환성을 올렸다.

때는 바로 이때로다!

리자연이 울상이 되여 어쩔줄 몰라할적에 남권부는 이를 악물고 아찔하게 솟은 나무꼭대기에 기여올라가 연을 풀어내렸다.

《넌 이제부터 내 친구다!》 하고 리자연은 어깨가 으쓱해서 연을 받아들며 나무를 오르내리느라 땀에 젖은 남권부의 가슴을 주

먹으로 툭 쳤다.

그날부터 남권부는 두살이나 아래인 리자연을 친구가 아니라 형이라 부르며 그의 비위를 맞출수만 있다면 얼굴뜨거운짓도 가리지 않았다.

그에 감동된 리자연은 후날 국자감에 들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남권부를 국자학과에 받아주도록 하였다.

그날 남권부는 남을 섬기는 일이 비굴하긴 해도 그 대가가 결코 눅거리가 아님을 간파하였다.

남권부는 더욱 열성을 부려 리자연에게 아첨을 하였다. 하루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리자연의 견마도 잡아주었고 지어는 그가 말에서 내려 땅에 앉을 때 펼 돗자리까지 지고다녔다.

그 신세를 잊지 않고 리자연은 과거장에 나갈 때도 남권부를 데리고갔다. 그의 힘을 얻어 남권부는 맨 꼴찌의 성적이긴 해도 과거에 급제할수 있었다. 리자연이 아비의 친지들에게 긴히 부탁하여 남권부를 급제시켜주었던것이다.

관직의 차이는 친구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더니 그 말이 그른것 같지 않았다. 과거에 급제한 후 조정벼슬아치들을 떼고 붙이는 리부에서도 노란자위라고 할수 있는 랑중자리를 차지한 리자연은 권세없는 장작감에서 자질구레한 토목공사에 불려다니는 남권부를 왼눈으로도 보려 하지 않았다. 남권부가 몇번씩이나 먹을알이 있는 관청으로 돌려달라는 청을 가지고 리자연을 찾아갔지만 그때마다 문전거절을 당하군 하였다.

여지껏 그만큼 덕을 보았으면 됐지 무슨 렴치로 벼슬길에까지 따라다니며 귀찮게 구는가 하는 심산인것 같았다.

에라, 이것도 하늘이 정해준 운수렷다. 그래도 지금의 신세가 가물철 웅뎅이의 올챙이신세보다는 나으니 그런대로 살아보자 하고 어깨를 움츠리고 장작감에서 시키는 하찮은 일을 따라다니는데 뜻밖에도 박원작이 찾아와 서경길을 청했던것이다.

그를 따라 서경에 자리잡고 한창 살만해졌는데 무슨 감투끈인지 리자연의 동생 리자봉이 만나기를 청해왔다.

아마도 그게 이태전 놋쇠를 받으려 개경에 가있을 때일것이다. 군기감의 객관에 여러날째 머물러있는데 외국사신들을 접대하여 주연을 베푸는 일을 맡은 례빈성에서 소경벼슬을 하는 리자봉이 그를 찾아왔다.

리자봉은 그사이 급사중(중서문하성의 종4품관)으로 승진한 형이 국사로 몹시 바빠 틈을 낼수 없어 자기를 대신 보냈노라면서 리자연의 부탁을 전해주었다.

리자연의 부탁이란 자기는 아직 군사와 관련된 일을 직접 주관할수 없어 그러는데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도읍을 지키는 경군에 우선적으로 팔우노며 뢰등석포 같은 《신기한 병기》들과 화약을 더 많이 보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것이였다. 한때는 남권부 자기를 헌신짝버리듯 했던 리자연이 무슨 바람이 불어 그런 부탁을 하는지는 알수 없어도 그 분부를 거스를수 없었다.

그래서 박원작에게 전했더니 그는 대뜸 옳은 말이라며 받아들였다. 하여 서경병마도감에서는 경군에 《신기한 병기》들을 더 많이 보내주게 되였다.

지난해 남권부가 개경에 갔을적에 례빈성의 주인인 판사로 출세한 리자봉이 조용히 그를 불러 형이 한상 내는것이라면서 객관의 뒤골방에다 요란한 음식상을 차려주었다.

술이 거나해진 리자봉은 이제 곧 형이 조정3재로 높이 출세할것같은데 그러면 국자감의 학우들을 잊지 않고 돌봐줄거라는 귀맛 좋은 소리를 했다.

헤여지기에 앞서 그는 은전이 든 묵직한 돈궤를 안겨주더니 화약의 비방을 꼭 배우라고, 그래야 개경의 군기감으로 승급해와서 잘살아볼게 아니냐고 하였다.

이번 개경길에서 만났을 때에도 리자봉은 침을 놓듯 또 그런 말을 꺼냈었다.

그런데 화약의 비방을 배운다는게 조련한 일이 아니였다. 복잡하고 까다로와서라기보다 박원작이 그 비방이 새여나가지 못하게 엄중단속하기때문이였다. 어찌나 엄중단속하는지 염초장의 장

공인들이 다 행수 돌석이녀석처럼 화약소리라면 말도 붙이지 못하게 했다.

허나 이제는 화약의 비방을 알아낸다한들 행차후 나발격이다.

제길, 박원작이 그자는 임금의 은총을 독차지하여 군기감으로 출세해가겠으면 가라지,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리자연에게 도와달라는 청이 담긴 글월을 써보내면 그가 박원작이 부럽지 않게 개경의 세도있는 관청으로 승급시켜줄것이다.

어디 누가 더 잘되는가 두고보자.

마음의 안정을 찾은 남권부는 쌕쌕 코를 고는 마씨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5

오늘은 박원작이 병마도감을 일일이 돌아보는 날이다. 그는 부재중을 내놓고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닷새에 한번씩은 꼭꼭 온 병마도감을 구석구석 돌아보는 습관이 있었다.

검과 창을 벼려내는 장도장과 모장을 돌아보고 련장에 들어서니 백발의 근달이 반색하며 박원작에게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였다.

그는 놋쇠를 녹이는 철덕(용광로)을 가리키며 말했다.

《병마도감사님! 오늘도 뢰등석포 스무문은 넉넉히 부어낼수 있겠소이다.》

《아, 그렇소? 아주 좋소.》

박원작은 얼굴이 환해져서 고개를 끄덕이였다.

련장행수 근달은 몸은 비록 늙었지만 한번 한다고 하면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강의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말이라면 덮어놓고 믿는 박원작이였다.

박원작이 장공인으로서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물론 근달행수이다. 처음 서경에 왔을적에 병마도감의 실정을 속속히 알려준 사

람도 근달이였고 새로 염초장을 지을 때도, 《신기한 병기》를 만들어내는 일에서도 누구보다 의지한 사람이 그였다.

병마도감에서 근달은 제일 나많은 좌상일뿐아니라 제일 오래 일한 장공인이다.

북계병마도감은 고려건국시기 옛적에 황페화되였던 서경을 일떠세울 때 선참으로 지었다고 한다. 그 시기부터 근달이네는 대대로 병마도감에서 일해왔다.

근달은 한창 젊었을적에 병마도감을 찾아온 서희장군까지 만나본 사람이다. 당시 중군사로 수만군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침노한 거란군을 견제하던 서희장군이 병마도감을 돌아보다가 오랜 장공인인 근달의 아버지에게 장검을 하나 벼려줄수 있는가고 물었다.

《잠간만 기다려주소이다.》 하고 대답한 근달의 아버지는 수십번을 단련한 좋은 강쇠를 골라내여 제꺽 장검을 벼리였다.

쇠도 자를만큼 서슬푸른 칼날이며 룡이 부각된 손잡이를 만족스레 들여다보면서 장군은 치하를 아끼지 않았다.

《이 검은 정말 보기 드문 보검이요. 과시 룡천검이라 하겠소.》

장검을 허리에 찬 서희장군은 준마를 타고 서경을 떠나갔다.

수십만대적이 욱실거리는 적진으로 위풍당당히 들어간 서희장군은 오랑캐군의 적장 소손녕과 마주앉았다고 한다.

그때 조정에서는 벼슬아치들이 거란군의 대거침입에 겁을 먹고 항복해야 한다느니, 서경이북땅을 떼여주고 절령(자비령)을 국경으로 삼아야 한다느니 하고 갑론을박하고있었다.

서경장공인들이 벼려준 장검을 허리에 찬 서희장군은 이미 고구려의 대부분땅을 저희가 차지했으니 그 나머지땅도 마저 내놓아야 하지 않는가고 궤변을 줴치는 적장의 황당한 요구를 즉석에서 이렇게 눌러버렸다고 한다.

우리 나라는 고구려의 후계국으로서 국호도 고려라 하였으며 사람들 또한 고구려의 후손들이다. 그러니 거란은 응당 압록강이북의 광활한 고구려의 옛땅을 전부 그 후손들에게 넘겨주는것이 옳은 처사가 아니겠는가.

그때 말문이 막혀버린 적장은 쩔쩔매다가 화제를 돌려 고려는 거란의 적국인 송나라와 국교를 맺고있는데 그럴 법이 어데 있는가고 우격다짐으로 걸고들었다.

서희장군은 보검을 절그럭거리며 우리 나라는 옛적부터 동방례의지국으로서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천하의 모든 나라들과 사절들을 통하고 교역을 한다, 거란도 이웃의 린방으로서 례의를 갖추어 화친을 바란다면 다른 나라들처럼 좋은 대접을 받을수 있다고 명쾌한 대답을 해주었다.

담판에서 기가 죽은 적장은 그만 패배를 자인하고 퇴군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고보면 서경성사람들이 서희장군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고 할수 있다.

박원작이 이런 생각을 하며 철덕에서 놋쇠물을 받아 뢰등석포를 부어내는 장공인들을 지켜보고있는데 남권부가 찾아왔다.

《박공! 웬 늙은이가 공을 꼭 만나겠다누만.》

박원작은 별로 심드렁해보이는 남권부의 표정이 의아했지만 손님이 찾아왔다는 소리에 더 개의치 않았다.

《함께 가서 만나봅세.》

련장칸앞의 넓은 마당에서 등굽은 로인이 서성대고있었다.

《저 늙은이요.》

남권부의 말에 그리로 다가가니 로인이 이쪽으로 돌아서는것이였다. 첫눈에 도사같은 체취가 느껴졌다.

박원작은 백발의 로인들에게 늘 그러했듯 두손을 모아잡고 깍듯이 절을 차렸다.

《제가 병마도감사올시다.》

례절을 차려 공손히 맞절을 하는 로인의 얼굴에는 미안해하는 기색이 어려있었다.

《병마도감사님, 바쁘실텐데 틈을 빼앗아서 안됐소이다. 실은 〈신기한 병기〉를 만드신 어른에게 인사를 드리고 겸사해서 한가지 여쭙고싶은게 있어 찾아왔소이다.》

《로인님, 아들벌되는 사람에게 말씀을 낮춰주소이다. 우리

안에 들어가 이야길 나누는게 어떻소이까?》

박원작은 로인의 팔을 잡아 안침진 곳에 자리잡은 별관으로 이끌었다. 별관방은 언제나와 같이 깨끗하게 정돈되여있었다.

박원작에게 이끌려 따스한 아래목에 앉은 로인은 자기 소개를 하였다.

《난 올봄에 동족의 나라 고려로 넘어온 발해의 망국민인데 성은 대씨올시다.》

박원작은 보다 반가움을 금할수 없었다.

거란오랑캐에게 동족의 나라 발해가 망한지도 어언 백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발해유민들이 살 길을 찾아 끊임없이 압록강을 건너오고있다. 그들을 따뜻이 맞아들이고 근심걱정없이 잘살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것은 동족으로서 고려사람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할수 있다.

《고려에서는 나와 함께 온 발해유민들을 서경성에서 살도록 자리를 잡아주었소이다.

참, 병마도감사님도 십여년전에 온 거란을 쑤셔놓은 벌둥지처럼 뒤흔들어놓았던 흥료국을 알것입니다.》

그 말에 박원작은 가슴이 쓰리였다. 고려사람들치고 흥료국의 건국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것이다.

기사년(1029년), 발해유민들이 마침내 거란에게 빼앗겼던 땅을 수복하고 흥료국을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고려가 환희에 휩싸였다.

박원작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발해유민들이 세운 나라 흥료국이 한때 해동성국으로 존엄을 떨쳤던 발해처럼 흥성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동경(료양)에 도읍을 정하고 《천흥》이란 년호까지 선포한 흥료국의 임금 대연림은 발해의 건국시조 대조영의 7대손이였다. 그는 흥료국을 건국한 즉시로 형제의 나라 고려에 봉명사신단을 파하여 군사적지원을 줄것을 요청하였다.

그 소식을 접한 고려군사들과 백성들은 무려 세차례씩이나 이 땅에 기여들어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운 거란오랑캐들을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갓 일어난 흥료국의 청을 들어줄것을 절절하게 바랐다. 장수들도 그들과 같은 생각이였다.

그러나 조정벼슬아치들은 발해유민들을 도와 거란과 대결하는것이 나라에 리로운지 불리한지 알수 없다면서 흥료국의 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 박원작은 조정의 온당치 못한 처사에 분격했다. 민심이자 천심이라고 하였다. 민심은 같은 겨레의 나라 흥료국을 도와줄것을 기대하고있는데 그 민의를 외면하다니…

흥료국은 그 다음해에도 무려 세차례씩이나 임금의 형인 대연정까지 봉명사신으로 고려에 보내여 군사를 보내줄것을 간청하였으나 여전히 조정의 벼슬아치들은 말공부만 하면서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발해의 재건을 바라고 일떠선 청소한 흥료국은 결국 건국한 그 이듬해말에 거란군의 공격으로 무너지고말았다.

흥료국이 망했다는 불행한 소식이 전해왔을 때 박원작은 치솟는 분노를 터뜨렸다.

도대체 조정대신들한테는 동족에 대한 정이 한쪼각도 남아있지 않단 말인가!…

눈물이 글썽해서 대씨로인은 말했다.

《사실 난 흥료국왕과 8촌지간이지요. 우리 흥료국이 망한것을 여러가지로 볼수 있지만 제일 가슴아픈것은 역적들때문에 망했다는 그것이오이다. 생사를 함께 하자고 굳게 언약했던 우리 사람들이 배신할줄이야. … 아마 황룡부(지린성 농안일대)에서 대군을 거느린 황편이란 장수가 거란군을 치라는 임금의 령을 따랐더라면 흥료국은 그렇게 쉽게 망하지는 않았을것입니다. 이미 발해사람이기를 그만둔 그놈은 동족을 배반하고 거란에 가붙었소이다. 어찌 그놈뿐이겠소이까. 압록강남쪽 보주성(의주)의 장수 발해태사 하행미놈은 임금에게서 받은 밀령을 동경통군사에게 알려주고도 모자라 성안에 있던 동족군사들을 무려 800여명이나 잡아죽였소이다. …》

박원작의 불끈 쥔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그는 대씨로인을 통하여 흥료국이 무너진 까닭을 알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 고려가 적극 흥료국을 도와주었더라면 망하기까지는 않았을것이다.

조정은 흥료국을 돕자는 군사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오죽했으면 몇몇 장수들이 조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주성을 들이쳤겠는가.

허나 그때는 이미 흥료국이 무너지고 거란의 대군이 성에 도사리고있어 보주성의 탈환전은 실패하고말았다.

눈물에 젖은 대씨로인의 눈이 번쩍했다.

《흥료국이 망한건 전적으로 군민이 발해를 기어이 재건하겠다는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치지 못한데 있었소이다.

또한 병쟁기가 부족한데도 있소이다. 흥료국에도 〈신기한 병기〉같이 위력한 병쟁기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소이까.

창검마저 부족하여 몽둥이를 들고 강포한 거란군과 싸웠으니…》

잠시 고개를 떨구었던 대씨로인이 머리를 다시 쳐들었다.

《난 밤이면 우리 흥료국의 도성이 무너지던 무시무시한 광경이 악몽으로 되살아나군 하오이다. 거란군은 집채같은 충차들로 성문들을 들부셔댔는데 우린 그 어마어마한 괴물앞에서 너무도 무맥하였소이다. 그놈의 충차를 박살낼수 있는 병쟁기는 없는지…》

박원작은 말뒤에 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씨로인도 분명 《신기한 병기》들의 위력사격을 보았겠는데 어이하여 거란군의 충차소리를 거듭하는걸가.

남권부도 그런 생각이 났는지 입을 열었다.

《우리 병마도감에서 만드는 뢰등석포로는 적의 충차를 박살낼수 있을거요.》

대씨로인은 천천히 머리를 저었다.

《거북스럽긴 하지만 뢰등석포로도 충차만은 안될것 같소이다. 난 그 괴물을 똑똑히 아오이다. 뒤만 내놓고 앞과 량옆 그리고 우를 다 아름드리 참나무들로 집처럼 만든 충차에는 몇개의 큰 쇠바퀴가 달려있지요. 그안에 힘쎈 장사 열댓놈이 들어가서 충차를 밀고나가는데 앞쪽엔 쑥 삐져나온 파성추라고 하는 여러발짜리 아름드리 통나무가 붙어있지요. 그끝에는 철추가 달려있소이다.

성문으로 달려드는 충차들에 기를 쓰고 돌벼락을 안겼지만 그놈은 끄떡하지 않았소이다. 그놈의 충차를 요정내지 못하여 우리의 성문들은 부서져나가고 성벽도 무너졌소이다.》

박원작은 숨쉬기가 괴로왔다. 대씨로인의 말대로 적의 충차가 그리도 든든한 괴물이라면 뢰등석포로는 박살내기 힘들것이다. 불화살로도 어려울것이다. 아름드리 통나무를 뒤집어썼다니 괴물이 불타는 동안이면 그놈은 제 볼장을 다 보고야말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신기한 병기》들에도 큰 부족점이 있다는 소리가 아닌가. 성을 무너뜨리려 덤벼드는 적의 오만한 충차를 보기 좋게 답새길수 있는 병기가 아직 없다면 답답한 일이 아닐수 없다. …

대씨로인은 안색이 흐려진 박원작의 손을 조심히 감싸쥐였다.

《병마도감사님은 혹시 천균노라는 말을 들으신적 있소이까?》

박원작은 귀설은 소리에 어리둥절해졌다.

대답을 못하는 박원작을 보며 대씨로인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건 전설같은 소리긴 한데… 어렸을적에 난 할아버지한테서 이런 소리를 가끔 듣군 했소이다. 고구려때 선조들은 귀신같은 병기를 만들어 오랑캐들을 다스렸는데 그중에는 천균노라는 대포까지 있었다고 했지요. 한균을 서른근이라고 하니 천균이면 무려 3만근(18t)이 아니오이까. 천균노가 울부짖으면 오랑캐들은 혼비백산하여 삼십륙계 줄행랑을 놓았다고 하오이다.》

박원작은 속으로 웃었다. 3만근이나 되는 요란한 대포가 고구려때 있었다는게 꿈같은 말이 아닐수 없다. 그런 거물이 진짜 있었다면 아버지가 모를리 없다.

아버지는 책에다 쓰기를 고구려때에는 염초에 숯을 섞어쓸줄 몰랐다고, 그때 조상들은 염초 하나를 가지고 적진을 불지르는 불화살을 만들어썼다고 했다.

오늘날의 화약보다 위력이 약한 염초를 가지고 뢰등석포라면 몰라라 천균이나 되는 대포까지 쏘았다는건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다. 게다가 천균노란 이름도 괴이쩍다.

노라는건 길죽한 나무틀에 얹힌 굽은 활인 쇠뇌를 의미하는 말이다.

아마도 옛적에 선조들은 수백근짜리 큰 쇠뇌를 보고 무거운 활이라는 뜻에서 천균노라고 불렀을것이다.
박원작의 얼굴에서 반신반의하는 기색을 엿본 대씨로인은 절절하게 말했다.
《병마도감사님! 고구려때에 천균노가 있었다는게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가 화제거린게 아니라 그런 병기를 고려는 만들어가져야 한다는것이 화제거리로 되여야 한다고 생각하오이다. 소인은 병마도감사어른이 마음만 먹으면 천균노도 능히 만들수 있다고 보오이다. 천균노이면 적의 그 어떤 충차일지라도 단박에 묵사발낼수 있을것이니 그런 병기까지 가진다면 고려는 천하를 제압할수 있을것이 아니겠소이까.》
박원작은 심중해졌다. 듣고보니 천균노라는 병기에 대해 웃어넘길 일이 못되였다.
대씨로인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 바쁜 병마도감사님을 오래 지체시킨것 같소이다.》
박원작이 함께 점심을 나누자고 하였지만 대씨로인은 굳이 사양하며 별관문을 나섰다.
박원작이 대씨로인을 정문앞에까지 따라나가 바래워주고났을 때 남권부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사람이 늙으면 망녕이 든다더니 저 늙은이가 바로 그렇군. 괜한 말공부질이나 하려 여길 찾아오다니…》
박원작은 그 말에 기분이 언짢아졌다.
《남공! 건 너무 야박한 소리같구만.》
남권부는 짜증이 나서 목청을 돋구었다.
《그럼 박공은 미친것 같은 저 늙은이의 말이 곧이 들린단 말이요? 잠꼬대같은 그 소리를?》
《남공, 너무 그러지 마오. 저 로인의 말에는 일리가 있소. 보다 더 큰 화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장한거요.》
남권부는 허거픈 웃음을 치며 물었다.
《박공은 그래 늙은이의 말 한마디를 듣고 천균노인지 뭔지 하는걸 만들어보겠다는거요?》

박원작은 정색해서 대꾸했다.

《남공은 내 말을 오해하는것 같소. 우린 나라가 흥성할 때에도 외적이 쳐들어올수 있다는걸 언제나 잊지 말고 미리 방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그 격언을 잊지 말아야 하오. 대씨로인의 말에는 바로 그런 뜻이 담겨져있단 말이요.》

《아, 그렇다면야…》

멋적게 웃어넘기는 남권부를 바라보는 박원작의 생각은 그 순간도 착잡하였다.

정말 천균노라는 대포가 옛적에 있었단 말인가? 그런 병기라면 능히 적의 충차를 마음대로 족칠수 있을것이다.

6

온종일 병마도감의 별관에 들어앉아 옛말책이나 번지며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난 남권부는 해가 아직 서쪽하늘에 높이 걸려있건만 때이르게 집으로 향하였다.

마음이 쓸쓸하고 무거워서인지 그의 얼굴은 침울해보였다.

그는 박원작에 대한 시기와 불만으로 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오늘아침 병마도감에 나오니 파발군이 공문서가 든 가죽주머니를 전해주었다. 경군의 군사들을 내려보내겠으니 병마도감사가 직접 그들과 함께 수질구궁노를 가지고 개경으로 올라오라는 조정의 분부가 적힌 공문서였다.

박원작이 수질구궁노를 만들었다는 표문을 올렸다니 그 답서가 떨어진것이였다.

남 잘되는 소리를 들어 밸이 꼴려서인지 남권부는 명치밑이 아파났다. 그래서 공문서를 박원작에게 넘겨주고 별관에 들어가 시간을 보내느라 여느때는 들여다보지도 않던 책까지 집어들었던것이다.

그러나 글줄대신 박원작의 얼굴이 얼른거려 분을 삭일수 없었다.…

에익,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치미는 분을 누를길 없어 관가의 솟을대문같이 큰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집에 들어서던 남권부는 눈이 금시에 뗴꾼해졌다. 몸집이 곰처럼 우람한 사내가 륙간대청마루에 우뚝 서있었던것이다.

《남공! 날세, 나야!》

광대뼈가 두드러진데다 너럭바위같이 큰 얼굴의 조득국임을 알아본 남권부는 너무 반가와 눈물이 찔끔 나왔다.

《조공! 잘 왔네!》

남권부는 달려가 조득국의 손을 잡고 소리쳤다.

《이보오, 어데 있나? 술상을 차려야지!》

부엌에서 마씨가 얼른 대꾸했다.

《인차 들여가요.》

은방울 굴리는듯한 마씨의 랑랑한 목소리에 남권부는 한결 더 기분이 좋아졌다.

좀 있어 부엌데기들이 넓은 방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다. 이어 그 큰 음식상을 세사람이 둘러앉았다.

조득국은 한때 남권부와 자별한 사이였다.

몇해전까지 서경류수부에서 사록참군사인 7품벼슬을 지낸바 있는 조득국은 사람들로부터 무뢰배라는 뒤말을 듣던 인물이였다. 본시 그는 고려사람이 아니고 녀진족이였다.

녀진은 대체로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며 달게 섬기는 《하내녀진》과 제멋대로 놀아나는 《하외녀진》으로 나눌수 있다.

《하내녀진》이던 조득국의 아버지는 거란오랑캐의 등쌀을 피해서 동족의 나라 고려로 넘어가는 발해유민들속에 끼여 압록강을 건너왔다.

고려사람으로 귀화한 그의 아버지는 조씨성으로 개명하고 아들에게 은인의 나라에 보답이 되는 의로운 일을 하라는 뜻을 담아 득국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거란군이 쳐들어왔을 때 솔선 군사로 나간 그의 아버지는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하였다.

나라에서는 고려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아버지의 공을 생각하여 조

득국에게 서경의 학사원에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다.

서경의 학사원은 고려최초의 이름있는 지방학당이다.

학사원을 마치고 서경류수부의 리속으로 들어간 조득국은 군사일을 맡아보는 사록참군사로까지 출세하였다.

허나 그는 아버지의 뜻과는 어긋나게 나라의 리득을 좀먹는 탐관이 돼버렸다.

재물욕이 굴뚝같은 그는 서경군에게 내주는 재물을 뜯어먹다못해 나중에는 임금에게 올리는 진상품에까지 꺼리낌없이 손을 뻗쳤다가 그 죄로 형을 받고 삭탈관직을 당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탐욕을 버리지 않고 돈벌이에 혈안이 되여있었다.

허나 남권부에게 있어서 조득국은 자기를 잘살수 있도록 해준 《은인》이였다.

서경에 온 그 이듬해 봄일것이다.

서경군에게 내주는 《신기한 병기》들을 받아가려고 병마도감을 찾아온 조득국은 남권부를 마치 구면지기이라도 한듯 친절하게 대하였다. 어찌나 친절하게 달라붙는지 남권부는 조득국이 달라는대로 수질노와 화약을 몇번 넉넉히 내주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그 이듬해에 집을 한채 마련해주었다. 지금 쓰고사는 고래등같은 기와집이 바로 그때 조득국이 사준 집이였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통이 큰 사람도 있는가! 응당 서경군에 주어야 할 병기를 조금 후하게 내준게 무슨 큰 덕이라고?…

그 감지덕지한 은혜에 남권부는 조득국의 청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줄 심정으로 등이 달아 들뛰였다. 그래서 조득국이 달라는대로 서경군에 제일 우선적으로 《신기한 병기》들과 화약을 내주었다.

박원작도 서경군을 우선시하는 남권부를 지지해주었다. 그러나 박원작은 그 대가로 남권부가 무엇을 받아먹는지는 알수 없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서경군에 줄 병기를 타갈 때면 조득국은 인사차림이라면서 남권

부의 소매속에 은덩이를 하나씩 꼭꼭 찔러넣군 하였다.

어찌 그뿐이랴.

색시가 없어 고독하게 홀로 산다는걸 알고는 《서경미인》이라 소문난 마씨까지 안겨주었다.

참말이지 조득국은 세상에 둘도 없는 은인이였다. 하기에 남권부는 그가 이태전에 삭탈관직을 당했건만 여전히 친형보다 더 각근하게 대해주는 처지였다.

마씨가 술좌석임을 까맣게 잊고 제 생각에 빠져있는 남권부의 옆구리를 꾹 찔렀다.

《이보세요, 참군사어른의 목젖 떨어지겠네요.》

펄쩍 놀란 남권부는 이어 껄껄 웃어댔다.

《조공! 내 너무 기뻐 제정신이 아니라오. 그저 조공을 봐야 사람사는 락을 알겠다니까. 자, 마음껏 드소.》

권커니작커니속에 술잔을 몇번 돌리고나자 둘 다 거나해졌다.

《조공, 요즘은 어떻게 지내오?》

취기가 올라 시뻘개진 조득국이 마씨가 들려주는 술잔을 받아들고 어깨를 으쓱했다.

《나야 아무때건 운수가 좋지. 내 천성이 수렵을 좋아하는지라… 산판으로 말을 달리며 산짐승을 쏘아잡는 재미야말로 천하에서 제일가는 재미라니까. 이런 재밀 모르고 골아픈 벼슬살이를 한게 억울하오.》

마씨가 교태를 부리며 작은 입을 열었다.

《아이, 조정엔 인재가 없는가봐요. 인재가 인재를 알아본다고 참군사나리를 그냥 내버려두는걸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나라님도 무심하지. 무술에 출중하신 참군사나리에게 북계군을 통솔하는 병마사를 맡겨주셨다면 아마 거란을 평정한지 오랬을거예요.》

남권부가 술기를 살려 보탰다.

《그 말 한마딘 바로했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데 어느때건 조공에게 그런 날이 올거요.》

그러나 두툼한 입술짬으로 술을 부어넣은 조득국이 도리머리를 하였다.

《벼슬이란 말만 들어도 신물이 나오. 그러니 그런 소린 그만두기요.

참, 요즘 듣자니 박원작이가 수질구궁노란걸 또 만들었다면서? 그 사람 정말 운수가 좋단 말야. 잘되는 놈은 자빠져도 떡함지에만 자빠진다고 그 사람이 그런것 같애.》

그 말에 기분이 붕 떴던 남권부는 시새움이 울컥 나서 오만상을 찌프렸다.

《남공은 갑자기 몸이 편찮소?》

남권부는 한숨을 내뿜었다.

《제길할, 요즘 내 팔자가 기구해진것 같소. 박원작이 그 작자는 제 홀로 임금의 은총을 독차지하고 군기감으로 출세해갈것 같은데… 나한텐 앞이 막혀있소그려.》

조득국이 벌쭉 웃으며 저가락으로 상을 두드렸다.

《남공! 그대의 앞이 막혀있는게 아니라 내보기엔 그대의 눈이 멀었소.》

《그건 무슨 소리우?》

《국자감까지 나왔다면서 남공은 왜 이런 말을 생각지 않소? 닭의 부리는 될지언정 소꼬리는 되지 말라! 남공한테 운이 틔였단 말이요. 박원작이 개경으로 출세해가면 병마도감은 남공의것이 될게 아닌가.》

남권부는 코김을 내불었다.

《모르는 소리. 〈신기한 병기〉를 만드는 일이 뭐 그리 떡먹듯 쉬운줄 아오? 나한텐 병마도감사자리가 고양이 소대가리 맡은 격이란 말이요.》

조득국이 게걸스레 웃고나서 큰 주먹을 상우에 올려놓았다.

《이보게, 남공. 배안에서 일을 다 배워가지고나온 사람이 있는가. 나도 뒤에서 힘껏 떠밀어주겠으니 한번 해보라구. 그렇지! 개경친구인지 학우인지 하는 그 리자연공에게 병마도감을 맡게 해달라구 글월을 쓰게. 사실 이 나라에선 〈신기한 병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자 부자이고 권세가란 말이요. 내 말이 틀리오?》

그 말에 남권부의 귀가 번쩍 열렸다. 그렇지 않아도 리자연에게

개경의 관청에로 전직시켜달라는 글월을 쓰자고 하면서도 좀더 대세를 관망하려고 늦잡았댔는데 조득국의 말대로 병마도감을 맡겨달라고 하면 큰복이 될것이다. 사실 서경의 병마도감으로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래등같은 기와집이며 부귀를 바랄수 있었겠는가. 박원작이도 그렇다. 그가 만일 병마도감사가 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온 조정이 다 아는 유명한 인물이 될수 있었겠는가. 임금의 안중에도 들수 있는 자리가 바로 병마도감의 주인자리가 분명하다. 그까짓 병마도감을 움직이는 일도 뭐 어려울게 없다. 《신기한 병기》는 장공인들이 만드는것이고 그들에게 호령만 칠줄 알면 되는것이다.

그러고보면 조득국이 역시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다.

남권부는 사기가 나서 부르짖었다.

《조공, 고맙소. 내 당장 병마도감을 맡겨달라고 리공에게 글을 쓰겠소. 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간대도 조공의 은혜만은 잊지 않겠소.》

《친구사이에 그런 말은 말게.》

두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한바탕 웃어댔다. 허나 남권부는 조득국의 웃음속에 숨어있는 음흉한 속심을 아직은 알수 없었다.

7

남권부를 데리고 병마도감을 일일이 돌아보면서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을 거듭 당부하고난 박원작은 가벼운 마음으로 말에 올랐다.

백마도 마음이 흥그러운지 경쾌하게 내달렸다.

경상골의 집에 들어서니 아들이 아장아장 걷고있었다.

《영준아!—》

말에서 뛰여내린 박원작은 아들을 안아들었다. 부엌에서 나온 해연이 방긋 웃으며 맞아주었다.

《들어오셨나이까.》
《오늘은 일이 있어 일찍 들어왔소. 안에 들어가 얘길 하자구.》
마구간에 말을 매놓은 해연은 아들을 안은 박원작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이보세요, 아들은 아버지품에서 크면 버릇이 나빠진댔나이다.》
해연에게 아들을 빼앗긴 박원작이 미소를 지었다.
생각해보면 박원작 자기는 녀인복을 타고난것 같았다. 일찍 병들어 세상을 떠난 전처도 남정네를 얼마나 따르고 극진하게 대했던가.
박원작은 해연이와의 인연을 하늘이 맺어준거라고 믿어마지않았다. 하늘의 연분이 아니고서야 어찌 해연이같은 처녀가 안해로 될수 있었으랴.
박원작이 병마도감사로 전직하여 서경으로 내려온지 두달가량 지난 어느날 저녁의 일이다.
아직 달이 떠오르기 전인데 《이 집이 병마도감사님의 집이나이까?》 하며 웬 처녀가 뜨락에 들어서는것이였다. 부엌일을 하던 늙은 하녀가 의문이 가득해서 미인을 맞아들였다.
그날 팔우노의 시험사격이 뜻대로 된 기쁨을 안고 일찍 들어온 박원작은 그 처녀를 기꺼이 만나주었다. 그 처녀가 바로 해연이였다.
《소녀는 흥부동에 사는 랑자입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무오거란란(1018년 10만 거란군의 침입)때 전장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소이다. 자나깨나 아버지의 원쑤, 나라의 원쑤를 갚을 마음인데… 오늘 병마도감이 만든 팔우노에서 무섭게 비발치는 불화살들이 멀리에까지 날아가 〈적진〉을 단숨에 불바다로 되게 하는걸 보고 너무 기뻐… 울었소이다. 계집이 아니라 사내로 태여났으면 병마도감에 들어가 그런 병기를 마음껏 만드는건데… 병마도감사님의 집시중을 드는 일이자 병기를 더 많이 만들도록 돕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찾아온것이옵니다.》
박원작은 놀라왔다. 세상에 이런 도담한 처녀도 있는가.
《고맙네. 내 그 마음만은 달게 받아들이겠네. 하지만 이 집

엔 밥도 해주고 옷도 빨아주는 시비가 있으니… 내 걱정은 말고 돌아가보게.》

해연은 그 말에 귀뿌리까지 새빨개져서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그쯤하면 물러갈줄 알았는데 잠시후 해연은 애원에 찬 눈길로 박원작을 쳐다보았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박원작의 심금을 울리였다.

《저도 나라에서 병마도감사님의 시중을 들 시비를 붙여주었다는걸 아나이다. 하지만 소녀는 나라의 원쑤를 열백배로 갚을수 있는 〈신기한 병기〉를 만드느라 애쓰는 어른께 진정을 바치고저 하오이다. 소녀는 이미 어머님의 허락을 받은 몸이옵니다.》

박원작은 눈물을 머금고 애원하는 해연의 눈길을 피해 고개를 돌려버렸다. 처녀의 말인즉 이 집 주인이 홀몸인줄 다 알고왔다는것이다.

《제발 생각을 돌려주게. 그러다 랑자신세를 망칠수 있어. …》

박원작은 늙은 시비더러 처녀를 바래워주라고 분부하였다.

처녀가 돌아간줄 알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해연은 제가 안주인인듯 두팔을 걷어붙이고 집일을 도맡아하고있었다.

가라는 말이 죽으라는 말보다 더 서럽다는 생각이 들어 이러구러 여러날을 보냈는데 이번엔 처녀의 어머니가 동네 좌상로인까지 데리고 나타났다.

흥부동마을 좌상로인은 군력을 떨치는 위력한 병기를 만드는 어른을 받들어모시는것은 백성들의 응당한 도리라면서 서경사람들의 진심을 헤아려 처녀를 받아들이는것이 어떠냐고 귀띔하였다.

하여 박원작은 해연에게 장가를 들게 되였다. …

해연은 웃기만 하는 박원작의 손을 다정히 잡아흔들며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이까?》

그제야 박원작은 입을 열었다.

《이보게, 난말이야. 수질구궁노를 가지고 개경으로 오라는 조정의 령을 받았네. 그래서 인차 집을 떠나야 하거든.》

해연은 가슴을 파고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전 무슨 큰일이 난줄 알았나이다. 임금님께 새로 만든 병기를 보여드리는거야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나이까.》

《내 말뜻은 그게 아닐세. 이번에는 사정이 달라. 이번에 올라가면 다시 병기도감으로 돌아오지 못할수도 있네.》

《예— 에?! 그건 무슨…》

눈이 커진 해연을 보며 박원작은 잠시 말을 끊었다.

올정초에 박원작은 옛집을 지키는 어머니를 보려 개경에 올라갔었다. 그때 최충도 만나보았다. 그사이 참지정사(중서문하성의 종2품관) 겸 수국사(정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실권자)로 된 최충은 못내 반가와하면서 이제는 개경군기감으로 와서 더 판이 크게 병기를 만들 때가 되였다고 말해주었다.

《아마 조정에선 나를 군기감으로 전직시킬수도 있소.》

해연의 얼굴에 인츰 그늘이 졌다. 그러나 그의 얼굴빛은 곧 다시 환해졌다.

《어머니를 모셔오면 늙으신 어머니에게 여러모로 부담이 될가봐 홀로 서경에 왔다고 했는데… 그사이 벌써 8년이란 오랜 세월이 흘렀소이다. 자나깨나 언제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식솔이 모여살가 했는데 이젠 됐나보오이다.》

박원작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였다.

《헌데 마음이 편치 않구만.》

《편치 않다는건?…》

《그런 일이 있었소. 아, 아마 발해사람이라는 대씨로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난 웃으며 개경으로 갈수도 있을거요. 적의 충차를 단박에 박살낼수 있다는 천균노란 병기가 옛적에 있었다는 그 로인의 말을 듣고부터는…》

눈을 깜박이며 주의깊게 말을 듣던 해연이 활짝 웃었다.

《천균노를 만드는게 개경으로 가는거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개경가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들수 있지 않소이까.》

박원작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렇지도 않네. 난 정든 서경을 떠나선 그런 큰 병기를 만들 자신이 없소. 개경의 군기감은 나에게 생소한 곳일뿐더러 서경의 병마도감은 사람들도 정들고 철덕도 염초장도 다 정들어서 여길 떠나서는 창 하나 변변히 벼려낼것 같지 못하오. 그러니 어

찌 서경을 떠나서 천균노같이 큰 병기를 만들 엄두나 낼수 있겠나.》
해연의 두손이 박원작의 거쿨진 손을 포근하게 감쌌다.
《제 고향을 그렇게까지 믿어주시니 정말 고맙소이다.》
《임자두 참…》

8

북계병마도감사 박원작은 서경을 떠난지 여러날만에 500리길을 말을 몰아 개경에 들어섰다.
그의 뒤를 수질구궁노가 실린 마차를 호송하는 여러명의 마군들이 따르고있었다. 경군의 교위(군관)가 통솔하는 그들은 서경병마도감에서 만든 수질구궁노를 가져오라는 임금의 어지를 받은 군사들이였다.
박원작은 그들이 서경에 당도한 그 이튿날 수질구궁노를 마차에 싣고 상경의 길에 올랐던것이다.
개경서문인 오정문에 들어서자 교위가 물었다.
《병마도감사님, 어떻게 하실 작정이오이까?》
박원작은 말을 멈춰세우고 잠시 침묵을 지켰다.
이미 해는 서녘으로 기울어 좀 있으면 땅거미가 깃들것이다. 임금은 어지에서 북계병마도감사는 군사들과 함께 수질구궁노를 가져오라고만 하였지 언제까지 어느 관청으로 당도하라는 분부는 없었다.
그러니 집에 가있으면서 다음번 어명을 기다리라는 뜻일것이다.
박원작은 교위를 돌아보며 일렀다.
《그대들은 군영으로 가게. 나도 집으로 가겠소.》
《알겠소이다.》
박원작은 사직골로 말을 몰았다.
집마당에 이른 박원작은 선뜻 어머니를 소리쳐부를 용단이 나지않았다.

한것은 찌글사한 집의 한적한 정상이 가슴을 허벼서였다. 할아버지때 낡은 재목으로 지은 집은 그동안 손을 대지 못하여 퍼그나 기울어져있었다.

관리의 집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초라한 이 집에서 어머니가 가난하게 살고계시는것이다.

그래 이 정상이 록봉이 적은 나의 낮은 벼슬탓때문만인가? 별로 쓰고 남을게 없는 적은 록봉이나마 고향집에 지극한 관심을 돌렸더라면 어머니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는 않을것이다. …

기울어가는 집에서 선참 달려나와 맞아준 사람은 딸 죽화였다. 문을 열고 나오던 열두살난 죽화는 초라한 집을 가슴아프게 바라보며 마당에 들어서는 박원작을 알아보고 버선발로 뛰쳐나왔다.

《아버지!―》

죽화가 목메여부르며 품에 안기는데 찌그러진 부엌문이 열리며 어머니 한씨가 나섰다.

《아범아―》

박원작은 말이 나가지 않았다. 올해 정초에 찾아왔을 때보다 더 늙어서 백발에 주름투성이의 얼굴인 어머니를 보느라니 가슴이 미여지게 아파왔다.

《어머님! 어쩜 그리도 늙으셨소이까?》

박원작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꺼칠꺼칠한 한씨의 손이 박원작의 손에 닿자 따뜻한 정이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오는 백발을 뉘라서 피할테냐. 이게 사람사는 리치거니 너무 마음을 쓰지 말아.

그래 영준이도 영준 어멈도 다 잘 있겠지?》

《예, 다 잘 있소이다.》

박원작을 따라와 사립문밖에서 서성대던 군사들이 짐을 안고 들어섰다. 박원작은 그제서야 군사들이 짐때문에 군영에 돌아가지 못했다는것을 알아보았다.

교위가 몸가짐을 바로하며 박원작에게 말했다.

《수질구궁노는 저희들이 병부로 가져가겠소이다.》

군사들이 돌아가자 박원작은 그들이 토방우에 올려놓은 짐을 안

고 방으로 들어갔다.
박원작은 짐을 헤치고 눈같이 하얀 치마저고리를 꺼내들었다.
《어머님, 이건 며느리가 어머님것으로 지은 옷이오이다.》
치마저고리를 받아든 한씨는 혀부터 끌끌 찼다.
《원, 바느질솜씨가 참 예쁘기도 하구나. 어쩜 손부리가 이렇게 여무질가. …》
박원작은 이어 노랑저고리와 다홍치마를 꺼내 죽화의 품에 안겨 주었다.
《이건 네 어미가 너에게 주는거다.》
죽화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가 방울지어 떨어졌다.
《아버지!…》
눈물을 흘리는 죽화를 바라보는 박원작의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전처에게서 자식은 죽화 하나뿐이다. 일찌기 어미를 잃고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딸에게 아버지로서 자욱에 남을만한 깊은 정을 기울여주지 못했는데 해연이 그걸 메꾸어주는것이였다.
《아범아! 이 말만은 후에 하려고 하였는데 오늘 아무래도 해야겠다.》
한씨는 웃방에 올라가 채롱을 안아왔다. 채롱안에는 오승포(당시 화폐대용으로 쓰던 베천)가 한가득 차있었다.
의아해하는 박원작을 바라보며 한씨는 옷고름으로 눈굽을 찍어냈다.
《이건 그동안 영준 어미가 용돈으로 쓰라고 틈틈이 인편으로 부쳐온건데 난 죽화의 혼례식에 쓰려고 이걸 고이 간직했드랬다.》
박원작은 가슴이 뭉클하였다. 8년전 가을 해연을 데리고 집에 왔을 때 어머니는 첫눈에 마음이 비단결같아보인다고 하며 흡족해하였었다.
정말이지 한씨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은 해연이였다.
《아범아, 언제면 온 식솔이 함께 모여살수 있겠느냐?》
《불원간 모여살것 같소이다.》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지 죽화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말씀 참말이나이까?》

《허― 네가 곧이 들리지 않는 모양이구나.
어머님, 모름지기 이번에 조정에서 저를 군기감으로 전직시킬것 같소이다.》

한씨는 아들의 그 말에 눈굽을 찍으며 웃음을 지었다.

《고생끝에 락이라더니…》

이튿날 아침, 박원작은 웃방의 앉은뱅이책상우에 늘 놓여있던 꽃병이 없음을 알아차리고 딸에게 물었다. 죽화는 대답대신 눈물을 앞세웠다.

한참만에야 입을 열어 죽화가 하는 말을 듣느라니 분노가 치밀었다. 잡으라는 쥐는 안잡고 씨암닭만 문다고 라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전탕 사람들에게 해되는짓뿐이였다. 무지스러운 그것들이 나중에는 관리네 집에까지 뛰여들어 못된짓을 하다니!

올봄에 라졸들은 여기 사직골마을에도 나타나 집집을 샅샅이 뒤지며 돌아쳤다. 나라에서 금주령이 내렸으니 밀주장사군을 잡아낸다는것이였다.

해연이 보내준 돈을 하나도 축내지 않고 어떻게 하나 제손으로 살아가려 애를 써온 한씨는 부자집대사에 쓸 술을 말아나서게 되였다.

바로 그때 라졸들이 집에 들이닥쳤던것이다. 한씨는 사색이 되였다. 관리네 집이라고 했다가는 아들의 얼굴에 흑칠을 할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하고 술독을 발로 차며 무작정 관가로 잡아끄는 라졸들에게 무릎을 꿇어 제발제발하며 용서를 빌었다.

큰 도적이나 잡은듯 기광을 부리던 라졸들은 책상우의 꽃병을 띠여보고 덮치듯 집어들었다. 한씨가 그것만은 안된다며 오승포를 대신 내주었으나 라졸들은 그것마저도 몽땅 걷어가지고 물러가버렸다.

박원작은 억이 막혀 주먹을 틀어쥐였다.

죽화에게 물려주어야 할 꽃병을 잃었으니 전처에게 죄를 짓게 되였다.

그 꽃병은 박원작이 전처에게 사준 귀물이였다.

안해는 가난한 선비집 딸이다보니 시집올 때 변변한 물건 하

나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였다. 그래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런 안해를 보다못해 어느날 박원작은 그를 데리고 시전에 나갔다. 안해더러 아무거든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골라잡으라고 했더니 그는 자기전에서 꽃병을 집었다. 아름다운 비색바탕에 포도무늬상감이 령롱한 빛을 뿌리는 꽃병이였다.

꽃병을 사든 안해는 몹시 기뻐하였다.

그 다음날에야 박원작은 왜서 안해가 하많은 물건가운데서 꽃병을 골라들었는지 그 마음을 알수 있었다. 안해는 향기로운 꽃을 꽃병에 넣어서는 박원작이 글을 읽는 책상우에 놓아주었다. 그 꽃병에는 남정네의 글공부를 돕고저 마음을 쓰는 안해의 정이 담겨져있었다.

10년전 안해가 독감에 걸려 갑자기 잘못되였을적에 박원작은 그 꽃병을 관속에 넣어주려고 하였다. 그때 한씨가 그 꽃병은 며느리의 손때가 묻어있는 유일한 재산이니 죽화에게 물려주는것이 좋을듯 하다고 해서 그냥 책상우에 놓아두었던것이다.

《에익, 괘씸한 놈들!…》

기분이 잡친 박원작은 아침밥을 드는둥마는둥 몇술 뜨고는 밖으로 나섰다.

얼마쯤 걷느라니 잡친 기분은 서서히 가셔지고 번화한 거리로 눈길이 끌렸다.

개경에 올라올적마다 새롭게 느껴지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해마다 일신되는 도읍의 정경이였다.

이제는 고인이 된 강감찬장군이 온 나라 백성들을 휘동하여 쌓은 개경성과 거리들은 볼수록 그 위엄이 돋보이였다.

바둑판모양으로 동서남북 대통로들이 씨원하게 뻗어나갔고 그를 축으로 해서 동부, 서부, 북부, 남부 그리고 중부, 이렇게 5개의 부로 크게 나눈 도회구역을 또다시 35개의 방으로 가르고 그안에 동리들을 앉혔는데 그것이 모두 합해 344개이다. 동리마다 추녀높은 기와집들이 즐비하여 인구도 수십만인데 그 거리로 외국의 사절들이 끊임없이 찾아들었다. 하여 그네들을 받아들이는 호화로운 객관들을 여기저기서 찾아볼수 있었다.

어찌 장안만 변모되고있으랴. 개경성의 서문인 오정문으로부터 례성강의 벽란나루에까지의 40리, 동쪽 숭례문에서 림진강의 장단나루까지 40리의 길가에도 갖가지 물건이며 음식들을 파는 각, 점들이 추녀에 추녀를 잇대여서 회랑인듯 펼쳐졌다.

황도의 체모를 능히 갖추고있는 개경이였다. 날로 번화해지는 개경의 거리들을 볼수록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자각이 느껴졌다. 그와 동시에 너무도 집안일을 등한시했다는 자책도 더해졌다. 선공후사라고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사로운 일을 나중에 하는게 관리된자의 도리라 했는데 집안일을 돌보지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할가. 부모와 어린 자식에게 고생만을 시키고있으니 이게 과연 사람의 도리라고 할수 있는가.

또다시 마음이 쓸쓸해졌다. 마음이 쓸쓸해서인지 서경을 떠나올때부터 가슴 한구석에 납덩이처럼 매달려있었던것이 다시금 그를 괴롭혔다. 정녕 천균노를 모르는척 해야 옳은가. 모르는척 하기에는 너무도 크게 나라의 리익과 관련되는 천균노였다.

아버지가 살아계시여 천균노란 병기를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였을가. 필경 아버지는 적군의 그 어떤 충차도 단숨에 짓뭉개버릴수 있다는 천균노를 외면하지 않았을것이다.

허나 아직은 천균노가 어떻게 생긴 병기인지조차 아는 재간이 없다. 생긴 모양조차 알수 없는 병기에 마음을 두었다가는 집안의 복을 잃어버릴수도 있다.

한시급히 온 식솔이 모여살자는것은 집안사람들의 한결같은 소원이다. 이젠 어머니도 늙었다. 한생 의로운 길을 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뒤바라지로 고생속에 살아온 늙은 어머니를 이제 더 고생시킴은 죄되는짓이 아닐수 없다.

그렇다고 한집안의 복을 위하여 천균노를 단념하는것이 과연 옳은 처사일가. 언제부터 이 박원작이란 사내가 제 집부터 생각하게 되였던가.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한집안의 복을 생각하기 전에 국익을 먼저 귀중시하는 사람이 되라 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것이 마땅한 자식된 도리라 할수 있을것이다.

아니, 뭐가 뭔지 통 모르겠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스승이 그립다더니 박원작은 최충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스승을 찾아가 흉금을 터놓고 가르치심을 받아야 함이 바로 이런 때일듯 하였다.

박원작의 발길은 부산동으로 향해졌다. 스승은 북부의 부산동어구에서 살고있었다.

9

북계병마도감 련장행수 근달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철덕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여러해세월 별로 멎어본적없이 세찬 열기를 뿜으며 사는 재미를 안겨주던 철덕이 지금은 죽어가고있었다.

넓은 련장칸에 우뚝 솟은 철덕앞에서 풀무질소리, 타령소리, 우스개소리로 흥성이며 한겨울의 맵짠 대소한추위속에서도 웃통을 벗어던진 장공인들이 후더운 김을 뿜으며 놋쇠물을 받아내지 않았던가. 그 하루하루들은 장공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으뜸가는 병기를 만들어낸다는 긍지로 하여 크나큰 자부를 가지게 하였다. 철덕이자 병기도감이고 철덕이자 서경의 자랑이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 철덕에는 또한 옛사람들의 자취가 력력히 어려있다.

어렸을적에 아버지들 하는 말을 들으니 고려건국과 더불어 서경에 선참으로 지은것은 병기를 만들어내는 병마도감이라고 하였다. 다시는 오랑캐들이 옛 평양을 짓밟지 못하게 하자면서 그때 사람들이 철덕을 선참 쌓았다는데 그것이 덜컥 멎었으니 이거야말로 변이다 아니할수 없는것이다. 서경의 장공인들이 벼려준 룡천검을 차고 오랑캐의 진중으로 들어가 적장의 코대를 보기 좋게 꺾어놓은 서희장군이 지하에서 철덕이 멎을걸 알면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개경에 올라간 박원작이 이 사실을 알면 또 뭐라고 할가. 하긴 그 사람이야 어차피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몸이니 여기에 무슨

상관이 있으랴만.

하지만 근달의 눈에는 그의 모습이 자꾸만 비껴들었다.

《아, 백두여신 경개연고라—》 하는 탄식소리가 근달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백발이 될 때까지 교제를 해도 초면처럼 서먹서먹한 사귐이 있고 길가의 수레그늘아래서 한번 얘기를 나누었을뿐인데도 오랜 지기인듯 여겨지는 사귐이 있다는 그 말뜻을 조용히 음미하는 근달의 눈에는 박원작의 모습에 이어 남권부의 거만한 얼굴이 안겨왔다.

요즘 남권부가 놀아대는 꼴이 여간 심상치 않은것이다.

박원작이 개경으로 올라간 그 다음날에 남권부가 병마도감의 주인행세를 하며 제일먼저 찾아간 곳은 염초장이였다.

그는 염초장행수 돌석이를 죄인처럼 몰아대며 어서 화약의 비방을 써내라고 호통쳤다.

돌석이 화약의 비방은 아무한테나 내놓을수 없다고 하자 남권부는 시퍼렇게 독이 올라가지고 이제 새 주인이 될 사람앞에서 무슨 불손한 대답질이냐고 야단을 쳤다.

돌석은 남권부앞에 조금도 숙어들지 않았다.

《소감나리!》 하고 소감이란 말에 힘을 주며 돌석은 말을 이었다.

《우린 나라의 령이 없이는 그 누구에게도 화약의 비방을 대줄수 없소이다.》

이것이 돌석의 대답이였다.

약이 머리꼭두까지 오른 남권부는 그 밸풀이로 행수들을 몽땅 불러놓고 돌석이 자기의 분부를 공손히 받아들일 때까지 병마도감의 문을 닫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래도 돌석이 굽어들지 않자 련장칸에 놋쇠를 내주지 않았다.

하여 철덕이 숨지고만것이였다.

박원작이 어째서 그따위 너절한 사람을 학우라고 데려왔는지…

덕이 있고 학식이 깊으면서 재주도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벗을 가려보는 눈까지 밝은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라는 사람의 발등을 서슴없이 밟는 남권부가 병마도감사로 된다면 병마도감은 망하고말것이다.

근달이 숨진 철덕을 슬픈 눈길로 바라보고있는데 방금 들이닥친 장공인들이 그를 둘러쌌다.

《행수어른, 뭘 생각하오이까?》

근달로인은 장공인들속에서 그중 나많은 번기를 알아보고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닐세.》

대답을 피한 근달은 웬일인지 얼굴에 웃음이 실린듯한 번기에게 곱지 않은 눈길을 던졌다. 울어도 씨원치 않을 때 무엇이 좋다고 애녀석들처럼 들떠있는지… 이 사람이 과연 련장칸에서 제일 똑똑한 장공인이 맞단 말인가.

련장칸에서 머리가 좋은 장공인이 누구냐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물론 번기일것이다. 셈속이 밝고 재간도 좋아서 뢰등석포를 부어내는 거푸집을 빚는데서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다.

나이도 이제는 마흔고개여서 인생풍파도 어지간히 겪은이였다. 그래서 오른팔로 여기고 장차 행수자리를 그에게 넘겨주려고 마음먹은 근달인것이다.

근달의 눈총에서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번기는 여전히 웃음을 담고 소매속에서 종이말이를 꺼냈다.

《행수어른, 이걸 좀 보아주소이다.》

근달은 번기가 펼쳐든 종이말이를 의아히 바라보며 퉁명스레 물었다.

《그게 뭔데?》

《예, 생각나는대로 이름을 붙였는데 불막대기란 뜻에서 화장이라는 병기올시다.》

근달은 어이가 없어 빈입을 다셨다. 이거야말로 초상집을 찾아와 혼사말을 건네는 격이 아닌가. 그렇다고 젊은이들을 꾸중하기는 싫었다. 가뜩이나 병마도감이 숨진듯 침울해있는데 제기분에 큰소리까지 칠게 있는가.

하여간 젊은것들의 수고가 깃들어있을터인데 그걸 보고 좋다 나

쁘다 훈시야 못해주랴.
  근달은 마지 못해 종이말이에 눈그루를 박았다. 참말 막대기 같기도 하고 지팽이같기도 한것이 그려져있었다.
  번기가 그림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나갔다.
  《이건 낫자루만큼 굵은데 놋쇠로 붓자는것입니다. 길이는 한자 남짓하오이다. 뢰등석포처럼 맨뒤에는 화약통이고 그앞에 격목통, 그앞으로는 불화살을 넣고 쏠수 있게 구멍을 뚫었소이다. 화약통의 뒤로는 반뼘길이의 나무손잡이를 끼울수 있게 하자는것입니다.》
  호기심이 동한 근달은 신기한 그림에 말려들어갔다.
  《음… 거 그럴듯해. 수질노처럼 참대로 만들지 않고 뢰등석포처럼 놋쇠로 만들면 든든할게야. 불화살을 넣고 쏜단 말이지. 그런데 불화살이 꽤 견딜가?》
  근달의 얼굴에 그늘이 비끼자 번기는 조바심이 났다.
  《행수어른, 수질노와 달리 화장은 화약을 터뜨려서 불화살을 날리기때문에 보통 화살대를 쓰면 안되오이다.》
  근달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렇단 말이야. 나무화살대는 안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건가?》
  《그래서 화장에서 쏘는 불화살은 화살대뒤에 쇠띠를 둘러주자는것이오이다.》
  번기의 말에 근달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들었다.
  《음… 그럴듯해. 살대뒤에 쇠띠를 둘러주면 화약이 터지는 힘에 견딜수 있을거야. 좋아, 이것으로 불화살을 쏘면 더 멀리로 화살을 날릴수도 있고 그 힘도 대단할거야.》
  《그렇소이다. 그래서 보통 쇠활촉이 아니라 보다 무겁고 큰 쇠활촉을 달아주자는것이오이다.》
  근달은 번기의 등을 철썩 때렸다.
  《아주 좋아. 그러면 쇠갑옷을 입은 적도 다 잡을수 있겠어. 헌데 누가 이걸 궁냥해냈나?》
  번기는 그중 키가 작아보이는 장공인을 앞으로 떠밀었다.

《능산이 네가?!…》

근달은 믿어지지 않았다. 능산이 키가 작고 약해보여서보다 련장칸에 들어온지가 얼마 안돼서였다. 오랜 장공인들도 생각하지 못한것을 풋내기가 해내다니…

《허— 내 눈이 어두워졌나보군. 능산이 이 사람, 어떻게 이런 궁냥을 다 했나?》

쑥스러운지 뒤더수기를 긁적대며 능산이 어줍게 입을 열었다.

《불화살을 날리는 수질구궁노를 보느라니… 뢰등석포처럼 화약을 터쳐 불화살을 쏘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났소이다. 누구나 손에 들고다니면서 불화살을 쏘면 팔우노에서 쏘아대는 불화살 못지 않게 그 위력이 세찰게 아니겠소이까.》

《녀석두, 기특하다. 기특해!…》

만족해하던 근달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다. 번기가 그의 심중을 짐작하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무래도 능산이를 개경으로 보내야 할것 같소이다. 병마도감사님을 꼭 만나뵙겠다는데…》

《병마도감사님을?》

《어쩌겠소이까. 소감나리가 놋쇠를 내주지 않으니 병마도감사님을 찾아가 이 사정을 알리자는것이오이다.》

근달은 놀랍기만 하였다.

사람은 어려운 때 알아볼수 있다더니 여느때는 눈에 잘 띄우지도 않던 장공인들이 숨죽은 철덕앞에서는 모두가 손발벗고 나서 자기의 뚜렷한 몫을 찾으려고 하는것이다.

번기의 다음말에 근달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행수어른! 저희들끼리 의논을 좀 했는데… 병마소감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까짓것 우리자체로 철덕을 살려내자는것이오이다. 우리부터가 놋그릇, 놋수저 같은 놋기물을 내온다면 서경사람들이 가만있지 않을것입니다.》

《이 사람들아!…》

근달은 와락 장공인들을 껴안았다.

10

10월 하순(음력) 어느날, 어전회의가 진행될 만월궁의 회경전에로 조정대신들이 모여들고있었다.

황궁의 정문이라는 2층루각 승평문을 거치고 신봉문, 창합문을 지나면 33개의 높은 돌계단우에 웅장화려한 회경전이 장엄하게 솟아있다. 비색찬란한 청기와를 떠이고 눈부신 금단청으로 장식한 회경전은 만월궁의 으뜸가는 궁궐로서 력대 임금들이 조회를 열고 정사를 보는 집이다.

참지정사 겸 수국사 최충은 문하시중 서눌과 문하시랑평장사 황주량의 뒤를 따라 조심히 회경전으로 들어섰다.

넓고 으리으리한 회경전에 들어서면 선참 눈에 안겨오는것은 앞쪽의 좀 높은 단우에 룡그림병풍을 두른 가운데 자리잡은 룡상이다.

조정대신들이 옷매무시를 바로하고 품계에 따라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으로 벌려서자 천천히 서쪽문이 열리더니 자황포(황적색의 도포)를 입고 면류관을 쓴 강헌대왕(정종. 고려10대임금. 재위기간 1035～1046년)이 들어섰다.

그 순간 합문사(조회 및 의례를 맡아보는 합문의 장관)가 《재배요!ㅡ》 하고 소리쳤다. 대신들은 정중한 자세로 임금을 향해 두번 절을 하고나서 《만세》를 부르며 팔을 너울거리고 발을 들었다놓았다.

황제국의 체모가 넉넉히 엿보이는 옛 고구려의 조회의식을 그대로 보는듯싶었다.

강헌대왕이 룡상에 앉자 장내는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두손으로 상아홀을 모아잡은 최충은 임금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아직은 27살로 임금이 젊다지만 어려서부터 병약하다보니 걸늙어보였다. 하지만 영특하고 총명하여 국사를 무난히 다스리니 나라앞에 다행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은근한 미소를 머금은 강헌대왕은 이윽고 입을 열었다.

《여러 경들에게 한가지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소. 북계병마도감에서 수질구궁노라는 〈신기한 병기〉를 또 만들어냈소. 짐이 보건대도 정말 교묘하고 신기함이 끝이 없소. 혼자서도 적진을 손쉽게 불지를수 있는 수질구궁노를 군사들에게 줄수 있게 되였으니 한시름 놓겠소.》

최충은 누구보다 가슴이 설레였다.

어제낮 동지라고 하는 궁성안의 동쪽 늪에서 임금을 모시고 몇몇 대신들의 참가하에 수질구궁노의 위력사격이 있었다. 과녁으로 늪에다 띄워놓은 쪽배 두척이 수질구궁노에서 쏟아져나온 불화살들에 얻어맞고 불길에 휩싸였다.

그것을 지켜보는 임금의 눈가에도 기쁨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었다.

임금은 즉석에서 수질구궁노를 많이 만들어 군사들에게 보내주라는 어명을 내리였다. 그리고 수질구궁노를 발사한 군사들에게 상을 하사하였다.

헌데 마땅히 누구보다 임금의 치하를 받아야 할 박원작은 그 자리에 없었으니 수질구궁노를 만들어가지고 개경에 온 당사자가 어이하여 빠지게 되였는지 최충은 그 의문을 풀수 없었다.

회경전의 장내가 희소식으로 술렁거리는데 지중추원사 리자연이 량켠으로 갈라진 가운데로 남먼저 나섰다.

《폐하! 북계병마도감사 박공은 근 10년세월 집을 멀리 떠나 객지에서 〈신기한 병기〉들을 수많이 만들어냈소이다. 그가 세운 공을 생각하면 개경으로 전직시켰으면 좋으련만… 군사일이 그걸 허락치 않사옵니다. 박공에게 한품계를 더해서 군기감의 소감(종5품관)을 겸해주고 계속 북계병마도감사를 맡겨주어 시급히 수질구궁노를 많이 만들도록 은총을 베풀어주셨으면 하오이다.》

문무대신들의 제일 앞반렬에 선 서눌이 천천히 몸을 뒤로 돌렸다. 리자연을 바라보는 그의 눈길이 엄했다.

이윽고 임금을 향해 돌아선 서눌이 낮으나 격한 어조로 말했다.

《폐하! 옛말에 좋은 미끼에는 큰 물고기가 걸려들고 인덕을 베

풀면 반드시 훌륭한 신하가 나타난다고 하였소이다. 국력을 위해 누구도 견줄수 없는 큰공을 세운 박원작을 그냥 낮은 벼슬자리에 두어서는 안될줄로 아오이다.》

장내에는 그 말에 수긍하여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들이 태반이였다.

임금도 고개를 끄덕이였다.

최충은 마음이 달아올라 급히 한걸음 나섰다.

《폐하! 지중추원사공의 의견도 옳고 시중공의 의견도 옳은줄 아오이다. 국사에는 선후차가 있는 법이니 하루빨리 군진들에 수질구궁노를 보내주자면 박원작을 서경에 내려보내야 하오이다. 그다음에 상경시켜 높은 벼슬에 등용하는것이 좋을듯 하오이다.》

리자연은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게 어찌된 판인가. 서쪽에서 해가 떴나. 누구보다 반기를 들줄 알았던 최충이 시중의 의견까지 무시하고 지지를 표하다니…

리자연은 어제낮에 일부러 박원작을 궁성으로 불러들이지 않았다. 임금이 즉석에서 높은 벼슬을 하사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서였다.

올가을에 리자연은 주로 군사관계의 일을 맡아보는 지중추원사로 승급하였다.

중추원은 병부보다 군사관계에서 더 큰 권한을 가지고있었다. 나라의 군사를 주관한다고 하지만 병부는 6부의 하나로서 중서문하성에 소속되여 시중의 관할을 받지만 중추원은 곧장 임금에게 종속되여 직접 군사일에 참례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군령들은 다 중추원을 거쳐 경군과 지방군들에 하달된다. 하기에 병부를 다스리는 병부상서는 정3품관이지만 중추원에서 군사일을 맡아보는 지중추원사는 종2품의 대신이다.

강헌대왕이 서눌에게 물었다.

《시중공께선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서눌은 가벼운 한숨을 내쉬더니 나직이 대꾸했다.

《여러 대신들의 의견이 그러하다니 소신 생각도 달라졌소이다. 참지정사의 의견이 옳은듯 하오이다.》

《그럼 됐소. 수질구궁노를 만드는 일은 그렇게 락착짓겠소. 다

음, 국사를 론하기 전에 세상형편이 어떤지 그것부터 듣기로 하겠소.》

강헌대왕의 눈길을 받은 례부상서가 한발 나서며 공손한 어조로 말했다.

《폐하! 먼저 송나라조정의 동향을 아뢸가 하나이다. 이번달에도 송나라에서는 우리와의 국교회복을 정식 청해오지 않았소이다. 허나 수시로 찾아오는 송상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어느때건 반드시 고개를 숙이고 우리 나라를 찾아올것이라는 생각이 확연해지옵니다. 지금 송나라조정의 적지 않은 대신들이 고려와 국교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하오이다.》

최충에게는 그 소식이 별로 새롭지 않았다. 주변나라의 정세에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그였기때문이다.

고려건국이래 오늘처럼 나라의 위신을 만방에 떨친적은 일찌기 없었으니 천하대국이라 자처하며 용맹과 무적을 뽐내던 거란군의 침략을 그것도 세차례씩이나 모두 쳐물리친 나라가 바로 고려였다.

계사년(993년)과 경술년(1010년), 무오년(1018년), 불과 20년사이에 무려 수십만대군으로 세번이나 쳐들어왔던 오랑캐군의 위세는 얼마나 도도했던가. 경술년에는 거란군주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왔었다.

허지만 노도와 같이 떨쳐일어선 고려군민앞에 물먹은 담벽처럼 기가 꺾이고 녹아난 거란군이였다.

반면에 송나라는 거란앞에 어떤 수치를 당했던가. 수십년전 송나라는 자기 나라에 쳐들어온 거란군과의 싸움에서 여지없이 패하여 굴욕적인 《전연지맹》이란 화의를 하고 해마다 10만냥의 은과 20만필의 비단을 적에게 바치지 않으면 안되는 신세가 되고말았다.

송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거란못지 않은 광대한 령토와 많은 인구를 가지고있어 국력을 자랑하던 대국이 아닌가.

하기에 송나라까지 무릎을 꿇게 한 거란군을 여지없이 쳐이긴 고려를 선망하여 천하의 나라들에서 손을 잡자고 사절들을 다투어 보

내는것이다. 오늘날에는 옛 발해땅의 한끝에 웅거한 철리국, 불나국 같은 나라들은 물론하고 적대국인 거란까지도 사신을 보내온다.

천하의 장사군들은 또 어떤가. 동녀진, 서녀진의 장사군들, 거란장사군들, 왜나라며 송나라장사군들은 물론 저 멀리 해지는 나라라는 수륙만리의 대식국(오늘의 중근동일대)에서까지 가지각색 귀물들을 걷어싣고 고려로 찾아오고있다.

최충은 어이하여 송나라조정이 국교회복의 사절단을 파해오지 못하는지 그 속내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체면이 없다면 어찌 사람이라고 하랴.

두 나라사이의 지나간 관계를 헤쳐보면 얼굴이 뜨거운 불미스러운 사변이 있었다. 60년전 송나라는 날로 급속히 세력을 떨치며 파죽지세로 남하해오는 거란군을 견제하고 나라를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고려와의 련합을 청하였고 이어 빼앗긴 연계땅(베이징일대)을 수복하는 싸움에 군사적지원을 줄것을 요청하였다.

고려는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는 송나라조정의 청을 심중히 받아들여 압록강일대에 군사를 증강하였다.

배후에서 위험을 느낀 거란은 고려에 급히 《화친》을 청하였다. 허나 고려조정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거란은 선손을 쓰려고 고려에 전란을 일으켰다.

계사거란란(993년 거란군의 침략)을 겪은 그 이듬해, 고려는 거란을 징벌하여 원정을 할데 대한 제의를 송나라조정에 알리였다. 그때 송나라는 거란을 겁내여 고려조정의 제의에 응할수 없다고 하였다.

이로써 두 나라사이의 국교는 끊어지고말았다.

련이어 일어난 거란란때에도 송나라조정은 강건너 불보듯 하였다.

그러던 송나라는 고려가 여러차례의 거란란을 모두 이겨내고 국력을 떨치자 화친을 뜻하는 의미에서 장사배들을 앞세웠던것이다.

송나라장사배들은 례성강의 벽란나루에 숲을 이루며 밀려들고있었다.

최충은 가까운 앞날에 꼭 송나라조정이 국교회복을 청하는 사절

단을 보내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례부상서의 아뢰임은 계속되였다.

《폐하! 이번에 장사배를 끌고온 송나라 큰 장사군이 전하기를 자기 나라의 한 조정대신은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오이다. 강포한 거란이 벌써 여러번이나 고려를 쳤지만 그때마다 대군은 몰살당하고 참패만 거듭했다, 그로 인하여 국력이 쇠약해진 거란은 있을수 있는 고려의 보복이 두려워 제편에서 먼저 허리를 굽히고 국교를 맺자고 간청했다, 이러한 때 송나라도 고려와의 국교를 회복한다면 거란군이 쳐들어올 때 고려군이 바다를 건너와서 참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옛적처럼 거란의 배후를 위협할수 있으니 이것만도 송나라에는 큰 도움이 아닐수 없다 하고 말이옵니다.》

할 말을 다했다는듯 례부상서는 제자리로 들어가섰다.

신하들을 둘러보던 강헌대왕이 언성을 높이였다.

《좋소, 송나라와 국교를 회복하면 우리에게도 유익한 일이요.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오로지 자기 힘을 키워 떳떳하게 제힘으로 겨레와 나라를 지켜왔으니 우린 바로 그 바통을 그대로 이어나가야 하오. 송나라조정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가 관여할바는 아니요. 우린 그 누구의 도움을 기대해선 안되오. 세상은 결코 약소국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것이 지나간 세월이 보여준 교훈이요.》

대신들이 일제히 입을 모았다.

《참으로 명철하시오이다.》

최충은 진정으로 임금의 식견과 안목이 무디지 않음을 자랑하고 싶었다.

강헌대왕이 아니였다면 조정은 거란과의 교제를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가지 못했을것이다.

일격에 고려를 삼키려다가 쓰디쓴 패배만을 당한 거란은 뒤늦게야 실책을 깨달았다. 고려는 비록 령토는 크지 않아도 강한 나라라는것을!

하나의 겨레가 사는 땅, 수천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지였고 천하에 강대함을 과시했던 대고구려의 후손들인 고려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칠줄 알았다.

거란은 그런 나라를 무모하게 건드리다가는 도리여 제가 망할수 있다는것을 알아차린것이였다.

자주 군사를 일으켜 남의 나라를 치면 백성들은 지치고 군사들은 피페해진다더니 거란이 그러하였다. 거란은 고려와의 오랜 싸움으로 무서운 기근이 들고 도처에서 도적이 성행하였다.

여기에 고려와의 싸움에서 여지없이 녹아난 울분에 심화병을 일으킨 성종이 죽고 어린 왕자가 룡좌에 올랐다. 이를 기화로 어린 임금을 대신하여 성종의 후처인 흠애태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였다. 이때를 기다렸다는듯 부인이 조정을 다스리면 나라를 망친다면서 여러 부마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간신히 흠애태후가 부마들의 목을 치고 집안싸움을 평정했다고는 하지만 거란은 심히 약해졌다.

쇠약해진 거란은 고려의 복수가 두려워 거퍼 두차례의 봉명사신단을 띄워 국교회복을 간청했다.

그들의 간청으로 조정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강헌대왕은 등극한 첫해에 화친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조정대신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나라의 군력이 비할바없이 강해진 이때에 거란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그들을 제압해야 한다는 어지를 내리였다.

하여 3년전 겨울 거란과의 국교가 회복된것이였다.

강헌대왕은 룡상에서 일어나 신하들을 굽어보았다. 임금의 얼굴에 방금전과는 달리 분노한 기색이 어려있었다.

《례의를 모르는자와는 사귀지 말라는 말이 있소. 짐이 있을수 있는 전란을 방비하기 위해 림시계책으로 거란과 화친을 하였다만 그것들이 오만무례하게 놀아대는 꼴을 보면 더는 참을수 없소. 그들이 아직도 우리의 성을 차지하고 넘겨주려 하지 않으니 무슨 마련이 있어야 할가 보오.》

그 말에 최충은 의분을 금할수 없었다.

전달에 거란동경의 도지휘사 고유한이 사신으로 왔었다. 그는 담판에서 진땀을 흘렸다. 례부상서가 언제 우리의 두개 성을 내놓겠는가고 들이대자 고유한은 거란왕의 분부를 받아야 한다고 우는 소

리를 하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애걸하였다.

두개 성이란 을묘년(1015년) 정월에 거란군이 불의에 압록강을 건너와 보주(의주)와 정원땅을 차지하고 쌓은 성이였다.

두 나라간의 전란이 멎고 국교까지 회복되였지만 거란은 이피탈저피탈을 늘어놓으면서 그 두개 성의 반환을 질질 끌고있었다.

분을 삭이지 못해 오락가락하던 강헌대왕이 룡상에 주저앉았다.

《떡으로 치면 떡으로 갚고 돌로 치면 돌로 갚으라는 말이 있소. 거란이 계속 못되게 구니 그래서 짐은 장성을 마저 쌓아야겠다는거요.》

최충은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허나 몇몇 대신들은 서로 마주보며 놀라와하였다. 하긴 그럴만도 하였다.

장성이란 이 나라의 북부지대에 길게 쌓아야 하는 천여리성을 말한다.

50여리의 개경성을 쌓는데만도 무려 21년의 긴 세월과 20여만의 장정로력이 동원되였다는것을 념두에 둘 때 그보다 스무배나 더 긴 장성을 그것도 험한 준령우에 쌓아야 하니 그 간고함과 어려움을 상상이나 할수 있으랴.

하기에 7년전 첫걸음을 뗀 장성공사는 북계의 구간도 채 끝을 맺지 못하고 이태전에 그만 중단되고말았던것이다.

장내는 술렁거릴뿐 누구도 감히 임금앞에 나서 간하는 사람이 없었다. 공사의 간고함에 기가 질려서였다.

조용히 임금을 만날 때마다 장성을 마저 쌓는것이 좋겠다고 아뢰였던 최충이 다시 한걸음 나섰다.

《소신 최충, 한말씀 더 여쭙자고 하오이다.

항간에 담을 쌓지 않으면 미구에 도적을 맞을수 있다는 말이 있소이다. 이웃에 여전히 우리를 넘보는 흉적이 칼을 갈고있는데 어찌 담을 쌓지 않을수 있겠소이까. 일판을 크게 벌리면 폐단도 생길수 있고 공사를 오래 끌면 손실도 있기마련이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장성을 마저 쌓아야 백성들이 발편잠을 잘수 있소이다.》

강헌대왕이 룡상에서 벌떡 일어섰다.

《옳소. 의로운 일로 백성들을 인도하면 그들은 피곤한줄을 모른다는 말도 있소. 짐은 여러 경들에게 우리가 장성을 마저 쌓아야 하는 그 취지를 다시한번 상기시킬가 하오.
일찌기 태조대왕께선 거란이 락타를 보내오면서 국교를 맺자 했을적에 그네들의 청을 단호히 거절하시였소. 그 뜻을 굳히기 위해 거란의 락타들을 다리밑에 매두어 굶어죽게 하였소. 동족의 나라 발해를 빼앗은 거란것들이 장차 고려까지 삼키려고 하는 흉악한 심보를 그때 벌써 알아보시였기때문이요.
짐이 태조대왕과 달리 거란의 청을 받아들여 국교를 맺게 한것은 시조의 그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보다 더 강경하게 거란을 제압하기 위해서였소. 거란과 화친을 하여 많은 시간을 얻은 우린 그동안 군력을 더욱 다지였소.
거란이 그전보다 쇠약해진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를 먹으려 하는 그네들의 속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소. 여전히 그들은 강적이란 말이요. 걱정거리를 국내에 가지고있는자는 강국을 치고 근심거리를 국외에 가진자는 약국을 치라는건 그네들이 념불처럼 외우는 말이요. 오늘 거란의 도처에서 살길이 막혀버린 백성들이 들고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런 걱정거리를 국내에 가지고있은즉 거란이 민심을 무마하려 해서도 또다시 압록강을 건너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수 있겠소.》
강헌대왕은 잠시 말을 끊고 신하들을 둘러보고나서 빠른 어조로 말을 계속하였다.
《장성을 반드시 쌓아야 하는 까닭은 첫째로, 고려는 거란이 차지한 고구려의 옛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뜻을 세상에 알리자는것이며 둘째로는 만일 거란이 덤벼들 때에는 다져온 군력을 다해 그 소굴을 요정내여 쌓이고쌓인 원한을 풀자는 뜻이요. 셋째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웃에 우릴 넘보는 흉적이 있는 한 잠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는것을 깊이 심어주기 위해서요. 그렇소.》
신하들은 또다시 입을 모았다.
《참말 지당하시오이다.》

강헌대왕은 최충에게 눈길을 주었다.

《참지정사가 장성공사를 맡아야겠소. 언땅이 녹으면 장성공사를 벌릴수 있도록 공은 설을 쇠고 북계로 내려가야겠소.》

리자연의 얼굴이 해쓱해졌다. 최충에게 그런 중임을 맡기다니…

장성공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맡은 일감이 아름찬것만큼 조정에서 막강한 권세를 부리게 된다. 장성공사의 첫걸음을 뗀 류소가 이제는 고인이 되였지만 얼마나 큰 권세를 부렸던가. 시중 다음가는 평장사의 벼슬을 가지고 온 나라를 움직여 성을 쌓았는데 그때 그앞에서 문무백관들이 쩔쩔맸다.

장성공사에 조금만 태만해도 역적루명을 씌우는 판이였으니 그래서 류소를 범처럼 여겼던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최충이 류소처럼 호랑이로 둔갑해서 조정백관들을 다스리겠으니 이게 바로 야단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허나 다음순간 리자연은 괜한 겁을 냈다고 바꾸어 생각했다.

최충은 문관인데다 마음이 모질지 못한 사람이여서 아무리 큰 권세가 차례졌대도 백관을 제 맘대로 다스릴순 없다. 쏘는 이가 빠진것처럼 차라리 잘된 일이다. 아름차기 그지없는 장성공사는 한두해에 끝날수도 없는것이니 그동안 최충은 도읍을 멀리 떠나 북방의 산간벽지를 오르내려야 할것이다. 이런걸 가리켜 화가 복이 되였다고 하는것이리라. 최충이 없는 조정을 얼마나 바랐던가. 이 틈에 조정에서 최충의 세력을 뽑아던진다면 그가 돌아온대도 독불장군이라 맥을 추지 못할것이다.

리자연이 간특한 속구구로 쾌재를 부르는데 임금의 음성이 회경전을 울리였다.

《마감으로 천균노라는 병기를 만들것인가 아니면 말것인가 하는거요. 북계병마도감사가 표문을 올려왔는데 3만근이나 되는 큰 화포를 만들겠다는거요.》

3만근이나 된다는 화포소리에 장내는 놀라움에 휩싸였다. 세상에 그렇게 큰 대포도 있는가.

리자연은 천균노문제가 화제에 오르자 다시한번 쾌재를 올리며 박원작이 본의아니게 자기를 도울 때도 있다고 속으로 기뻐

했다.
　며칠전 마침 리자연이 집으로 일찍 들어간 그사이에 박원작은 중추원에다 천균노를 만들도록 허락해주십사 하는 표문을 들이밀었다. 그 표문이 고스란히 임금에게 가닿은것이였다.
　박원작이 내민 표문을 놓쳤으니 리자연은 기분이 좋을리 없었다. 그 표문이 자기에게 걸려들었다면 없애버리거나 임금에게 가지고가서 천균노를 만들수 없는 구실을 늘어놓는건데…
　화가 난 리자연은 병부에다 당장 박원작을 만나서 천균노가 어떤 병기인지 알아보라는 분부를 내렸다.
　박원작을 만나서 알아보니 천균노란 황당하기 그지없어 도저히 만들수 없는것이라는 병부의 대답은 리자연을 기쁘게 하였다.
　박원작이 올린 표문을 받아본 임금은 어전회의가 열리면 반드시 천균노를 화제에 올릴것이다.
　바로 그 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최충은 분명 천균노를 즉시 만들고싶어할것이다.
　그럴 때 그를 앞질러 천균노를 만들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워야 한다.
　그러면 최충은 이 리자연을 눌러보려 한사코 천균노를 만들어야 한다고 임금에게 졸라댈것이고 임금은 할수없이 그 의견을 들어줄것이다.
　천균노란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수 없는 도깨비같은것이라니 최충과 박원작은 그것을 부어내느라 씨름질을 할것이며 종당에는 두손털고 나앉게 될것이다.
　그때 가서 온 조정은 이 리자연의 선견지명에 탄복하게 될것이고 기가 꺾인 최충의 말은 누구도 들으려 안할것이다.
　그래, 이게 바로 적수로 하여금 자기가 빠질 함정을 제스스로 파게 하는 묘한 수가 아니란 말인가!
　때는 왔다.
　최충이, 어디 골탕을 먹어봐라.
　리자연은 누구에게 선손을 빼앗길것 같아 성급하게 입을 열었다.
　《폐하! 소신이 알아본데 의하면 천균노를 만들겠다는것은 어불

성설인줄 아오이다. 그것은 첫째로, 천균노를 만들어보겠다는 당자부터가 말로만 들은것이여서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 형체조차 모른다는것이옵니다. 날마다 보는 개를 그리라고 해도 꼭같게 그리기는 힘들겠는데 형체조차 모르는걸 그렇게 그려낼수 있겠소이까. 지금껏 북계병마도감사가 〈신기한 병기〉들을 만들어낼수 있은것은 그의 부친이 그림으로 형체를 똑똑히 남겨놓았기때문이옵니다.

둘째로, 천균노를 만들수 없는것은 쓸데없이 크기만 해서 3만근이나 되는 둔한 화포가 도대체 군사들에게 소용되겠는가 하는 그것이옵니다. 지금껏 만들어낸 〈신기한 병기〉만으로도 얼마든지 적을 요정낼수 있소이다. 마차에 싣지도 못할 3만근짜리 화포는 도리여 군사들에게 짐이 될줄로 아옵니다.

셋째로, 천균노를 하나 만드는데만도 무려 놋쇠 3만근이 드는데 그러다가는 국고를 거덜낼수 있다는 그것이옵니다.

천균노 몇문을 만들 놋쇠면 온 나라 백성집들에 놋그릇을 몇개씩 나누어줄수 있을것입니다.

페하, 장성공사를 하는데만도 이루 헤아릴수 없는 돈이 들어가고 백성들이 고생을 하겠는데 크게 쓸데도 없는 천균노를 만드느라 그들의 원망을 살것까지야 있겠나이까.》

최충은 마치도 백성살이를 걱정하는듯한 리자연의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었다.

도대체 이 조정안에 가난에 쪼들리는 백성들을 위한 어진 정사를 진심으로 펼치고저 하는 벼슬아치가 있는가.

옛적에도 없었고 오늘도 아니 래일에도 없을것이다.

그래도 이 최충은 굶주리고 헐벗은 백성들을 볼 때면 동정은 하였다.

허나 저 리자연은 자그마한 동정심을 가지기는커녕 도리여 그들을 자기 집의 량식으로 여겨 무지하게 탐오를 일삼는자이다.

조정에는 리자연이 같은 벼슬아치들이 수두룩하다.

리자연이 백성살이를 턱대고 천균노일에 훼방을 놓는것은 다 자기의 검은 속심을 가리우자는데 지나지 않는다.

최충이 장내를 둘러보니 과연 백성살이때문에 천균노를 만들 수 없다는 리자연의 말을 수긍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그럴테지!)

최충은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며칠전 최충은 아침일찍 집을 찾아온 박원작을 만나보고 그의 고충을 알게 되였다.

한번도 본적없는 천균노여서 그것을 만들리라는 용단을 내리지 못하는 박원작에게 나라에 큰 리익을 줄수 있는것이라면 꼭 취해야 한다고 훈시해주었었다. 그 말에 고무된 박원작이 결단코 천균노를 만들리라 강심을 먹고 표문을 지어 임금에게 올린것이였다.

아마도 박원작이 제 말에 추종하는 심복이였다면 리자연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것이다. 국익에 부합되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해도 제가 싫어하는 사람의 주장이라면 가림없이 짓뭉개자고 드는 리자연의 속됨을 그는 잘 알고있었다.

최충은 임금을 향하여 아뢰였다.

《페하! 국익에 보탬을 줄수 있다면 백성들은 원망하지 않을것이옵니다. 백성을 고달프게 하는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웃사람때문이 아니라 외적때문이라면 백성들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소이까. 하물며 백성들에게 해를 주지 않고서도 천균노를 만들수 있는데 뭘 주저하겠소이까.

천균노같이 큰 화포가 있으면 군력을 다지는데 좋으면 좋았지 짐이 될건 없는줄 아오이다.

적을 타승하는데서 병쟁기의 우렬도 크게 관련되는것이니 위력한 병기를 만드는데 돈을 아껴서는 안되오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래도 천균노를 만들어내여 천하에 그 위력을 시위한다면 적들은 기가 죽어 우리 나라를 두려워할것이니 전란을 미리 막아내는데도 크게 기여하는것으로 될것이옵니다.》

리자연은 일이 예견했던바대로 착착 번져가자 몹시 흡족해졌다. 대결은 이미 승패가 난셈인것이다.

리자연은 이 순간 또다시 천균노를 거들어 요즘도 사이가 버그러져보이는 황주량과 최충을 다투게 하고싶어졌다.

둘사이의 간격이 버그러진것은 황주량이 최충의 세력이 날로 커지는것을 두려워하기때문이였다.

리자연은 자못 심중한 표정을 짓고 은근히 목청을 돋구었다.

《폐하! 사리에 밝으신 평장사공의 의견을 들었으면 하오이다.》

강헌대왕의 눈길이 늙은 황주량에게 가닿았다.

황주량은 헛기침을 깇고나서 침착하게 자기 생각을 터놓았다.

《소신 생각에는… 천균노의 형체조차 알수 없으나 그게 꼭 소용되는 병기라고 하니 하나 만들어서 써본 다음 다시 론의해봄이 좋을듯 하오이다.》

그 말에 서눌도 한마디 보태였다.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위력을 알아본 후 좋고 나쁨에 따라서 뒤일을 락착짓자는 평장사공의 의견이 타당한줄 아오이다.》

리자연은 황주량과 최충의 사이를 잘못 판단했음을 깨닫자 얼굴을 붉혔다.

허나 속으로는 최충을 자기 수에 걸려들게 했은즉 소기의 목적은 이루었다고 회심의 미소를 머금었다.

11

경상골의 집에서 매돌을 돌리는 해연의 마음은 기쁘기도 하고 한편 섭섭하기도 하였다.

이제 개경으로 간 박원작이 군기감으로 전직되면 곧 이사짐을 실으러 내려올것이다. 이제부터는 온 집안이 함께 모여 웃음속에 살것이니 이 얼마나 기쁘고 다행한 일인가.

그러면서도 나서자란 서경땅을 아주 떠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묵직해졌다.

바늘따라 실 간다고 녀인의 운명이란 사내에게 매여지게 되는 법이니 좋고 말고가 있으랴만…

아래목에서 잠을 자던 영준이 깨여났다. 점심밥술을 놓기 바

쁘게 잠에 곯아떨어졌던 애였다.

《엄마, 뭘하나?》

세살난 아이치고 잠투정을 할줄 모르니 저 아이는 참 유별난 애다.

《엄만 일한단다.》

해연은 아이를 안아 무릎에 앉히며 그의 손에 메밀 몇알을 쥐여 주었다.

《엄만 이걸 망에 타갠단다.》

잠기가 어려 두눈이 불그스레한 영준이 고사리같은 손에 쥐여진 메밀을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이게 뭐나?》

《메밀이라는거다.》

아이가 꼬치꼬치 캐여물었다.

《메밀이란건 뭐나?》

《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랭면을 만드는 낟알이란다.》

《랭면?…》

말도 류창하고 제법 자기 마음을 음조에 담을줄 아는 영준이 대견하여 해연은 그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서경랭면이 아니였다면 오늘의 이 집안이 없을런지도 모른다. 바로 그 서경랭면이 박원작의 호감을 샀기에 해연이 이 집에 뿌리를 내리게 된것이 아닌가.

이 집에 처음 찾아왔을 때를 더듬어보느라면 자연 회심의 미소가 피여오르기도 하고 그때 제정신이 아니였지 하는 망측한 생각도 없지 않아 제풀에 얼굴을 붉히군 하는 해연이였다.

가락맞게 빙빙 도는 매돌에 실려 어느덧 그의 생각은 팔우노의 첫 위력사격을 목격한 기쁨으로 온 서경장안이 물끓듯 들레이던 8년전의 어느날로 거슬러올랐다. 그날저녁 해연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경상골을 찾아왔다. 이 집을 찾아오는 결단을 내리기가 그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달포전에 해연은 병마도감에서 외적을 호되게 족칠수 있는 《신기한 병기》들을 만든다는 가슴이 트이는 소문을 듣게 되였다.

그 말이 선뜻 믿어지지 않아 병마도감을 조용히 찾아가보니 뜬

소문은 아닌것 같았다. 장공인들이 별스럽게 생긴 병기를 쓰다듬으며 성수가 나서 일하고있었던것이다.

어떻게 해야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의 원쑤를 갚을수 있을가 하고 늘 마음을 써오던 해연은 드디여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가증스러운 원쑤들에게 불벼락을 들씌울 《신기한 병기》를 많이 만들어 군사들에게 보내주는것이 곧 아버지의 원쑤를 열백배로 갚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알아보니 녀인은 병마도감에 받아주지 않는다는것이였다. 그렇다고 남복을 하고 들어갈수도 없는 일이고…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며칠을 지냈는데 이런 소문이 귀에 닿았다.

《신기한 병기》를 만드는 중임을 맡은 사람은 개경에서 온 병마도감사인데 상처하여 홀로 경상골에 산다는것이였다.

늘 바삐 돌아가는 병마도감사인데 집에서 시중드는 사람은 기껏해서 늙은 녀인 하나뿐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였을 때 해연의 가슴은 이름못할 련민의 불길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라법대로 하면 병마도감사에게는 4명의 시중군이 따라다녀야 했다. 허나 새로 온 병마도감사는 어찌나 청렴하고 검박한지 말구종도 없고 개경에서 데리고온 늙은 시비에게 집안일을 맡겨두고 있다는것이다.

《세상에 별난 량반도 다 있군. 다른 량반들같으면 하나라도 더 많은 시중군을 달고다니지 못해 안달아하겠는데…》 하고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정말 그런 량반도 있을가?

호기심이 동한 해연은 병마도감을 나드는 박원작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후렁후렁한 검은 관복을 걸친 박원작은 여위고 지친 기색이였다. 안해를 잃은 그가 몹시도 불쌍해보였다. 문득 저 량반의 집시중을 내가 맡으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차 허거픈 웃음이 나갔다. 새파란 처녀의 몸으로 그것도 홀아비의 시중을 든다는게 어디 될즉이나 한 일인가. …

그러나 팔우노의 위력한 사격을 본 그날 해연의 마음은 달라졌다.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는 인재를 돌봐주는 일이 아버지의 원

쑤를 갚는 길이고 의로운 장거로 된다는 생각이 무섭게 머리를 들었던것이다. 그 올곧은 하나의 생각으로 해연은 무작정 박원작을 찾아 집문을 나섰다.

박원작이 해연의 성의를 뿌리치고 돌아가라 했을 때 처녀의 순정을 무시당한 야속함으로 하여 눈물까지 흘렸었다. 돌아가란다고 해서 제발로 물러가는 그런 숙맥은 또 어데 있담!

모진 마음을 먹은 해연은 시비의 방에서 밤을 꼬박 새우고 날밝기 바쁘게 부엌일을 걷어안았다.

그 아침에 해연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였다.

글쎄 높지 않게 담은 밥그릇을 반도 허물지 못하고 밥상에서 물러나는 박원작을 목격한것이였다.

늙은 시비는 한탄조로 병마도감사의 입이 어찌나 밭은지 그 식성을 도저히 맞추지 못하겠다고 주얼댔으나 해연의 생각은 거기에 그칠수 없었다.

큰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밥을 축내지 못하고서야 어찌 몸이 견딜수 있으랴. 혹시 병마도감사가 타지에 와서 물이 맞지 않는건 아닌지? 여름이니 그럴수 있을것이다. 이런 땐 그저 시원한 음식이 제일인데…

해연은 곧 그럴듯한 생각이 떠올라 흥부동의 자기 집으로 잰걸음을 놓았다.

병마도감사에게 메밀국수를 대접하고싶다고 제잡담 이야기하는 해연의 말에 어머니는 눈을 홉뜨며 펄쩍 놀랐다.

《이것아, 넌 랑자(처녀)의 몸으로 어쩌자고 그 집에 갔댔느냐?!》

해연은 박원작에게 마음이 푹 쏠려 자기를 영 잊고있었다는것을 그때야 깨달았다. 동정심이 이렇게 급작스레 련정으로 번져질줄은 자기로서도 정말 놀라왔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없이는 한시도 못살것 같은 심정이였다. 박원작에게는 부모의 허락을 받고 왔노라 빈말을 한 생각이 나며 얼굴이 뜨거웠지만 마음을 다잡고 어머니에게 자기 진정을 그대로 터놓았다.

어머니는 성이 올라 방바닥을 내리쳤다.

《이 철없는것아, 그러다 너 신세도 망치고 동네흉도 도맡아 걷어안고싶어 그러냐? 그 사람을 싹 잊어버려라. 다시는 그 집에 못갈줄 알아라!》

《어머니! 홀몸으로 외지에 와서 외적을 쳐부시는 〈신기한 병기〉를 만드노라 고생하는분을 돕는 일인데 제가 뭐라고 신세를 망치고말고가 있겠어요. 그분이 더 많은 병기를 만들게 할수만 있다면 소녀는 동네흉이 아니라 온 서경이 흉을 본대도 그것을 달게 여기겠나이다.》…

그날저녁, 박원작이 받은 밥상우에는 오이랭국에 닭알꾸미로 고명을 얹은 메밀국수가 올라있었다.

메밀국수가 생전 처음인 박원작은 밥상을 들고 들어간 늙은 시비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음식인가?…》

《서경랑자가 지은 음식인데 쇤네도 어떤 맛인줄은 모르겠사옵니다.》

처음엔 슬슬 맛만 보던 박원작은 이내 수저를 부지런히 움직이더니 인차 국물까지 말끔히 마셔버렸다.

《히야, 거참 별맛이로군.》

해연이 부엌에서 조마만해진 마음을 달래고있는데 시비가 다가와 박원작이 찾는다고 귀띔했다.

방에 조심히 들어가니 박원작이 만족한 웃음을 한가득 짓고앉아 칭찬을 아끼지 않는것이였다.

《정말 잘 먹었네. 오래간만에 이런 맛을 보네. 이 고마움을 어떻게 상으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만.》

해연은 그 순간 자기를 바라보는 박원작의 눈길이 이전과는 퍽 다름을 감촉했다. 딱히 찍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련인의 육감으로만 감득할수 있는 사내의 정이 그윽히 스며있는 눈길이였다.

《헌데 이건 무엇으로 만든 음식인가?》

해연은 박원작의 마주보는 눈길에 몸이 쫄아드는것 같았다. 간신히 용기를 내여 입을 열었다.

《저… 메밀가루로 빚은 국수라는건데 우리네 서경별식인줄 아

오이다.》
《아, 이 땅에 그런 음식도 있었는가?》
해연은 감탄을 금치 못해하는 박원작에게 언제인가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메밀이란 곡식은 근래에 와서 심는건데… 발해유민들이 압록강을 건너오면서 서경에 들여다 퍼쳤다고 하오이다.
수십년전에 우리 서경의 어떤 주막집에서 메밀국수를 처음 만들어냈다는데 오늘은 그게 서경별식으로 되였나이다.
더우기 찬국에 만 랭면은 여름철 특식으로 소문났소이다.》
《정말 기이한 음식이로군. 내 입엔 랭면이 꼭 맞는것 같아.》
그때부터 박원작의 밥상우에는 랭면이 자주 오르군 하였다.
랭면으로 밥맛을 되찾은 박원작의 얼굴에 점차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이렇게 랭면은 박원작에게 서경처녀에 대한 애틋한 정을 낳게 한 사연깊은 귀물이였다.
《엄마! 이거!—》
영준이 메밀을 한줌 움켜쥐여 매돌아가리에 넣는 바람에 기분좋은 추억에서 깨여난 해연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였다.
박원작에게 메밀가루를 꾸려보내지 못한것이 마음에 걸렸다. 이태전에 개경집을 찾아갔을 때 메밀국수를 차려올렸더니 시어머니도 무척 좋아하였다.
죽화도 그게 별맛이라며 곱배기를 청하지 않았던가.
아, 옷을 지어보낼 생각을 하면서도 그걸 깜박 잊다니…
《자, 그럼 메밀을 타개볼가요?》
영준을 무릎에 앉힌채 매돌을 다시 돌리는데 밖에서 《부인님 계시오이까?》 하는 부름소리가 들렸다.
《누구오이까?》
《제올시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돌석이 들어와 절을 차렸다.
《염초장행수가 어떻게?!》
해연은 반색하며 돌석을 이끌었다.

《어서 앉게. 어서!》

《예.》

돌석은 영준이를 번쩍 안아들더니 익살을 부렸다.

《메밀가루를 내는게 아닌가요? 소인이 먹을 복이 있다니까. 영준아! 우리 쩡한 동치미국물에 말은 국수를 배꼽이 웃도록 실컷 먹어보자꾸나. 그렇지?》

《응!》

돌석이 익살을 부렸지만 해연은 한편으로 기분이 언짢아졌다. 돌석을 보느라니 병마도감에 망조가 들었다는 소문이 생각키워서였다. 행여 헛소문이겠지 하는 기대를 안고 어제 병마도감에 나가 보았으나 웬걸, 그렇게 기쁨으로 들끓고 흥성거리던 편장칸에까지 철덕이 숨져버리고 괴괴한 기운이 서려있었다.

만나는 장공인들마다 초상난 집 사람들처럼 우울해있어 말을 붙이기도 어려웠다.

어쩜 이럴수 있는가. 남권부를 찾아가 무슨 마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물으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부인, 주인없는 집꼴이라 그러하니 나도 어쩌는수가 없소이다. 조정에서 새 주인을 내려보낼 때까지는 그런대로 보내는 수지요.》

꼭 남의 일처럼 말하는 남권부에게 무슨 말을 더 할수 있었단 말인가. …

《부인님! 제 이 집에 희소식을 가져왔소이다. 그게 어떤 반가운 소식인지 한번 알아맞춰보겠소이까?》

해연은 매돌을 계속 돌리며 미심쩍은 어조로 되물었다.

《우리 집에 무슨 반가운 소식이 있겠나?》

《나, 이거라구야…

에라, 그럼 공짜로 알려주겠수다. 부인님은 이사짐을 꾸리지 않아도 되겠소이다.》

매돌을 돌리던 해연의 손이 굳어졌다.

《이사짐을 꾸리지 않아도 되다니?》

《챠, 말할 맛이 없다니까요. 영준이 아버님이 우리 병마도감사로 그냥 남아있게 되였다 그 말이우다.》

해연의 두눈에서 생기가 흘러나왔다.,

《그게 참말인가?》

《아, 그런 말도 롱으로 하겠소이까. 아침에 공문서가 왔소이다. 북계병마도감사 박공이 설을 쇠고 임지로 내려갈 때까지 소감은 지체말고 수질구궁노를 만들라는 조정의 령이 씌여진 공문서라우다.》

해연은 돌석의 말에 우선 기쁜 마음이 솟구쳤으나 차츰 서운해지는감도 없지 않았다.

언제면 한식솔이 다 모여살게 되겠는지 하는 생각에서였다.

해연은 자기 어깨가 무거워지는감을 느꼈다.

한숨이 절로 새여나왔다. 필경 애아버지는 병마도감에서 천균노를 만들 결심을 내렸을것이다.

12

오늘도 박원작은 이른새벽에 밥을 먹고 만월궁앞에 있는 서적소(금속활자와 서적보관사업을 맡아보는 중앙관청)를 찾아갔다. 겨울치고 날씨가 푸근하여서 아침일찍부터 책을 펼쳐보기 좋았다.

박원작이 며칠째 고금의 서적들이 비치되여있는 서적소를 찾는것은 천균노에 대한 자세한 글을 보고싶어서였다.

구면이 된 서적소의 관원이 군말없이 박원작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서적소에 들어선 박원작은 관원에게 다른 나라 고서들을 볼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어제까지는 고구려와 신라, 백제때부터 전해오는 서적들을 살살이 뒤져보았다. 하지만 천균노에 대한 글은 찾아보지 못하였다.

고구려에 천균노가 있었다면 그때 서적들에 그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할것이다. 하긴 대부분의 고구려서적들이 당나라군의 침입으로 불타버리고 극히 적은 서적들만 남아있으니 그럴수도 있는 일

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웃나라 서적들을 뒤져볼 생각으로 일찌기 집문을 나선 박원작이다. 혹시 거기에 천균노에 대한 글이 실려있을지 어이 알랴.

수천권이 넘을 다른 나라의 서적들이 넓은 방의 책장들에 들어있었다.

박원작은 우선 표제들부터 훑어나갔다.

《순상주역》, 《경방주역》, 《정강성주역》, 《황제침경》, 《공손라문선》, 《수경》, 《우보진기》, 《반고집》, 《양웅집》 《왕희지소학편》, 《고금악록》, 《범장편》, 《수조자》, 《호비자》, 《사마상여집》… 같은 유교교리와 의술, 지리, 음악, 시문 같은 책들은 그냥 스쳐보내고 《사승후한서》같은 사기책들과 《병서집요》같은 병서들, 지어는 전 24권으로 된 《제갈량집》까지 뒤져보았다. 그러나 천균노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수 없었다.

박원작은 기가 막혀 한숨을 내뿜었다. 그래도 력대 서적들이 배치되여있는 서적소를 찾아가면 천균노에 대한 표상쯤은 얼마든지 얻을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주저없이 그것을 만들겠다는 표문을 임금에게 올렸는데 호미난방격이 되였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박원작이 실망감에 사로잡혀 산더미같이 골라놓은 책들을 멍하니 지켜보고만 섰는데 관원이 들어와 밖에서 누가 찾는다고 아뢰였다.

누구일가? 서적소까지 따라와 찾는 사람이…

뜨아한 기분으로 밖에 나선 박원작은 놀랐다. 평복차림의 최충이 마당에 서있는것이였다.

《사부(스승을 존경하여 부르는 말)님!—》

박원작은 늘 입에 오른 말투로 최충을 사부라 소리쳐부르며 허둥지둥 다가갔다.

허리를 깊이 숙여 읍을 차리는 박원작을 정겹게 바라보며 최충이 말했다.

《자네네 집에 사람을 띄웠더니 여기에 있을거라고 하더군. 오늘은 날도 따스하니 머리쉼을 할겸 장안구경이나 할가?》

《고맙소이다.》

《그럼 됐네. 어참, 이 정신 보지. 알고 지내라구.》

최충은 뒤에 선 사람을 앞으로 내세웠다. 보통키에 다부지고 얼굴에 별로 두드러져보이는데가 없는 젊은 사내였다.

《몇해전 국자감을 우수생으로 마친 내 제자일세.》

젊은이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차렸다.

《김충지라고 하오이다. 어려서부터 호연(최충의 자)사부님의 문하에서 글을 깨쳤소이다.》

박원작은 벙긋 웃으며 김충지의 손을 잡았다.

《아, 그러니 우린 동문생(한스승에게서 같이 배운 제자)이로구만. 이렇게 알게 되여 반갑소.》

《자, 그럼 떠나볼가.》

최충이 앞서고 그뒤를 두 제자가 따랐다.

어데로 가자는것일가.

박원작은 의문이 가득해서 최충이 가는대로 걸음을 옮기였다. 최충은 한동안 말없이 걷기만 하였다.

중서문하성이며 상서6부가 자리잡은 관청앞을 지나 남산(자남산)을 가까이하니 큰길 좌우로 끝간데없이 긴 행랑이 펼쳐졌다. 행랑앞으로는 가지각색의 채붕을 쳤는데 거기서 온갖 물건들과 음식들을 파는 사람들이 길손들을 끄느라 열을 올리고있었다.

최충이 어느 한 음식점을 가리켰다.

《마침 점심참이니 저기서 뜨끈한 추어탕을 먹고갑세.》

박원작은 스승을 만류하고싶었으나 사람들이 지켜보는것 같아 참고말았다.

아무리 평복차림으로 잠행을 한다 해도 한 나라의 재상인데 백성들이 드나드는 보통 음식점에 모실수 있는가.

그러거나 말거나 최충은 성큼성큼 걸음을 내짚었다.,

《내가 마음 쓰는것이니 자네들은 아무말 말게.》

최충을 따라 음식점에 들어서니 밥을 사먹으려던 사람들이 검은

색공복을 입은 박원작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박원작은 난처해서 최충을 바라보았다. 아무말말고 앉으라는 최충의 눈길을 거역할수 없어 그는 사람들이 내준 자리에 엉거주춤 앉았다. 그곁에 최충과 김충지가 비좁게 자리를 잡았다.

음식점주인이 황급히 박원작에게 달려와 허리를 굽석였다.

《저… 나리님. 추어탕외에 무슨 음식을 더 드시겠소이까?》

박원작은 더욱 난처해졌다. 음식점에 별로 나다니지 않아 추어탕집에서 어떤 음식을 덧내는지 알수 없으니 무엇을 내라고 청할수 있단 말인가.

최충이 무안해하는 박원작을 대신하여 입을 열었다.

《우리 주인님은 닭고기볶음을 좋아하오. 그러니 추어탕 세명분에 닭고기볶음 세접시, 청주 한되를 내오시오.》

인차 큰상에 음식이 차려졌다.

최충이 박원작에게 먼저 수저를 들라는 눈짓을 했다.

(에라, 할수 없지. …)

박원작은 송구스러운대로 숟갈을 먼저 집어들었다.

점심을 치르고나서니 음식점주인이 문밖에까지 따라나와 박원작에게 또 들리라고 인사를 하였다.

길에 나서자 박원작이 불평을 터뜨렸다.

《원, 사부님두. 옹색해서 혼났소이다. 이런 법이 어데 있소이까?》

《그게 바로 사람사는 재미일세. 이담에 자네도 제자들을 두면 그런 재미를 알게 돼.》

한담을 하며 최충을 따라가니 뜻밖에도 룡수산아래에 있는 광통보재선사(후에 연복사)로 들어서는것이였다.

박원작이 의아해하자 최충은 그의 손을 잡아끌었다.

《머리쉼은 이런데서 해야 하는걸세.》

개경장안에 숱한 절당들이 있건만 별로 드나든적이 없는 박원작은 광통보재선사에 들어서자 그 현란함에 어리둥절하였다.

《신통지문》이란 현판이 붙은 중문안에 이르니 그 웅장하고 화려하기가 만월궁에 비길만 하였다.

절간안에는 왕궁처럼 3지9정도 있었고 아찔하게 높이 솟은 5층루각도 보였다.

200척(60m)의 높이를 자랑하는 5층목탑을 법당앞에서 보았을 때 박원작은 《야!—》 하고 경탄이 저절로 나갔다.

보건대 최충은 이 절을 한두번만 드나들지 않은것 같았다.

그는 별로 한눈을 팔지 않고 제자들을 《라한보전》이란 글이 씌여진 금당안으로 이끌었다. 금단청한 라한보전은 정말 으리으리하였다.

금신선이라는 석가불을 중심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찌나 크고 요란한지 목을 뒤로 젖히고 쳐다보아야 했다.

박원작은 스승이 하는대로 두손을 합장하고 부처앞에 공손히 섰다.

최충이 속삭이듯 말했다.

《석가불의 근량이 한 수천근은 실히 되겠군.》

김충지가 응수했다.

《예, 그쯤 되겠소이다.,》

《좋아, 그럼 나가봅세.》

금당을 나선 최충은 하늘을 찌를듯 아스라하게 높이 솟아있는 목탑아래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김충지에게 눈길을 주며 물었다.

《우리 나라에서 크다고 할수 있는 불상들이 어데 있더라?》

김충지가 제꺽 대답했다.

《경주에 있는 분황사약사불상이오이다. 신라 경덕왕 14년(755년)에 본피부의 장공인 강고내미가 주관해서 만든것인데 무려 30만 6 700근(약 184t)의 놋쇠가 들었다고 하오이다.》

박원작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방금 본 불상들도 엄청나게 커서 경탄을 했는데 그보다도 수십수백배나 큰것도 있다니 그 말을 어떻게 곧이 듣겠는가.

김충지는 외워둔 말인듯 거침없이 이어나갔다.

《그보다 더 큰 불상도 있소이다. 분황사의 약사불상을 만든 거의 같은 시기에 왜섬으로 건너간 백제의 장공인들은 교또에 동대사절간을 세우고 73만근(약 440t)이나 되는 대불을 부어냈소이다.》

박원작은 놀랍기만 하여 또다시 눈을 크게 떴다.
김충지를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며 최충이 거듭 물었다.
《좋아, 그럼 우리 나라에서 크다고 할수 있는 종들은 어데 있는가?》
김충지의 대답은 거침없었다.
《예, 제일 큰 종으로는 신라 경덕왕 13년(754년)때 장공인 리상댁의 하전(종)이 주관해서 경주의 황룡사에다 만들어놓은 종이오이다.
1장 3촌(약 4m)의 높이를 가진 황룡사종의 무게는 49만 7천근(약 300t)을 넘는다고 하오이다. (황룡사종은 13세기 고려에 침입한 몽골군에 의해 파괴되여 없어졌다.) 버금가는 종으로는 신라 혜공왕 7년(771년)에 박한미, 대나미 같은 장공인들이 경주 병독사에 부어놓은 종이오이다. 에밀레종이라고도 하는 봉덕사종은 백치(3.3m)의 높이에 12만근(72t)의 놋쇠가 들었다고 하오이다.》
《잘 알겠소.》 하더니 최충은 다시 물었다.
《자네 조부께서 십왕사종을 만드는 일에 관여했다지?》
그 물음에 김충지는 얼굴색이 어두워지더니 풀이 죽어 대꾸했다.
《그때 소생의 조부뿐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역적 김치양(?—1009년 반란을 꾀하다가 처단됨.)의 속심을 알수 없었지요. 그러다보니 그놈이 반역하리라는것도 모르고 시키는대로 십왕사절간에 종을 부어 바쳤소이다. 이제는 깨여버려 없어졌지만 그 종을 만드는데 10만근의 놋쇠가 들었고… 개경장안에서는 제일 큰 종이였다고 하오이다.》
최충이 웃으며 말했다.
《이 사람 김공! 내가 십왕사종에 대해서 물은건 다른게 아니고 자네가 그런 큰 종을 만들수 없겠는가 해서일세.》
《원, 선생님두. 소생의 집안이 대대로 쇠를 녹이는 일을 해왔는데 아무렴 그만한 종을 부어내지 못하겠소이까.》
《아주 좋아!》
최충은 젊은 제자의 어깨를 두드리고나서 박원작에게로 눈길을 옮겼다.

《박공, 나도 천균노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네. 십여년전에 그러니까 강감찬장군께서 돌아가시기 이태전이였어. 그때 장군께서 여담삼아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고구려실록 비슷한 책이 하나 있다고 하더군. 그 생각이 나서 며칠전 장군의 옛집을 찾아갔댔어. 장군의 아드님인 강행경공이 그 책을 찾아주기에 펼쳐보니 마침 천균노에 대한 글이 있더군.》

박원작은 껑충 뛰고싶은 심정이였다. 그에게 있어서 천균노에 대한 글을 얻어냈다는것은 료원한 사막에서 샘을 찾아낸것만큼이나 큰 경사가 아닐수 없었다.

《고구려 영양왕(31대 임금) 24년(613년) 2월조에 이런 글이 씌여있었네. 〈임신년(612년)에 300만대군으로 우리 나라에 쳐들어왔던 수나라군사들이 몰살되고 구사일생으로 도망쳐간 수양제가 또다시 고구려를 치려고 하자 그의 신하들이 다음과 같이 여쭈었다고 한다. 고구려에는 천균노라고 하는 대포까지 있어 만대의 병거(기마전차)를 들이밀어도 대적할수 없소이다.〉, 이게 다야.》

천균노의 생긴 모양뿐아니라 그 위력까지 죄다 알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박원작은 그만 망연자실하여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마치도 입에 넣었던 떡을 졸지에 남에게 빼앗긴듯한 심정이였다.

최충이 껄껄 웃었다.

《이보게 박공! 그쯤한 일에 락심하다니. 자네가 언제 입에 넣어준 떡만 먹었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자네가 아니나.

고구려에 천균노가 있었다는것만으로도 자넨 시작을 뗐다고 할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천균노를 만들어낼수 있겠는가? 그전에 어찌하여 고구려의 선조들이 분명 3만근짜리 화포를 만들어놓고 그걸 천균노라고 불렀는지 그 뜻을 알아야 할거네. 선조들은 3만근이나 되는 위력한 화포가 고구려에 있다는걸 세상에 알려지길 바라지 않았을거네.

그래서 남들이 들어도 그저 큰 쇠뇌라는 느낌을 주려 일부러 쇠뇌라는 말을 덧붙여 천균노라고 했을거네.

이것만 보아도 선조들의 예지와 선견지명을 알수 있거든.》

박원작은 그제야 비로소 《천균노》라는 이름자체에 품었던 의문이 풀렸다.

스승의 말이 옳았다.

《내 생각에는 옛적의 천균노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그걸 알려고 할게 아니라 새롭게 만든다는 자세에 서야 한다고 보네. 자네 부친이 한것처럼 말일세. 자네 부친이 밝혀낸것처럼 고구려때에는 오늘과 같은 화약이 아닌 염초만을 썼거든.

세상에 없는걸 만들어내겠다는 자세에 서면 반드시 좋은 궁냥이 떠오를걸세.》

그 말에 박원작은 천균노를 꼭 만들어낼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배심이 그득히 차오름을 느꼈다.,

《박공! 자네에게 김공을 붙여주겠어.》

박원작도 놀랐지만 충지는 더욱 놀라와하였다.

그럼 박원작이를 도와 병기를 만들게 하려고 놋쇠를 녹여 불상이며 종을 만들었던 조상들의 업적을 새기도록 한것이란 말인가.

며칠전 최충은 집에서 과거시험공부에 몰두하고있는 김충지를 불러내여 선조들이 놋을 녹여 어떤 불상이며 종을 만들었는지 그걸 알아보게 하였다.

대대로 장야서의 말직벼슬을 하면서 쇠를 녹여온 집안에서 태여난 김충지에게는 남다른 꿈이 있었으니 그것은 과거에 급제하여 장야서나 군기감의 벼슬을 받아가지고 나라의 쇠를 녹이는 일을 주관하는것이였다.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강한 쇠를 뽑아내여 병쟁기며 농쟁기를 더 좋게 만들어내겠다는것이 바로 김충지의 소원이였다.

최충은 김충지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김공! 오늘날 자네가 설자리는 남들이 우릴 넘보지 못하도록 위압할수 있는 천균노같이 위력한 병쟁기를 만드는 곳일세. 이외 뭘 더 말하겠나.》

김충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씀의 뜻을 잘 알겠소이다.》라고 목메여 말했다.

《그렇게 리해해주니 고마우이.》
박원작은 비로소 스승이 왜서 자기를 절당으로 이끌었는지 그 마음을 알수 있었다.
스승은 바로 천균노를 만들자면 수만근의 쇠를 단번에 녹여내여 큰 물건을 부어내는 재간을 가진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는것을 깨우치려 한것이였다.
(사부님, 고맙소이다!)
박원작은 김충지의 팔을 잡으며 힘주어 말했다.
《김공! 우리 함께 서경으로 가기요.》
《박공!…》
최충은 두 제자를 량켠에 끼고 정겹게 말했다.
《설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푹 쉬고 가도록 하게.》
《사부님!…》

13

오늘은 남권부가 두문불출하고 집안에 들어박혀있는지 사흘째 되는 날이다,.
그는 박원작이 종전대로 북계병마도감사가 되여 서경으로 다시 내려온다는 공문서를 받은 날부터 집안에 들어앉아 화술만 퍼마시고있었다.
오라는 딸은 안오고 외통눈의 사위만 온다더니 리자연에게 병마도감의 주인이 될수 있게 힘써달라고 써보낸 글월의 답장은 안오고 생벼락이 떨어진것이였다.
억이 막혔다.
그 공문서를 받고 남권부는 눈앞이 아뜩했다. 고양이도 낯이 있다는데 박원작이 다시 내려오면 그와 어떻게 얼굴을 맞댈수 있단 말인가.
박원작이 어진 사람이라고 하여도 철덕의 불을 죽이게 했고 장

공인들을 박대한걸 알면 가만있자고 하지 않을것이다. 약빠른 고양이 앞을 못본다고 리자연의 힘을 입어 병마도감사로 될 욕심은 내면서도 혹시 박원작이 다시 올줄은 왜 생각하지 못했던가.

남권부가 우거지상이 되여가지고 신세타령을 하고있는데 누군가 대문을 두드려댔다.

사냥을 하겠다고 산판에 갔던 조득국이 온게다. 그래도 조득국이 이 남권부를 잊지 않고 찾아주는구나.

이런 생각에서 하인을 제쳐놓고 대문을 열었다. 활짝 열린 대문으로 들어서는 사람은 뜻밖에도 생면부지의 키가 작달만한 녀석인데 쥐상판같은 얼굴에서 두눈이 반들거렸다.

《이 집이 병마도감에서 소감벼슬을 지내는 남공댁이 옳소이까?》

기껏 소감이라는 새삼스러운 소리에 남권부가 울화가 뻗쳐났지만 가까스로 누르고 《내가 소감일세.》 하니 쥐상판녀석이 누가 들을세라 목소리를 낮추었다.

《례빈성에서 보내는 글월을 가지고왔소이다.》

례빈성이라면 리자연의 동생 리자봉을 말하는게 아닌가.

남권부는 급히 쥐상판의 녀석을 건너방으로 이끌었다. 그 녀석이 품에서 꺼내준 봉서에는 리자봉이 써보낸 글이 있었다.

봉서를 뜯고 글을 꺼내읽던 남권부는 제 눈을 의심할 지경이였다.

이런걸 가리켜 희소식이라 할것이다. 이는 속절없이 묻혀버릴번한 몸에 따스한 봄별이 비쳐든 격이니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는가부다.

남권부는 불과 몇줄밖에 안되는 글을 한식경이 되도록 읽고 또 읽었다.

이젠 살았다. 암, 리자연이 아무리 하늘꼭대기같은 자리에 올라앉았다 해도 젊었을적의 정이야 잊을수 없지.

남권부는 다시금 리자봉이 써보낸 글줄을 더듬었다.

《우리 형님은 남공을 잊지 않고있소. 공이 화약의 비방을 통달하게 되면 즉시 군기감의 주인자리로 승급시키겠다는거요. 군기감에다 염초장을 내오겠다는것이 형님의 뜻임을 명심해야 하겠소.

나라를 위해 하루빨리 군기감에 큰 염초장을 차릴수 있도록 공은 분발해야겠소. 이 글을 가지고가는 사람이 공을 도와줄거요.》

그러니 리자연에게 써보낸 글월을 그가 받아보았다는것이로구나.

글줄을 읽어내릴수록 짙은 먹장구름이 걷혀지고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듯싶었다.

이젠 할바를 찾았다. 군기감에도 염초장을 내와야 하고 거기서도 《신기한 병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것이 국익에도 맞고 리자연의 총애도 받을수 있는것이니 어찌 물불을 가리랴. 기어이 화약의 비방을 걷어쥘테다.

남권부가 돌석이를 주물러댔어도 화약의 비방을 아직껏 뽑아내지 못한 아쉬움에 이를 갈고있는데 분내를 물씬 풍기며 마씨가 들어왔다.

《이보라구요. 점심상을 다 차려놓은지가 언제인데 그냥 버틸셈이세요?》

그제야 남권부는 점심때가 되였다는것을 깨닫고 취상판의 녀석을 가리켰다.

《이봐, 개경손님인데 알고 지내라구.》

그리고는 《개경손님》에게 일렀다.

《자, 우리 안방으로 건너가서 점심을 나눕세.》

남권부는 《개경손님》을 뒤에 달고 안방으로 건너갔다. 잘 차린 음식상을 가운데 놓고 앉자 마씨가 차잔에 주전자를 기울였다.

《〈개경손님〉, 이건 인삼차라는거예요. 먼길에 고생하셨겠는데 이 차를 마시면 피로가 쭉 풀릴거예요.》

마씨가 내민 차잔을 받아둔 《개경손님》이 반들거리는 두눈에 웃음을 머금었다.

《마님, 인삼을 먹으면 기를 보해서 정욕을 북받치게 한다는데 외지에서 이런걸 받아 마셨다가 일을 칠가 두렵소이다.》

《아이, 〈개경손님〉은 말씀을 재미나게 하시는군요. 개경엔 맨 미녀들인데 인삼차를 장복하면서 재미를 보시면 좀 좋아요.》

《고맙소이다.》

김이 몰몰 나는 인삼차를 훌떡훌떡 마시고난 《개경손님》이 고

개를 갑삭이며 말했다.
《소감나리, 전 군기감에서 쇠를 수태 녹여보았소이다. 그러니 병마도감의 련장에 한자리 얻어주소이다.》
남권부는 눈이 둥그래졌다.
《행수자릴 말이요?》
《아니올시다. 그저 장공인이면 되오이다.》
《장공인으로?》
《옛 성현들이 이르시기를 자기의 근본을 잊지 않는게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소이까. 소인은 본래 천한 쟁인바치출신이라 근본으로 되돌아가는거야 당연한 일이지요.》
《고견일세. 근본을 잊으면야 안되지. 어참, 그대의 성함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구먼.》
《개경손님》이 고개를 숙이며 대꾸했다.
《소인이 먼저 아뢰야 하는건데… 이름은 심국종이고 나이는 서른살이오이다.》
《좋아, 헌데 꼭 철덕앞에서 막일을 해야 하겠나?》
심국종의 쥐상판에 야릇한 웃음이 연하게 비꼈다.
꼭 철덕앞에서 막일을 해야 하겠는가고? 염초장에 터를 잡으면야 더 좋지. 허나 거긴 남권부의 힘이 통하지 않는다니 그림의 떡같은 자리다.
《난 사실 군기감에서 리속(아전)을 하던 사람이올시다.》
심국종의 말은 사실이였다.
몇해전까지 리자봉의 집에서 사환질을 하던 심국종은 그의 줄을 타고 군기감에 들어가 아전노릇을 하였다. 주로 병기고의 일을 맡아보면서 화약과 수질노, 지어는 뢰등석포까지 리자봉이 주라고 하는 장사군들에게 빼돌려주었다.
그것이 다른 나라 장사군들에게 비싼 값으로 팔렸다는것을 심국종은 모르지 않았다.
전국의 군사들에게 병쟁기를 만들어주어야 하는 개경군기감에서는 화약과 《신기한 병기》들을 북계병마도감에서 받아다 경군에 넘겨주고있었다.

바로 경군에게 가닿아야 할 그것들의 일부가 다른 나라 장사군들의 손에 들어갔으니 리자봉은 죽을 죄를 진셈이다.

심국종은 서경으로 오기 착 전에 더 많은 화약과 《신기한 병기》들을 빼냈다.

10여년전에 몇번 찾아왔던바 있는 해지는 나라 대식국의 장사배가 벽란나루에 닻을 내렸다. 보나개라는 큰 장사군이 탄 배인데 동방나라들에서 보기 힘든 진귀한 보물들을 한가득 실어온것이였다.

날아가는 돈도 그 냄새를 맡는다는 리자봉이 어찌 보나개를 모른다고 하랴.

보나개는 전란에 시달리는 자기 나라에 소용되는 물건은 인삼이나 비단이 아니라 위력한 병기라면서 그런걸 달라고 리자봉에게 졸라댔다.

풍랑 사나운 바다를 헤가르며 머나먼 동방의 나라 고려를 찾아온것은 귀국이 천하대국인 거란을 물리쳤기때문이요 바로 그렇기때문에 고려에는 남다른 병쟁기가 있으리라는것이 보나개의 지론이였다.

리자봉은 서슴없이 보나개의 청을 받아물었다. 하여 적지 않은 량의 화약과 《신기한 병기》들이 대식국의 배에 실리게 되였다.

허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불과 몇명뿐이였다. 만일 이 사실을 발설하는 날이면 그는 귀신몰래 죽음을 당할것이다.

심국종은 크게 한숨을 내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소감나리! 소인걱정은 말고 편장에 넣어주기만 하소이다. 이건 다 지중추원사님의 뜻이오니… 거기서도 나리를 도울수 있소이다.》

《좋소. 지금껏 외토리신세였는데 리공이 보내준 자네가 곁에 있으니 내 뭘 두려워하겠소.》

남권부는 배심이 든든해짐을 느꼈다.

처음에는 까무잡잡한 쥐상판따위나 보낸걸 보면 리자봉의 수완도 알만하다 했는데 작자가 노리는 품이 여간내기가 아니다. 심

국종과 배짱이 맞겠다기보다는 그의 덕깨나 입을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기분이 흥그러워졌다.

《그런데 임자 거처지는 어쩔셈인가? 내가 마련해줄가?》

《그건 소인이 알아서 하겠으니 념려마소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리는 소인을 모르는척 해야 하오이다.》

남권부는 심국종의 꿍꿍이속을 알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자, 이젠 술을 들자구.》

14

술이 거나해진 박원작은 해질무렵에 집으로 돌아왔다. 10년어간에 술을 많이 마셔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였다.

주량이 청주 두사발이면 족한데 오늘은 허리띠를 풀고 마음껏 마셨다.

아마 댓사발은 잘 마셨을것이다. 최충의 생일날이여서인지 술이 마구 당겼다.

집뜨락에 들어서니 죽화가 달려나와 웃방으로 이끌었다. 방이 훈훈했다.

《아버님, 편히 쉬시와요.》

죽화가 펴준 포단우에 누웠으나 잠이 찾아들지 않았다.

어느덧 11월도 지나버리고 대설을 가까이했다. 그러니 서경을 떠나온지 벌써 수십일이 되였다.

날이 갈수록 커만지는 근심은 어떻게 해야 천균노를 만들어낼수 있을가 하는 그것이였다.

오늘 잠시나마 그 근심을 잊고 웃기도 하고 춤도 추었다.

얼마나 즐거운 날이였던가. 최충의 생일을 축하하여 그의 집이 좁다하게 숱한 제자들이 모여들었으니 어찌 흥성거리지 않을수 있겠는가.

이 개경장안에 나의 스승처럼 제자를 많이 둔 사람은 없을것

이다.

몸은 비록 국자감에 두지 않았어도 언제나 후진을 길러내는 스승된 마음으로 지나가던 길에 책을 읽는 젊은이만 보아도 아는것이 힘이라고 조언을 주고서야 갈 길을 가는 그였다.

남들이 부러워하도록 국력을 기르려면 인재가 많아야 하는데 그 인재는 하늘이 내여주는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나라 젊은이들을 가르쳐 키워야 한다는것이 스승의 지론이였다. 스승의 꿈은 온 나라에 책읽는 소리가 울려넘치게 하는것이였다.

해주의 평범한 선비집에서 태여난 최충은 어려서부터 공부하기를 좋아하여 학식과 문장이 훌륭했다.

21살에 과거에서 장원으로 급제한 그날부터 스승은 더 깊은 학식을 다지면서 후진을 기르는 일에 힘써왔다. 그동안 두차례나 지공거(책임시험관)로서 과거를 주관하여 인재를 선발하였는데 그들이 지금 조정에서 한몫씩 맡아한다.

오늘 스승은 제자들이 부어올리는 술잔을 받으며 당부하기를 벼슬길에 올랐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손에서 늘 책을 놓지 말라고, 그래야 나라앞에 의로운 일을 더 많이 찾아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는 벼슬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 집뒤로 학당을 크게 짓고 숨질 때까지 후진을 기르겠다는 속생각도 터놓았다.

스승의 집이 있는 부산동의 입구는 경치가 좋은데다가 터도 어지간히 있어 얼마든지 학당을 앉힐만 했다.

깍지낀 두손으로 턱을 고이고 엎드린 박원작은 마치 길을 가며 눈여겨보듯 부산동의 일대를 그려보았다.

만월궁의 동쪽곁에 고려의 10대사찰로 손꼽히는 큰 절간인 왕륜사가 있다.

왕륜사의 옆에 송악산의 깊은 골안에서 흘러내리는 개울이 나진다. 그 개울을 타고 동쪽으로 가느라면 수림과 괴암들이 아름답게 펼쳐진 광문동의 입구로 들어서게 된다.

이곳에 날마다 풍류객들이 찾아와 춤과 노래로 즐긴다고 하니 과연 명소라고 할만 했다.

개울을 따라 좀더 가면 한여름철에도 이가 시린 랭천이 솟구치는 박우물이 나진다.
거기서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펴보면 박우물을 병풍처럼 두르며 록음우거진 소나무숲이 멋드러지게 어우러진 깊은 골짜기를 올려다볼수 있다.
바로 그곳이 송악산명소중의 하나인 부산동어구이다.
최충은 그후 벼슬살이를 그만둔 인생말년에 자기의 뜻대로 부산동어구에 학당을 일으켰다. 락성, 대중, 성명, 경업, 조도, 솔성, 진덕, 대화, 대빙 등 9개의 서재로 나누어진 학당을 짓고 후진들을 키웠는데 세상은 그들을 가리켜 《시중 최공의 학도》라고 불렀다.
과거를 보려는 젊은이들은 의례히 먼저 최충의 학도로 들어가 공부하였는데 해마다 여름철이면 9재학당도 모자라 귀법사의 승방까지 빌려가지고 글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최충의 소행을 본받아 그후에 정배걸, 로단, 김상빈, 김의진 같은 여러 선비들도 곳곳에 사학을 일으켰다.
하여 마을마다 책읽는 소리가 넘쳐나게 되였으니 최충은 마침내 자기의 꿈을 실현할수 있게 된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10년후의 일이였다.
박원작은 스승에게 술을 부어올리던 장면을 생각하니 감회를 금할수 없었다.
오늘 최충은 박원작이 부어올린 술만은 쉽게 들지 못했다. 한동안 술잔을 부여잡고 정찬 눈길로 박원작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게 내 소원이다보니 나라의 방방곡곡에 학당들을 세우고싶으이. 허지만 국력이 약하면 그게 다 구름우에 루각을 짓겠다는것처럼 허황한것일세. 천균노와 같은 위력한 병기들로 군사들을 장비시키고 철벽같은 장성을 쌓아 나라의 안전을 굳건히 담보할 때 비로소 온 나라에 진정한 학풍을 세울수가 있네. 난 자네를 믿네.》…
어느새 눈물이 글썽해진 박원작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앉

았다.
스승의 고무와 지지가 있는데 내 어찌 천균노를 만들어내지 못하랴.
《웃방에서 자느냐?》
부드럽게 울리는 한씨의 목소리에 박원작은 미닫이문을 열었다.
《어머님.》
《글쎄 어쩐지 자는것 같지 않다 했더니…》
박원작은 아래방으로 내려가 한씨앞에 앉았다.
《어머님, 어데 몸이 편찮으시오이까?》
《아니, 그런게 아니고… 내 한마디 하라느냐?》
《원 어머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오이다.》
귀밑머리를 손가락으로 빗질하고난 한씨는 나직하나 엄한 어조로 말했다.
《내 아녀자로서 나라일에 간참하는것 같지만 언제 서경으로 가려 하느냐?》
박원작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조정에서 설을 쇠고 내려가라 했소이다.》
《?!…》
한씨는 머리를 흔들었다.
《내 어렸을적에 들은 소리인데… 고구려때 어떤 장수는 부친의 병이 위중하였지만 집에 들리지 않고 싸움이 벌어진 변방으로 나갔다고 하더라. 지금 거란란이 끝난지 스무해가 지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나라는 평온하지 못하구나. 들려오는 소문엔 변방에 오랑캐들이 무시로 출몰하여 마을들을 불지르고 사람들을 죽인다는데… 병기를 만들어내는 직분을 맡은 아범이 어찌 한가하게 집에서 맴돌수 있단 말이냐. 난 내 자식이 제 어미와 함께 설이나 쇠자고 중한 일을 미루는것을 원치 않는다.》
선잠에서 깨여난 죽화가 한씨의 팔에 매달렸다.
《할머니, 난 아버지와 함께 설을 쇠고싶어요. 조정에서도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아버지를 생각하여 설을 쇠고 가라하지 않았나요.》

죽화의 애원소리에 박원작은 슬그머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서 눈물이 굴러떨어졌다.

한씨의 질책소리가 준절하게 울렸다.

《죽화야, 그럼 못쓰느니라. 아버지는 네 아버지이기 전에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사다. 병기를 만들라는 임금의 령을 받은 신하가 어찌 사사로운 일에 발목을 잡힐수 있단 말이냐.》

박원작은 눈물을 거두고 죽화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얘야, 할머님말씀이 옳다. 이 아비는 천균노라는 화포를 시급히 만들어내라는 임금의 어지를 받은 몸이다. 어지를 받은 신하가 우에서 설을 쇠고 가랜다고 어찌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어머님! 제 생각이 짧았소이다.》

한씨가 죽화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죽화야, 우리 나라일을 먼저 생각하자꾸나.》

《알았사와요, 할머니.》

《그래야지.》

제 2 장

1

마차행렬은 험하기로 소문난 동주의 절령고개를 힘겹게 넘고 있었다.

박원작은 행렬의 선두에서 우중충한 좌우의 깎아지른 산들을 근심어린 눈길로 살펴보고있었다.

절령의 근처에 자비사라는 큰 절간이 있다고 해서 자비령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고개를 벌써 몇번째로 넘지만 그때마다 손에 땀을 쥐고 가슴을 조여야 하는 험한 령이였다.

가파롭고 우불구불한 굽이가 스물인지 서른인지 알수없이 많은데다 금시 무너져내릴듯한 아스라한 칼벼랑이 간담을 서늘케 하고 게다가 한낮에도 중소만한 호랑이들이 길을 막고 덤벼드니 어찌 한순간인들 마음을 놓을수 있으랴.

이 절령을 지날 때면 지난날 거란의 란이 떠올랐고 거란란을 생각할 때면 두주먹이 떨리고 이가 갈려진다.

그때 거란오랑캐두목 소손녕은 감히 고려에다 대고 절령의 이북땅을 내놓으라고 호통을 쳤었다.

비겁하고 무능한 조정벼슬아치들은 제 한목숨만을 먼저 생각하면서 강한 적군은 상대를 잘 들이치나 약한 아군은 자기를 지켜내지 못한다는 고사를 꺼들어 절령이북을 거란군에게 내주자고 하였다.

만약 그때 서희장군이 없었더라면 어쩔번 하였는가.

서희장군은 분연히 애국충정의 보검을 뽑아들고 오늘날 오만한 적군의 허장성세에 굴복하여 절령이북의 광활한 령토를 내여준

다면 래일은 또 송악산이북은 물론 나중엔 온 고려땅을 내놓으라고 할것이니 한치의 땅도 오랑캐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아, 좀더 일찌기 화약을 구워냈더라면 이 땅에 침노한 오랑캐무리들을 보다 더 통쾌하게 족쳤을텐데…

마부석에 앉은 절령역참의 역관지기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박원작에게 물었다.

《병마도감사님, 어느쪽길로 가시겠소이까?》

《?!…》

생각에서 깨여난 박원작은 나직이 대꾸했다.

《운봉역(서경부근의 역참)쪽으로 가면 좀 빨리 갈수 있을테니 그쪽길로 가는게 좋겠소.》

《알겠소이다.》

무사히 절령을 넘어온 마차행렬은 중화쪽으로 기세좋게 내달렸다.

개경에서 서경으로 가는 역참길은 크게 두길이 있다. 서해도의 안주(재령)를 거쳐 황주를 통해 가는 길과 절령을 넘어가는 길인데 절령을 넘는 길은 또 둘로 갈라져서 황주 아니면 중화를 지나 서경으로 들어간다.

이번에 나라에서는 박원작에게 병마도감에서 쓰라고 10여마리의 말과 여러대의 마차를 내주었다. 말들은 하나같이 살지여 털에 윤기가 찰찰 흐른다.

이전과 달리 여러대의 마차를 끌고 절령역에 들어섰더니 구면인 역관지기가 반겨맞아주었고 이어 길잡이를 자청해 말았다.

박원작은 서경에 마침 볼 일이 있어 가야 한다는 그의 사정을 알고 쾌히 그 청을 들어주었다.

그래서 역관지기가 마부석을 차지했다.

역관지기는 채찍을 휘두르지 않고서도 말을 빨리 몰아가는 재간이 있는것 같았다.

그가 마부석에 앉은 때부터 느릿느릿 마차를 끌던 말들이 제집으로 돌아갈 때처럼 네굽에 바람을 일으켰다.

박원작은 기세좋게 달리는 말을 바라보며 미소를 머금었다.

말은 아직 동주고을을 벗어나지 못했다. 서해도에서 제일 동쪽으로 치우쳐서 교주도(오늘의 강원도)와 접경한 고을인 까닭에 동주(오늘의 서흥군, 봉산군, 연탄군의 일대)라 불리우는 이 고을은 나라의 요충지인 절령을 끼고있다.

나라의 도읍으로 직통하는 절령에는 태평시절에도 항시 백여명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있었다.

역참들은 대채로 30~45리에 자리잡고있는데 거기에는 공무행차로 가는 벼슬아치들이 지친 말을 갈아탈수 있도록 말을 기르는 마구칸들과 사람이 묵어가는 역관사가 있었다.

역관지기는 역말들을 돌보고 역관사를 거두는 일을 맡은 역졸 몇명을 거느린 역리로서 늘 볶이웠다.

이웃역참들에서 공문서가 든 가죽주머니를 역관에 보내올 때면 역관지기는 만사불구하고 그것을 넘겨받아 그날로 4~6개의 역참길을 달려 그다음 역관에 전해야 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수시로 오고가는 벼슬아치들의 시중을 들어주는 일이다. 역참에 들려가는 벼슬아치들마다 제가 제일인듯이 기고만장해서 호통질로 법석인데 그 리유인즉 역관방이 루추하다거나 역말이 비루먹었다거나 나중에는 말대접이 공손치 못하다는것이였다. 지어는 생트집을 잡아 역졸들을 손찌검까지 하였다.

그것이 괴로와 역졸들은 얼마 못있어 무슨 구실을 대고서라도 역관을 떠나가버린다.

그런데 절령역참의 역관지기는 대대로 역참일을 달게 해온다니 그게 이상한 일이였다.

박원작은 역참문제를 잘 모른탓에 뜻밖의 고생을 당했던 8년전의 그날을 돌이켜보았다.

북계병마도감사로 전직된 그해 봄날 박원작은 한시급히 서경으로 가고싶어 부지런히 말을 때려몰았다. 개경을 떠난 이튿날 봉주고을의 도공역참에 당도하니 말은 달리는것이 아니라 벌벌 기는 정도였다. 하긴 늙은데다 여윈 말이니 2백리 넘는 길에 지칠대로 지친것이였다.

그런데 도공역에서 내주는 역말은 더 한심한 말이였다. 어찌나 말랐는지 갈비대가 아른거리고 등골은 마치 끌날같았다.

해사하게 생긴 도공역의 역관지기는 괜찮은 역말들은 이미 다른 벼슬아치들이 다 타고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정 갈 길이 바쁘다면 그 말이라도 타고 가라고 하였다.

어서 빨리 서경갈 마음뿐인 박원작은 그런대로 비루먹은 말에 올라탔다. 겨우 한고개 넘었는데 말은 벌써 쓰러질것 같이 허청거렸다.

아무리 말을 못하는 짐승이래도 사람을 믿고 사는 말인데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랴.

박원작은 말에서 내려 걷지 않으면 안되였다.

박원작이 비루먹은 말을 끌고 절령역참에 들어서니 그 역참은 딴판이였다.

나많은 역관지기가 마중나와서는 박원작이가 고삐를 잡고있는 비루먹은 말을 보고 눈섭을 찡그렸다. 그는 첫눈에 그 말이 도공역의 역말인줄을 알아본것이다.

절령역의 역졸들이 하는 말이 도공역관지기는 코등에 구미여우가 살살 기여다니는 간사한자여서 벼슬품계가 낮은 관리들에겐 늙고 병든 말이나 내준다는것이였다.

그러면서 절령역관지기는 도공역관지기와 판판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다. 하긴 사람이란 천태만상이니까.

박원작이 아무말도 없이 역관사앞에 서있는데 역관지기가 가슴이 쩍 버그러지고 살진데다가 기름을 바른듯 말갈기가 윤기돌고 멋스러운 백마를 끌어내오는것이였다.

벼슬품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역참에 당도하는 순서대로 좋은 말을 내여주는 이런 사람을 대바르고 선량하다 아니 할수 있겠는가.

박원작은 너무 고마와 그에게 손때묻은 장도칼을 꺼내주었다. 장도칼손잡이는 값비싼 호박으로 만든것인데 국자감을 마친 그 해를 뜻해서 산것이였다. 역관지기가 사양했지만 박원작은 굳이 그의 손에 쥐여주고야 흔연한 마음으로 말에 올랐던것이다.

그때로부터 두해가 지난 후 아직도 그 늙은 역관지기가 절령역에 남아있다는것을 안 박원작은 개경가는 길에 그에게 활을 하나 가져다주었다. 여가시간에 심심풀이 겸 사냥을 하게 하고싶었던것이다.

그후 여러번 절령을 오가면서 지내보니 역관지기는 참말 진국이였다. 추녀낮은 그의 집에는 값나갈만한 귀물은 없었어도 그는 늘 웃는 얼굴로 길손들을 맞아들이고 떠나보냈다.

알고보니 역관지기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사는 홀아비였다. …

뜰에 가득찬 달빛은 한없이 밝은 초불이요
자리에 들어오는 산그림자는 언약도 하지 않은 손님일세
더구나 솔바람 불어 거문고 울리니
이사이 밝은 풍취나 사람에게 못전할가
…

심산계곡을 기세좋게 빠져나가는 마차행렬을 고무해주려는듯 덜커덕거리며 굴러가는 수레바퀴소리에 가락을 맞추어 노래소리가 랑랑히 울렸다. 역관지기의 아들 일랑이의 노래소리였다.

퍽 귀에 익은 그 노래는 두달전 개경가던 길에서 절령역에 들렸을 때 역관지기의 아들인 그에게 박원작자신이 배워준 노래였다. 박원작은 마부석쪽의 일랑이부자에게로 눈길이 갔다.

얼핏 보매 역관지기는 일랑이에게 있어서 할아버지라고 해야 어울릴것 같았다. 하지만 사실 그는 이제 쉰을 가까이한 사람으로서 깊은 산중의 험한 곳에서 고된 일에 부대끼며 살다보니 나이보다 훨씬 겉늙어보일뿐이였다.

일랑이 역시 정이 끌리는 아이였다. 그로 말하면 이제 14살인데 벌써부터 잡다하기 이를데없는 역참일에 막히는데가 없었다.

볼수록 정이 가는 그들부자의 모습에서 눈을 못떼며 박원작이 부지중 자리를 뒤채이는데 손에 잡히는것이 있었다. 울퉁불퉁한 베자루였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박원작은 눈물이 핑 돌았다. 개경사람들이 즐겨먹는 토란과 고수를 서경에 가져다 심어먹으라고 어머니가

손수 꾸려준 종자자루였다.

박원작은 집을 나서기에 앞서 어머니에게 서경에 가서 함께 살자는 청을 드렸다. 했더니 어머니는 사람은 늙어 제 살던 고장을 떠나면 아무리 살기좋은데라 해도 마음이 쓸쓸하여 사는 재미를 모르니 그런말말라고 잘라말했다. 기실 그것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그랬을것이다.

그런 어머니를 남겨두고 몇해가 걸릴지 기약할수 없는 서경살이를 떠나야 하니 하직의 인사말조차 변변히 나가지 않았다.

여느때처럼 《그동안 편안히 계시오이다.》라든가 《인차 돌아오겠소이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보여 오정문밖에까지 따라나와 바래워주는 어머니에게 입을 봉한 사람처럼 그저 허리굽혀 절만 차렸다.

그러는 박원작이 보기 딱했던지 죽화가 그의 팔을 잡고 《아버지, 제가 할머니를 잘 모시겠사오니 아무쪼록 여기 근심을 놓고 일에 전심해주사이다.》 하고 말했다.

기특한 딸이였다. 그런 죽화를 보았더라면 해연이 얼마나 기뻐했으랴.

해연은 어떻게 지내고있는지? 아마 개경에로 옮겨갈 차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을지도 모른다.

해연의 정겨운 모습을 그려보느라니 대동강의 푸른 물이 늠실대는 아름다운 서경이 겹쳐들었다.

아, 서경! 서경이 고향처럼 정깊게 느껴지는것은 무엇때문일가. 정든 해연이 나서 자란 고향인때문만도 아니고 8년간의 추억이 깃들어있어서만도 아니다. 그것은 박달임금이 첫 도읍을 정한 조종의 땅이고 천년토록 강국의 위용을 떨쳐온 고구려사람들의 얼이 엿보이는 땅이기때문이리라.

하기에 3국통합의 원대한 뜻을 이룬 왕건태조대왕이 서경천도의 마음을 담아 이런 유훈을 남기지 않았던가.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 우리 나라 지맥의 근본으로 되여있으니 만대왕업의 기지라고 할수 있다. 후세의 임금들은 마땅히 춘하추동 사시절의 중간달에 서경으로 가서 백일이상 머무름으로써 왕

업을 도모할지어다.》

태조대왕의 유언을 받들어 그동안 서경을 얼마나 몰라보게 일신시켰던가.

고려건국과 더불어 다시 일떠선 서경은 나라에서 두번째가는 큰 도회로 변모되였는데 다른 도회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분사까지 있다. 개경의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본딴 관청인 분사에는 서경에 머무르는 문무관원들을 통솔하는 랑관과 정사를 펴는 아관이 있고 도읍의 6부 비슷한 병부령, 납화부, 진각성, 국천부, 관택사, 도항사 등이 있다. 그리고 태조대왕이 만대왕업의 기지를 떠받들 인재를 길러내려고 건국13년(930년)에 세운 우리 나라 최초의 지방학당인 학사원도 있다. 이뿐아니라 서경에는 임금이 행차하여 들수 있는 장락궁, 관풍전 같은 궁궐들도 솟아있다.

성은 또 어떠한가. 고구려적에 있었다던 평양성을 본래대로 다시 쌓았을뿐아니라 신해년(1011년)에는 그안에 황성까지 축성했다.

그 하나하나에는 고구려와 같은 강국을 일떠세우려는 고려사람들의 굳센 의지가 어려있는것이다.

박원작은 뿌듯해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저 멀리 서경의 하늘을 바라다보았다.

서경의 맑은 하늘을 바라보느라니 기어이 옛 성지에서 천하제일의 위력한 병기를 만들어내리라는 마음이 더욱 굳어졌다.

2

박원작이 선두에 타고가는 마차행렬의 맨뒤에는 김충지가 앉아가고있었다. 서민차림을 한 그는 덜거덩대며 쉬임없이 굴러가는 수레에 앉아 최충의 당부를 다시한번 되새기고있었다.

며칠전 박원작은 김충지에게 사람을 띄워 설전으로 서경으로 내려가겠다는 결심을 알리였다.

설을 쇠지 않고 갑작스레 서경으로 내려간다니 이게 웬말인가.

놀란 김충지가 최충을 찾아가서 그 사실을 전하니 그는 껄껄 웃고나서 《내 그럴줄 알았다니까. 하긴 그래서 박원작이지.》 하더니 정색해서 말했다.

《내 이제 하는 말을 명심해두게. 자넨 박공과 함께 서경에 가되 천균노를 만들어낼 때까지 그의 곁에 있어야 하네. 그것도 벼슬이라고 말할수 없는 련장교위(련장의 기술감독관)로 말일세.》

그 말에 김충지는 기가 막혔다.

스승이 국자감의 산학과를 우수한 실력으로 마친 이 제자를 박원작의 버금가는 관직에서 일하라 할줄 알았는데 기껏 한개 장의 교위나 하라니 그것은 너무한 처사로 여겨졌다.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어려서부터 련장일을 해본 자네가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수 없네.》

스승의 말이 속으로 내려가지 않아 김충지는 한숨을 거듭 내쉬였다.

그가 어려서부터 련장일을 한것은 사실이였다. 개경에는 쇠나 구리를 녹여서 갖가지 물건을 만들어내는 장야서라는 관청이 있는데 김충지의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다 거기서 승(정8품관)의 말직벼슬을 하였다. 말이 벼슬이지 그들은 언제나 장공인들과 함께 쇠물이 끓는 철덕앞에서 웃통을 벗고 일했다.

《천균노를 만들어내는 일이 국사중의 국사인줄은 자네도 잘 아는것이고…말을 바로한다면 천균노를 만들어내는 일은 책을 읽는것과 달라서 박원작이 아니면 누구도 그를 대신할수 없다는것일세. 그런 인재는 어데 가서도 데려올수 없으니까.》

김충지는 그 말에 어깨를 낮추었다. 스승의 말을 그 누가 부인하랴. 국자감의 선배인 박원작은 인재중의 인재여서 그가 없이는 《신기한 병기》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할것이다.

최충은 나직이 탄식조로 말했다.

《내 미처 박공의 일에 관심을 깊이 돌리지 못한것이 지금에 와서 참 후회되네. 아마 조정이 그를 더 잘 도왔더라면 우린 이미 천균노같이 굉장히 위력한 병기도 가졌을거네. 그리고 내 알아보니… 나쁜 놈들 작간으로 박원작이 만들어낸 화약도 그렇고 수

질노도 타국으로 빠져나간게 틀림없네.》
김충지는 깜짝 놀랐다. 스승의 말이 참말이라면 나라는 큰 손실을 당한게 아닌가. 그 위력한 병기가 적국의 손에 들어갔다면 세상에 더 큰 재난이 닥쳐오리라.
김충지는 의분이 끓어올라 부르짖었다.
《사부님! 도대체 어떤자들이 그걸 타국에 넘겨주었소이까?》
최충은 두눈을 크게 뜨고 자기를 쳐다보는 김충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머리를 기웃거렸다.
《아직은 그자들이 누구인지 딱히 까밝혀내지는 못했네. 그런자들을 밝혀내는것도 급한 일이지만 그보다 우리의것이 더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나쁜 놈들이 발붙일 틈을 주지 않는게 더 급선무일세. 아직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은 아니니 이제라도 정신을 바싹 차리고 방비를 잘하면 되네.》
김충지는 안도감으로 해서 숨이 나갔다.
《자넨 아는것도 많고 고생도 겪어보아 누구보다 박공을 크게 도울수 있네. 자네가 할 일은 크게 두가지인데… 첫째로는 박공을 도와 천균노를 만들어내는것일세. 지금 천균노를 만드는 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정에도 있고 그밖의 다른 곳에도 있을거네. 보다는 타국사람들이 그걸 안다면 꼭 훼방을 놀거나 그 비방을 훔쳐가려고 접어들걸세. 그래서 천균노를 만드는 일이 어려울거네.
천균노를 만들자면 단번에 놋쇠 3만근을 녹여내야 하는데 그런 일엔 자네가 조예가 깊으니 마음이 놓이네. 둘째로는 화약의 비방이 타국에 새여나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막는것일세. 물론 박공이 염초장을 직접 맡아보면서 화약의 비방을 엄수하고있지만 그 혼자 힘만으로는 미타해. 적들도 이목이 밝고 간계에 능한것만큼 우리가 하나를 하면 그 못지 않게 대응해나올거네.
그러니 자넨 남들의 눈에 표나지 않게 장공인들과 휩쓸려서 매사에 눈을 밝히고 귀를 도사려 랑패가 없도록 방비를 해야겠네. 재삼 당부하지만 천균노를 만들어내는 일이자 화약의 비방을 지켜내는 일임을 명심하게.》

그러면서 최충은 이제 서경에 가거들랑 리자연의 줄을 타는 사람부터 알아내고 그들의 동태를 살피면 할 일이 나질거라고,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자그마한 실수도 없도록 하라는 당부를 하였다.

펄럭, 펄럭…

바람이 풍막을 흔드는 소리에 김충지는 고개를 쳐들었다.

절령을 넘어서인지 날은 한결 푸근했다.

일감을 똑똑히 걸어쥐고 서경으로 마차를 몰아가는 김충지는 낯선 고장이 다가오고있건만 앞일이 두렵지 않았다.

3

반달은커녕 초생달도 없는 밤이였다. 사위는 코를 베여가도 모를만큼 어두운데 고리문근처의 남권부네 집대문앞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좀 있어 집안에서 불이 켜지더니 초롱불을 든 사람이 뜨락으로 나섰다. 이 집의 하인이였다.

《게 누구요?》

대문을 두드리던 사내가 낮으나 위협적인 목소리로 재촉했다.

《빨리 문을 열기나 해!》

초롱불을 든 하인이 짜증이 나서 대꾸했다.

《어뗜 턱 떨어진자인데 반말이야?》

대문을 두드리던 사내가 언성을 돋구었다.

《빨리 열지 못하겠어?》

《흥! 누군지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문을 열지 않겠다!》

그제서야 대문을 두드리던 사내가 목소리를 낮추고 사정했다.

《이보게, 서경류수댁에서 보내는 급한 전갈을 가져왔네. 어서 집주인을 나오시라고 이르게.》

《흥! 류수댁이면 단가.》

대문을 두드리던 사내가 왈칵 성을 내며 대문을 흔들었다.
《너 자꾸 약을 올리겠어? 너 이놈! 어디 물고를 내야 정신이 들겠니?》
《흥! 네가 물고를 내면 난 불고를 낼테다.》
《뭐야? 너 정 이러겠니?》
《흥!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운 법이야. 너 떡떡거리며 큰소릴 잘도 치는데 어디 밤새껏 문앞에서 두덜대봐라.》
밸이 뒤틀린 하인은 대문빗장을 열기는커녕 그대로 돌아서버렸다.
이때 방문을 열고 대청마루에 나선 남권부가 소리쳤다.
《밤중에 누군데 소란스레 떠드는거냐?》
하인이 재빨리 퇴돌로 다가가 대꾸했다.
《주인님, 서경류수댁에서 왔다는 놈인데 제놈이 감히 대문을 열라고 호령질이올시다.》
《류수댁에서?!… 거 모를 일인데. 하여간 열어주게.》
《알겠소이다.》
하인은 일부러 느린 걸음을 치며 대문으로 갔다. 그리고 느릿느릿 빗장을 끄당겼다.
찌—쿠웅—
하인은 느릿이 대문을 열며 마깝지 않은 투로 소리쳤다.
《들어오게.》
그 순간 대문밖에서 작달막한 사나이가 비호같이 달려들어 하인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이놈! 너 정말 죽어보겠어?》
어찌나 멱살을 드세게 조였던지 하인은 당장 숨이 넘어갈듯 해서 쩔쩔맸다.
《다시한번 맞섰다간 아예 죽여버리고말테다. 난 들어가지 않겠으니 너의 주인을 잠간 나오랜다고 일러라. 어서!》
멱살을 놓인 하인은 숨을 게걸스레 마시고서야 주춤주춤 뒤걸음을 쳤다.
《주… 주인님! 밖에 잠간 나오랍십니다.》

《허— 별 싱거운 놈 다 있군.》
남권부는 속이 발끈했지만 상대가 류수댁이라니 애써 마음을 누르고 뜨락에 내려섰다. 하인이 그의 앞에 초롱불을 비쳐댔다.
대문밖에까지 환하게 비쳐지는 불빛에 대문을 두드리던 작달막한 사내의 모습이 얼핏 드러났다.
남권부가 대문앞에 이르자 놀란 도적고양이마냥 날쌔게 대문뒤에 붙어섰던 사내가 소리를 죽여가며 말했다.
《주인님, 좌우를 물리쳐주소이다.》
남권부는 화가 치밀었으나 어쩌는가 두고보자는 심산에서 초롱불을 제가 들며 하인을 물러가게 하였다.
그제서야 대문뒤에 붙어섰던 사내가 앞으로 나섰다.
남권부는 하마트면 고함을 지를번 하였다. 앞에 나선 사내는 뜻밖에도 복면을 썼는데 초롱불에 드러난 그의 두눈에서는 이상한 광채가 번뜩이고있었다.
남권부는 속이 떨렸지만 위세를 돋구어 《으험—》 하고 기척을 냈다.
《넌 도대체 누군데 그 모양이냐?》
복면쓴 사내는 작달막한 몸집을 크게 불구고싶었던지 가슴을 한껏 내밀었다.
《소인은 사실 길복이라고 하는데 심국종어른의 심부름군올시다. 그 어른이 보내는 물건을 가져왔소이다.》
《뭐라구? 심국종의 심부름군이라구? 그럼 류수댁이란건 뭐야?》
《그건 댁의 종놈이 문을 냉큼 열어주려 하지 않기에 일부러 주어댄 거짓소리올시다.》
복면의 사내는 남권부가 미처 꾸짖을 사이없이 재빨리 혀를 놀려댔다.
《소인은 원래 리공 큰집 하인이올시다. 심국종어른을 도우라는 분부를 받고 얼마전에 여기로 내려왔소이다.》
리공 큰집이라면 리자봉의 형 리자연공을 가리키는 소리가 아닌가!
남권부는 잡친 기분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정신이 펄쩍 들

었다.
이거 일이 간단하게 번져지지 않는가부다. 화약의 비방을 알아내서 개경군기감에다 염초장을 차려놓는 일을 리자연이 직접 주관하는 모양이다. 하긴 나라의 군국대사를 맡아보는 리자연이니 그 량반 어벌에 십분 타당한 일이다. 그 사람이 뒤에서 떠밀어준다면 무엇을 두려워할손가.
《헌데 자넨 왜 낯을 가리웠나?》
《예, 심어른이 훈시하기를 소인의 얼굴을 남들이 보면 좋지 않다고 하였소이다. 소인이 자주 이 집에 심부름을 와야 하는데 종들이 보면…》
남권부는 은근히 놀라왔다. 심국종 그녀석이 하는 품이 여간 간특하지 않았다. 그자식 속이 우뭉한 놈이야.
심국종은 남권부에게 자기 거처지도 알려주지 않았고 개경에서 부하 몇을 달고왔는지도 말해주지 않았다. 요즘 그는 련장칸에서 일하고있는데 어느 장공인들처럼 허줄한 옷을 입고 우스개소리도 곧잘했다. 그러다가도 남권부가 나타나면 전혀 모르쇠를 하는데 그의 속을 짐작하기란 미궁속을 들여다보기보다 더 캄캄했다.
《음… 자네 상전이 그렇게 하란다면 별수가 없지. 가져온 물건이 있으면 이리 내게.》
길복은 손에 쥔것을 내밀었다.
남권부는 자기에게 와닿는 지팽이를 보자 흠칫하며 소리쳤다.
《이건 뭐야?》
《주인님, 이 지팽이를 받으시오이다.》
길복은 남권부에게 또하나의 물건을 들려주었다. 목침 절반만한 나무궤였다.
《주인님! 이 두 물건을 잘 건사해야 하오이다. 심어른이 이르시기를 벽엔 남의 귀가 붙어있고 문엔 또 남의 눈이 걸려있다고 했소이다.
그럼 소인은 물러가겠소이다.》
길복은 말을 마치기바쁘게 바람같이 사라져버렸다.
남권부는 꿈이 아니면 도깨비에 홀린듯한 기분이여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있었다.

안에서 《이보세요, 밖에서 뭘해요?》 하는 마씨의 부름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남권부는 부랴부랴 대문을 닫고 나무궤를 옆구리에 꼈다. 그리고 한손으로 지팽이를 잡고 뜨락을 꿰질렀다.

그가 대청마루에 올라서니 언제 방을 나왔는지 룡뇌향을 풍기며 마씨가 캐물었다.

《웬놈인데 이밤중에 나오라말라 해요?》

남권부는 심국종이 당부했다는 말이 생각나서 딴전을 부렸다.

《어, 별놈 아니야. 류수댁에서 종놈을 보냈는데 섣달그믐날에 주연을 베풀겠으니 나를 오라누만.》

《원, 그따위나 알리자고 한밤중에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며 야단법석이예요?》

《그… 그러게나 말이요.》

마씨는 입을 샐쭉거렸다.

《그런데 손에 쥔 지팽이는 어데서 난거예요?》

《지팽이?… 어, 한밤중에 떠든다고 꾸짖었더니… 글쎄 종놈이 이걸 떨구고 똥줄이 빠지게 도망치더군.》

《흥! 잘은 둘러치는군요.》

마씨는 입술이 뾰로통해서 치마바람을 일으키며 안방으로 들어가버렸다.

남권부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는 손에 쥔 지팽이를 굽어보았다.

도대체 이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가.

그는 안방에 들어가 마씨의 치마벗는 모습을 달콤한 기분으로 눈요기하려던걸 걷어치우고 외헌(사랑방)문을 잡아당겼다.

외헌에 들어선 그는 누가 엿보지나 않나 해서 두리번거리다가 방문고리를 걸었다. 그리고 옆에 꼈던 나무궤부터 초불아래 내려놓았다.

귀중품을 넣어두는 자개박이함이였다.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가.

가슴을 울렁대며 자개박이함의 뚜껑을 여니 그안에 또 그보다 작은 자개박이함이 들어있었다.

대관절 무엇이기에 이런 값진 보물함에 담았을가. 금덩이가 들어있는게 아닐가. 그렇다면 작히나 좋겠는가.

남권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작은 보물함의 뚜껑을 열었다.

《히야!—》

대번에 그의 입에서 환성이 터져나왔다. 보물함에는 연분홍빛이 번쩍이는 보물이 반나마 차있었다.

《아니, 이게 야광주가 아니야?…》

남권부는 목이 터져라고 웨치고싶은 탄성을 가까스로 삼키고 보물함에서 령롱하게 반짝거리는 진주보석을 욕심나게 들여다보았다.

이만한 진주보석이면 한해쯤은 넉근히 뚱땅거리며 잘살수 있을것이다!

불현듯 서발짜리 왕구렝이가 목을 칭칭 휘감는듯한 으쓱한 느낌이 들었다. 남권부는 다급히 보물함의 뚜껑을 덮고 그것을 이불속에 감추었다.

문에도 남의 눈이 걸려있다는데 혹시 이걸 누가 훔쳐보진 않았을가?

남권부는 날래게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그는 한동안 바깥의 동정을 두리두리 살폈다. 마씨는 이미 잠에 들었는지 안방은 어둠속에 묻혀버렸고 하인들이 든 행랑채도 괴괴하였다.

《후유— 노루가 제 방귀에 놀란다더니…》

급히 방문을 닫은 그는 누가 빼앗기라도 하는듯 보물함을 장농속에 깊숙이 감추었다.

마음을 눅잦히며 남권부는 참대지팽이를 집었다. 그러자 두근거리며 마음이 또다시 산란해졌다.

옛적에 강조의 늙은 아버지가 역적 김치양의 못된짓을 일일이 적어넣은 글쪽지를 이런 참대지팽이속에 감춰가지고 서경에 가있던 자기 아들에게 보냈다고 하지 않았는가. 수만의 북계군을 거느린 도순검사 강조는 참대지팽이속에 든 글월을 꺼내보고는 그길로 군사를 이끌고 개경으로 쳐들어가 김치양을 쳐죽이고 현종을 등극시켰다고 했다.

그렇다면 심국종은 무슨 급한 사정을 알리자고 강조의 아버지처

럼 이런 지팽이를 보냈을가.

남권부는 겁먹은 눈길로 지팽이를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손잡이쪽을 좌우로 비틀며 잡아당겼다. 생각했던대로 손잡이가 쑥 뽑아져나왔다. 구멍이 뚫린 참대속에 돌돌 만 종이말이가 끼여있었다.

그것을 뽑아든 남권부의 가슴은 방망이질을 해댔다. 도대체 어떤 불길한 소식을 적었기에 지팽이속에 넣어보내지 않으면 안되였을가.

남권부는 조심스레 종이쪽지를 펼쳤다. 두세번 보아나서 낯이 익은 심국종의 글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소감나리에게 전하오이다. 인차 박원작이 서경에 당도하겠는데도 나리의 마음이 편하오이까? 장공인들에게 내주어야 할 료미는 왜 아직도 움켜쥐고있소이까? 그 료미를 다 없애치웠다면 야광주로 쌀을 사서 하루이틀내로 장공인들에게 내주도록 하소이다. 이건 〈개경어른〉의 뜻인줄 아시오이다.》

남권부는 두눈을 감았다. 불의에 한몽둥이 얻어맞은듯 했다.

아, 이게 무슨 랑패란 말인가? 왜 그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렸을가.

그는 머리를 싸쥐고 몸부림을 쳤다. 내가 이렇게까지 한치앞도 내다 못보는 청맹과니가 되여버렸단 말인가.

남권부는 박원작이 떠나가자 장공인들에게 내주어야 할 두달분의 료미를 내주지 않았다.

다른 관청들에서도 벼슬아치들이 저마다 백성들을 등쳐먹는데 나라고 왜 그런 놀음을 하지 못하겠는가.

그래서 료미를 팔아 은덩이를 사들였다. 장차 운수가 막혀 벼슬자리에서 떨어진대도 떵떵대며 잘살아가자면 손에 관직을 쥐고있을 때 묵돈을 챙겨놓아야 한다는것이 벼슬아치들의 너나없는 마음이였다.

이런 생각에서 속이 뜬뜬해있었는데 난데없이 개경에서 심국종이 찾아들었다.

그가 가져온 리자봉의 글월을 받아본 남권부는 그동안 자기가 망

쳐놓은 일을 바로잡으려고 서둘러 뛰여다녔다.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두었던 놋쇠를 내놓아 철덕에 다시 불을 지펴 뢰등석포도 부어냈고 수질구궁노도 만들게 하였다.

이로서 숨죽은듯 하였던 병마도감이 이전처럼 활기를 띠였다. 이젠 됐다 하고 한숨을 돌렸는데 알고보니 료미생각은 감감 잊고있었다. 하마트면 엉치를 깨칠번 하였다.

남권부는 궁지에서 건져준 심국종이 고맙게 여겨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 목숨이 그의 손에 쥐여져있는듯한 생각이 갈마들며 속이 불안해짐을 어쩌지 못했다. 이거 주객이 전도되는게 아니야?…

4

어느새 해는 서산너머로 떨어져버려 사위는 어둠속에 묻혔다. 병마도감에서 제일 붐비는 곳인 련장에서도 장공인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김충지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련장뜨락을 거닐고있었다.

며칠전 그는 박원작의 일행으로 따라와 병마도감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병마도감을 손바닥처럼 살펴볼수 있는 서기산골안의 중턱에 있는 집을 한채 세내였다. 삼간초가집인데 지은지 얼마 안되여 탐탁해보이는 집이였다.

거처지에 려장을 풀어놓은 김충지는 다음날부터 병마도감에 나와 일하면서 의심스러운 사람들에 대해서 파고들었다.

동녘하늘에 떠오른 반달이 련장뜨락을 거니는 김충지의 모습을 비쳐주었다.

서른전의 김충지는 보통키에 다부진 몸매인데 별로 두드러져보이지 않는 얼굴에서 그래도 인상에 남다른것이 있다면 코날이 곧아 칼칼해보이는 그것이였다.

그는 낮에 철덕앞에서 팥죽같은 땀을 흘리며 일하느라 피로했지만 좀처럼 떠나지 않는 근심걱정으로 해서 거처지로 돌아갈수 없

었다.

과연 스승이 맡겨준 일을 제대로 감당해낼런지…

놋쇠를 녹여 집채만한 물건을 만들라는것은 두려울게 없지만 사람들속에 숨어서 못된짓을 하려는 나쁜 놈들을 붙잡아내는 일만은 자신이 없었다. 숨은 적을 들추어내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통 배운것이 없으니 말이다.

아니, 그건 짧은 생각이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큰일을 맡아하겠다는 마음만 굳세다면 무슨 일인들 감당치 못하겠는가.

타국이 박아넣은 간자(간첩)들이란게 실은 자기 동족을 등진 추물이여서 오래 배겨내지 못할것이다. 그런 놈들은 반드시 추악한 몰골에 붙어있는 꼬리를 드러내기마련이니 눈만 밝히면 얼마든지 잡아낼수 있다.

그럼 어떻게 이 일을 펼쳐나갈것인가?

선차로는 박원작과 가까이 사귀는 사람들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필경 적의 눈과 귀는 바로 그들속에 숨어있을것이다.

최충은 대개 수재로 취급되는 인재들은 한가지 일에 몰두하는 정신으로 하여 주위에 대한 감각이 무디고 다른 일에는 무관심하다고 말하였다.

옳은 말이다.

박원작은 오로지 《신기한 병기》에만 정신이 쏠려있을터이니 자기를 가까이하려는 사람들의 진속을 꿰뚫어보려 하지 않을것이다.

그 사람들중에서 누가 딴마음을 품고있을가?

김충지는 련장칸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장공인들과 친숙하게 어울리면서 그 한생각으로 박원작과 가까운 사람들을 예리하게 살피였다.

대뜸 그의 시야에 든 사람은 련장행수 근달이였다. 박원작이 서경에서 제일먼저 사귄 사람이 근달행수라니 그 사람부터 의심해야 함은 자명한 리치다.

대대로 병마도감에서 일해온다는 근달은 철덕앞에서 잔뼈를 굳히였고 하여 쇠를 다루는 일에서는 막힘이 없었다. 아버지와 함께 서희장군에게 보검을 벼려준 그가 딴마음을 가질수 있을가.

박원작과 가까운 사람은 또한 근달의 아들이자 염초장행수인 돌석이였다. 그러니 그를 의심해야 한다.

박원작은 무엇이 그렇게도 믿음직스러워 아버지와 아들에게 병마도감의 노란자위라고 할수 있는 련장과 염초장의 행수직을 맡겨주었을가. 서경본토배기여서인가?

만일 그들부자가 딴마음을 가졌다면 벌써 열두번이고 화약의 비방은 적에게 새여나갔을것이다. 적에게 그 비방이 새여나갔다면 이거야말로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다.

아니, 아직은 그렇게 단정할수 없다. 근달이 부자를 나쁜 사람이라 보기에는 지나친데가 있다.

보다 의심이 드는 사람은 병마도감의 소감벼슬을 하는 남권부였다. 리자연과 국자감의 동배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여 최충의 문하인 박원작을 가까이하게 되였고 여기 서경까지 따라왔을가.

친구의 친구는 내 친구라는 말은 스승의 적수이자 나의 적수라는 말에 비길수 있을것이다. 리자연과 절친한 남권부는 그가 꺼려하는 최충을 좋아할리 없다. 결국 남권부는 최충이 총애하는 박원작을 좋아할 까닭이 없다.

바로 여기에 무슨 흑심이 있을것이다. 장공인들이 하는 말이 남권부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라는것이다. 박원작이 조정의 부름을 받고 개경으로 올라가자 그는 병마도감의 주인으로 행세하면서(물론 박원작의 위임을 받긴 했지만) 화약의 비방을 내놓으라고 돌석이를 강박하였고 그뿐아니라 놋쇠를 내주지 않아 철덕을 숨지게 하였으며 또 료미마저 제때에 내여주지 않았다고 한다. 박원작이 다시 병마도감사로 내려온다는 소문이 나서야 그는 부랴부랴 철덕에 불을 지피게 하였고 료미도 내주었다니 과연 의심이 가는 자였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남권부는 앞뒤가 판판 다른 사람이 옳다.

스승은 리자연과 선이 있는 사람들을 놓치지 말고 그뒤를 헤쳐보라고 하였다.

신의가 있는 사람은 의심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남권부에게 신의가 있다고 말할수 있는가.

그에게 신의가 있다면 박원작의 부탁대로 그동안 병마도감의 일을 말썽없이 해나가야 했다. 확실히 남권부에게는 신의가 엿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그를 의심해야 함은 정한 리치다. 남권부 그 사람을 과녁으로 정해놓고 그와 손을 잡은자들을 따져보는것이 좋을듯 하다.

남권부! 어디 한번 맞서보자!

마음의 탕개를 바싹 조여서인지 김충지는 늦저녁이지만 배고픈줄을 몰랐다.

5

박원작은 아침일찍 병마도감에 나왔다. 돌아볼수록 마음이 흐뭇해짐을 금할수 없다.

대소한의 맵짠 추위속에서도 병마도감의 어느 장이나 막론하고 군사들에게 더 좋은 병기를 만들어보내려는 열의가 넘쳐나보였다. 뭐니뭐니해도 련장의 철덕에서 놋쇠를 녹이는 연기가 세차게 뿜어나오는것이 마음에 들었다.

염초장에서도 불이 붙었다. 워낙 승벽이 센 돌석이 남들에게 뒤질세라 기세를 부리니 그 열성이면 설전으로 몇천근의 화약을 무져놓을것 같다.

노통장에서도 저녁늦도록 수질구궁노와 불화살을 만드는데 그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다.

이게 다 남권부 그 사람이 애쓴 보람이기도 하다. 달포가량 철덕이 멎긴 하였다지만 그때 못한 봉창을 하려고 남권부가 이리저리 뛰여다녔다니 과연 사람을 헛보지 않았다.

시작을 잘 뗐다고 해서 그끝을 잘 맺는다고는 할수 없다. 사람이 일하느라면 일시 타산을 잘못해서 랑패를 볼수도 있다. 독불장군이라고 남권부 그 사람이 본의아니게 장공인들을 무시하다나니 그들의 미움을 받아 한동안 병마도감이 멎게 됐을것이다. 허

나 자기 잘못을 깨닫고 여러 행수들에게 의거해서 일을 펼쳐나가니 이렇게 병마도감이 움직여지는것이다.

어떻게 하나 명년가을까지는 변방의 군진들에 수질구궁노를 넉넉히 만들어 보내주어야 한다.

허나 흐뭇한 마음인데도 납덩이마냥 무겁게 매여달리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자나깨나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는 천균노였다.

글을 알아야 문장을 지을수 있고 형체를 보아야 그림을 그릴수 있다고 아직은 천균노의 모습을 그려볼수 없으니 이게 근심이 아니고 뭔가.

한가지 명백한것은 고구려의 천균노에 염초를 썼다면 지금 만들자고 하는 고려의 천균노에는 화약을 써야 한다는것이다.

고심하면 고심하는 일거리가 꿈속에 나타나서 생시에 걸렸던 매듭을 풀어준다는데 어이하여 이 박원작이에게만은 그런 복이 아직도 찾아들지 않는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며 여러 장들을 다 돌아보고난 박원작은 방금전에 돌아본 련장으로 다시금 발길을 돌리였다.

비오나 눈이 오나 장공인들이 불편없이 일하도록 기와지붕을 넓게 씌운 련장칸은 사면으로 벽체가 터져있고 그 한가운데 열댓자높이의 철덕이 자리잡고있었다.

철덕우에는 2층루각인양 지붕우에 또 덧지붕을 세워 연기가 잘 빠져나갈수 있게 하였다.

박원작이 스적스적 걸어 련장에 이르니 장공인들이 모여앉아 웃고떠들고있었다. 철덕에 넣은 놋쇠가 녹기 전이니 잠시 쉬면서 한담을 하는 모양이였다.

멍석을 펴고 장공인들이 빙 둘러앉은 한켠에서 련장칸의 웃음보따리로 소문난 키꺽다리 군만이가 목청을 돋구어가며 이야기판을 펼치고있었다. 동네마실방의 오랜 이야기군처럼 우스개소리를 곧잘하는 군만이 어떻게 구수한 이야기거리를 펼쳤는지 장공인들모두가 턱을 쳐들고 그의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있었다.

《에— 다음은 군서방질에 맛들인 계집의 못된 그 버릇을 떼주는 비방을 얘기하겠소이다.

그 비방을 털어놓고 말할것 같으면》 하고 으쓱해서 자기를 지켜보는 장공인들을 빙 둘러보던 군만이 불쑥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그래?!…》

군만의 딱친구인 메득이 일어선 군만의 팔을 잡아당기며 소리쳤다.

《여, 이거 귀맛이 나서 어디 참겠어? 어서 말하란 말이야.》

군만은 정색해서 메득의 손에서 팔을 뽑더니 소리쳤다.

《메득이, 병마도감사님이 오셨구만.》

그 소리에 군만이를 쳐다보던 장공인들이 엉거주춤 일어섰다.

박원작은 팔을 내저으며 웃었다.

《다들 앉게. 내가 이야기판의 흥취를 깼는가. 넘어진김에 쉬여가랬다고 마저 이야기를 듣소.》

군만이 배를 쑥 내밀며 대꾸했다.

《병마도감사님, 그러다 소인이 가지고있는 이야기밑천이 다 빠지겠소이다. 재미나는 이야기일수록 고조되는 대목에서 딱 끊었다 해야 들을 맛이 있소이다.》

《허— 이야기하는데도 묘리가 있군 그래. 좋아, 그럼 후에 나도 듣겠네.》

박원작은 군만의 실팍한 어깨를 철썩 두드리고나서 한켠에 서있는 김충지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박원작의 눈길을 느끼자 김충지는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다.

그러는 김충지를 보는 박원작은 속이 좋지 않았다.

사실 박원작은 그를 귀빈으로 병마도감에서 제일 좋은 집인 별관에 들게 하고 놋쇠를 녹이는 일만 맡아보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김충지는 최충의 당부라면서 굳이 련장칸의 교위일을 자진했다.

어찌 그뿐이랴. 폐를 끼칠수 없다면서 제가 직접 초가집을 얻어가지고 사는데 무슨 까닭이여서인지 자기가 병마도감사와 아는 사이라는것을 숨겨야 한다며 매번 모르쇠를 한다.

꼭 그렇게 해야만 천균노를 만들어내는 일을 돕는것인지…

근달이 소매속에서 종이말이를 꺼내들고 박원작에게로 다가왔다.

《병마도감사님! 이걸 좀 봐주시오이다.》

근달이 내민 종이말이를 받아든 박원작을 장공인들이 빙 둘러쌌다. 김충지도 새로 련장칸에 들어온 심국종이도 종이말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박원작은 종이속의 그림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짐작했다.

근달이 지팽이모양의 그림을 가리켰다.

《이걸 생긴 모양대로 불막대기라고 부르기로 했소이다. 손잡이쪽은 나무를 깎아 끼우고 그외는 몽땅 놋쇠로 부어 만들자는것이오이다. 뢰등석포처럼 불막대기에도 화약통과 격목통을 만들어서 화약을 터뜨려 화살을 날리게 하자는것이오이다.》

박원작은 눈을 쪼프리고 그림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곧 불막대기가 묘한 병기가 될수 있겠다는것을 깨달았다. 불막대기가 팔우노처럼 화약의 힘을 써서 화살을 날린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할수 있지만 개별적인 군사들이 간편하게 몸에 지니고 아무때고 쏠수 있다는 점은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것이였다.

이런 병기를 만들어서 군사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준다면 그 위력은 실로 대단할것이다.

번기가 박원작을 조심스레 쳐다보며 물었다.

《저… 병마도감사님, 안되겠소이까?》

대답대신 박원작은 부지불식간에 종이말이를 움켜쥐였다.

《?!…》

놀라와하는 장공인들의 눈길을 느껴서야 박원작은 자기가 기분이 좋은김에 종이말이를 움켜쥐였다는것을 알아차리고 껄껄 웃었다.

근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렸다.

《병마도감사님, 그걸 바로 능산이가 궁냥해냈소이다.》

박원작은 근달에게 떠밀려서 앞으로 나서는 능산이를 바라보았다.

《네가?!…》

능산이 어줍게 웃으며 대꾸했다.

《그건 제 혼자 궁냥해낸게 아니고 우리모두가 함께 의논해서 그린것이옵니다.》

박원작은 능산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글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장공인들이 제힘으로 묘한 병기를 궁냥해내다니…

인차 박원작은 고개가 끄덕여졌다.

8년전 여기 병마도감으로 내려왔을적에 장공인들을 그저 소나 말처럼 부리면 그만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오랑캐들에게 불벼락을 안기는 《신기한 병기》를 만들련다는것을 안 그들이 제 집일처럼 받들어주어 모든 일을 순풍에 돛단듯 거침없이 해제낄수 있었다.

장공인들이 시키는 일이나 하려 했다면 그동안 그렇게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을것이였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장공인들이 무엇때문에 그런 큰 열성을 내여 일하였겠는가.

박원작은 처음으로 백성들도 나라를 위하는 큰 마음을 안고산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벼슬아치따위들과는 도저히 비길수 없을만큼 넓고 깊다는것을 아직은 알지 못하고있었다.

박원작은 새삼스럽게 장공인들의 갸륵한 마음이 헤아려져 능산이에게 책망조로 말했다.

《이걸 왜 인제야 내놓느냐?》

번기가 그를 대신해서 대꾸했다.

《능산이가 그런 궁냥을 내놓았을 때는 온 병마도감이 숨져버렸고… 또 인차 병마도감사님이 다시 내려온다기에…》

박원작은 가슴이 찌릿하여 새삼스레 장공인들을 둘러보았다.

《능산아, 이 불막대기는 군사들에게 큰 도움을 줄수 있겠다.》

일제히 환성이 터졌다.

박원작을 둘러싸고 장공인들이 웃고떠드는데 남권부가 나타났다. 그는 곧장 박원작에게로 다가와 귀띔했다.

《박공, 나 좀 보았으면 하오.》

장공인들과 휩쓸리기를 꺼려하는 남권부의 습성을 잘 아는 박원작은 그가 이끄는대로 따르지 않을수 없었다.

남권부는 박원작을 별관으로 이끌었다.

별관의 큰 방에 들기바쁘게 박원작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남공! 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러는거요?》
남권부는 따끈한 온돌방에 자리를 잡고서야 퉁명스레 대꾸했다.
《박공! 오늘이 내 후처의 귀빠진 날이요. 고게 박공을 꼭 모셔오라고 성화를 먹이니 내 이러지 않소.》
무슨 큰일이 생겼나 했던 박원작은 어이가 없어 웃음을 터뜨렸다.
《웃지 마오. 동병상련이라고 자넨 내 처지를 잘 알지 않소. 후처가 어떤 요물인지 잘 알테니 내 말 좀 듣소. 사실 처녀로 들어온 후처는 말썽이 별로 없지만 한번 시집갔던 계집은 날이 갈수록 사내를 우습게 안단 말이요. 반대로 장가갔던 사내는 계집을 맞아들일수록 점점 더 주눅이 들기마련이고. 내 계집은 요염한 기생퇴물이라 사내 홀리기에 귀신이여서 그한테 덧나면 팔세가 말이 아니요. 그러니 저녁에 꼭 와야겠소.》
그렇지 않아도 남권부를 조용히 만나서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고싶었던 박원작은 쾌히 응했다.
《좋소. 기꺼이 가리다!》
남권부의 입이 헤벌어졌다. 이 몇달사이의 일로 박원작이 자기를 좋지 않게 보지나 않는가 해서 은근히 마음을 조이던 남권부는 그가 순순히 응해나오자 무릎을 치고싶은 정도였다.
《박공! 내 체면을 생각해주어 고맙네.》
《원 사람두, 별소릴 다 하누만.》

6

약속한대로 박원작은 해질녘에 남권부의 집을 찾아갔다.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던 남권부가 반색을 하며 박원작을 손잡아 안방으로 이끌었다.
방에 들어선 박원작은 어리둥절해졌다.
함박꽃같이 잘난 마씨의 교태도 뜻밖이거니와 비단휘장을 두

른 넓은 방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잘 차린 음식상이 놀라와서였다. 온갖 산해진미가 모두 오른 요란한 음식상을 불과 몇사람이 둘러앉아보기는 처음이였다.

《병마도감사님은 이쪽에 앉으시와요.》

마씨는 찰찰 감기며 박원작의 팔을 잡아 아래목의 금수방석우에 앉히였다.

박원작이 어색해할수록 마씨는 더욱 애교를 부리며 은방울 굴리는듯한 고운 목청을 돋구었다.

《언제부터 병마도감사님을 청하려 했었는데 오늘에야 제 소원이 풀렸나이다. 글쎄 제 주인은 어찌나도 덜퉁하고 데면데면한지 소녀의 생일날조차 친지분들을 청해올 생각을 않더라니까요. 오늘 제 주인의 몫까지 합쳐 술을 부었으니 이 잔을 받아주시와요.》

마씨가 내민 술잔을 받으려던 박원작은 급히 손을 쳐들었다.

《잠간만! 이런 날에야 안주인에게 먼저 한잔 부어드리는게 도리지요. 자, 내가 붓는 술을 받으소.》

박원작이 부어준 술잔을 받아든 마씨는 생글생글 웃으며 몸을 꼬았다. 그는 술을 단숨에 마시더니 엄지손가락을 꼽아보였다.

《병마도감사님같이 친절하고 세심한분은 세상에 더 없을거예요.》

마씨가 내민 술잔을 받아 입에 가져가던 박원작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생전처음 보는 술이다. 빛갈이 노르끼레한데 술에서 나는 특이한 향내가 기분을 돋구었다.

마씨가 박원작에게 고운 눈길을 던졌다.

《아이, 어서 드시와요.》

마씨와 남권부의 재촉에 술잔을 다 비운 박원작은 감탄을 터치였다. 세상에 이렇듯 감미롭고 향기로운 술도 있었는가.

《이 술맛 참 기막히오이다.》

《병마도감사님은 이런 술이 처음인가 봅니다? 이건 청주를 달여 뽑은 맑은 술에다 인삼을 담그어낸 술이오이다.》

박원작은 진실로 감동되여 고개를 끄덕였다.

술 한가지만 보아도 이 집의 문명을 알수 있다. 이런 좋은 술은 타국에도 없을것이다. 술이 좋은것도 나라의 문명에 기여하는것으로 될것이다.

《병마도감사님은 어떤 음식을 즐기시나이까? 소고기산적도 있고 잉어회도 있는데 어느걸 권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박원작은 하마트면 《난 말이요, 우리 집 사람이 만드는 서경랭면을 제일 즐겨하오.》 하고 말할번 하였다.

요란하게 잘 차린 음식상을 둘러보니 유감스럽게도 시원한 동치미국물에 만 메밀국수는 없었다.

남의 집에 와서 성의껏 차린 음식상을 외면하고 굳이 없는 음식을 좋다고 하면 되겠는가.

《허허— 너무도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 정말 갈피를 잡을수 없소이다. 손이 가는대로 내가 다 즐기는 음식이오이다.》

《그럼 됐나이다.》

박원작은 마씨가 접시에 놓아주는 노루고기산적을 집어 입에 넣으며 남권부가 보통 수완군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8년전 서경에 처음 내려왔을적에 박원작은 경상골의 제 집곁에다 그가 살 집을 지어주려고 하였다.

그런데 얼마동안 병마도감의 별관에 려장을 풀어놓았던 남권부는 갑자기 고리문근처에 있는 이 큰 기와집을 사들였다.

그때 박원작은 깜짝 놀랐다. 남권부가 어데서 많은 돈이 났기에 고래등같은 기와집을 다 샀을가. 이 박원작이 같으면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그런 고대광실은 살 엄두도 못내겠는데…

하여간 남권부는 괴짜에 괴짜였다.

박원작은 덩실한 기와집에서 홀로 사는 남권부를 생각하여 맞춤한 혼처를 물색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도 남권부는 제힘으로 서경에서 제일이라 할만큼 뻬여지게 고운 마씨를 후처로 맞아들였다.

어찌 사사일에서만 남권부가 수완이 있다고 하랴. 공적인 일에서도 그는 수완이 대단하였다.

지금껏 병기도감에서 숱한 병쟁기를 마음대로 만들수 있은것은 남권부가 놋쇠같은 쇠붙이를 척척 구입해와서였다. 놋쇠는

군기감에서도 귀히 쓰는것인데 그는 개경에 가기만 하면 손쉽게 구해왔다.

박원작은 그런 면에서라면 자기는 남권부의 곁에 가지도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열스무가지로 편안한 집이 없다고 남권부에게는 한가지 불행이 있었다. 그가 전처에게서도 자식 하나 보지 못했는데 마씨한테서도 태기가 없는것이였다. 돈 놓고는 못웃어도 아이 놓고는 웃는다는데 슬하에 자식 하나 없어서야 무슨 살 재미가 있겠는가.

그 일을 해연에게 걱정삼아 말하였더니 어떤 녀인들은 서른고개에 가서야 임신을 할수 있다는것이였다. 마씨가 아직 서른전이니 실망해할것까지는 없다는 소리였다.

《병마도감사님! 언제까지 저의 주인을 그냥 서경에다 붙들어두렵니까. 언제면 제가 개경가서 살아볼수 있는지요?》

마씨가 그런 말을 허물없이 꺼내드니 박원작은 말하기가 한결 헐했다.

박원작은 인삼을 담그어낸 술을 달게 마시는 남권부에게 나직이 말했다.

《이보게 남공! 그대만 응한다면 난 조정에 아뢰여서 그대를 개경군기감으로 전직(관직을 옮기는것.)시켜주겠네.》

마씨보다도 남권부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하였다.

박원작의 이 말은 술기운때문이거나 혹은 상대의 환심을 사느라 즉석에서 꾸며낸 말이 아니였다. 그는 개경에서 자기가 병마도감사로 다시 내려가게 된것을 알았을적에 남권부를 대신 군기감으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제는 개경군기감에서도 뢰등석포며 수질구궁노를 만들어낼 때가 되였다고 본 그였던것이다. 그래야 온 나라의 모든 군진들을 《신기한 병기》들로 갖추는 일이 앞당겨질수 있었다.

그런 생각에서 박원작은 군기감을 찾아갔었다. 군기감의 주인인 판사는 박원작을 반갑게 맞아주면서 그렇지 않아도 북계병마도감사가 자기네의 소감직을 겸했으니 《신기한 병기》를 만들수 있

게 도움을 청하려 했다고 했다. …

남권부는 개경군기감으로 전직시켜주겠다는 박원작의 말이 믿어지지 않는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박공! 그게 롱담으로 한 소리는 아니겠지?》

《허— 사람두, 롱말을 할게 따로 있지 그런 말도 롱담으로 하겠나. 》

남권부의 목에서 울대가 오르내렸다.

도대체 저 박원작의 속은 어떻게 되였기에 남을 좋게 해주려 애면글면 하는걸가. 저 사람도 지금껏 나라위해 쌓은 공이면 얼마든지 높은 관직에 올라설수 있겠는데.

현명한 임금은 상을 사사로이 주지 않으나 공을 세운 신하에게는 작위를 하사하고 능력있는 신하에게는 높은 관직을 내준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박원작이 저 사람에게는 응당히 작위와 함께 높은 관직이 차례져야 하는것이다.

허나 박원작은 위력한 병기들을 줄곧 만들어냈건만 임금의 부름은커녕 그 어떤 상도 받지 못했으니 과연 조정의 처사를 알만 하다.

그런데도 박원작은 조정을 나무랄대신 나라의 안녕만을 근심하고있으니 이런 사람이 어디 쉬운가.

남권부는 아직은 자기의 진속을 감추고 딴전을 부렸다.

《박공! 공은 나라를 위해 이룩해놓은게 많은데 아무런 대가도 차례진게 없으니 도대체 공은 무얼 바라기에 사사일은 밀어놓고 공사에만 그리도 극성인가?》

그 말에 박원작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났다.

어쩜 남권부 저 사람이 이런 술좌석에서 그런 말을 꺼내놓는것일가.

뭘 바라기에 공사에 극성인가고? 아직은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보이지 않은 가슴속의 제일 깊은 곳에 자리잡은 진속을 터놓으라는건데… 아니, 진속은 아무데서나 쉽게 헤쳐놓는것이 아니다.

박원작의 마음을 엿보았는지 마씨가 남권부에게 눈을 흘기였다.

《이보세요. 뻔한걸 다 묻누만요. 예로부터 불의로써 지닌 부귀는 뜬 구름과도 같다고 했어요. 병마도감사님이 남들처럼 그따

위 부귀영화를 탐낸다면 애초에 서경으로 내려오지부터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마씨는 남권부의 옆구리를 꾹 찔러댔다.
남권부는 마씨의 속내를 알아차렸다.
왜서 마씨가 오늘 이자리를 마련하였던가. 그래 자기의 출세를 도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인가.
며칠전 마씨는 화약의 비방을 손에 넣어야 개경의 군기감으로 출세해갈수 있다는 남권부의 말을 듣고 박원작을 집에 청해오자고 하였다.
그래서 가짜생일놀이를 꾸며낸것이였다. 사실 마씨의 생일은 오늘이 아니라 여름철이였다.
마씨가 박원작에게 술을 권해 취하게 만들면 남권부가 그의 속을 뽑아내기로 하였다.
바로 오늘 이자리에서 어떻게 하나 염초를 화제거리에 올려서 그에 대한 박원작의 태도를 타진해야 하였다.
남권부는 마씨에게 눈을 찔끔해보이고는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공! 공은 개경군기감에서도 뢰등석포를 부어내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다 염초장도 내오려 하나?》
마씨가 부어준 술을 마시고난 박원작은 흔연히 대꾸했다.
《거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남권부는 너무 기뻐 볼편을 씰룩거렸다.
그는 바라는것이 너무 쉽게 풀려나가는듯싶어 현훈증이 날 지경이였다.
개경에 염초장을 차리려 한다는걸 리자연에게만 알리면 군기감의 주인자리는 먹어놓은 떡이다.
하지만 박원작의 다음말에 남권부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러나 그게 인차는 안될것 같네. 한동안은 우리 염초장에서 구워내는 화약만으로도 부족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천균노를 만들어내면 그때 가서 군기감에도 염초장을 내오려고 하네.》
남권부는 속이 발칵 뒤집히는것 같았다. 그의 언성은 절로 높아

졌다.
《그럼 대씨인지 발해사람인지 하는 그 늙은이의 말을 곧이 듣고 천균노란걸 해보겠단건가?》
《그렇네. 옛적에 천균노가 있었다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힘이 나나. 병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쯤한걸 만들어야 직성이 풀린단 말일세.》
마씨는 두눈이 동그래가지고 박원작을 쳐다보았다.
《병마도감사님, 천균노는 또 무슨 병기오이까?》
박원작은 마씨에게 웃음을 지어보이며 대답했다.
《예, 천균노는 뢰등석포보다 몇십배, 아니 몇백배나 더 큰 3만근짜리 화포인데 수백근이나 되는 바위돌을 멀리 날려 단숨에 적진을 짓뭉개버릴수 있는 병기지요.》
마씨의 얼굴이 경탄의 빛으로 물들었다.
《그래요?! 그런 병기를 가진 나라는 얼마나 강하겠나요. 정말 그런 병기를 만들수만 있다면 제 어찌 만금재산인들 아끼겠나이까.》
남권부는 볼이 잔뜩 부어서 두눈을 지릅뜨고 마씨를 쏘아보았다.
다 먹었다고 여겼던 화약의 비방을 천균노때문에 망치다니, 그것도 모르고 남의 사내에게 맞장구를 치는 계집이 어디 똑똑한 년인가.
《이봐, 아녀자가 뭘 안다고 사내들의 일에 끼여들어?》
마씨도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천균노가 나라를 지키는데 더할나위없는 위력한 병기라는데 그 일에 발벗고나서는거야 백성의 응당한 도리가 아니겠나이까.》
마씨의 말은 박원작을 크게 감동시켰다.
마씨가 이렇듯 훌륭한 녀인이란걸 여태 왜 몰랐을가. 사내의 그늘에 묻혀 지금껏 자기를 드러내지 못한때문인가.
박원작은 술잔에 술을 가득 부었다.
《부인! 오늘 현숙한 부인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된것이 정말 기쁘오이다. 이 술을 받으시고 남공의 일을 더 잘 도와주시길 바

라오이다.》
마씨는 방긋 웃으며 박원작이 내미는 술잔을 받아들었다.
《병마도감사님, 오늘을 잊지 않겠나이다. 저의 주인이 천균노를 만드는 일에 발벗고나서도록 힘껏 돕겠나이다.》
《고맙소이다.》
남권부는 그제야 마씨의 속심을 알아차렸는지 술잔을 쳐들며 말했다.
《박공! 난 개경으로 가지 않겠소. 나도 여기 남아서 천균노를 만들어낼 때까지 박공을 돕겠소.》
박원작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두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이 글썽했다.
《남공! 부인!…》
《박공!》
술이 거퍼 몇순배 돌았다. 술이 거나해진 박원작은 쉬고가라는 마씨부부의 청을 사양하고 대문을 나섰다.
남권부는 초롱불을 켜든 하인을 불러 박원작을 집에까지 모셔가라고 분부를 내렸다.
하인을 따라 집으로 가는 박원작은 유쾌한 기분이였다. 천균노만드는 일을 잘 돕겠다는 마씨를 알게 된것이 제일 큰 소득같았다.
녀인들이 소원하면 무릇 큰일도 쉬이 이루어질수 있으렷다.
이제 더는 지체할수없이 천균노를 만드는 일에 달라붙어야 한다. 헌데 천균노의 형체를 아직도 그려볼수 없으니 그게 허깨비같은게 아니고 뭔가. 가만, 범재 여럿이 수재 하나를 당할수 있다는데 장공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어떨가. 시키는 일이나 하는줄로만 여긴 그들이 불막대기를 궁냥해낸것을 보면 십분 신심이 가는 일이다.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숱한 사람들의 지혜를 합치면 한번도 본적 없는 봉황새나 룡을 그리듯 능히 천균노의 모습을 그려낼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노라니 술기운이 사라지고 일욕심으로 가슴이 불타기 시작했다.

희뿌연 달빛아래 어떤 사람이 박원작의 뒤를 조심스레 따르고있었다. 그는 다름아닌 김충지였다.

박원작은 지금 김충지가 자기를 따르며 지켜주고있다는것을 꿈에도 알수 없었다.

7

련장칸의 한구석에서는 키꺽다리 군만이와 그의 친구 능산이 아침에 부어낸 불막대기를 손질하고있었다. 철덕앞에서는 여러 장공인들이 한창 뢰등석포의 거푸집들에 펄펄 끓는 놋쇠물을 부어넣느라 바삐 돌아가고있다.

근달은 바삐 돌아가는 그속에서도 능산이와 군만을 뚝 떼여 불막대기를 손질하게 하였다.

거푸집을 해체하고 누런빛을 번쩍이는 불막대기를 꺼내든 능산은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했다.

이게 정녕 이 능산이가 만들어낸 병기란 말인가! 이젠 장공인들도 《신기한 병기》일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만들어낼수 있으렷다.

불막대기를 어루만지는 능산을 이윽토록 바라보던 군만의 얼굴에 히쭉 웃음이 비꼈다.

《여 능산이, 이거 불막대기말이야, 자네 거시기 그것처럼 생겼구만.》

그제야 능산은 불막대기에서 눈길을 떼고 군만이에게 눈을 흘겼다.

《실없는 소리! 키크고 싱겁지 않는 놈 없다더니 자넨 언제봐야 때와 자리를 가려보지 않고 헤식게 구는게 탈이야.》

군만은 능청을 떨며 이죽거렸다.

《앗따, 꽤나 짜게 구는군. 자네 가운데가 그놈과 비슷하게 생겼기에 한마디하는데 그게 실없다니 될말인가, 바보같이.》

기분이 좋을 때면 늘 버릇처럼 말이 걸어지는 군만이라 내 또 괜

한 말을 했다며 방심해버리려던 능산은 문득 이런 때 전에 마저 듣지 못한 그 뒤얘기나 꼬아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여 군만이, 이 불막대기가 나나 자네의 그것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니 나도 한마디합세. 군서방질에 맛들인 계집의 버릇을 이 불막대기로 떼줄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도대체 그 비방이 뭔가?》

군만이 눈을 내리뜨고 턱을 비비더니 머리를 흔들며 값을 올리였다.

《허, 쌀 한섬 퍼주고 배운 그 비방을 맨입으로야 대줄수 있겠나.》

롱담이 진담으로 된다고 능산은 기어코 군만의 대답을 듣고싶었다. 워낙 능산은 재미나는 이야기라면 오금을 못쓰고 마실방을 찾아다니는 질군이였다.

《군만이, 너무 재세말고 나한테만은 대주게. 그럼 내 자네 색시 림증(방광염)에 맞는 특효약을 대주겠어.》

색시의 림증이란 소리에 군만은 아연해서 입을 하 벌렸다. 어쩜 이 친구가 귀신 한가지인가. 색시가 림증에 걸려 고생하는건 집안사람들밖에 모르는건데…

《능산이! 얌전한 색시가 방귀소리 크다더니 넌 남의 계집 궁둥이를 남몰래 따라다녔구나?》

능산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뭐라구, 야, 너 말이면 다 하는줄 알아? 내가 의술을 안다니까 네 색시가 우리 색시에게 찾아와서 말한건데, 뭐 내가 남의 계집 꽁무니를 따라다닌다구?》

군만이의 얼굴도 벌개졌다.

《아아, 내 그만 혀를 잘못 놀렸네. 내 이 입때문에 아무래도 일을 치겠다니까. 이보게 능산이, 방금 한 말은 객소리로 알게나. 그래 그 특효약이란게 뭔가? 어서 대주게나.》

능산의 얼굴이 밝아졌다.

《진작 그렇게 나왔어야지. 좋아, 대주겠으니 귀담아들으라구. 가지뿌리를 말일세, 한 일곱뿌리쯤을 물 두사발에 넣고 물이 반사

발정도 남을 때까지 불을 때서 달이라구, 그렇게 달인 약물을 스무몫으로 나누어 하루 세번 밥먹기 전에 마시면 열흘도 못미처 열에 일여덟은 림증이 뚝 떨어질걸세.》

군만은 턱을 또 비비더니 입을 삐죽 내밀었다.

《난 또 뭐 대단한 비방이라구. 그런건 흔한 비방이여서 누구나 다 알고있는거야.》

능산이 약이 올라 불막대기로 군만을 겨누었다.

《너 정말 사람 놀리기야?》

《아아, 그걸 내리게. 어서, 그러다 사람죽여. 내 진짜로 계집들의 군서방질을 떼주는 비방을 알려주겠어.》

능산은 눈을 부릅뜨고 을러멨다.

《어서 말해, 그럼 자넬 살려주겠어.》

《좋네. 그 비방은 말이야, 시뻘겋게 달군 인두로 계집의것을 쿡!》

《뭐, 뭐라구?! 그것두 말이라고 해, 그게 사람 할짓인가 말이야?》

군만은 능글스럽게 웃으며 이죽거렸다.

《그럼 군서방질은 사람이 할짓이구? 그렇게 하기 싫으면 계집의 목에 북을 매달아가지고 동네방네로 끌고다니며 조리를 돌리면 돼.》

능산이 주먹을 내흔들며 씩씩거렸다.

《너 그런걸 비방이라고 들고다니다간 뭇매맞아 죽을수 있어.》

《야, 이 곧은 막대기야. 그러게 육담이 아닌가. 육담이 뭐 자네가 아는 그 약처방처럼 진담인가 해? 육담이란 말그대로 떠들썩하게 웃어보자고 하는 우스개소리이지 꼭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훈시가 아니란 말이야. 세상에 바람난 계집의 그 버릇을 단숨에 떼주는 비방이 있는가? 그저 나이가 다 돼서 기운이 빠지면 저절로 떨어지는게 난봉질이고 화냥질이야.》

능산이와 군만은 저들의 육담소리를 뒤에서 번기가 재미나게 듣고있는줄은 알수 없었다.

정말 육담이란게 신비한데가 있다. 속상하다가도 그 소리만 들

으면 마음이 홍그러워지니 말이다.
방금 번기는 박원작의 부름을 받고 별관에 갔었다. 그는 제 짐작으로 박원작이 천균노때문에 찾을거라고 생각했다.
며칠전 박원작은 련장칸의 장공인들은 물론 병마도감의 행수들을 전부 한자리에 모아놓고 천균노의 형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함께 의논을 하자고 하였다.
3만근짜리 화포를 만들자는 소리에 좌중은 흥분으로 설레였다. 허나 그뿐, 어느 사람도 이렇다할 의견을 내놓지 못하였다. 아니, 전혀 의견이 없은것은 아니였다. 완구와 약통으로 갈라져있는 뢰등석포를 3만근이 되도록 크게 부어내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박원작이 머리를 저었다.
절구모양의 뢰등석포는 전장에 쉽게 지고다닐수 있게 하자고 일부로 두동강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천균노를 뢰등석포처럼 만들면 많은 화약을 다져넣고 터치는 그 힘으로 해서 화포가 깨질수 있다. 오로지 하나의 몸체로 부어내야만 수백근짜리 돌탄을 멀리로 날리는 화약의 힘을 이겨낼수 있다는것이 박원작의 주장이였다.
종시 이렇다할 의견을 얻지 못한 박원작은 다들 돌아가서 계속 궁냥을 해보라고 당부했다.
번기는 그 며칠동안 천균노의 형태를 가지고 고심을 하였다. 허나 마음에 드는 생각을 해내지 못하였다.
빈손으로 박원작에게 불려가는 번기는 멋적어서 걸음이 씨원스레 옮겨지지 않았다.
그런데 박원작을 만나니 전혀 뜻밖에도 자기더러 몇달가량 개경의 군기감에 가서 뢰등석포와 수질구궁노를 만드는 일을 배워주고 오라고 분부하는것이였다.
번기는 그 말이 병마도감에서 나가라는 소리처럼 들리였다.
왜 하필 하많은 장공인들속에서 골라골라 나보고 가라 하는가.
번기는 지금껏 서경을 떠나, 보다는 병마도감을 떠나 사는 자기를 상상조차 해본적이 없었다.
더우기 온 병마도감이 천균노를 만들자고 하는 때에…
침묵으로 불응을 표시하는 번기의 손을 잡고 박원작은 이렇게 말

했다.
《자네만큼 병기를 만드는 일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드무니 그래서 자넬 택한것일세. 마음에 드는 몇사람을 데리고 가라구. 며칠 말미를 주겠으니 집일도 돌보고…》
그래도 번기는 응하는 마음이 동하지 않아 묵묵부답하였다.
그의 속을 들여다보았는지 박원작은 또박또박 말을 하는데 심히 곡진하였다.
《난 자네가 병기를 만드는 일이라면 바다속에서 진주를 캐라 해도 마다하지 않을줄로 아네. 부디 서경사람답게 군기감에 가서 일을 잘하도록 하게.》
번기는 할수없이 가겠노라고 대답은 하였으나 속으로는 여전히 마음이 울적하였다.
《어참, 가기 전에 능산이가 만든 불막대기를 쏴봐야지. 가서 능산이를 데려오게.》
번기는 울적해하는 자기 마음을 풀어주고싶어 박원작이 불막대기의 시험사격을 앞당겼다는것을 짐작했다. 그래서 련장칸으로 돌아왔는데 능산이와 군만이가 주고받는 이야기는 성을 냈다가도 웃음보를 터뜨릴 육담소리였다.
번기는 울적한 마음이 가셔져 웃음을 띠우며 군만의 잔등을 철썩 쳤다.
《여, 군만이! 내 알기엔 계집이 군서방질을 하는건 사내의 신기가 허약하기때문이야. 그러니 사내는 언제나 그걸 서슬푸르게 벼려가지고있어야 해.》
군만이와 능산이는 나쁜짓을 하다 들킨 아이들처럼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으나 인차 그럴듯한 소리라는듯 고개를 끄떡였다.
《자, 우스개소린 그만하고 불막대기를 가지고 어서 갑세.》
세사람은 언제 웃고 떠들었던가싶게 긴장하여 련장칸뒤의 후미진 골안으로 부리나케 걸음을 재촉했다.
후미진 골안에 병기의 시험사격을 하는 넓은 공지가 있었다. 골안어구에서 박원작과 근달이 기다리고있었다. 근달의 손에는 요자(화약그릇)와 노살이 들려있었다.

《어디 봅세.》
능산에게서 불막대기를 받아든 박원작은 한동안 그것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다섯근이 나가는 불막대기는 나무손잡이를 내놓고 길이가 한자 남짓한데 노살을 끼우는 아구리구멍은 엄지손가락이 나들만 했다.
이윽고 박원작은 불막대기를 다시 능산이에게 주었다.
《자네가 직접 쏘아보게.》
능산은 가슴이 두근거려 눈길을 아래로 떨구었다. 과연 이게 노살을 제대로 날리겠는지…
능산은 떨리는 손을 겨우 움직였다. 그는 약통실에 뚫어져있는 가는 구멍으로 명주불심지를 밀어넣고 근달이 내준 요자에서 화약을 꺼냈다.
《이 사람, 덤비지 말고 침착하라구.》
근달의 귀띔에 한결 마음이 진정된 능산은 아구리로 약통실에 화약을 넣고 나무막대기로 꼼꼼히 다졌다. 재삼 그것을 확인하고서야 능산은 길이가 한치가량 되는 고깔모양의 참나무격목을 꼭맞게 격목실에 밀어넣었다. 뢰등석포에도 그러하듯 격목을 끼워넣는 것은 화약에 불이 달릴 때 생기는 뜨거운 열과 심한 압력으로부터 노살의 꼬리부위가 손상되는것을 막고 동시에 폭발력이 허실없이 노살에 가닿게 하자는것이다.
근달이 능산의 손에 노살을 들려주었다.
한자길이의 노살은 보통 화살과는 달리 살촉이 엄지손가락만큼 굵은데 끝도 그닥 뾰족하지 않다. 격목우에 꼭 들어가맞게 노살을 끼워넣은 능산은 불막대기를 선뜻 겨누어내지 못했다. 너무 긴장해서인지 과녁도 잘 보이지 않았다.
박원작이 능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일없어. 마음놓고 쏘라구.》 하고 말했다.
능산은 그 한마디에 긴장이 쭉 풀리는감을 느끼였다.
이제는 능산의 마음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심에 넘쳐 골안쪽으로 불막대기를 꼬나들었다. 번기가 얼른 불화로에 꽂혀있는 화심(불에 달군 쇠꼬챙이)을 집어 불막대

기에 드리운 불심지에 가져다댔다.
인차 불심지에서 흰연기가 피여올랐다. 이윽고 《땅!—》 하는 야무진 소리가 골안을 울렸다.
어느 순간에 불막대기에서 쏟아져나온 노살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살대를 흔들거리며 하늘을 꿰지르던 노살이 이윽고 땅바닥으로 곤두박혔다.
군만이 힘껏 앞으로 내달렸다. 그는 이백보거리쯤에서 땅에 꽂혀진 노살을 뽑아들었다.
불막대기는 생각했던것만큼 썩 멀게 노살을 날려보내지 못했다.
능산이 울상이 돼버렸다. 겨우 이백보밖에 노살을 날리지 못했으니 그게 무슨 화약을 쓰는 《신기한 병기》란 말인가.
박원작은 미소를 지으며 능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일없어. 단번에 배부르진 않으니까. 자, 이번엔 과녁을 겨누어 쏘라구.》
《예.》
능산은 좀 주눅이 들었으나 아까와는 달리 손을 잽싸게 놀려 불막대기에 화약을 다져넣었다.
인차 그는 불막대기를 들고 과녁을 겨누었다.
100보거리에 길이와 너비가 10자되는 큰 나무판이 서있고 그 복판에 고라니(사슴)대가리가 그려진 사방 3자되는 네모진 과녁이 들어있었다.
이번에도 번기가 불막대기에 불을 달았다.
땅!—
쏜살같이 날아난 노살은 과녁을 어방없이 빗나가버렸다.
《어휴—》
능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바를 몰라했다.
《그쯤한 일에 겁을 먹으면 쓰나.》 하고 박원작이 부드럽게 일러서야 능산의 얼굴이 좀 밝아졌다.
《다들 돌아가며 불막대기를 쏴보기요.》
박원작의 분부에 군만이도 번기도 근달이도 불막대기를 꼬나

들고 과녁을 향해 노살을 날렸다.

그들이 쏜 노살도 모두 과녁을 빗나가고말았다.

마감으로 박원작이 불막대기에 노살을 재워들었다. 그가 쏜 노살도 과녁을 스치며 빗나가고말았다.

모두 헛방을 쏘는것을 보고 능산이는 크게 실망하여 한숨을 내쉬였다.

그러나 박원작은 시종 얼굴에 웃음을 머금었다.

《능산이, 내 보기엔 이 불막대기야말로 정말 신통한 병기라고 할수 있어. 누구나 손쉽게 들고 다니며 살을 날릴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제 부족점만 고치면 불막대기는 반드시 위력한 병기가 될거네.》

능산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 고개를 기웃거렸다.

근달이 능산이의 손에 불막대기를 들려주며 말했다.

《노살이 멀리로 나가지 못한건 불막대기에 비해 살대가 너무 굵고 무겁기때문인것 같아.》

박원작이 유쾌한 어조로 크게 말했다.

《옳소. 바로 그게 이 불막대기가 가지고있는 부족점이요.》

박원작의 말에 능산은 깨도가 되여 입을 열었다.

《병마도감사님! 그렇다면 약통실을 더 크게 만들어서 화약을 더 많이 들어가게 하면 어떻소이까?》

박원작은 대답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뢰등석포를 처음 만들었을 때를 생각하였다.

처음 만들어낸 뢰등석포의 위력은 실로 보잘것 없었다. 칠팔십근의 둥근 돌탄을 도제 몇십보밖에 날리지 못했다.

의견이 분분한 끝에 화약의 힘에 비해 돌탄이 지내 무겁다는 결말에 이르렀다. 그래서 약통을 배로 크게 만들었더니 그 위력이 실로 대단했다.

《능산이, 불막대기는 뢰등석포를 만들 때처럼 하면 안돼. 약통실을 크게 하면 불막대기는 더 크고 더 무거워지게 되거든. 그럼 군사들이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수 없어.》

능산의 얼굴이 환해졌다.

《병마도감사님! 이젠 알았소이다. 불막대기의 아구리를 좁게 하고 노살을 가늘고 가볍게 만들면 되겠소이까?》

박원작이 무릎을 쳤다.

《바로 그게다. 이래서 의논이 좋다는거다.》

군만이 말참네를 하였다.

《병마도감사님, 불막대기를 그렇게 만들면 노살을 멀리 날릴수는 있으나 과녁을 명중하기는 어려운줄 아옵니다.》

그 말에 근달이까지 머리를 끄떡이며 얼굴에 그늘을 지었다. 어떻게 된 노릇인지 불막대기에서 쏜 노살은 살대를 흔들대면서 과녁을 향해 곧바로 날지 못했다.

박원작은 껄껄 웃고나서 군만이에게 물었다.

《자네 매가 꿩을 덮치는걸 본적 있나?》

군만은 어깨를 으쓱했다.

《보다뿐이겠소이까. 어렸을적에 시골에 있는 외가집에 가서 매가 덮친 꿩을 빼앗기까지 했는걸요.》

《매가 꿩을 덮칠 때 어떻게 내리꼰지던가?》

군만은 고개를 기웃거리며 자신없는 어조로 대답했다.

《날개를 편채로 곧추 내리꼰쳤소이다.》

《옳아, 매는 말일세. 날개를 젓지 않고 두날개를 바로편 자세로 쏜살같이 내리꼰져. 만일 날개를 저으면서 내리꼰진다면 곧추 내리꼰지는 자세를 유지할수 없을거네.》

군만이 사기가 나서 소리쳤다.

《이젠 깨달았소이다. 살대에 매처럼 날개를 달아주자는것이지요?》

박원작이 또 무릎을 쳤다.

《바로 그게야. 살대의 허리에다 열십자로 세모꼴모양의 날개를 달아주면 노살이 흔들거리지 않아 과녁을 맞추기가 한결 쉬울걸세.》

장공인들의 얼굴에 경탄의 빛이 어려들었다.

허나 박원작의 가슴 한구석은 의연 무겁기만 하였다.

(과연 천균노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8

아침일찍 경상골의 집을 나서 병마도감을 향해 말을 달리는 박원작은 마음이 평온하기도 하고 불안스럽기도 하였다.

마음이 평온하다고 하는것은 자나깨나 그려보는 천균노를 만들수 있겠다는 상서로운 조짐이 엿보이기때문이였다.

밤에 련장칸에서 고된 일을 마친 김충지가 집으로 찾아왔다.

몸이 헨둥하게 축간 그를 보니 가슴이 아팠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만큼 병마도감의 별관에 들어있으면서 놋쇠를 녹이는 일만 보아달라고 했는데 그 성의를 만류하고 고생을 사서 하니 몸이 견딜수 있으랴.

그가 하는 말이 아무래도 철덕을 두개 더 쌓아야 할것 같단다. 그게 혹시 떡쌀을 앉히기도 전에 김치국물부터 찾는 격이 아닐가.

허나 김충지의 다음말에 박원작은 비로소 자기 일의 빈틈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아이도 10달이면 낳는다고 천균노를 만들어낼 차비를 미리 해두고있다가 일단 좋은 궁냥이 나지면 지체없이 놋쇠를 녹여야 한다, 지금 있는 철덕은 그냥 놔두고 단번에 만 5천근의 놋쇠를 녹일수 있는 두개의 큰 철덕을 새로 쌓으면 천균노를 손쉽게 부어낼수 있을것이다.

듣고보니 정말 옳은 생각이였다. 만 5천근의 놋쇠를 녹일수 있는 두개의 철덕이 있어야 불을 지핀 철덕에서 놋쇠물을 뽑아 천균노를 부어내는 일을 중단없이 단번에 마칠수 있을것이다.

확실히 큰 철덕을 다루어본 김충지가 다르다.

그의 의견대로 지체없이 철덕공사를 벌리자. 철덕을 쌓느라면 좋은 궁냥이 나질것이다.

박원작이 병마도감에 이르니 그를 기다리고있던 능산이와 군만이 굽석 절을 차렸다.

《병마도감사님! 밤새 편안하셨나이까?》

《오, 별일 없었네. 자네들도 다 편안했나?》
박원작이 말에서 미끄러져내리자 능산은 말고삐를 그의 손에서 넘겨받았다.
《그래 아침부터 웬일인가?》
《병마도감사님! 능산이 저 친구 다시 만든 불막대기를 다 손질해놓았소이다.》
그 소리에 박원작의 불안스럽던 마음은 구름이 걷힌듯 밝아졌다.
《아주 좋아. 내 백사불구하고 불막대기 쏘는걸 먼저 보아주겠네. 지금 곧 련장행수와 함께 뒤골안으로 오게.》
능산이와 군만은 너무 좋아 머리가 땅에 닿도록 허리를 굽석 숙였다.
《고맙소이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련장칸으로 뛰여가는 그들을 보는 박원작의 기분은 흥그러워졌다.
아무리 기분없는 일로 해서 머리가 아프다가도 활기에 넘쳐있는 장공인들만 보면 속이 거뜬해지니 그래서 병마도감에 나와야 사는 기쁨을 느끼는게 아닌가.
박원작이 마구간에 말을 매두고 뒤골안으로 가니 벌써 근달이를 데리고 능산이네들이 와있었다.
그들속에 번기가 끼여있는것을 본 박원작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번기가 어찌된 일인가? 래일은 개경으로 떠나야 할 사람이 아직도 병마도감에서 어물거리고있으니…
며칠 있으면 설을 맞이하게 되는데 설을 함께 쇠고 떠나보냈으면 좋으련만 개경군기감에서 이제나저제나 하고 서경장공인들을 기다리고있으니 나라를 위한 일에서 어찌 그만한 아쉬움도 없으랴.
박원작은 속이 언짢아져서 번기에게 다가갔다.
《번기 이 사람! 자넨 어찌 내 마음을 몰라주나? 개경으로 가기 전에 한가지라도 집일을 더 돌보아야지. 어서 집으로 돌아

가게.》
그쯤하면 돌아설줄 알았는데 번기는 벌쭉 웃으며 대꾸했다.
《병마도감사님. 이왕 갈바엔 불막대기까지 가지고 개경에 가면 더 좋지 않소이까.》
《?!…》
박원작은 말문이 막혀 잠시 하늘을 쳐다보았다.
새깃모양의 구름이 드문드문 널려있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아마 개경의 하늘도 여기 서경처럼 개였을것이다.
아, 병마도감을 거느렸다는 사람이 어쩜 일개 장공인의 생각에도 미치지 못할가. 불막대기를 위력있게 만들어가지고 개경에 가면 그 또한 얼마나 좋은 일인가.
《아주 좋아!》
박원작이 손을 내밀자 능산은 제꺽 그의 손에 불막대기를 돌려주었다.
두손에 불막대기를 무겁게 받아든 박원작은 그것을 한동안 들여다보았다.
겉은 다 며칠전의 불막대기와 같고 다른점이 있다면 아가리구멍이 좁아지니 불막대기도 가늘어져 무게도 퍽 가벼워졌다는것이다. 세근이 조금 넘어보였다.
《음— 될것 같군.》
《병마도감사님! 이것도 봐주소이다.》
군만이 내보이는 불막대기를 받아든 박원작은 그것이 능산이에게서 받은 불막대기보다 퍽 무겁다는것을 대뜸 느꼈다. 다섯근쯤 나갈것 같았다.
(?…)
유심히 살펴보니 무거운 불막대기는 아가리구멍이 둘째손가락이 드나들만 하였고 약통도 처음것보다 더 커보였다.
《음… 이것도 될만 해.》
장공인들의 얼굴에 희색이 어려들었다.
박원작이 불막대기들을 능산이와 군만이에게 넘겨주자 근달이 두개의 노살을 내보였다.

두개의 노살을 받아든 박원작의 입가에 만족한 미소가 비꼈다. 각각 두개의 불막대기에 꼭 들어가 맞게 만든 노살들은 다 허리부위에 세모꼴의 얇은 철판으로 맵시나게 날개를 붙였다. 열십자로 네개의 날개를 붙이고 그 앞뒤로 쇠띠를 조였으니 노살은 든든해보였다. 더 무거운 노살은 살대가 굵고 활촉도 커서 여간 위력해보이지 않았다.

박원작은 밤새 노살을 만든 근달의 수고가 헤아려져 눈굽이 축축해졌다.

《그럼 쏘아보게!》

박원작이 분부가 떨어지기 바쁘게 능산이와 군만이 불막대기를 꼬나들고 불심지에 불을 달았다.

이윽고 땅!ㅡ땅! 하는 야무진 소리가 골안을 흔들었다.

두개의 노살이 공중으로 치달아올랐다.

먼저번때와는 전혀 달리 살대가 흔들거리지 않았다. 살대에 날개가 있어서일것이다.

긴 포물선을 그으며 날던 두개의 살은 골안의 거의 막바지에서 떨어졌다.

무려 천여보나 되는 거리였다. 수질노며 팔우노, 수질구궁노들이 도달한 거리였다.

너무 기뻐서인지 장공인들은 아무말도 않고 멍하니 골안을 올려다보기만 했다.

박원작이도 마찬가지였다. 인차 그는 흥분을 다잡고 나직이 입을 열었다.

《이번엔 과녁을 쏘라구.》

박원작의 재촉에 능산이와 군만이는 서둘러 불막대기에 화약을 재웠다.

《침착들 하게.》

근달이 불막대기들에 불을 달며 귀띔해주었다.

이어 화약이 터지는 소리가 울리고 100보앞에 세운 과녁으로 노살이 날아들었다.

《맞았다!ㅡ》

환성을 지르며 과녁판에로 뛰쳐나가는 장공인들을 따라 박원작이도 뒤질세라 달려나갔다.
정말 두개의 노살이 과녁판에 박혀있었다. 고라니대가리의 한가운데를 명중하지는 못했어도 이마빡의 한켠을 맞혔으니 괜찮다고는 할수 있었다.
번기가 과녁에서 노살을 뽑아냈다.
무거운 노살은 더 깊숙이 박혀 그것을 뽑느라고 번기는 진땀을 뺐다.
근달이 웃으며 말했다.
《불막대기에 맞으면 쇠갑옷을 입혀놓아도 즉사를 면치 못하겠소이다.》
박원작은 불막대기의 예상치 못했던 위력에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 어떤 쇠갑옷을 입은 놈도 단숨에 죽일수 있고 그 못지 않게 화약 터지는 소리가 요란하여 적을 위압하기에도 좋았다.
이런 병기를 고려군사가 모두 가지고있다면 그 어떤 대적도 쳐부실수 있다.
박원작은 눈시울을 슴벅거리며 번기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젠 큰소릴치며 개경으로 갈수 있겠소. 가만! 능산이, 불막대기를 만든 자네도 가야겠어. 군기감에 가서 서경사람들의 본때를 보여주라구.》
그 말에 능산이 고개를 떨구며 간신히 《예.》 하고 대꾸했다.
박원작은 자기의 손등우에 떨어지는 눈물이 누구의것인지 알았다. 정녕 병마도감을 떠나기 아쉬워하는 마음의 눈물이리라.
아니, 그때문만도 아니리라. 천균노가 념려돼서일것이다.
박원작은 다문 얼마간이라도 능산이와 번기의 마음을 위로해주고싶었다.
《오늘 이 경사로운 날을 어찌 그냥 보내겠나. 내 한상 내겠으니 오늘저녁 모두 우리 집으로 오게. 우리 집 랭면맛이 정말 괜찮아.》
장공인들은 환성을 올렸다.
능산이 좋아라 흔들어대는 불막대기를 무심히 바라보던 박원

작은 머리가 핑그르르 도는것 같았다. 그바람에 그는 갑자기 비칠거렸다.

장공인들이 깜짝 놀라 박원작을 부축했다.

《병마도감사님! 웬일이시오이까?》

박원작은 대답대신 고개를 흔들었다. 그리고 방금 뇌리를 친, 하여 정신을 아찔하게 하였던 그것을 생각해냈다. 능산이가 좋아라고 흔들대던 불막대기가 다시 안겨왔고 이어 물에 불쿠는듯 그것이 점점 늘어나는것이였다. 그것은 처음 모습의 열배, 백배, 천배로 불어나더니 나중에는 몇아름드리 통나무처럼 돼버렸다.

아! 바로 그것이다, 그것! 서너근의 불막대기를 천배가 아니라 만배로 크게 하면 3만근의 불막대기가 될게 아닌가. 3만근으로 크게 만든 불막대기에 화약도 그만큼 더 많이 다져넣고 터뜨린다면 수백근짜리 돌탄을 허공으로 날려보내기쯤은 식은죽먹기일것이다.

《됐소, 됐단 말이요! 능산이가 천균노를 만들게 하였어. 이 불막대기를 만배로 크게 만들면 그게 곧 천균이 되는 화포가 아니겠나!》

《병마도감사님!…》

장공인들이 박원작의 팔을 부여잡으며 목메인 소리로 그를 불렀다.

9

아침에 최충이 궁성앞에 자리잡고있는 중서문하성에 나가니 정문앞에서 리속(아전)이 절을 하며 아뢰였다.

《서경의 병마도감에서 왔다고 하는 이 사람이 참지정사어른을 꼭 뵙겠다고 조르오이다.》

최충은 그제서야 리속의 곁에 꿇어엎드려있는 사람을 띠여보았다.

그가 바로 며칠전 능산이와 함께 서경군기감에 온 번기였다.
번기는 머리우로 두손을 쳐들어 박원작이 전하는 글월을 내밀었다.
글월을 받아보니 장공인들이 화장(불막대기)이라고 하는 《신기한 병기》를 새로 만들어냈다는것과 드디여 천균노를 만들어낼수 있는 궁냥이 섰기에 인차 두개의 큰 철덕을 쌓겠다는 글이 씌여져있었다.
번기를 바래우고난 최충은 북계병마판관을 불러 군기감에 나가 서경에서 온 장공인들을 잘 돌봐주게 하라는 분부를 내렸다.
며칠전 최충은 임금에게 불려가서 북계군을 통솔하는 판북계병마사의 중책을 지니였다.
자기 방에 들어선 최충은 곧 붓을 집어들었다.
놋쇠를 시급히 마련하여 박원작에게 보내주자는 표문을 쓰고싶어서였다.
천균노를 부어내는데서 걸린것은 놋쇠였다.
뢰등석포를 만드는데만도 얼마나 많은 놋쇠가 들었던가.
북계군이 진을 치고있는 성을 꼽아보면 그 수가 적지 않다. 룡감성, 함종성, 안북성과 같이 왕건태조대왕때 쌓은 성이 모두 28개이고 3대 정종대왕시절에 또 덕창진성이며 철옹성 등 5개의 성을 일떠세웠다. 그후 광종대왕시절에 또 15개의 성을 축성했다. 근래에 와서 새로 쌓은 성이 또 10여개이니 북계의 성은 도합 60여개에 달한다. 한개 성에 적어도 뢰등석포를 20여문 주는것으로 보면 무려 1 200여문이나 된다.
뢰등석포 한문을 붓는데 놋쇠 100여근이 든다. 그러니 북계의 성들만 해도 12만근의 놋쇠가 있어야 뢰등석포를 제대로 갖춰놓을수 있다.
어찌 북계에만 군진이 있으랴. 동계에도 수십개의 성이 있고 전국의 성을 다 합치면 막대한 놋쇠가 요구된다.
이러한 때 한문에만도 무려 3만근의 막대한 놋쇠가 드는 천균노를 만들어야 하니 급선무는 바로 놋쇠를 마련해주는 일이다.
임금에게 북계병마도감의 실정을 알리는 표문을 쓴 최충은 즉시

궁성에 사람을 보내 그것을 전하였다.
좀 있어 조정3재(종2품이상의 고판)들은 오후에 입궐하라는 어지가 떨어졌다.
오후에 만월궁의 회경전에서는 어전모임이 있었다.
강헌대왕이 북계병마도감에서 천균노를 만들 차비를 인차 끝내게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놋쇠를 시급히 대줄수 있겠는가고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리자연이 선코를 떼울세라 선참으로 아뢰였다.
《폐하! 지금 군기감이 가지고있는 놋쇠로는 기껏해서 뢰등석포를 백여문가량밖에 부어낼수 없소이다. 그러니 동소(동광산)들에 분부하면 명년가을까지 한 3만근의 놋쇠를 마련할수 있소이다.》
명년 가을까지라는 말에 최충은 부아가 났다.
리자연이 오래전에 맺힌 사사감정을 가지고 대를 이어 국사에 훼방을 놓을줄 몰랐다.
20여년전 최충은 과거시험에서 장원급제하여 간관벼슬인 습유(정언, 6품관)로 천거되였다. 임금에게 정사의 우렬을 론하는 직분을 맡은 최충은 탐오한 벼슬아치들의 죄행을 묶어 임금에게 간한적이 있었다.
그때 리자연의 아비 리한의 죄행도 최충의 입을 통하여 임금에게 알려졌다.
리한은 정2품의 상서우복이라는 권세를 쥐고 백성들의 밭을 수십마지기나 빼앗았을뿐아니라 문서를 꾸며 가난한 사람들을 제 집 노비로 끌어갔다.
불의한짓을 보고 참지 못하는 강직한 최충의 눈에 걸려든 리한은 어전회의에서 된욕을 보게 되였다. 임금은 리한의 잘못을 꾸짖고 밭과 노비를 당장 본래대로 되돌려주라는 어명을 내렸다.
그 일을 가지고 리한은 늙어죽을 때까지 최충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겼다. 그가 죽으니 아들 리자연이 아비 못지 않게 최충을 미워했다.
아마 리자연은 최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천균노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면 두팔걷고 돕지는 않아도 뒤다리는 잡아당기지 않았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자는 나의 미움도 받게 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최충은 리자연과 개인감정을 품고 싸우고싶지는 않았다. 아량과 바른 언행에는 속이 꼬부라진 사람도 종당에는 감동된다는데…
그렇다고 리자연이 저 하고싶은대로 하여 국사를 그르치는것은 내버려둘수 없었다.
《페하! 천균노를 부어내는 일은 잠시도 지체해서는 안될줄로 아오이다. 나라에 동소가 여러개나 있는데 놋쇠 3만근이 무슨 대수겠소이까.
걸린것은 아직도 일부 재신들속에 천균노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서있지 못한것이오이다. 고을원이 정사를 잘못하면 한개 고을이 녹아나지만 재신들이 국사를 그르치면 나라가 위태해질수 있소이다.》
강헌대왕이 룡상에서 일어서며 고개를 끄떡였다.
《최공의 말이 지당하오. 시중은 공부와 병부에 령을 내려 한달안에 3만근의 놋쇠를 서경에 보내주도록 하오.》
《알겠소이다.》…
어전모임을 마치고 중서문하성으로 돌아온 서눌시중은 곧 공부와 병부의 상서들을 불러 경상도의 창원동소와 전라도의 룡담동소에 내려가 놋쇠를 가져오라는 분부를 내렸다.
하여 최충은 기분좋게 집으로 돌아갈수 있었다.
집에 돌아온 최충은 방에 들어서자 늘 그러했듯이 초불을 켜고 벽에 그려붙인 《3우도》를 쳐다보았다.
붉은 꽃송이들이 소담하게 핀 홍매화를 중심으로 그 좌우에 세찬 바람에 부대끼며 가지들이 찢어진듯 휘여진 소나무와 참대를 힘있는 필치로 그린 명화였다.
소나무와 참대, 매화를 그린 《3우도》를 고려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의 념원을 《3우도》에 담았기때문이다. 불의에 굽히지 않는 고려사람들의 억센 기상과

의지를 소나무에서 찾아본다면 굳은 절개는 참대에서 그리고 고결한 마음과 아름다움은 이른봄 제일먼저 깨끗하게 피는 매화에서 비쳐보았으니 그래서 《3우도》를 명화라 하는것이리라.

이윽고 《3우도》에서 눈길을 뗀 최충은 방을 한바퀴 둘러보았다. 선참으로 안겨오는것은 두 벽을 가리운 책이 가득한 책장이였고 그다음 방바닥에 깐 송도의 명물 왕골돗자리였다.

기이한 꽃을 수놓은 왕골돗자리에 나앉은 최충은 품안에서 종이장을 꺼내들었다. 아침에 받은 북계병마도감사 박원작이 보낸 글월이였다.

최충의 마음은 감개무량하였다. 이 방에서 글을 배운 제자들속에 명화 《3우도》에 심어진 뜻대로 의롭게 사는 제자들이 적지 않다.

박원작이 누구보다 그러하다고 말할수 있다.

박원작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어찌 서경길을 택하였겠는가.

한시도 《3우도》를 잊지 않는 그이기에 오로지 제 한몸을 나라위해 바치는것이리라.

제자들이 그렇게 사는데 그들을 키운 스승이란 사람은 더욱 분발해야 할것이다.

그러자면 장성공사를 잘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백성들에게 부담이 적게 가면서도 장성공사를 빨리 마무리할수 있을가?

판북계병마사의 직분이면 장성공사를 마음대로 내밀수 있다. 판북계병마사는 수만명의 북계군을 통솔할뿐더러 북계의 군사와 관련한 공사에 백성들을 동원시킬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여있다.

예로부터 정사하는 사람은 씨뿌리고 김매고 가을걷이하는 일을 제일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하였다.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는다는데 나라를 먹여살리는 천하지대본, 농사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성을 쌓으려 해서는 안된다. 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성을 쌓아야 할것이다.

빠른 시일안에 장성공사와 관련하여 여기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말끔히 처리하고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그래, 설을 쇠고는 인츰 북계에 내려가야겠어. …

최충은 일어나 책장으로 다가갔다. 그는 책장에서 북계지도를 찾아들었다.

10

이른아침 련장칸의 넓은 뜨락에 웅장하게 일떠선 두개의 철덕을 돌아보는 박원작은 마치 길손으로 찾아든듯 눈앞의 현실이 놀랍기만 하였다.

설전으로 철덕을 쌓자고 일판을 벌려놓긴 했으나 일이 그렇게 빨리 그리고 나무랄데없이 훌륭하게 마무리될줄은 몰랐다. 진정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진 사람들의 힘은 무궁한것 같았다.

누가 시키지 않았건만 련장칸을 도와 온 병마도감이 지어는 바쁘다고 할수 있는 염초장에서까지 장공인들이 밀려와 철덕을 쌓았다.

박원작은 본래 새로 쌓는 두개의 철덕을 종전의 철덕곁에다 나란히 세우려고 했다. 지붕을 더 높이 고쳐세우면 만근이 넘는 놋쇠를 녹여내는 철덕도 꽤 앉힐만 했다.

그런것을 김충지의 의견을 받아들여 달리했다. 김충지는 수만근의 놋쇠를 녹여내여 천균노를 부어내려면 넓은 뜨락에 철덕을 내다 쌓아야 일하기가 편리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물론 한지에 철덕을 쌓으면 날이 구질거릴 때 일하기가 불편스러울것이다. 허나 그런 날에는 높이 채붕을 씌우면 될것이다.

하여 련장칸의 넓은 뜨락에서는 철덕을 쌓는 공사가 벌어졌다.

보통 놋쇠 2근을 녹이는데 숯 1근을 태워야 한다. 결국 만 5천근의 놋쇠를 녹이는 철덕에는 숯이 7 500근 든다. 숯 7 500근이면 쉰섬이 넘는다. 만 5천근의 놋쇠와 쉰여섬의 숯을 넉넉히 넣을수 있게 하려면 적어도 철덕을 7자폭에 스물댓자 높이로 쌓아야 할것이다.

장공인들은 종이장에 그려준대로 철덕을 쌓느라 열성이 이만

저만 아니였다.

철덕의 안은 진흙과 모래를 섞어 두께가 두자 남짓하게 다져 쌓았고 겉은 성돌같이 네모지게 다듬은 큰돌을 일매지게 쌓았다. 다 쌓아놓으니 정말 굉장히 큰 철덕이 되였다.

얼핏 보면 개경 만월대앞에 있는 첨성대인듯싶었고 어찌보면 거대하게 큰독인듯 하였다.

그들은 아찔하게 높은 철덕우로 누구나 쉽게 오르내릴수 있도록 철덕에 붙여서 돌계단을 갈지자로 쌓아올렸다. 그것은 종이장에 그려넣지 못한것이였다.

힘든 일을 함께 해봐야 사람됨을 알수 있다고 철덕을 와닥닥 쌓는 공사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낸것도 기쁜 일이 아닐수 없다.

이미 친숙해진 근달행수와 같은 오랜 장공인들, 메득이와 같은 젊은 장공인들은 말할것도 없고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심국종의 열성도 대단하였다.

그가 아니였다면 공사는 그렇게 빨리 끝을 보지 못했을것이다. 그가 어떻게 마음을 움직여냈던지 장사군들이 수십대의 마차에 진흙과 모래며 돌을 실어오고 삯군들도 모여들어 일손이 부족한줄 몰랐다. 그리고도 모자라 심국종은 제일 힘든 철덕안을 쌓는 일에 뛰여들어 비지땀을 흘렸다.

실로 뜻밖에 《복덩이》가 굴러든셈이였다. 그런 사람이 많아야 병마도감이 흥한다.

박원작이 이런 생각에서 철덕주위를 돌고있는데 남권부가 소리없이 다가왔다.

《박공, 오늘은 쉬는 날인데도 나왔소?》

여느날과 달리 인상좋은 웃음을 지은 남권부를 보니 박원작은 기분이 더욱 흥그러워졌다.

하긴 오늘이 섣달 그믐날이니 누구나 다 새해맞이로 흥이 나 하는것이다.

박원작은 뜻대로 철덕을 번듯하게 쌓은 기쁨을 안고 장공인들에게 새해를 맞으면 한 열흘 푹 쉬라는 분부를 내렸다.

《나한테야 병마도감을 돌아보는게 제일가는 락이 아닌가. 그런

데 공은 어떻게 나왔소?》

《좋은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따른다고 난 박공이 여기에 나와있을줄 알았소.》

《고맙네.》

이어 박원작은 한숨을 지었다.

《박공, 난 자네가 한숨짓는 까닭을 잘 아네.》

박원작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옛말에 사람의 한생은 고개 또 고개를 끝이 없이 넘다마는 한세상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틀린것 같지 않다. 어쩜 나라위한 걸음걸음에 걸리는것이 그리도 많고 막아서는 곤난 또한 그리도 많은지…

철덕도 쌓고 천균노의 형체도 그려냈건만 이번에는 놋쇠라는것이 애를 먹였다.

새해에는 개경군기감에서도 뢰등석포를 만들게 되였으니 놋쇠는 더 부족하게만 되여있다.

이럴줄 알았으면 미리 놋쇠를 당겨다놓았을걸. 이제라도 최충에게 이런 딱한 사정을 알려야 하지 않을가?

박원작은 번기의 편에 주어 병마도감의 실태를 담은 글월을 최충에게 보내면서 놋쇠를 구해달라는 청은 차마 쓰지 못하였다. 천리장성을 쌓아야 하는 어렵고 긴급한 중임을 맡고있는 스승에게 덧짐을 짊어놓는것 같아서였다.

아니면 임금에게 놋쇠를 풀어주십사 하는 표문을 올릴가? 임금의 어지만 내리면 놋쇠 수만근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라에 구리돌을 캐내는 큰 동소들이 여러개나 있지 않는가.

《박공, 놋쇠때문에 너무 마음쓰지 마오. 아무렴 나라에 애국충정의 마음을 깡그리 바쳐가는 그대를 하늘이 굽어살피지 않을라구.》

박원작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남권부가 고마와 그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남공은 어찌보면 고명한 복술가(점쟁이)인듯싶고 또 어찌보면 식리명사(세상리치를 안다는 이름난 선비)같기도 하오. 어쩌면 그렇게도 남의 속을 환히 들여다보는지…》

《거 듣기 좋구만. 세상에 칭찬하는 소리를 싫어할 사람은 없다더군.》
《남공, 놋쇠를 구할 무슨 방책이 있으면 어서 내놓게나.》
남권부는 얄궂게 웃으며 박원작의 타는듯한 눈길을 피했다.
이제 놋쇠 3만근을 가져올 길이 열렸다고 말해주면 박원작은 호박이 넝쿨채로 떨어진것처럼 좋아할것이다. 너무 기뻐 이 남권부를 하내비로 여길지도 모른다.
《남공! 내 애간장을 그만 태우고 어서 속시원한 말을 좀 하라구.》
남권부는 간절한 빛이 가득 어린 박원작의 눈을 마주보며 못이기는척 입을 열었다.
《이건 사실 새해나 맞고 내 조용히 거래길에 나설려고 한건데… 거 안북부(안주)에 있는 어떤 장사군에게 놋쇠가 있다누만.》
당장 손을 뻗치면 놋쇠를 받아올수 있는 어떤 관청과 줄을 놓을줄 알았는데 기껏 장사군이란 말인가.
박원작은 어이가 없어 입을 쩝쩝 다셨다. 장사군의 수중에 수십만근의 놋쇠가 있다한들 무슨 큰 돈이 있어 그걸 사온단 말인가. 그림의 떡같은 일이지…
《박공! 그 장사군이 말일세. 단번에 놋쇠를 많이 사가면 눅게 팔겠다누만. 내 집에 천균노 하나쯤 만들 놋쇠를 사올 돈은 여유가 있으니 이 바쁜 대목에서 내 어찌 모른다고 하겠나. 그러니 돈은 념려말고 새해를 맞고는 철덕에 불을 지필 차비를 하자구.》
박원작은 남권부의 말이 영 곧이 들리지 않아 그를 외면해버렸다.
이 사람이 누굴 놀리자는건가. 아무리 갑부래도 그렇지 공적인 일에 쓰라고 단번에 놋쇠 3만근을 살 묵돈을 내놓을 위인이 어데 있겠다구…
《박공! 지금 박공과 나는 한배에 탔다고 할수 있지 않는가. 친구를 위할겸 나라를 위한 일인데 돈이야 두었다 이런 일에 쓰라는 거겠지.》
《?!…》

박원작은 남권부의 진지한 태도가 놀랍기만 하였다.
《난 뭐가 뭔지 모르겠네, 남공.》
《박공! 정 내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먼저 놋쇠 3만근을 당겨 쓴 셈치고 후날 우에서 그만한 량의 놋쇠를 받아 돌려주게.》
그제서야 박원작의 얼굴에서 그늘이 가셔졌다.
《남공! 그게 참말인가?… 고맙네!》
흥분한 남권부는 하마트면 《고맙다는 인사는 내게 하는게 아닐세.》 하고 말할번 하였다.
사실 남권부는 천균노를 만드는데라면 단 한근의 놋쇠나 동전 한잎도 거저 바치고싶지 않았다. 하기에 박원작이 철덕쌓기공사를 벌려놓았지만 놋쇠를 구해들이는 일에 전혀 머리를 쓰지 않았다.
우에서 놋쇠를 가져가라고 기별이 내려오면 마차행렬이나 끌고 개경걸음을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였다.
지금까지 놋쇠를 부족하지 않게 실어올수 있은것도 그의 수완이 뛰여나서가 아니라 나라의 군사를 총 주관하는 서눌판도병마사가 북계병마도감에 그 우선권을 부여하기때문이였다.
며칠전 저녁 남권부가 집에 들어가니 멀리로 사냥을 갔다던 조득국이 와있었다.
그는 남권부를 만나자바람으로 서경에 와서 들었다면서 천균노란 병기를 병마도감에서 만든다는게 참말인가고 물었다.
남권부가 참말이라면서 그러나 3만근의 놋쇠에 목이 메여 언제 만들지 모르겠다고 대꾸하자 그는 그게 무슨 희소식이기라도 한듯 기뻐하였다.
도대체 조득국이 기뻐하는 까닭을 몰라 의아해하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안북부에는 나와 절친한 장사군이 있는데 그한테 놋쇠가 아주 많다네. 자네가 화약 몇백근과 수질구궁노 몇개를 뽑아주기만 하면 난 천균노 한개쯤 만들 놋쇠를 돌려주겠네. 그걸 병마도감에 바쳐 천균노를 만들도록 하라구. 그럼 자넨 온 병마도감의 인망을 살수 있고 또 후날 나라에서 내주는 그만한 량의 놋쇠를 받아 팔면 크게 횡재할수 있을거네. 이게 꿩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 불

때기가 아닌가.》

듣고보니 그야말로 일석다조의 폭리가 아닐수 없었다.

조득국은 화약과 수질구궁노를 빼내려면 돈이 들겠다며 주먹만한 은덩이까지 하나 내주었다.

돈벌이만 할수 있다면 화약이 아니라 대궐에 바치는 진상품에라도 손을 댈 판인데. 방법은 간단하였다. 이전처럼 군진들에서 화약과 《신기한 병기》들을 받아갈 때 장부에서 롱간을 부려 수량을 덧붙이면 그만인것이다.

남권부는 하마트면 조득국이와의 관계를 드러낼번한 자기를 속으로 꾸짖으며 딴전을 피웠다.

《박공, 공의 일이 잘돼야 내 일도 잘될게 아닌가.》

《아니, 공이 아니였다면 내 어찌 뜻을 이룰수 있었겠나. 난 앞으로도 공만을 믿겠네.》

《그렇게 믿어주니 내 더욱 분발하겠네. 자, 이젠 집에 들어가 쉬자구.》

박원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발편잠을 잘것 같군.》

《암, 그래야지.》

11

김충지는 박원작의 집에서 해가 서녘으로 기울도록 음식이 가득한 상을 마주하고 즐기고있었다. 최충으로부터 류별난 분부를 받고 타지에 와서 설을 섭섭치 않게 잘 쇨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

고향집이라고 해도 이번처럼 뜻깊고 크게 설을 쇠지는 못했을것이다.

박원작은 서경에 발은 친척이 없는 김충지와 심국종을 아침일찍 집에 불러 설을 함께 쇠자고 하였다. 인사를 하려 병마도감의 행

수들이 전부 밀려와서 박원작이네 집은 들썩했다.

박원작의 안해 해연이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잘한다더니 과연 소문 그른데가 없었다. 꿩고기떡국이며 노루고기산적, 사슴고기산적, 소고기산적과 같은 육붙이 그리고 도라지무침, 고사리나물에 이르기까지 상에 가득 올린 음식들은 하나같이 별맛이였다.

그중 김충지의 인상이 제일 깊은것은 쩡한 동치미국물에 만 메밀랭면이였다. 난생처음 먹어봐서인지 생전 그 맛을 잊을것 같지 않았다.

술맛은 또 어떤가. 인삼(산삼)이 많이 난다는 강계고을을 끼고있는 북계여서인지 술도 난생처음 마셔보는 인삼을 우린 술이였다. 술의 독특한 향내도 그렇고 입에 찰찰 붙는 그 감칠맛이 좋아 량껏 마셨다.

좋은 안주에 맛좋은 술을 마시며 사람들은 기쁨으로 웃고 떠들며 올해에는 더 힘껏 일을 하겠노라고 저저마다 다짐했다.

인차 3만근의 놋쇠를 가져온다는 박원작의 말에 좌중은 환성을 올렸다.

련장행수 근달은 천균노를 부어낼 거푸집을 당장 빚겠다고 해서 사람들의 달아오른 열기에 부채질을 하였다.

그러고보면 스승이 괜한 걱정을 한것 같다. 보매 병마도감사와 행수들이 한마음한뜻으로 뭉쳐졌다. 마음만 맞으면 삶은 도토리 한알을 가지고서도 시장기를 꺼버린다는데 저 사람들이 무슨 병기인들 만들어내지 못하겠는가. 상하가 합심되여 움직이는데서는 도깨비도 나올수 없고 밖에서는 다른 도깨비들이 기여들어와 발붙일수도 없다. 그러하기에 박원작이 8년세월 아무런 불상사도 없이 하고싶은 일을 마음껏 내밀수 있은게 아니겠는가.

김충지는 솔직한 말로 개경을 떠나올 때 서경에 가면 날마다 숨을 죽이고 아슬아슬한 고비를 겪으며 된고생을 하게 될거라고 생각하였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어리석기란…

지내보니 병마도감의 관원들도 의심할 하등의 근거가 없었다. 남권부를 보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남권부가 리자연과 함께 공부했고 오늘도 가까이 지내고있다

는걸 좋지 않게 여기고 그의 뒤를 파고들었지만 얻은것이란 전혀 다른 대답이다.

만일 그가 딴마음을 가진 작자라면 벌써 열두번은 화약의 비방을 빼내였을것이고 지금쯤은 서경에 붙어있지도 않을것이다.

아마 남권부만큼 박원작을 도와주고 밀어주는 사람도 없을것이다.

이자리에 차린 음식만 놓고보아도 그가 얼마나 박원작을 돌봐주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설맞이음식상에 오른 노루고기며 사슴고기, 인삼을 우려낸 귀한 술도 다 남권부네 집에서 보내준것이라고 한다. 그가 색다른 음식감이 생기면 꼭꼭 박원작이네 집에 가져다준다니 얼마나 의리가 깊은 사람인가.

들리는 소문에 남권부는 대단한 부자라고 한다. 안사람이 기생퇴물이긴 해도 시집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온데다 장사묘리에도 밝아 날로 돈을 잘 벌어들인다니 그럴것이다.

박원작은 술이 거나해지자 이제 곧 놋쇠를 실어오는데 그것도 다 남권부가 안면도 넓고 수완도 좋아서 어느 장사군한테서 당겨오는 거라며 그를 칭찬해마지않았다.

과연 남권부는 나라일이 잘되기를 바랄뿐아니라 누가 보든 말든 자기 소임을 착실하고 주인답게 해나가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

그렇다면 더는 의심할 사람이 없단 말인가. 아직은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대신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것은 확실하다. 눈여겨볼수록 박원작이 칭찬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

오늘 이자리에 둘러앉은 심국종도 가까이 사귈만한 사람이 틀림없어 보인다. 얼굴이 곱나 일이 곱지 하는 말처럼 심국종은 일이 고와 썩 마음에 든다. 철덕을 쌓는 일에서도 그만큼 몸을 돌보지 않고 밤낮으로 일한 사람은 없을것이다.

좋은 사람이 많으면 일이 잘되기마련이니 천균노는 곧 자기의 웅자를 드러내여 고려를 넘보는 적들에게 공포를 안겨줄것이다.

이제 이 김충지가 박원작을 도와 할수 있는 일은 오로지 놋쇠를 잘 녹여서 단번에 천균노를 부어내는것이다.

《이보게, 술은 들지 않고 무슨 생각만 하나?》

김충지는 음식상에 마주앉은 심국종이 술잔을 내밀며 하는 소리에 피뜩 정신이 들어 손에 든 저가락을 노루고기접시에 가져갔다.

× ×

김충지가 박원작의 집에서 여러 장공인들과 술을 나누고있을 때 남권부는 자기 집의 뜨끈한 안방에 올방자를 하고 앉아 가야금을 타는 마씨의 건드러진 노래를 들으며 손장단을 치고있었다.

…
너 어찌 잊으랴 하시더니
우러러 뵈옵던 그 얼굴이
고쳐질줄이야 …

…

기름진 음식으로 이미 식도락을 마음껏 즐긴 남권부는 지금 마씨가 부르는 노래에 심취되여있었다. 그는 언제인가 박원작에게서 들은바있는 그 노래에 깃든 사연을 생각했다. 지금 마씨가 부르는 《잣나무가》는 신라말기에 지었다고 한다. 어느 한 선비와 친하였던 왕자가 잣나무그늘에서 바둑을 놀며 그에게 말하기를 《내 룡상에 오르면 너를 잊지 않고 높은 벼슬자리를 하사하겠다. 이 잣나무앞에서 다짐하노라.》라고 말하였다. 허나 왕자는 정작 임금이 되자 그 선비를 까맣게 잊고말았다. 왕위에 오른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벼슬을 주고 상도 내렸건만 그 선비에게만은 아무것도 내준것이 없었다. 이에 불만을 삭일수 없었던 그 선비는 임

금을 야유하는 《잣나무가》를 지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배워주었다. 삽시에 온 나라에 퍼진 그 노래는 높은 궁성벽을 넘어 구중궁궐 겹겹이 문으로 막은 대궐속에서 위엄을 부리는 임금에게도 전해졌다. 어느날 궁성안의 아이들과 궁녀들이 부르는 《잣나무가》를 유심히 듣던 임금은 그제야 그 선비를 생각하였고 하여 그를 불러들여 벼슬을 하사했다고 한다.

남권부는 입속으로 마씨가 부르는 노래를 따라부르며 세상일이란 다 《잣나무가》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노래에서처럼 인간세상이란건 욕심을 부려야만 살아가게 생겨먹었다. 우는 아이한테 젖준다고 수걱수걱 일만 잘해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얻을게 없다. 박원작의 한생이 그걸 보여주고있지 않는가.

조정을 둘러보면 사실상 그 나이에 그만큼 나라앞에 큰공을 세운 신하는 드물것이다. 리자연이같으면 박원작이 세운 공에 열에 한가닥만 미쳤어도 소뼈다귀 우려먹듯 그것을 턱대고 더 높은 벼슬과 많은 록봉을 옭아냈을것이다.

공명과 부귀를 누릴수 있는 비결은 나라일을 직심스레 하는데 달려있는게 아니라 처세할줄 아는데 달려있다. 비단결같이 깨끗한 제 마음만 믿고 누가 보건 말건 나라일을 찾아하는 박원작이같은 사람은 도리여 화를 당하기가 십상이다. 일을 많이 하면 허물도 생기기마련이니까. 결국 그런 사람과 깊이 사귀고 그런 사람이 하는 일에 깊이 관여하다가는 봉변을 당할수 있다.

하기에 남권부는 박원작에게 속을 준적이 없었고 병기를 만드는 허다한 일에 깊이 개입하기를 꺼려했다. 그는 병마도감을 나서면 될수록 서경류수부의 관원들과 사귀기에 힘썼다.

사귀기 힘써 통하지 않는 사람 없다고 서경류수와는 어려워도 그아래의 부류수며 판관같은 관원들과는 허물없는 사이가 되였다. 하여 뜻깊은 날이나 좋은 절기에 그들과 함께 밀려다니며 음풍영월을 하는 재미를 붙인 남권부였다.

오늘도 류수부의 두 판관이 부하들을 데리고 놀러 왔었다. 마씨의 가야금타는 솜씨도 보고싶어서겠지만 보다는 곰고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추렴생각에 목젖이 달아 왔을것이다.

조득국이 참 명물은 명물이다. 강계쪽으로 사냥을 갔었다더니 사슴과 노루 몇마리에다 중소만한 큰 곰을 한마리 마차에 실어 보내왔다. 그중 작은 사슴과 노루를 각각 한마리씩 박원작이네 집에 가져다주게 하고는 곰고기로 불고기를 하라고 했다.

하여 곰고기가 생겼으니 생각이 있으면 오라는 기별을 안면이 깊은 키다리판관에게 보냈던것이다.

곰불고기도 별맛이지만 곰발탕은 더욱 별맛이니 그들은 량껏 먹고 술에 푹 취해서 돌아갔다.

이제는 류수부의 관원들과 너나들이 하는 사이라 이 서경땅에서 걸칠 작자는 누구도 없다.

남권부는 자기 신상에 어쩌면 하늘이 점지한듯 행운만 비끼는지 못내 흡족하여 가야금소리에 맞춰 궁둥방아질까지 해댔다.

남권부는 설을 쇠고나서 할 일을 생각해보았다.

먼저 조득국이에게 화약과 수질구궁노를 빼내주고 그 대가로 그가 가져오는 놋쇠 3만근을 받아 박원작이에게 주고나면 큰일을 하나 해제끼는것으로 된다. 그다음 개경으로 올라가 나라에서 내주는 놋쇠 3만근을 타내여 팔아치우자. 그 돈으로 송악산기슭의 경치좋은 자하동 어디쯤에다 호화로운 기와집을 사든가 짓든가 하고 그러고도 남은 돈이 있으면 백주(배천)의 기름진 옥답을 마련할테다. 그것만으로도 떵떵 큰소리치며 잘살수 있을것이다.

아니, 어찌 그것으로 만족해하랴. 돼지 길러 나중엔 잡아먹는다고 그만큼 박원작이를 돌봐주었으면 이제는 그한테서 값을 톡톡히 받아낼 때가 왔다. 제가 이제 더는 화약의 비방을 저 혼자것이라고 뻗대지 못할것이다. 걸핏하면 산짐승고기며 값진 술을 섬겨바치고 지어는 나라에서도 제때에 대주지 못하는 엄청난 수량의 놋쇠까지 자비로 구해다주었는데… 그한테서 화약의 비방을 걷어쥐는 날이자 개경군기감의 주인자리를 차지하는 날로 될것이다. 개경군기감의 주인자리를 차지하기만 하면 장차 조정대신자리도 갈데가 없다. …

그가 황홀한 기분에 들떠있는데 방문밖에서 기척소리에 이어 《주인님－》하는 부름소리가 울렸다.

남권부는 한창 달아오른 흥을 깨는 소리에 저으기 화가 났다.
《왜그래?》
《웬 스님이 이걸 주인님께 전하라고 해서…》
(?!…)
남권부는 마지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큰 죄를 짓기라도 한듯 하인은 기가 질려 고개를 숙이고 섰는데 그가 내민 두 손에는 봉서가 들려있었다.
《그걸 언제 주었느냐?》
《방금 삿갓을 쓴 스님이…》
언제 뒤따라나왔는지 마씨가 까마귀 병아리 채가듯 하인의 손에서 봉서를 나꾸어챘다. 그러는 마씨를 아니꼽게 바라보며 남권부는 얼굴을 찌프렸다.
《물러가라.》
마씨를 쫓아 방에 들어선 남권부는 손을 내밀었다.
《인줘!》
마씨는 허리를 꼬며 아양을 떨었다.
《아이, 이런걸 내가 보면 안되나요?》
《사내가 하는 일에 참견하면 행실바른 녀인이라고 할수 없어.》
마씨는 남권부의 목에 매달리며 나불거렸다.
《행실바른 녀인은 못되여도 남정네를 돕는 착실한 안주인이 되고싶어 그래요.》
《속에 없는 소리…》
마씨의 손에서 어느새 봉서를 나꿔챈 남권부는 마루건너 외헌으로 나가려다 말고 아래목에 주저앉았다.
간격을 두고 이상스레 굴면 의심이나 더 사는게지, 계집들이란 잔꾀는 많다 해도 능청스럽기는 사내들만 못한 법이렷다, 어디 딴전을 부려볼가. …
남권부는 대수롭지 않은듯 마씨의 앞에서 봉서를 뜯고 그안에서 종이장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어깨를 흔들거리며 재빨리 글줄을 더듬었다.
《오야집의 주인이 노했소. 놋쇠기둥으로 집을 세우자는건 오야

집주인의 뜻이 아니요. 그 뜻을 거스르지 말고 절당의 종을 부을 놋쇠를 당겨쓰지 않길 바라오. 심복사 주지로부터.》

남권부의 어깨너머로 어느새 글줄을 훔쳐본 마씨는 모르는척하며 물러나 다시 가야금을 안아들었다.

둥기당당…

글월을 움켜쥔 남권부는 턱을 떨었다.

감히 간망스레 생긴 놈이 누굴 훈계하는 이따위 글질을 할수 있는가. 거마복종(벼슬아치의 수레와 그를 따라다니며 시중드는 종.)이나 해먹던 놈이 아래웃턱도 몰라보는데 그놈의 버릇을 톡톡히 가르쳐주어야 할가보군.

남권부는 턱을 싸쥐고 생각을 굴렸다.

오얏집주인이란 지중추원사 리자연을 의미하는 소리였다. 또 놋쇠기둥은 천균노를 빗대는 글이요, 종을 부을 놋쇠를 당겨쓰지 말라는건 조득국이 가져오는 놋쇠를 적당한 구실을 대고 받지 말라는 암시이다. 심복사 주지란 그 육실할 난쟁이 심국종을 뜻한다.

그놈이 경망스레 날뛰는걸 보면 분명 제 분수조차 모르는 놈이로다. 천균노를 만들라는건 리자연이 참석한 어전회의에서 임금이 내린 지엄한 분부이다. 네놈의 수작질은 나라의 국익을 침해하는것은 물론 이 남권부의 리익에도 어긋나는것이니 내 네놈을 서경땅에서 쫓아버리고말테다.

남권부는 류수부친구들의 손을 빌려 심국종을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랬더니 차츰 마음이 한결 가라앉았다.

12

박원작은 여느날처럼 신새벽에 깨여났다. 해연은 벌써 아이를 업고나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있었다. 그의 머리속에는 천균노의 거푸집을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꽉 차있었다. 그는 이미 철덕을 쌓을 때부터 천균노의 모양새며 크기를 이모저모로 타산했었다.

박원작은 여느날 아침과는 달리 벽에 기대앉아 사색을 이어나갔다.

지팽이모양의 불막대기, 다시말해 화장을 만배로 크게 한것이 천균노이니 산학에 정통한 그로서는 그 크기를 어렵지 않게 산출해낼수 있었다. 천균노의 크기는 기장이 10자(303m)에 둘레길이는 13자 8치(약 4.2m), 포아가리속의 폭은 33치(약 1m)정도 하면 3만근의 놋쇠가 들어갈것이다.

화약은 보통 40근정도 다져넣고 불을 달면 300근의 둥근 돌탄을 얼마든지 천보쯤은 날려보낼수 있을것이다. 천균노의 두께를 5치로 하면 40근의 화약이 터지는 힘에 끄떡않을것이다.

천균노의 크기를 바로 정했으니 그것을 부어낼 거푸집을 빚는 일도 어렵지 않다. 거푸집은 뢰등석포의 거푸집처럼 대동강바닥에 흔한 가는모래를 파내여 찰흙과 섞어 빚으면 될것이다.

3만근이나 되는 육중한 천균노의 거푸집을 빚어놓으면 철덕처럼 볼만 할것이다. 그럼 어떻게 거푸집을 앉혀야 편안할가. 포아가리쪽이 밑으로 가게 세워서 거푸집을 다져쌓되 천균노의 속생김과 꼭같이 먼저 쌓아놓고 그다음 5치의 공간을 정교하게 내면서 겉을 쌓아주어야 할것이다.

병마도감에는 아무리 까다롭고 복잡한 거푸집일지라도 솜씨있게 빚을줄 아는 귀신같은 재간을 가진 장공인들이 많으니 천균노의 거푸집같이 큰 거물도 마음먹은대로 해낼수 있을것이다.

아무래도 오늘 병마도감에 나가봐야 할것 같다.

어제 련장행수 근달이 찾아와 하는 말이 며칠을 거퍼 쉬니 오금이 쑤셔 장공인들이 병마도감에 나가려 한다는것이였다.

하고싶어 하는 일을 밀막으면 도리여 몸살을 앓는다는데 거푸집을 앉힐 자리도 볼겸 병마도감에 나가야겠다.

박원작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방문이 열리며 해연이 밥상을 안고 들어섰다.

박원작은 자리를 차고일며 밥상을 받아들었다.

《아이를 업고 밥상까지 들다니…》

박원작은 밥상을 든채 《이제라도 시비 하나를 두지 않겠소

?》하고 물었다.

《또 그 말씀이시오이까? 저도 백성집 딸인데 집안일 하나 거두지 못하여 시비를 둔다는건 말도 되지 않소이다. 그런 말씀 마시고 상이나 내려놓으시와요.》

《어… 그러지.》 하고 밥상을 내려놓은 박원작은 설음식과는 전혀 다른 상차림에 눈이 둥그래졌다.

상우에는 부추며 파, 싱검초(당귀) 등이 놓여있었다. 이것들은 다 움에 두었던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신한 남새들은 립춘날에나 먹는것인데…

박원작은 해연의 등에서 아이를 안아들며 물었다.

《왜 벌써 〈립춘채〉를 꺼내놓았소?》

《벌써라니요? 오늘이 바로 립춘날인데…》

《오… 오늘이?!》

박원작은 어줍게 웃음을 지었다. 자나깨나 천균노 그 한생각이다보니 절기가 어떻게 바뀌는줄도 모른것이다.

당시는 력서로 음력을 썼으므로 해마다 24절기에 따르는 날자들의 차이가 심했다. 립춘만을 보아도 어떤 해는 음력설보다 보름전에 오는가 하면 또 어떤 해는 그보다 열흘 늦어지는 때도 있었다. 그러니 박원작이 벌써 립춘이 든줄 모르고있었다 해도 무리는 아니였다.

박원작은 급히 웃방에 올라가 백추지(하얀 고려종이) 몇장과 백옥연갑이라고 하는 흰 옥돌로 만든 벼루집이며 붓을 찾아들고 내려왔다. 오늘은 집기둥에다 봄이 오자 복이 들고 계절에 따라서 경사가 많기를 바란다는 글인 《립춘대길》을 써붙여야 하는 날이다.

《글도 다 써서 붙여놓았어요. 그러니 아무 념려말고 진지나 드세요.》

박원작은 웃고말았다. 집에서는 늘 손님격인 자기가 새삼스럽게 생각되였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사내가 해야 할 일을 언제나 앞질러 해치우는 해연의 마음에 감동되였다. 참말이지 하나하나의 언행에 정이 쏙쏙 드는 해연이였다.

박원작은 문득 작년 여름날에 있은 일이 생각나 울대를 오르

내렸다. 흐르는 내물에 하루종일 들어가있어도 덥다고 하는 여름날 불이 이글대는 철덕에서 놋쇠물을 받아 퇴등석포를 붓고나니 기갈이 나서 견딜수가 없었다.

아, 이런 때 시원한 서경랭면이나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데 꿈인양 해연이 여러 녀인들과 함께 메밀국수임을 이고 병마도감에 나타났다.

그날 박원작은 기갈도 기갈이지만 기분이 뜬김에 서경랭면을 무려 세그릇이나 받아먹었다. 정말 오장이 시원히 풀리던게 평생 잊을수 없었다.

어쩜 해연은 사내의 마음을 그렇게도 헤아릴수 있었을가.

박원작의 품에서 영준이를 안아든 해연이 《어서 드세요.》 해서야 그는 벌씬 웃고나서 싱검초를 집어들었다.

싱검초를 꿀에 발라 입에 넣으니 그게 참 별맛이였다. 싱검초를 맛스럽게 먹고난 박원작은 이번에는 연한 파를 집어 초장에 찍어 입에 가져갔다. 그 맛도 별맛이였다.

립춘날에 새파란 생남새를 먹으면 그해 이발이 무사하다는데 어찌 사양할소냐.

생생한 남새를 곁들여 밥 한그릇을 다 축낸 박원작은 배를 슬슬 쓰다듬으며 유쾌하게 웃었다.

× ×

박원작이 장공인들과 함께 련장칸의 뜨락에서 천균노의 거푸집을 앉힐 자리를 정리하고있을 때 조득국이 이끄는 마차행렬은 안북부를 빠져나와 서경을 향해 질주하고있었다.

수십대의 마차들에 놋쇠를 실은 이 행렬의 선두에서 말을 달리는 조득국의 곰상판에는 간교한 웃음이 어리여있었다.

이 길이 어떤 길인가. 가슴속에 품은 뜻을 하루빨리 당겨올수 있는 고행의 길이다.

정월에 봄이 시작된다고 했으니 이해의 봄은 정말 운수가 좋은 봄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조득국에게 있어서 놋쇠를 싣고 서경으로 가는 이 길은 하루빨리 녀진으로 돌아가는 길이기도 했다.

세상에 호걸이라 자처하는자치고 천하를 호령하는 장수의 지위를 탐내지 않는 놈 없다는데 자기를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조득국의 가슴속엔 하루빨리 녀진장수가 되고싶은 야심뿐이였다. 장수가 되는 길은 오로지 힘에 의거하는 길뿐인줄 그는 잘 알고있었다.

덕에 의거하면 뜻을 성취할수 있다는 말은 다 뜻을 이룬 사람의 겉치레말이고 초야에서 기회를 엿보는 호걸은 반드시 힘에 매달려야 한다. 이제는 바야흐로 그 기회가 거의 무르익어온다고 할수 있다.

수백리안팎의 녀진부락들을 거의다 거머쥔 장인은 이 조득국이 어서 빨리 화약의 비방을 알아가지고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니 화약의 비방을 알아내는 날이자 장인의 뒤를 물려받는 날로 될것이다.

몇해전 화약과 《신기한 병기》를 남몰래 마바리에 떠싣고 압록강건너의 녀진부락을 찾아간 조득국은 그때 맹안(민호 3 000호)을 다스리는 두령집에 장가를 들었다.

젊어서부터 팔난봉으로서 자기를 말리려드는 안해마저 내쫓아 홀몸이 된 그가 두령집에 장가를 든것은 대단한 횡재였다.

조득국의 가시애비가 된 두령은 서경에다 고려에 잠입한 녀진인들을 끄나불로 가지고있었다.

그 끄나불들중의 한 로파가 절색으로 알려진 제 딸을 조득국이에게 주고 그를 녀진의 간자로 만들었다.

서경류수부의 사록참군사란 벼슬을 지낸적도 있어 고려의 물정에 밝은 조득국이 간자로 맞춤했던것이다.

로파가 안겨준 보물덩이와 미녀에게 혹한 조득국은 녀진을 섬길것을 맹약했다.

그동안 조득국은 루차에 걸쳐 고려의 위력한 병기들을 빼내여 녀진소굴에 보내주었다.

그렇게 하자니 적지 않은 은덩이며 고리문근처에 있는 고래등같

은 기와집은 말할것도 없고 죽자살자 하던 미녀까지 남권부에게 섬겨바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지만 그 대가로 사방 백리땅을 호령하는 두령집의 사위가 되였으니 장차 장인의 자리를 물려받을수 있게 된것이다.

그자리에만 앉으면 무엇도 두려울게 없다.

거란까지도 겁나할것 없다. 한때 천하를 크게 위협하던 거란은 어제날의 거란이 아니다. 해는 중천이면 옮겨가고 달은 만월이면 이지러진다고 사나운 기세로 송나라를 굴복시키고 대군으로 고려를 쳤던 거란은 자기가 일으켰던 그 전란에 부대껴 기력을 뽑히우고 쇠약해버렸다. 그러니 고려처럼 화약을 쓰는 《신기한 병기》들을 갖춰놓고 나아가서 박원작이 새로 만들어낼 천균노까지 그 비방을 뽑아다 차려놓는다면 거란따위가 감히 녀진을 넘볼수 있겠는가.

오늘날 자기를 지켜내는 비방에 대해 론한다면 그것은 남들이 가지고있지 못하는 세상에서 제일 위력한 고려의 화약을 먼저 빼앗아 취하는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것이다.

가장 앞서나가는자만이 남을 누를수 있는 법이거니 이해 신사년(1041년)에는 어떻게 하나 화약의 비방을 내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남권부에게 숱한 재물을 먹였으니 이제는 그자의 목을 비틀어 화약의 비방을 넘겨받을 때가 되였다.

당초의 생각대로 하였더라면 이미 돌석이를 묶어간지가 옛날이였을것이다. 허나 잔고기가 가시 세다고 그놈이 화약의 비방을 내놓지 않는다면 10년 공든 탑 무너질수 있기에 오늘을 기다려온게 아닌가.

큰 고기에겐 큰 미끼를 던지라 했거늘 그동안 남권부에게 먹인 돈이면 하늘의 별도 따올수 있으렷다.

사냥하여 잡은 산짐승들을 남권부에게 가져다주군 하길 잘했다.

그 산짐승들이 조화를 부렸는지 박원작이 서경에 다시 내려와서 천균노란 무서운 병기를 만들려 한다는 희소식이 날아왔던것이다.

천하의 그 어떤 성루도, 거대한 충차도 단번에 묵사발로 만들수

있다는 천균노에 대한 소식을 들은 그날 조득국은 너무 좋아 하루 종일 입을 다물수 없었다.

화약의 비방과 함께 천균노를 만드는 비결까지 알아가지고 가면 그야말로 횡재우에 또 횡재가 아닐수 없다.

고려는 그 거대한 화포를 기껏해서 성루에 올려놓고 적을 막자고 만들지만 이 조득국은 결코 그렇게만은 하지 않을것이다. 이 세상에 없는 그 좋은 병기를 가지고서 왜 울타리만 지키려 하겠는가. 천균노만 있으면 당장 온 녀진을 줌안에 넣은 다음 거란으로 쳐들어갈테다. 천균노의 우렁찬 포성이 울리기만 해도 거란은 기절초풍을 할것이다. 거란은 사람들의 인총이 조밀한 도회지들에 몰켜 평지성을 쌓고 사니 천균노로 몇방만 울리면 살려줍사 하고 무릎을 꿇고말것이다.

참는자에겐 복이 차례진다고 박원작이 천균노를 만들어낼 때까지만 그를 돕자. 박원작은 천하에 둘도 없는 인재이니 틀림없이 천균노를 만들어낼것이다. 바로 그때 낚시줄을 당겨 그 비방까지 뽑아가면 천하를 먹을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것이다. …

이런 음흉한 속심에서 조득국은 놋쇠가 없어 천균노를 붓지 못하고있다는 남권부의 말을 듣고 그에게 놋쇠를 넘겨받도록 계책을 꾸민것이였다. 그의 속심을 알리 없는 남권부는 재물욕심이 나서 덥석 조득국의 미끼를 받아물었다.

조득국은 안북부에 심복부하들을 가지고있었다. 그들도 고려에 잡입한 녀진족속들인데 압록강을 넘나드는 길에 사귀였고 재물로써 그들을 심복으로 만들었다.

조득국은 이미전부터 녀진소굴에다 병마도감을 크게 지을 심산에서 안북부의 부하들에게 놋쇠를 사들이게 했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그 많은 놋쇠를 국경너머로 날라가는 품이면 녀진에서 거란과 교역을 하는편이 나을것 같았다. 그래서 비싸게 팔아넘기려 하던 참이였는데 때마침 쓸 일이 생겼던것이다.

당장은 그 많은 놋쇠를 남권부에게 거저 주는것 같아 속이 알찌근하지만 천균노를 생각하면 그까짓게 무슨 대수란 말인가.

이런 장사속이라면 발벗고도 만리를 뛸상싶었다.

하여 조득국은 남들이 다 쉬는 정초의 이날에도 산을 넘고 눈보라에 묻히면서 지친 마차행렬을 재촉하며 서경을 향해 가고있는것이다.

그는 용기를 내여 소리쳤다.

《이놈아, 어서 가자! 이랴, …쩌!ㅡ》

13

앓아누운 할머니를 머리맡에서 지켜보는 죽화의 두눈에 눈물이 츠렁츠렁 고였다.

아버지 박원작이 집을 떠나간 그 다음날부터 한씨는 자리에 눕고말았다. 기침이 나고 가슴과 배가 아프면서 뒤잔등이 뻐근해왔다.

죽화가 의원을 청해오려고 하자 한씨는 고개를 저었다.

《얘야, 누구나 늙으면 이러기마련이다. 공연히 부산을 피우지 말아. 며칠 지나면 낫겠지.》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한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할머니의 병세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죽화는 한달음에 이웃마을에 사는 의원을 찾아갔다.

공교롭게도 왕진을 떠나려던 의원은 죽화가 찾아온 사연을 듣고 총총히 약을 지어주었다.

《네 말을 듣고보니 할머니는 풍한감모(감기의 한가지)에 걸렸구나. 이 약은 향소산이란 약인데 하루 두첩씩 물에 달여 끼니사이에 드리면 며칠 안있어 병이 나을게다.》

의원의 말대로 약을 며칠 달여드렸더니 할머니의 기침병은 나았다. 그러나 한씨는 여전히 웃배를 아파했고 오른쪽 가슴부위와 어깨부위의 아픔은 오히려 더 느끼는것만 같았다.

그 병으로 해서 한씨는 밥술도 제대로 뜨지 못하였다.

몹시 축간 할머니를 굽어보며 죽화는 아버지를 생각했다.

이런 때 아버지가 집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가. 다른 량반집들에서는 벼슬하는 아버지들이 한마디 분부를 내리면 하인들이 달려나가 의원을 모셔온다, 좋은 약재를 구해온다, 온 집안을 들었다놓는데 자기네 집은 분명 벼슬하는 량반집이건만 부엌일을 돌보는 하녀 하나없이 모든 집일을 할머니가 홀로 해나간다. 도대체 백성집들과 무엇이 다른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버지가 위력한 병쟁기들을 수많이 만들어내여 나라를 지키는데서 큰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큰 공을 세운 사람의 집이 왜 이 모양인가. 아버지의 벼슬이 너무 낮아서인가 아니면 록봉이 너무 적어서일가.

박원작의 가문은 원래 농사군집안이였다. 농사군이였던 증조부가 변방군사로 나가 압록강을 건너 기여든 오랑캐군과의 싸움에서 군공을 세우고 교위로 되여 그 다음대부터 품계가 낮은 무관벼슬에 등용될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품계가 낮은 무관이나마 군사를 거느렸지만 집에는 한명의 하인도 두지 않았다.

그것은 자식들에게 가문이 농사군집안임을 잊지 말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을 알리기 위해서였으리라.

그것이 곧 박씨가문의 가법으로 되였다.

한씨는 금시 눈물을 흘릴듯 눈물이 츠렁츠렁해서 굽어보는 죽화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얘야, 내 걱정은 말고 점심차비를 하거라. 내 병은 몸살이 나서 그러는것이니 한 며칠만 더 누워있으면 날게다.》

죽화는 이미전부터 가슴속에 품어오던 말을 터놓고야말았다.

《할머니! 우리 그럴것없이 서경에 가 사는것이 어때요?》

한씨는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감아버렸다.

아, 저애가 얼마나 아비 정이 그리웠으면 제 나서자란 고향집까지 떠나자고 할가. 하긴 어미잃고 아비만을 믿고사니 그럴만도 하지. 더우기 한두해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아버지와 갈라져서 사니 부모의 정이 얼마나 그리우랴.

《얘야, 네 맘을 알겠다만 생각을 좀 깊이 해보렴. 네 아버지는

정말 바쁜 사람이다. 지금은 또 천균노란 큰 화포를 만들겠다고 서경에 내려갔는데… 거길 찾아가서 얹혀살면 아버지일에 지장을 주게 된단다. 그러니 아직은 참아야 한다. 죽화야, 이제 머지않아 온 집안이 다 모여살게 될 날이 꼭 올게다.》

죽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경에 가서 살자는건 늙고 병드신 할머니를 생각해서 그러는건데… 이러다 할머니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아버지앞에 무슨 면목으로 나서겠는가!

애타는 가슴을 누르던 죽화는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웅글은 목소리에 몸을 일으켰다.

《주인님 계시오이까?》

별로 들어보지 못한 귀에 설은 소리에 한씨도 죽화도 놀라는 눈길로 방문쪽을 바라보았다.

누구일가? 발은 일가친척이 없어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죽화는 망설이다 방문을 열었다.

검은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 사립문밖에 서있었다. 죽화는 인차 그들속에서 보라빛의 옷깃을 단 관복에 옥띠를 찬 사람을 띠여보았다. 최충이였다. 아버지의 오랜 스승을 알아본 죽화는 급히 뜨락으로 달려나가 사립문을 열었다.

《사부님! 안녕하시오이까?》

최충은 대바람 자기를 알아본 죽화가 기특해서 껄껄 웃었다. 벌써 다 자라서 제법 처녀꼴이 잡힌 죽화를 새삼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던 최충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이태전 사직단에 제를 지내러 왔다가 들렸을 때보다 키도 퍽 크고 숙성했다.

《할머니가 계시겠지?》

죽화는 금시 얼굴을 붉히며 당황해했다. 앓는 할머니를 어떻게 만나게 할수 있단 말인가. …

《허- 네 얼굴을 보니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가부구나.》

최충은 앞장서 방으로 향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참지정사 최충이 찾아왔음을 알아차린 한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시를 바로 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선 최충은 절을 차리는 한씨의 손을 잡고 그의 안색부터 살피였다.

병색이 짙은 한씨의 얼굴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낀 최충은 방에 따라들어온 몸집이 실한 사람에게 말했다.

《판관! 빨리 가서 의원을 모셔오게. 남산(자남산) 복숭아골에 용한 의원이 있소.》

《예, 알겠소이다.》

판관이 나가자 한씨는 황송해서 입을 열었다.

《사부님, 괜히 저때문에… 바쁘신 시간을 허비하면 안되오이다.》

최충이 진정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일만 일이라면서 이 집을 돌보지 못했소. 이게 다 내 불찰로 생긴것이니 바쁘다는 소릴 어찌 하겠소.》

이윽고 최충은 문곁에 선 젊은 사람을 가리켰다.

《이애가 한림원(유교를 선전하고 어지를 내는 일을 맡아보는 관청)에서 시독학사로 있는 제 아들이요.》

한림원 시독학사가 한씨에게 읍을 했다.

《제 이름은 최유선이라고 하옵니다.》

《인사는 무슨 인사, 사부님의 아드님까지 찾아주시니 정말 고맙소이다.》

최충이 한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난 래일 장성공사때문에 북계로 가야 하오. 그동안 이애가 댁을 찾아올것이니 애로가 있으면 뭐나 다 부탁하오.》

한씨는 최충이 먼 북변으로 떠나간다는 소리에 일순 마음이 허전해졌다.

최충은 장성공사를 위해 개경을 떠나기에 앞서 한씨를 만나보고 싶었다. 집에 애로가 있으면 풀어도 주고 박원작에게 집소식도 알아다주고싶었던것이다.

중요한 국사를 맡은 최충을 지체시키는것이 죄스러워 한씨가 사정하듯 말했다.

《사부님! 제발 부탁이온데 쇤네걱정은 마시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오이다. 제발 그러해주사이다.》

몹시 송구스러워하는 한씨를 보자 최충은 자기가 이 집에 더 머물러있는것이 도리여 그의 건강에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 알겠소.》

최충은 최유선에게 눈길을 옮기며 분부했다.

《넌 의원이 올 때까지 여기 남아서 병자의 병증도 알아보고 약도 잘 쓰도록 하여라.》

《예.》

최충이 일어나려 하자 한씨는 《잠간만!》하고 나직이 소리쳤다. 그는 웃방으로 들어가 채롱속에 넣어두었던 버선을 꺼냈다.

박원작이로부터 스승이 장성공사를 맡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한씨는 두켤레의 버선을 손수 지었었다. 북방의 높은 험산들에는 꽃피는 봄날에도 눈이 쌓여있다는데 나라의 중임을 맡은 사람의 발을 아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풀솜(누에고치솜)을 두툼하게 넣은 명주버선을 한뜸두뜸 바느질자리마다 정성을 담아 지은것이였다.

그렇지 않아도 버선을 가져다드리려고 했는데. …

버선을 손에 든채로 한씨는 다시 장농으로 다가갔다. 장농문을 열고 그안에 둔 작은 궤를 꺼내려던 한씨는 그만 주춤했다. 그 작은 궤에는 남편이 마지막화약시험을 하다가 불상사를 당했을 적에 입었던 옷이 들어있었다.

마지막숨을 몰아쉬던 남편은 아들이 아비의 뜻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거든 자기가 입은 옷을 그에게 주라는 유언을 남겼다.

부모의 피자국이 어려있는 그 옷을 보면 아버지의 뜻을 외면할 자식이 어데 있으랴.

한씨는 이 옷을 서경에 보내줄가 하다가 그만두었다. 아들이 제 맡은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있다니 그럴 필요는 없었다.

조용히 한숨을 내그은 한씨는 버선만을 가지고 아래방으로 내려왔다.

《선생님, 보잘것 없는것이지만 저의 성의로 아시고 이 버선을 받아주사이다.》

버선을 받아든 최충은 불을 안은듯 가슴이 후더워났다. 이걸 어찌 한갖 버선이라고만 할수 있으랴! 하루빨리 나라지키는 장성을 튼튼히 쌓아올리기를 바라는 이 나라 녀인들의 념원이 담긴

것이 아니겠는가.

《고맙소. …》

14

판북계병마사 최충이 서경을 향해 개경성의 오정문을 나서고 있을 때 박원작은 서경병마도감의 련장칸뜨락에 우뚝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있었다.

어제같아서는 오늘도 온종일 가는비가 구질구질 내릴듯 했는데 거짓말같이 하늘이 맑게 개였다.

결단코 철덕에 불을 지피길 얼마나 잘했는가.

어제 새벽부터 가는비가 지꿎게 내리였다. 하루가 아니라 단 한시라도 천균노를 부어내는 일을 뒤로 미루고싶지 않은 박원작은 그동안 불을 때서 말린 첫번째 철덕에 불을 지피게 하였다.

며칠전 남권부는 제 말대로 놋쇠 3만근을 어김없이 실어왔다. 장부일언 중천금이라더니 남권부가 바로 그런 사내렷다. 남권부가 설도 제대로 쇠지 못하고 구해온 놋쇠로 하루빨리 천균노를 부어내는것이 이제 내가 나서 해야 할 사람의 도리이다.

만약 가는비가 아니라 대줄기같은 폭우가 쏟아진다 해도 채붕을 치고 놋쇠를 녹이리라!

이런 배심으로 그는 두개의 철덕에 각각 50섬의 숯과 만 5천근의 놋쇠를 넣었다.

오늘 새벽에 두번째 철덕에도 불을 달았더니 말썽을 부리던 하늘이 급기야 이렇게 달라진것이였다.

오늘은 온 병마도감이 놋쇠를 녹이는 일에 달라붙는다. 장공인들은 밥까지 날라다먹으며 천균노를 부어낼 때까지 철덕곁을 떠나지 않을 기세였다.

하늘까지 맑게 트인것을 보면 일이 뜻대로 되여갈 조짐이다.

장쾌하다할만치 판을 크게 펼친 일터에서 장공인들이 부르는 타

령소리가 박원작의 가슴을 더욱 울렁이게 하였다.

풀무야 풀무야 불어라 딱딱 풀무야
놋쇠를 녹여서 우리 병기 부어내세
놋쇠화포 지동치면 천하가 태평하리
태평성대 이루고저 불어라 딱딱 풀무야

장공인들이 제나름대로 지어부르는 풀무타령이 고조되는데 근달이 박원작에게 다가왔다.

《병마도감사님, 놋쇠가 끓기 시작했소이다.》

《아, 그렇소이까!》

박원작은 드디여 때가 왔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뿌듯하여 주위를 둘러보았다.

집채같은 두개의 철덕을 에워싸고 사람들이 병풍처럼 촘촘히 둘러섰다. 장공인들만 아니고 그들의 식솔들까지 모여들었으니 병마도감이 생겨 처음보는 사람사태가 난것이다.

철덕마다에 여러개의 풀무조가 들어붙어 바람을 일구느라 비지땀을 흘리고있다. 길이, 너비가 몇자되는 풀무마다에 힘꼴좋은 장정들이 댓명씩 달라붙어 참나무손잡이를 당겼다밀었다 하는데 구경군들까지 그들과 합세하여 풀무타령을 불러댄다.

철덕앞에는 수십명의 장공인들이 군사마냥 렬을 지어섰다. 그들은 하나같이 놋쇠물을 받아낼 긴자루가 달린 쇠바가지를 들었다.

그들앞에 서있는 거푸집은 볼수록 웅장하다. 마치 또하나의 철덕같아 보인다. 천균노란게 어방없이 큰 병기다보니 그 거푸집의 높이가 여러길이나 된다.

그 꼭대기로 사람이 오르내릴수 있도록 두터운 널로 계단을 만들어세웠다.

오늘일은 개경의 장야서에서 단번에 만여근의 놋쇠를 녹여보았다는 김충지가 주관하게 하였다.

그래서 김충지는 며칠째 철덕곁에서 침식을 하고있다.

박원작은 철덕우에 버티고서서 그안을 주의깊게 살피고있는 김

충지를 미덥게 바라보았다.

스승이 보내준 사람이니 어련하겠는가.

김충지의 손이 천천히 우로 쳐들렸다.

그는 박원작쪽으로 돌아서며 소리쳤다.

《그럼 시작하겠소이다!》

박원작이 고개를 끄덕이자 김충지는 자기를 쳐다보는 장공인들에게 말했다.

《소금을 져올리소.》

그의 분부가 떨어지자마자 메득이와 군만이 소금자루를 하나씩 둘러메고 철덕우로 올라갔다.

소금을 철덕에 넣겠다는건 놋쇠가 잘 끓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놋쇠가 부글부글 끓을 때 소금을 뿌리면 철덕안의 나쁜 바람을 없애고 끓는 놋쇠물과 바깥을 차단시켜 놋쇠안의 구리와 석이 고르롭게 섞인다.

그래야 놋쇠(청동)의 질이 좋아지는것이다.

이 비방은 수천년전 박달임금이 대동강가에 첫 도읍을 정하였을때 벌써 선조들이 찾아내여 자자손손 물려준것이였다.

박원작은 침착하면서도 자신만만하게 철덕안에 소금을 뿌려넣는 김충지를 지켜보며 생각했다.

고려가 건국되여 오늘처럼 단번에 수만근의 놋쇠를 녹여 큰 물건을 만들어보기도 몇번 안될것이다. 고려가 삼국시기의 조상들과 달리 천하가 놀랍도록 단번에 몇십만, 지어는 몇백만근의 놋쇠로 녹여붓는 큰 물건을 만들지 않은것은 그때보다 재주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그때보다 놋쇠를 써야 할데가 많아서이다.

지금 놋쇠를 쓰는데가 얼마나 많은가. 밥을 담아먹는데만 해도 도자기용구를 쓰고있다지만 가가호호 사람들마다 숟가락, 저가락은 물론 밥그릇, 국사발, 양푼에 이르기까지 놋쇠로 만든것을 즐겨쓴다.

군사들은 더하다. 광종대왕때 거란군의 침입에 대처하여 30만의 광군을 무었는데 그이후부터는 적어도 항시 10만여명의 군사들이 나라에서 번을 든다.

그들이 다 놋쇠로 만든 갖가지 기물을 쓴다. 놋쇠로 만든 그릇가지들은 가벼우면서 깨여지지 않으니 군품으로는 제격이다.

그것만 보아도 놋쇠는 날로 귀해지고 부족을 느끼게 된다.

이제 3만근의 놋쇠가 드는 천균노까지 만들면 놋쇠사정은 더더욱 어려워질것이다.

허나 온 나라사람들이 발편잠을 자게 하자니 불편을 덜어줄 놋기물은 적게 만들더라도 놋쇠화포만은 쨍쨍 부어내야 한다.

철덕안에 소금을 뿌려넣고 그안을 주시하던 김충지가 또다시 손을 쳐들었다.

그것을 본 근달이 박원작에게 귀띔했다.

《병마도감사님, 놋쇠물을 받을 때가 된 모양이오이다.》

아니나다를가 철덕우에 우뚝 선 김충지가 웨쳤다.

《병마도감사님! 놋쇠물을 받아내겠소이다.》

근달이 달려가 쇠장대를 찾아들더니 철덕아래에 붙은 구멍마개의 고리에 그것을 밀어넣었다.

김충지가 근달을 굽어보며 소리쳤다.

《이젠 터치시오이다!》

《알겠네. 자, 다들 정신을 차리게!》

근달은 철덕의 구멍마개고리에 건 쇠장대를 힘껏 잡아당겼다.

그 순간 사람들이 환성을 올렸다. 화광이 충천하며 눈부신 놋쇠물이 철덕의 구멍에서 쏟아져나온것이였다.

메득이 날파람을 일으키며 놋쇠물에 선참 쇠바가지를 들이댔다. 그의 뒤로 장공인들이 련이어 쇠바가지를 들이댔다.

받아내세 받아내세 펄펄 끓는 놋쇠물
고려화포 놋쇠화포 쇠바가질 잇대란다
…

타령속에 놋쇠물을 담은 쇠바가지를 꼬나든 장공인들이 꼬리를 물고 거푸집꼭대기로 올라갔다. …

해는 어느새 중천에 걸리고 병마도감의 정문으로는 음식임을 인

아낙네들이 줄을 지어 들어섰다. 그들속에는 해연이도 있었다.
손발을 착착 맞춰 놋쇠물을 받아내여 연거퍼 거푸집에 부어넣는 장공인들의 일솜씨는 보는 사람들의 흥을 부쩍 돋구어주었다.
박원작은 그것이 불만 하여 시종 웃음을 머금었다.
김충지가 달려와 박원작에게 아뢰였다.
《이쪽켠 철덕에서도 놋쇠가 끓기 시작했소이다.》
박원작은 못내 만족하여 큰소리로 대꾸했다.
《오늘일은 전적으로 그대한테 맡겼으니 마감까지 잘해보게!》
《알겠소이다!》
박원작은 씩씩하게 철덕으로 달려가는 김충지를 바라보며 저고리를 벗어들었다.
이 뜻깊은 날 장공인들과 어울려 일하면 더 즐거우리라.

15

두개의 철덕에서 뽑은 놋쇠물로 천균노를 붓고난 박원작은 그곁에서 꼬박 밤을 지새웠다. 그러기는 장공인들도 마찬가지였다.
《해가 뜬다!ㅡ》하는 누군가의 웨침소리에 사람들은 일제히 동쪽 하늘을 쳐다보았다. 대동강건너 동대원의 저 멀리 하늘에 두둥실 보름달같은 불덩이가 서서히 솟구쳐오르고있었다.
장쾌한 해돋이순간이였다.
사람들은 난생 처음이기라도 한듯 경탄을 터치며 둥근 해덩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박원작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 여느때는 그저 자연이 그리는 장쾌한 화폭으로 례사롭게 보아지던 저 해돋이가 오늘은 어이하여 이렇듯 벅차게 안겨지는것일가?
아마도 나라를 위하는 길에 더없이 큰 공헌을 이룬 뜻깊은 때이기에 저 해덩이도 무등 가슴 벅차게 안겨지는것이리라.
이윽고 박원작은 천균노를 품고있는 거푸집우로 올라섰다.

둥근해를 쳐다보던 장공인들이 거푸집우에 올라선 박원작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박원작은 자기를 지켜보는 장공인들의 눈길에서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있는가 하는것을 능히 알수 있었다. 지금 장공인들의 심정을 생남소식을 들은 아비가 제자식을 보고싶어하는 그 마음에 비길런지… 저 장공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부어낸 천균노의 웅자를 한시급히 보고싶어하리라.
그러나 지금 당장으로 그들의 마음을 풀어줄수는 없었다.
어제 오후 서경류수부에서 기별이 왔는데 오늘 아침 서경류수가 나와 지켜보는 앞에서 거푸집을 헤치고 천균노를 함께 보자는것이였다.
박원작은 서경류수의 그 마음이 리해되였다. 조정대신이라고 할수 있는 그가 자기 관내에서 쉽지 않게 도래한 대사를 어찌 소홀히 할수 있으랴.
박원작은 자기를 쳐다보고있는 장공인들을 타이르듯 입을 뗐다.
《다들 조급해 마오. 아침밥을 먹고 식솔들까지 다 보는 앞에서 거푸집을 뜯어내자구.》
근달이 맞장구를 쳤다.
《자, 다들 밥먹을 차비를 합세.》
기다린듯 때마침 음식임을 인 녀인들이 나타났다.
장공인들이 마주 달려가 녀인들의 머리에서 음식임을 받아내렸다.
웃고 떠드는 속에 한자리에 둘러앉아 아침밥을 나누는 장공인들의 모습은 꼭 하나의 큰 식솔같았다. …
해가 한기장쯤 떠오르자 벽제소리를 앞세우고 한무리의 말탄 사람들이 병마도감에 들어섰다.
관복을 깨끗이 차려입은 박원작이 정문에서 그들을 맞아들였다.
큰키에 채수염을 드리운 황보영서경류수는 말에서 내려 박원작의 손을 잡아주었다.
《한번 나와본다본다 하면서도 오늘에야 나왔네.》
박원작은 그 한마디에서도 황보영의 진정을 느끼였다.

지난해 서경류수로 부임되여온 황보영이 그동안 병마도감에는 나온적 없지만 도움을 준건 한두가지가 아니다. 료미로 내줄 쌀도 제때에 보내주었고 놋쇠를 녹여낼 숯도 떨어질세라 대주었다.

이번에도 많은 량의 숯을 해결해주었기에 천균노를 부어낼수 있었다.

《자, 병마도감사! 어서 우리 하객(축하하러 온 나그네)들을 안내하게.》

황보영이 롱조로 하는 소리에 박원작도 웃음을 지었다.

박원작은 황보영을 따라온 여러 서경군의 장수들에게 손을 모아잡고 읍을 차리고는 그들을 련장으로 안내했다.

장공인들이 허리를 굽히고 서경류수의 행차를 맞이하였다.

박원작은 황보영에게 련장뜨락에 우뚝한 천균노의 거푸집을 가리켰다.

《류수님, 저게 바로 천균노가 들어있는 거푸집이오이다.》

황보영이하 모든 장수들이 웅장한 거푸집앞에서 혀를 차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박원작은 거푸집을 어루만지며 감탄을 터치는 그들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다.

《그럼 거푸집을 헤쳐보겠소이다.》

황보영일행이 거푸집에서 멀찌기 물러서자 장공인들이 우르르 밀려나왔다. 장공인들은 먼저 널판자계단을 뜯어내고 조심스럽게 거푸집을 허물기 시작했다.

우로부터 해별에 드러나는 천균노의 동체는 누런 황금빛을 번쩍거렸다.

사람들은 점점 더 크게 제모습을 드러내는 천균노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마침내 두 어른이 두팔을 벌리고 안을만큼 굵은 천균노가 자기의 우람찬 몸집을 전부 드러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환성을 질렀다.

여느때같으면 익살스러운 말로 떠들어댔을 군만이조차 천균노의 웅자앞에 얼이 나갔는지 입만 헤 벌린채 야—, 야— 할뿐이였다.

박원작이 보건대 포아가리를 땅바닥에 대고 서있는 천균노는 어덴가 큰 종같았다.
한참만에 황보영이 박원작의 팔을 건드리며 물었다.
《제대로 되였나?》
박원작은 가슴을 울렁거리며 대답했다.
《아직은… 이제 저걸 바로 눕혀봐야 알수 있소이다.》
박원작의 대답을 곧 분부로 여긴 근달이 장공인들에게 말했다.
《자, 제꺽 달라붙어 천균노를 바로 잡아야지.》
이미 차비를 갖춘 장공인들이 천균노를 둘러쌌다.
무게가 무려 3만근이나 나가는 육중한 천균노를 뚝힘만으로는 다룰수 없다.
장공인들은 천균노를 눕힐 자리에 아름드리통나무 몇개를 끌어다놓고 떼를 뭇듯 바줄로 묶었다. 그다음 우로 향한 천균노의 몸체 꼭뒤에 붙여놓은 굵은 고리들에 바줄을 꿰였다.
근달의 손짓에 따라 장공인들은 천균노를 눕힐 반대켠에다 아름드리통나무들로 문틀같이 버팀대를 세웠다. 그리고 버팀대우를 두개의 바줄로 묶어 천균노를 눕힐쪽과 그 반대쪽으로 길게 드리워놓았다.
《자, 다들 바줄을 잡으라!》
근달의 웨침에 장공인들이 두개의 바줄에 벌떼처럼 달라붙었다.
근달은 바줄당기기를 하듯 장공인들이 바줄을 잡고 길게 늘어서자 또다시 웨쳤다.
《내 말을 잘 들으라! 먼저 천균노를 눕힐 자리에서 바줄을 당기고 천균노가 기울어지면 그 반대쪽에서도 바줄을 당기되 천천히 바줄을 놓아주어서 천균노가 천천히 넘어지도록 해야겠네. 자, 그럼 시작하라.》
엿싸!—
통나무떼쪽에서 먼저 두개의 바줄을 잡아당기자 천균노가 움씰했다. 하더니 그쪽으로 기울어졌다. 그와 동시에 버팀대쪽에서 《기운을 써라!》하며 바줄을 당겨댔다.
금시 끊어질듯 팽팽하게 당겨진 바줄에 끌리운 천균노는 서서히

통나무떼우로 넘어졌다.

이어 쿵!— 하는 둔중한 소리가 울렸다.

천균노는 무사히 통나무떼우에 길게 누워버렸다.

심국종이 괭이를 들고 포아가리로 가서 그속의 거푸집을 부셔댔다. 그가 괭이질로 모래에 이긴 찰흙을 쑤셔내면 메득이와 군만이 그것을 삼치에 담아 뒤로 넘겼다.

굴을 뚫듯 괭이를 휘두르면서 심국종은 포아가리속으로 들어갔다.

한참만에 포아가리속을 말끔히 파낸 심국종이 그안에서 기여나왔다.

그런데 심국종의 얼굴이 까맣게 질려있었다.

박원작은 대바람 불길한 징조를 느꼈다. 그는 갑자기 가슴이 한줌만 해져 몸을 떨었다.

시누런 금빛을 번쩍이는 웅장한 천균노의 자태에 마음이 흡족해진 황보영은 아무런 눈치도 모르고 기뻐하였다.

《암, 보나마나 속도 다 잘되였을거네. 누가 만든 화포라구 탈이 날텐고.》

황보영은 여전히 만족한 웃음을 머금고 박원작을 치하했다.

《병마도감에서 큰일을 하였네. 이 사실을 상감께서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이제 며칠있으면 판북계병마사로 전직된 최공이 여기로 올것이니 그날 천균노의 포성을 울립세.》

박원작은 그렇게 좋아하는 황보영앞에서 말이 나가지 않았다.

심국종의 낯색에서 일이 심상치 않음을 엿본 김충지와 근달이 어느새 천균노로 달려가 그속으로 기여들어갔다.

좀 있어 포아가리속에서 기여나온 그 두사람의 얼굴도 까맣게 질려있었다.

그제서야 공기가 이상함을 감촉한 황보영이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천균노에 무슨 일이 생겼나?》

이런 때는 년장자가 달랐다. 젊은이들이 숨도 크게 쉬지 못하는데 근달이 두손을 맞잡고 황보영앞에 나섰다.

《류수님! 아뢰옵기 거북스러우나 천균노의 화약통에 이상이 생겼소이다.》

《무엇이?!…》

황보영이 깜짝 놀라는데 박원작이 천균노로 달려갔다. 그는 서둘러 포아가리속으로 기여들어갔다. 무려 석자남짓한 포아가리여서 어둑컴컴하지 않았다.

화약통에 이상이 생겼다는것은 화약통의 어느 한쪽에 금이 갔다거나 움푹 패여들어간것 아니면 벽두께가 얇게 부어졌다는것이다.

과연 어디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가.

박원작은 격목통에 배를 깔고누워서 화약통안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이상이 생긴데를 발견했을 때 그는 악몽인듯 하여 한동안 멍해있었다.

온갖 만정성을 다 기울여 부어낸 천균노인데 이럴수가 있는가. 화약통의 한쪽벽에 목침이 반쯤 들어갈만큼 움푹 패여있으니 화약을 다져넣고 불을 달면 천균노는 깨지고말것이였다.

《병마도감사님!—》

박원작은 밖에서 부르는 소리에 한숨을 몰아쉬며 포아가리속을 기여나왔다.

기진맥진한 박원작의 손을 잡고 황보영이 위로했다.

《이보게, 첫술에 배부르겠나. 탈이 난걸 알았으니 그걸 바로 잡으면 돼. 한번 해서 안되면 두번, 두번 해서 안되면 세번… 그러면 천균노는 빛을 볼거네.》

박원작은 어려울 때 힘을 주는 황보영이 고마와 눈물을 머금었다.

《류수님!…》

하지만 박원작은 좌절감에 몸을 비칠거렸다.

과연 우리의 재주로는 천균노같이 큰 화포를 부어낼수 없단 말인가!

그렇게도 커다란 기대를 안고 모여왔던 사람들이 실망하여 하나둘 흩어져갔다.

제 3 장

1

병마도감의 양지에 자리잡은 별관의 안방을 쌍초대가 환히 밝히고있었다.

세사람이 앉은 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있었다.

판북계병마사 최충은 북계병마도감사 박원작과 그의 곁에서 고개를 떨구고있는 김충지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지그시 두눈을 내리감았다.

마음속에서는 두 제자에 대한 불만이 꿈틀거리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최충은 오늘 낮에 대동강을 건너왔다. 서경성에 입성하여 선참으로 찾은데가 바로 여기 병마도감이였다. 병마도감에 잠간 들려 두 제자에게 집소식과 군기감에 올라와있는 번기네들이 잘 있으며 인차 조정에서 놋쇠를 해결해줄것이라는 반가운 기별을 알려주고 서경류수를 만나러 가려 했던것이다.

그런데 그만 상가집처럼 돼버린 병마도감에 발목을 잡힐줄이야.

며칠전에 부어냈다는 천균노는 겉보기엔 얼마나 웅장하고 위풍스러운가. 허나 화약통이 잘못되여 쓸수 없게 되였다니 이거야말로 큰 손실이 아닐수 없다.

그렇지만 그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만들어낸 당사자들의 정신에 박약이 든것이다. 나쁜 놈들의 작간으로 랑패를 당했다는것을 깨달았으면 더욱 의기가 충천해서 분발해야 할텐데 그쯤한 시련앞에 맥을 잃고 다시 일어나기를 두려워하니 그게 머리속에 병이 든것이 아니고 뭔가.

글쎄 박원작이 풀이 잔뜩 죽어가지고 아직은 천균노를 만들기 어려울것 같다고 제 입으로 말하는 정도이니 이런 배심으로야 무슨 일인들 바로할수 있겠는가.

김충지도 다를바가 없다. 정신이 흐리터분해진 박원작을 꾸짖는 스승에게 천균노를 다시 부어낸다고 해도 그게 제구실이나 하겠는지 하는 의향을 감히 내비친 그다.

지금이 어느때기에 그런 얼빠진 소리를 하는건가, 그래 사방의 적들이 이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있다는걸 잊은게 아닌가.

지난해 12월, 아두간을 위시하여 쉰여명의 동녀진사람들이 개경에 와서 조공으로 말 수십필을 바치면서 알리기를 거란이 압록강일대에 군사들 늘이고있단다, 같은 달 거란에서 발해유민 20여호가 고려로 찾아왔는데 그들도 같은 소리를 하였다.

그런데도 병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니 한심한 일이 아닐수 없다. 최충은 한시가 새로운 이때 뜻밖에 발목을 잡는 두 제자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맞춤한 방책이 떠오르지 않아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사실 최충은 요즘의 하루하루를 여느때의 며칠맞잡이로 생각하고 시간을 쪼개가며 직분을 다하고있었다.

그전같으면 오백리 서경길에 닷새를 바쳤겠는데 이번에는 사흘만에 대동강을 건넜다.

서경에서의 일정도 빠듯하게 정했는데 오후에는 황보영서경류수를 만나 장성공사를 의논할 예정이다.

그는 오랜 고심끝에 장성공사를 빨리 다그칠수 있는 묘안을 찾아냈다.

처음에는 서경과 북계의 백성들을 농한기에 총동원하여 성을 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나 해서는 몇해안으로 장성공사를 끝낼수 없었다. 장성공사를 몇해안으로 끝내자면 농번기철에도 성을 쌓아야 했다.

그래서 찾아낸 묘안이 바로 농한기철에는 백성들을 동원하고 년중 북계군과 서경군까지도 장성공사에 붙이는것이였다.

서경에서 이 일을 내밀수 있는 적임자로는 서경류수이상 없다.

강동, 강서, 중화, 순화현 등 4개 현이 소속되여있는 서경류수부를 관할하는 그만이 서경에 사는 백성들과 서경군을 장성공사에로 동원하는 령을 내릴수 있다.

오늘 오후 황보영을 만나보고는 곧 안북대도호부 녕주(안주)로 떠나야 한다.

안북대도호부사에게는 장성공사의 더 많은 몫이 지워져있다. 북계의 광활한 땅에 펼쳐져있는 25개의 방어군과 12개의 진, 6개의 현이 그의 관할하에 있으니 그에게도 꼭같은 령을 내려야 한다.

하루라도 더 앞당겨 군사들과 백성들을 성쌓기에 붙여야 할것이다.

방대하고 아름찬 장성공사를 다그치자면 그 공사를 주관해야 하는 병마사가 현지에 내려가 일군들을 독려하고 걸린 일감들을 그시그시 풀어주어야 한다.

그런데 고양이손이라도 빌려쓰고싶은 드바쁜 세월에 그렇게도 믿었던 두 제자가 신심을 잃고 중요한 국사를 흥정하려 하니 어떻게 마음을 놓고 돌아설수 있으랴.

봄비가 내릴 때 개울바닥을 파내지 않으면 미구에 개울물이 범람하고 서리가 내릴 때 땔감을 장만하지 않으면 곧 눈이 내린다고 하였다.

바로 그렇다. 한번의 실패에서 겁을 먹고 뒤걸음을 치려는 제자들을 지금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영영 일어나지 못할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제자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다시 분발하게 할수 있을가?

이윽고 최충은 눈을 뜨고 입을 열었다.

《음… 자네들은 거푸집에서 분명 잘못한것이 없었다는걸 확신하나?》

고개를 떨구고있던 두 제자가 거의 동시에 머리를 들었다. 대답도 그렇게 흘러나왔다.

《예, 확신하오이다.》

거푸집을 만들었을 때 박원작이도 그러했지만 김충지는 몇번이나 이상이 없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는 처음부터 자기 손으로 쌓

은 거푸집이기에 보다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잘못된것이 없다는것을 확인하였다.

조금도 이상이 없다고 장담한 거푸집에서 빚어낸 천균노가 잘못되였다는것은 어느 놈이 작간질을 부렸다는 해답이 나온다.

《음… 놋쇠물을 부어넣기 전엔 이상이 없었다니 명백해. 천균노에서도 제일 중요한 화약통안에 목침 하나가 들어갈만큼 움푹 패였다니 어느 놈이 거푸집을 빚을 때 바로 거기다 목침을 슬쩍 끼워넣었다는 자네들의 생각이 옳아.》

하더니 최충은 김충지를 바라보며 나직이 물었다.

《내가 자네를 여기에 보낸것이 잘못인가?》

그제서야 김충지는 자책감에 모대기며 고개를 떨구었다.

《사부님! 소생이 잘못했소이다. 다들 일잘한다는 기분에 들떠서 각성을 잃다보니 어떤 나쁜 놈이 거푸집을 해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소이다. 벌을 내려주소이다.》

박원작이도 고개를 떨구었다.

최충의 낮으나 엄한 목소리에 두 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등하불명(등잔불밑이 어둡다)이라고 천균노가 그렇게 된건 분명 여기 병마도감에 나쁜 놈들이 숨어있기때문일세. 그래 우리가 강해지는걸 달가와하지 않는 오랑캐들이 우리가 마음대로 앞선 병기를 만들도록 강건너 불보듯 할것 같은가. 아닐세, 천균노는 병기치고도 아주 요란한 병기지.

오랑캐들에게도 눈과 귀가 없지 않으니 우리가 천균노를 만든다는걸 알수도 있을거네. 천균노같이 위력한 병기들이 나오면 나라들간의 힘내기에서 그 형세가 어떻게 변할지는 뻔한 일이니 그것들이 가만있을상싶은가.》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있던 두 제자는 머리를 싸쥐였다.

최충은 잘못을 깨닫는 제자들을 정겨운 눈매로 바라보다가 웃음을 지었다.

《이웃나라의 격언 하날 들려줄가. 〈땅이 넓으면 쌀이 많고 나라가 크면 군사가 많으니 강한 법이다. 약한자는 강한자를 대적할수 없고 작은자는 큰자를 대항할수 없다.〉

그래, 이 말뜻이 무엇이지? 그건 바로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겨야 한다 이 말일세.》

별안간 최충의 주먹이 방바닥을 내리쳤다.

《천만에! 땅이 넓지 못하고 군사가 많지 못하다고 해서 약소국이 되는건 결코 아닐세. 사람들이 나라를 지켜내려는 한뜻으로 뭉쳐있고 위력한 병기를 가지고있으면 비록 땅이 작고 군사수가 적어도 강대국으로 될수 있는거네. 그런 나라는 땅이 넓고 군사가 많다고 우쭐대는 큰 나라를 얼마든지 대적할수 있고 타승할수도 있네. 선조의 나라 고구려가 바로 그런 나라였다고 말할수 있지.》

구들을 내리친 최충의 주먹소리에 깜짝 놀랐던 두 제자의 얼굴에 스승에 대한 존경과 경탄의 빛이 서서히 어려들었다.

《난 자네들이 누구보다도 우리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고싶어한다는걸 잘 아네. 하지만 전란이 멎었다고 해서 잠시나마 각성을 늦추고 살면 적에게 발붙일 틈을 주게 되고 나중엔 자기도모르게 돌이킬수 없는 손실을 당하게 된다는걸 항상 명심해야 돼. …내 말뜻을 알겠나?》

두 제자는 정색해서 대답했다.

《사부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소이다.》

최충의 목소리가 다시 방안을 울렸다.

《이보게들, 먼길을 가는데 무슨 일인들 없겠나. 구데기 무서워 장 못담그지 않는다고 하였네. 자네들은 신심을 잃지 말고 다시 일어나 일판을 더 크게 벌려야 해. 병마도감에 기여들어서 음해를 꾀하는 나쁜 놈들도 잡아치우고.》

박원작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스승의 신칙을 어찌 꾸중이라고만 할수 있으랴. 진심으로 제자들을 아끼고 나라를 위해 애쓰는 사람만이 이렇게 고심하고 가슴아파할수 있는 법이다. 내 스승의 가르치심을 뼈에 새기고 기어이 세운 뜻을 이루리라!

의젓이 머리를 들고 속다짐하는 제자들의 격동된 모습을 보느라니 최충은 마음이 개운해졌다.

《난 자네들을 크게 믿네. 천균노는 반드시 자네들의 손끝에서 태여날거네.》

《사부님!…》

최충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부님, 다문 하루만이라도 여기서 쉬여가시오이다.》

최충은 앞을 막는 두 제자의 손을 뜨겁게 잡고 절절하게 말했다.

《난 가야 하네. 자네들 마음은 내가 알고 내 마음은 자네들이 아니 우린 늘 함께 있는거나 마찬가지일세.》

두 제자는 스승을 만류할수 없다는것을 알았다.

눈물을 머금은 그들은 훌륭한 스승의 모습에 자신들을 비추어보며 서경류수부를 찾아가는 그를 오래도록 바래웠다.

2

마씨를 홀로 안방에 두고나온 남권부는 외헌에 들어가 배를 깔고 엎드렸다. 마음이 울적하거나 마씨가 알지 말아야 할 일이 생길 때면 외헌에 들어가 홀로 있기를 좋아하는 그였다.

그는 그전부터 계집이란 살을 맞대고 살수는 있어도 마음은 통할수 없는 속물이라고 여겨왔다. 벽에는 남의 귀가 붙어있고 문에는 또 남의 눈이 걸려있다는 심국종의 말을 전해들은 다음부터 그런 생각은 더욱 굳어졌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보면 계집들이란 하나같이 사내의 등을 쳐먹자고 하는 요물이라고 할수 있다. 전처 백씨때문에 얼마나 속을 태웠던가.

쩍하면 재물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밥통이라느니, 장작감의 벼슬도 벼슬이냐느니 하며 생트집을 거는 백씨에게 주먹질까지 했지만 종당에는 매번 그 계집앞에 한수 꺾이여 잘못했노라 빌지 않으면 안되였다.

대신은 아닐지라도 참상관(6품부터 종3품)으로서 어사대(후에 사헌부)의 시어사란 관직을 쥐고 관리들의 뒤를 캐는 가시애비의 권세가 두려워서였다.

부부란 하늘을 나는 새 한쌍과 같아서 마음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길로 갈라져가는것 같다.

어느 하루도 제 애비를 믿고 행악을 부리지 않는 날이 별로 없던 백씨는 남권부가 북계병마도감으로 전직되였다고 하자 자기는 개경을 떠날수 없으니 가겠으면 혼자 가라고 큰소리를 쳤다.

그때 남권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렇지 않아도 서경까지 따라내려가서 행악질을 일삼으면 어쩌나 했는데 잘됐다, 눈에 차지도 않는 계집이 도리여 제편에서 갈라지자고 하니 이게 오죽이나 좋은가!

이런 경우를 가리켜 질동이 깨뜨리고 놋동이 얻는다고 할것이다. 야차같이 드살세고 독한 계집이 썩은 과일꼭지마냥 제절로 떨어지니 복이 든셈이였다. 그 이듬해 백씨는 갑자기 배앓이를 하다가 급사하고말았다.

하여 남권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홀로 개경을 떠나왔고 기쁜 마음으로 마씨와 인연을 맺은것이였다.

허나 지내보니 마씨는 또 그 계집대로 안팎이 달랐다. 살아볼수록 남이 먹다 남긴 죽사발을 받아들고 핥아먹는듯 께름했다.

마씨가 기생퇴물이라거나 조득국이 소개해준 계집이여서만이 아니였다.

딴재주라면 몰라라 국자감까지 나온 유식자가 계집의 속통 하나 들여다보지 못하겠는가.

고운 계집은 인물값을 한다고 했다. 백씨와 반대로 바가지를 긁기는커녕 매사에 비위를 맞추느라 아양을 떨어대는 마씨는 먹을수록 냠냠해하는 암고양이를 보는듯 했다.

도대체 그가 사내에게서 무엇을 바라기에 교태를 부리며 찰찰 감기는것일가, 재물때문인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닌것 같기도 했다.

아직은 무엇때문에 그러는지 꼭 찍어말할수 없지만 륙감으로는 어느때건 한번은 사내를 배반하고 달아나버릴 매정한 계집으로만 여겨졌다.

그게 옳다면 마씨에게 속을 주다가 한생을 쫄딱 망쳐버릴수 있었다.

그래서 은근히 마씨를 경계하고 조심하는 남권부였다.

안팎이 다른 계집에게 진속을 터놓아선 안된다. 오늘은 별나게 그런 생각이 더 자꾸 나서 지금 외헌방에 나와 홀로 엎어져버린 남권부였다. 하긴 오늘따라 마음이 더 울적해진것은 마씨때문만이 아니였다. 보다는 쥐상판같은 심국종때문이였다.

벼락맞아 뒈질 그놈이 남의 앞길을 망쳐놓을줄 어이 알았으랴. 그놈이 아니였다면 지금쯤 박원작한테서 화약의 비방을 전수받고있을것이다.

박원작의 속마음은 천균노를 만들어내면 개경군기감에도 염초장을 내오겠다는것인데…

그것도 그럴것이 그 일을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남권부에게 일임할것을 이미 의논한터가 아닌가. 그런데 쥐상판같은 간사한 그놈이 천균노를 못쓰게 작간을 부렸으니 일조에 그게 다 나무아미타불로 되고만것이다.

눈으로 똑똑히 보지는 못했어도 쥐상판 그놈이 천벌을 받을 못된짓을 한건 불보듯 뻔하다. 그놈을 내놓고 그런 엄청난짓을 할 놈이 어데 있는가. 천균노는 리자연이 바라지 않는것이라며 놋쇠를 받아오지 말라고 충동질을 한 그놈이 그래 거푸집을 빚는 일을 공손히 돕기만 할수 있겠는가.

박원작이 학식은 깊지만 사람을 가려보는 눈은 청맹과니 한가지다. 어쩜 그리도 가짜와 진짜를 갈라보지 못하는지…

대개 지나친 열성을 부리는 사람들은 두가지로 갈라볼수 있는데 하나는 상관의 안중에 들어 출세를 해보자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심보를 가진 놈이 제 본색을 감추자는것이다.

심국종 그놈이 자기의 더러운 본색을 숨겨보려고 그렇게도 열성을 내며 일하는것인데 그런줄도 모르고 박원작은 그놈을 진국으로 믿고있으니 이거야말로 삶은 소대가리가 웃다 꾸레미터질노릇이다. 하긴 일밖에 모르는 외곬배기 박원작이 그럴수밖에 없지. 병마도감에 눈이 바로 배긴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심국종 그놈을 잡아치우면 좋으련만… 그건 꿈에서나 바랄 일이고 코코에 앞길을 막아나서는 그놈을 그냥 내버려둘수야 없지 않는가. 그놈을 이 손으

로 잡다가는 쥐잡느라 쌀독을 깨는 격이 되겠고…
며칠전 남권부는 서경류수부의 관원들에게 심국종을 처리하도록 부탁을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남잡이가 제잡이된다고 한갖 술친구에 불과한 그들에게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일을 맡길수 없어서였다.
어떻게 해야 쏘는 어금이같은 그놈을 없애치울수 있을가?
이리뒤치락 저리뒤치락대며 끙끙 앓던 남권부는 한순간 《그렇지!》 하고 소리치며 벌떡 일어나앉았다.
지금에야 조득국이 생각나다니! 천균노를 꼭 만들도록 해야 한다며 놋쇠까지 구해준 그가 못된짓을 한 심국종을 알면 그냥 두지 않을것이다. 옳거니, 래일당장 조득국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남권부가 이런 생각으로 흥분해있는 바로 그때 뒤창의 창호지가 뚫어지고 뒤따라 그 구멍으로 무엇인가 날아들어와 방바닥에 떨어졌다.
얼결에 그것을 집어든 남권부는 와들짝 놀랐다.
(이밤중에 누구일가?!…)
남권부는 자리를 차고일어나 뒤창으로 조심히 다가갔다. 뚫어진 창호지구멍으로 달빛에 드러난 밖이 내다보였다.
복면을 쓴 놈이 뒤를 힐끔 돌아다보더니 담장으로 달려간다.
놈은 나는듯이 담장을 타고넘어 사라져버렸다.
남권부는 무섬증이 나 부들부들 떨렸다.
필경 복면 쓴 저놈은 심국종놈이 보낸 끄나불이다. 저놈말고도 심국종놈한테는 중놈이 또 있다.
아, 그러니 그놈들이 이 집의 일거일동을 밤낮으로 살피고있겠구나. 자칫하다가는 도리여 그놈들에게 해를 당하겠으니 이거야말로 범의 굴속에 갇혀있는 그런 신세가 아니고 뭔가!
남권부는 한동안 속으로 넉두리질을 하다가 마음이 진정되자 손에 쥔것을 들여다보았다. 봉서였다.
《무슨 개수작질을 썼을가?》
봉서를 뜯고 글을 꺼내보니 첫줄에 《남의 잔등에 칼을 박으려 하는자는 제 목이 먼저 떨어지는 법이다.》라는 무시무시한 글

이 씌여져있었다.

남권부는 시퍼렇게 날이 선 비수가 자기 목에 와닿는듯한 끔찍한 환각에 털썩 그자리에 주저앉아 몸을 움츠리며 떨리는 가슴을 부둥켜안았다. 뛰는 놈우에 나는 놈 있다더니 심국종 그놈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놈이 벌써 내 목을 조이고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한동안 공포로 몸을 떨던 남권부는 용기를 내여 그다음 글줄을 더듬었다.

《의로운자는 두 상전을 섬기지 않는다. 최충과 한패당인 박원작을 따르면 부귀영화는커녕 목숨마저도 보존못하리라. 딴꿈을 꾸다가 두 화살을 맞지 말고 한길을 감이 좋을것이다.》

어느 놈이 이 글을 써보냈을가. 글줄을 다시 뜯어보니 틀림없는 심국종의 필체였다.

남권부는 비로소 자기 몸값이 심국종에 미치지 못하며 그놈이 리자봉의 이름으로 도리여 자기를 부리려 한다는것을 깨달았다.

이거야말로 덫에 치운 신세가 아니고 뭔가!

남권부는 이를 사려물었다.

아니, 아직은 덫에 치웠다고는 말할수 없다.

어떻게 하나 수를 써야 한다.

그놈의 꽁무니나 따라다니다가는 분명 조득국의 주먹다짐을 받을수도 있겠으니 이런 때는 어떤 수를 써야 할가?…

에라, 죽는것보다 까무라치는 편이 낫다고 형세를 보아가며 심국종의 비위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 몰래 화약의 비방을 뽑아내여 리자봉이한테 직접 가져가는 수다. 그래, 그 편이 제일 남즉하다.…

남권부는 이불속으로 기여들어가 눈을 꾹 감아버렸다.

3

병마도감을 돌아보는 박원작의 가슴은 쓰리고 아팠다. 어느 장에나 할것없이 이전같은 활기는 찾아볼수 없었다. 장공인들의

얼굴은 누구라없이 침울해있고 지어는 늘 웃고 떠들던 련장마저 싸우고난 집마냥 공기가 싸늘했다.

천균노주조의 실패가 병마도감의 생기를 죄다 앗아간것이였다.

스승의 훈시대로 장공인들은 지금 병마도감사의 얼굴을 지켜보고있을것이다. 어떻게 해야 그들을 고무할수 있을가? 이래서 웃사람노릇을 하기가 어렵다는것인지…

철덕이 숨져있는 련장으로 다시 방향을 잡은 박원작이 잘못된 천균노를 깨여 다시 녹일 다량의 숯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져 걸음을 늦추는데 련장입구에서 서성대고있던 남권부가 사색이 되여 다가왔다.

《박공, 지금 병마도감에 단 한근의 숯도 없으니 이를 어쩌면 좋소?》

바로 박원작이 아파하는데를 면바로 찌르는 물음이였다.

《글쎄, 천균노를 깨서 다시 부어내려면 당장 숯이 있어야 하겠는데…》

한숨으로 말끝을 대신하는 박원작을 보고있던 남권부가 뜻밖에 기세를 올렸다.

《병마도감사도 속수무책이란 말이요? 됐소, 이 일은 내가 맡겠소. 서경류수를 찾아가 손을 내밀면 알도리가 있을게요.》

박원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서경류수를 찾아갈 생각을 안해본것은 아니지만 천균노를 망쳐먹은 이 마당에 무슨 체면으로 선뜻 그런 청을 드릴수 있단 말인가.

《남공이 잘 알아서 해보게.》

남권부는 자리를 뜨지 않고 사설을 늘어놓았다.

《제길할. 숯이 골치거린 골치거리야. 새로 쌓은 철덕들이 어찌도 배가 큰지 단번에 백수십섬의 숯을 먹어치우니 장안의 숯이 바닥이 안나겠소? 이번엔 류수어른에게 조른다치고 다음부턴 또 어떻게 하겠는지 원…》

《하여간 발등의 불부터 끄고보자구.》

남권부를 떠나보내고난 박원작은 한시름이 풀리는감을 느꼈다.

(이젠 어서 가서 잘못된 천균노를 깨여 다시 녹일 차비를 해야지.)
편장뜨락에 들어선 그는 저절로 한숨이 새나왔다.
그래도 다른 장들에서는 일손을 놓지 않았는데 편장안의 장공인들은 벌써 여러날째 망쳐놓은 천균노곁에 앉아 움직일념을 못하고 있다.
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움직여낼수 있을가?
박원작은 그들에게 다가갈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한동안 서있는데 근달이 그를 띠여보고 소리없이 다가왔다.
《저… 병마도감사님, 한마디 여쭈어도 되겠소이까?》
귀속말로 묻는 소리에 박원작은 그가 남들이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꺼내고저 한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어서 하소.》
《지금 이런 말이 떠돌고있소이다. 편장에 나쁜 놈들이 많은데… 그놈들이 천균노를 망쳐놓았고 또 언제 어떤짓을 할지 모른다고 말이오이다.》
박원작은 귀뺨을 후려맞은듯 흠칫했다.
벌써 그 말이 새여나갔단 말인가?!
병마도감에 나쁜 놈이 숨어있다는건 스승과 김충지 그리고 이 박원작이 나눈 말인데 그 말이 어떻게 새여나갔을가, 혹시 김충지가 본의아니게 발설했을가?
도적은 뒤로 잡으랬다고 은밀히 해야 할 일이 선코를 떼기도 전에 소문부터 났으니 공연히 나쁜 놈을 놀래워놓고 민심만 흉흉하게 만든것 같았다.
그래서 장공인들이 다들 싸우고난 사람들처럼 기분이 싸늘해있었구나. …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웃어야 해.
《알만 하오.》
박원작은 메와 쇠를 자르는 도끼를 찾아들고 숨죽은듯 누워있는 천균노앞에 다가섰다.
량손에 무거운 메와 도끼를 든 그를 보고 장공인들이 엉거주춤 일어섰다.
《허—왜들 다 물에 빠졌다나온 수닭꼴인가?》

박원작은 천균노에 도끼를 대며 소리쳤다.
《누가 메질을 해볼텐가?》
장공인들은 깜짝 놀라 뒤걸음을 쳤다. 익살쟁이 군만이까지 두려운 눈길로 박원작을 쳐다보며 비실비실 물러섰다.
어떻게 부어낸 천균노인데 그 몸에 메질을 해댄단 말인가.
《이보게들, 내 말을 들으라구. 물건은 병신자식과 달라서 잘못 만든것이라면 대담하게 마스고 다시 만들어야 하네. 병쟁기는 더하지. 되는대로 만든 병기는 전장에서 아군의 손실만을 가져온다는걸 그래 모른단 말인가? 그런 못난 병쟁기가 생겨나지 못하게 우리 손으로 이걸 마스어야 하네.》
《내가 메질을 하겠소이다.》
근달이 불쑥 나서 쇠메를 잡고 번쩍 추겨들더니 박원작이 틀어잡고있는 도끼등을 힘껏 내리쳤다.
꽝!—
근달은 입술을 깨물고 또다시 메를 쳐들었다.
꽝!—
근달이 내리치는 메에 얻어맞은 도끼는 천균노 몸체를 동강내려는듯 더 깊이 놋쇠를 파고들어갔다.
《얏!—》
꽝!—
힘을 모아 내려치는 소리와 천균노의 요란한 울림이 잇닿아 엇갈리는 속에 근달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줄줄이 굴러떨어졌다.
《행수님!》
군만이 근달을 부르며 손을 내밀었다.
《메를 제게 주소이다.》
근달은 씨근벌떡대며 부르짖었다.
《병마도감사님께 도끼나 달라고 해!》
군만은 박원작에게 돌아서며 입을 열었다.
《소인에게 도끼를 물려주소이다.》
박원작은 사정하듯 말하는 군만을 곁눈으로 보며 말했다.

《자네가 웃으면 이걸 넘겨주겠네.》
군만은 할수없이 억지웃음을 지어보였다.
《허ㅡ 울상에 웃음이라. 하여간 웃긴 했으니까 이걸 받으라구.》
박원작이 내준 도끼를 받아든 군만은 어깨를 으쓱이며 메득이에게 소리쳤다.
《여! 뭘하고섰어? 행수님한테서 쇠메를 받게. … 에, 그동안 빈들빈들 놀기만 해서인지 몸이 근질거려 견딜수가 있나.》
이윽고 군만이 틀어잡은 도끼우로 메득이 내리치는 쇠메가 날아들었다. 힘깨나 쓰는 젊은이들의 메질에 천균노의 육중한 동체가 동강나기 시작했다.
해가 중천으로 솟아오를무렵 천균노는 여러 동강으로 깨여져버렸다.
《이보게들, 좀 쉬고 합세.》
박원작의 웨침에 장공인들은 기다렸다는듯 일제히 허리를 펴고 그의 주위에 둘러앉았다.
박원작은 아직도 흥이 돋지 않은 장공인들을 둘러보며 익살조로 말했다.
《우리 메득이가 장가들던 얘기를 듣지 않겠소?》
그 말에 장공인들의 안색이 밝아졌다.
군만이 메득이의 옆구리를 찌르며 어서 입을 열라고 재촉하였다.
얼굴이 시뻘개진 메득은 눈길을 허우적거리더니 별수 없다는듯 입을 다시며 말을 뗐다.
《이거 게면쩍은데… 하여간 웃지나 마소이다.
저… 세해전 봄 어느날이였소이다. 난 밤새 철덕앞에서 일하고 아침일찌 집으로 돌아가고있는데 저만치 앞에서 웬 늙은이가 랑자의 등에 업혀가고있었소이다. 헌데 늙은이가 하는 말이 무심하게 들리지 않더라니까요. 늙은이는 랑자에게 이렇게 말했소이다. 〈과연 서경은 보면 볼수록 정이 드는 고장이로다. 강도 산도 아름답기 이를데 없거든. 이 좋은 고장을 내 다리로 밟아보며 구경하지 못하는것이 한스럽구나.〉
그 말에 랑자가 말하더군요. 〈아버지, 이 딸의 다리자 아버

님의 다리인데 그런 말씀 마시오이다. 제 평생 아버님을 잘 모시겠어요.〉

그러자 늙은이는 〈그런 말은 아서라. 병신된 아비때문에 네가 시집을 못갈가봐 그게 가슴에 걸리는데.〉하더군요.

난 그만 마음이 격동되여 이렇게 생각했소이다.

다리를 쓰지 못하는 아버지를 업고 다니며 경치구경을 해드리는 저런 랑자야말로 효녀일것이다.

난 정신없이 뛰여가 랑자의 등에서 막무가내로 늙은이를 빼앗아 업었소이다. 몹시 놀라와하는 늙은이에게 난 이렇게 말했소이다. 〈보아하니 로인님은 서경태생이 아닌것 같소이다.〉

날 나쁘게 보지 않았던지 늙은이는 정다운 말투로 대답하더군요. 〈옳게 보았네. 난 흥료국사람일세. 다시말해서 발해사람이라 그 말일세. 난 흥료국을 지키는 싸움에서 두다리를 잃었다네.〉

난 몹시 감동되여 말했소이다. 〈그럼 이제부턴 제가 로인님을 업고 우리 서경의 어디에든 다 구경시켜드리겠소이다.〉했더니 늙은이는 크게 웃더군요.

난 그날 다진 언약을 지켜 다음날부터 틈을 내여 늙은이의 집을 찾아갔소이다. 그분을 업고 대동강가를 거닐며 우리 서경땅에 깃든 가지가지의 전설이며 선조들의 슬기와 업적에 대해서 들려주었소이다. 그럭저럭 한달이 지날무렵 우리 집에서는 할머니도 어머니도 다 앓아누웠소이다. 그날 뢰등석포를 붓느라 밤늦게야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갔소이다. 다들 어떻게 하고있을가 하는 걱정을 안고 집안으로 들어가니 글쎄 그 랑자가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를 돌보고있는것이 아니겠소이까. 그날 난 처음으로 랑자없인 못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소이다. 그래서 우린 그해 가을에 부부정을 맺었소이다. 이게 다올시다.》

근달이 큰 손바닥으로 메득이의 등을 철썩 쳤다.

《자네 정말 괜찮아. 일만 잘하는가 했더니 류수지언(물흐르는듯 썩 잘하는 말)일세그려. 마실방애기군이 울고가겠다니까. 정말 말재간이 여간 아닐세. 가유명사에 삼십년부지라더니 자네가 그런 인재일세.》

웃고 떠들며 기뻐하는 장공인들을 보는 박원작은 기분이 좋아졌다.
근달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소리쳤다.
《자, 그럼 또한번 허리가 시큰하도록 일해봄세.》
장공인들은 성수가 나서 일손을 잡았다. 한창 열이 나서 메질을 하는데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누구에게라없이 목청을 돋구어 물었다.
《병마도감사님이 어데 계시는지 모르겠소이까?》
박원작은 의아한 눈길로 낯선 사람을 바라보며 그앞에 나섰다.
《내가 병마도감사일세.》
낯선 사내는 저고리까지 벗어놓고 장공인들과 함께 일하던 박원작을 정말 병마도감사가 옳긴 옳은가 하는 눈길로 훑어보더니 품속에서 다듬이방망이 절반만한 가죽주머니를 꺼내들었다.
《그걸 주게.》
가죽주머니를 받아든 박원작은 그속에서 봉서를 뽑아들고 빈 가죽주머니를 다시 넘겨주었다.
《운봉역참에서 왔겠지?》
《그렇소이다. 소인은 운봉역의 역졸이올시다.》
《수고했네.》
빈가죽주머니를 받아든 운봉역의 역졸은 깍듯이 인사를 차리고 돌아갔다.
박원작은 봉서를 뜯고 공문서를 읽어내려갔다.
나라의 병권을 쥔 판도병마사 서눌시중이 보낸 공문서에는 천균노를 만들 놋쇠를 받으려 사람을 올려보내라는 분부가 씌여져있었다.
최충이 곧 놋쇠를 받아가라는 조정의 령이 떨어질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희소식이 날아들줄은 몰랐다.
박원작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러니 나라에서도 천균노를 얼마나 중시하고있는가.
이제는 숯만 있으면 단숨에 천균노를 두문씩이나 부어낼수 있다. 남권부가 서경류수를 찾아갔으니 조만간에 숯도 가져올것이다. …

4

김충지는 한낮이 다 되여오건만 거처지로 돌아갈념을 않고 련장뜨락을 거닐고있었다. 오늘은 병마도감이 쉬는 날이다. 숯을 마련못하여 박원작은 쉬라는 분부를 내렸다. 그래서 련장이 조용한것이였다.

허지만 김충지는 남들처럼 쉴수 없었다.

언제면 숯이 풀리겠는지…

류수부를 찾아갔던 남권부가 하는 말은 황보영류수가 병석에서도 숯을 빨리 해결해주라고 관원들을 강동현으로 내려보냈다고 한다.

작은 철덕 하나를 가지고있을 때는 다달이 서경류수부에서 보내주는 숯이면 넉근했는데 지금은 숯이 엄청나게 요구되니 야단은 야단이다.

강동현에는 산이 많고 나무가 울창하여 숯구이막들이 번성한데라 류수부가 직접 나섰다면 인차 숯이 해결될것이다.

어제 남권부는 놋쇠를 빨리 받아가라는 조정의 령을 받고 개경으로 올라갔다.

이로써 온 병마도감이 조정에서 천균노가 나오기를 얼마나 바라고있는지 더 잘 알게 되였다.

허나 아직도 장공인들의 분위기가 밝지 못하다.

박원작이 직접 나서서 일바람을 불어넣어 일시 련장에 화기가 돌았댔는데 그 가위에 눌리워 숨을 죽였던 싸늘한 바람이 다시 병마도감을 휩쓰는듯 하다.

그게 다 쉬쉬하며 돌아가는 나쁜 소문때문이다. 어떤 놈이 자꾸 그런 소문을 만들어 내돌리는것이 분명하다.

병마도감안에 천균노를 해치려는 못된 무리가 박혀있다는 소문으로 해서 장공인들이 서로 곁을 주지 않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면 멀리하려고 하니 골치거리다.

김충지는 장공인들이 새로 병마도감에 들어온 사람들속에 천균노를 해치려 하는 나쁜 놈이 배겨있다는 허튼소문을 믿고 자기를 경계하고 멀리하려 한다는 기미를 시시각각 느끼고있었다. 버선목이라고 뒤집어보일수 없듯이 청백함을 증명해보일수 없으니 참으로 난처하게는 되였다.

필경 주위에서 못된 소문을 내돌리는자가 있겠는데 그놈이 누구일가?

김충지는 이 한생각으로 어제밤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다. 밤새껏 병마도감안의 매 사람들을 짚어가며 흑막속의 그놈이 누구겠는가 따져보았지만 별로 의심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도 미타하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리자연과 가까운 남권부였다.

허나 의심뿐이지 그동안 그의 뒤를 조심히 캐보았지만 건드려볼만한 실마리 하나 걷어쥐지 못하였다. 도리여 그를 의심해서는 안된다는 생각뿐이다.

그가 천균노를 해칠 나쁜 마음을 가지였다면 어째서 제힘으로 놋쇠를 구해왔겠는가. 그가 한 행동을 보아서는 도무지 그럴수가 없는데… 하여간 그는 두고보아야 할 인물임이 틀림없다.

심국종이도 간과할수 없는 인물이다. 병마도감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속에 나쁜 놈이 배겨있다는 소문을 믿어서보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은 후 천균노의 주조가 실패하게 되였으니 어쨌든 그도 의심해야 할 대상이다.

허나 그도 뒤를 캐볼수록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답만 나온다. 그가 나쁜 마음을 가졌다면 하루이틀도 아니고 날마나 련장의 앞장에서 일할수 있는가. 철덕을 쌓을 때에도 그래 거푸집을 빚고 천균노를 부어낼적에도 그래 남들이 다 손맥을 놓았을 때에도 남먼저 련장의 일을 찾아서 한 그가 아닌가. 나쁜 놈이라면 날마다 그런 고된 일을 찾아하지 못할것이다.

결국 심국종은 제쳐놓아야 한다는것이다.

아, 스승은 나쁜 놈을 잡아내야만 천균노를 뜻대로 만들어낼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아무런 방책도 찾지 못했으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구나.

스승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했을가?

김충지가 가슴이 답답하여 한숨을 쉬고있는데 등뒤에서 《자네 쉬지 않고 나왔나?》 하는 목소리가 울렸다.

돌아서보니 뜻밖에 팔짱을 낀 심국종이 서있다.

심국종이 반말투로 입을 뗐다.

《객지에선 한고향내기는 다 친구라는데… 울적한 마음을 누를길 없어 자넬 찾아왔네. 허— 우린 다같이 길을 잘못 찾아든것 같애.》

《?!…》

《자네도 소문을 들었겠지. 뭐 타지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천균노를 해쳤다구? 내 참 더러워서.》

김충지는 아픈 마음을 헤집어놓는 심국종이 불쾌했으나 그런 내색은 하지 않았다.

《빌어먹을, 서경사람들의 인심이 그렇게까지 각박한줄은 몰랐네. 내 집일을 하듯 몸을 아끼지 않고 힘껏 일했건만 나중에 차례진건 멸시와 랭대뿐이니…》

심국종의 탄식소리에 김충지도 심사가 뒤틀려 화가 났다.

나쁜 놈이 허튼수작을 꾸며내여 돌린대도 그렇지 어쩜 서경사람들이 그 말을 곧이 듣고 인정없이 그럴수 있을가.

한숨을 길게 내뿜고난 심국종은 김충지의 손을 잡으며 간청하듯 말했다.

《친구! 우리 함께 개경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개경내기인 자네가 가겠다면 나도 보통문근처에 산 집을 도루 팔고 자넬 따라가겠네.》

김충지는 갑자기 개경으로 돌아가자는 심국종을 뜨아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가다니요?》

《자네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난 사실 남권부 그 량반이 하는 달콤한 말에 넘어가 여길 찾아왔네. 뭐 록봉이 많은 행수자리를 주겠다나? 속았지, 속았어. 한마을에 살던 사람이 어쩜 그런 빈말을 할수 있담.

이보게, 여기 더 남아있다가는 어떤 험턱을 뒤집어쓸지 모르니 우리 함께 떠납세.》

김충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눈길을 허둥거렸다.

그럴수록 심국종은 더욱 집요하게 달라붙었다.

《뭇사람이 하는 험담은 무쇠도 녹이고 덧쌓이는 악담엔 굳은 뼈도 삭는다고 하였네. 망설이다 후회말고 어서 결심을 내리게.》

《저…》 하던 김충지는 혀를 깨물었다.

자칫하다가는 상대의 수에 넘어가 본색을 드러낼수가 있다. 이런 때는 어리석은척 해야 상대의 본심을 엿볼수 있다.

《로형! 갈대처럼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객지로 품팔이를 나섰수? 그래 집 떠나면 호강을 할줄 알았수?》

심국종은 울상이 돼서 혀를 찼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천균노를 해쳤다는 소문은 그래 우릴 념두에 둔 소리가 아닌가. 그래, 그런 억울한 루명을 쓰고 사람들의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그냥 참자는건가?》

《참지 않으면 별수 있수? 참는자에게 복이 온다는데…》

김충지의 퉁명스런 소리에 심국종은 풀이 죽은 소리로 대척했다.

《내 혼자서라도 개경으로 가고싶지만 그렇게 하면 다들 나에게 루명을 뒤집어씌울거란 말이요. 친구따라 강남도 간다는데… 자네가 남아있겠다면 나도 남아있겠네. 하지만 병마도감사더러 시비는 갈라달라구 들이대야 하네.》

김충지는 손바닥을 뒤집듯 금시 달라지는 그의 마음을 대중할수 없어 대답을 피했다.

심국종은 대답을 받아낼 심산인지 한 말을 또 되풀이했다.

《병마도감사에게 우리들의 청백함을 알리고 험담을 돌린 놈을 잡아달라구 해야 해. 그래야 우리가 수모를 면할게 아닌가.》

김충지는 상대의 진속을 타진해볼 심산으로 불쑥 들이댔다.

《로형보기엔 누가 나쁜 놈인것 같수?》

심국종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김충지, 감히 네가 나를 중떠봐? 이젠 죄다 알만 하다. 네가 최충의 수제자라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네가 그의 눈과 귀인줄은 삼

척동자도 알렷다. 네가 바로 최충이 쳐놓은 그물인줄 내 모를줄 알구. 흥, 몇마디안팎에 얼굴에 제 마음을 그려내는걸 보면 이런 일엔 젖비린내나는 애숭이야. 그래가지고 누굴 잡아보겠다구. 어림도 없다. 네가 하나를 하면 난 둘셋을 헤아려본다.

심국종은 고양이가 잡은 쥐를 가지고 노는듯한 환각이 들었다. 그는 자기가 고양이라고 여겼다.

《이보라구, 거야 뻔하지 않나. 난말이야, 우리 나라가 강해지는걸 제일 싫어하는 놈이 그런 말을 꾸며냈다고 생각하네. 바로 녀진놈들이지. 더 정확하게는 남몰래 잠입한 녀진놈들이 한것인줄 아네.》

처음엔 무심해듣던 김충지는 귀맛이 돌았다. 듣고보니 심국종의 말이 옳은듯 했다.

녀진을 거란에 비길수는 없지만 그들이 예나지금이나 고려에 해를 적지 않게 끼치고있는것은 사실이 아닌가. 그네들이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고는 하지만 거란이 우세해보일적에는 거란편에 가붙어서 우리 나라의 변방을 얼마나 소란케 했던가.

거란이 여러차례나 전란을 일으켰던 고려의 적국으로서 화친을 하자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비록 국교는 맺었지만 고려사람치고 거란란에 너도나도 큰 상처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어찌 그들의 눈과 귀가 되여줄수 있단 말인가.

허나 녀진은 사정이 다르다. 압록강밖에서 거란이 약해진 틈을 타서 급속히 세력을 넓힌 녀진세력들이 고려의 병기에 눈독을 들이지 않을수 없고 동족의 나라로 찾아오는 발해유민들속에 기여들어온 녀진의 간자들이 여기에도 박혀있지 않다고는 단언할수 없다.

김충지의 내심의 변화를 엿본 심국종의 입가에 야릇한 웃음이 비꼈다.

《친구! 나와 손을 잡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 녀진것들이 박아넣은 나쁜 놈들을 잡아내보지 않겠나?》

김충지는 정신을 도사렸다.

방금 개경으로 돌아가자고 졸라대던 사람이 즉시 말머리를 돌려

나쁜 놈을 잡아내자는건 도대체 무슨 마음에서일가?
김충지는 슬쩍 딴전을 피웠다.
《로형! 난 그런 일엔 흥미가 없소. 하겠으면 로형이나 혼자 하우다. 난 돈이나 벌어가지고 집으로 가면 그만이요.》
심국종은 유감이라는듯 입을 쩝쩝 다셔댔다.
《자넨 그럼 제살궁리만 하라구. 난 한번 나서볼테요. 빠른 토끼도 사냥개를 만나면 잡히고 남의 속심도 뒤를 밝히는 사람의 눈에는 걸린다는데 두고보라구. 내 꼭 그놈들을 잡아내지 않나. 그때 우리 마주앉아 한잔 나눕세.》
김충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심국종은 휙 찬바람을 일으키며 돌아섰다.
김충지는 련장밖으로 사라지는 심국종을 바라보며 그가 만만치 않겠다고 생각했다.

5

놋쇠를 받아가려고 개경에 당도한 남권부는 이튿날 리자연이 부른다는 기별을 받고 서둘러 그의 집을 찾아갔다. 수창궁 앞동네에 들어앉은 그의 집 대문앞에 이른 남권부는 마치 궁성을 찾아온듯한감이 들었다.
서경에 내려간 후로 리자연의 집에 와보기는 처음이다.
그런데 그사이에 이렇게 궁궐같이 황홀한 집을 꾸렸단 말인가! 보통 백성집같으면 수십채나 들어앉을만한 넓은 부지에 기와를 얹은 길길이 높은 담장을 빙 둘렀는데 본채와 행랑채를 내놓고 동채, 서채 하는 격으로 새로 지은 별채들도 다 으리으리했다.
본채앞의 멋스러운 정각을 떠인 새로 판 련못에는 물고기들이 노닐고 그 둘레에서 기이한 나무며 기묘한 바위들이 눈뿌리를 뺀다.
이거야 대궐이지 어디 일개 신하가 사는 집이란 말인가. 하긴 병마도감에서 한갖 소감벼슬따위나 해먹는 나만 보더라도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쓰고 사는데 신라때부터 귀족살이를 해온다는 리자연이고보면 그럴만도 한 일이다. 벼슬아치치고 떵떵대며 못사는게 부실하지.

이렇게 생각하며 남권부는 하인의 길안내를 받아 후원에 있는 어떤 집으로 이끌려갔다. 하인은 주인어른이 오늘 찾아오는 손님을 이 방에 들이라고 했다면서 방문을 열어주었다. 하인이 열어준 방에 들어서니 아무도 없는 빈방인데 훈훈했다. 손님맞이로 쓰는 방인것 같았다.

방가운데는 숯불이 담긴 청동화로가 놓여있고 아래목에는 화려한 보료를 깔았으며 벽에는 화초를 그린 병풍이 둘러치여있었다.

아직 정오가 못되였으니 중추원에 출근한 리자연이 돌아올 때가 아니다.

방안을 둘러보고난 남권부는 폭신한 보료우에서 한잠자고싶어 그 우에 벌렁 나가누웠다.

눈을 감았으나 잠은커녕 엄기가 내배인 리자연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불안했다.

리자연이 왜 불렀을가. 기껏 동생 리자봉이나 내세워 이래라 저래라 훈시나 하던 그가 무슨 바람이 불었기에 제 집에까지 불러들여 만나자고 할가?

남권부는 눈을 크게 뜨고 오늘 일이 길할지 흉할지 점을 쳐보았다.

이렇다할 조짐이 나타나지 않아 제풀에 짜증을 내는데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이거 허리띠를 끄르고앉아 주인을 기다리라고 주안상을 챙그려오는가.

팔베개를 하고 모로 누운채 눈길을 돌리던 남권부는 덴겁해서 후닥닥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천만뜻밖에도 자삼우에 시누런 금어를 찬 리자연이 들어서는것이였다.

남권부는 금시 비굴해져서 리자연의 발치앞에 꼬꾸라지듯 무릎을 꿇었다.

《령공! 그간 옥체만강하셨소이까? 오매불망 령공을 그리며

이렇게 뵈올 날을 기다렸소이다.》
리자연은 남권부를 거들떠도 보지 않고 금방석에 다가가 털썩 앉았다.
《일어나앉게.》
쓴오이대하듯 반기는 기색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리자연이였지만 남권부는 굽신대며 아첨을 떨었다.
《황송하오이다.》
남권부는 기신기신 허리를 폈으나 무릎을 꿇고앉았다.
《학우사이에 웬 내우인가? 편안히 앉게.》
좀 누그러진 목소리에 남권부는 엉치를 깔고앉았으나 여전히 쩔쩔맸다.
《자네 서경물이 맞는다며?》
생각밖의 물음에 남권부는 어리뻥뻥해졌다.
《예—에?!…》
《자네 얼굴이 보동보동 살이 오른 규방계집처럼 뿌유스름하고 개기름이 잘잘 도는구먼.》
리자연의 조롱소리에 남권부는 은근히 부아가 나서 얼굴을 쳐들고 그를 마주보았다.
리자연을 마주보는 남권부의 눈이 금시 올롱해졌다. 방금전까지는 너무 어려워 방바닥만 내려다보다나니 몰랐는데 이제 보니 리자연의 얼굴이 어디 40대중년의 상판같으냐 하는 불만이 솟았다. 리자연 자기의 얼굴이 바로 제가 한 롱말대로 보동보동 살이 오른 규방계집의 얼굴과 흡사했던것이다.
젊었을 때에는 흰얼굴이 여위여서 칼칼해보인 그였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강파른 몸매에 옥같이 흰 살결은 명문가인 인주 리씨네의 래력이라고 하였다.
8년전에만 하여도 칼칼한 얼굴이였는데 지금은 보기 좋게 살이 올라 주름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다. 그래서인지 가뜩이나 잘 생긴 얼굴이 더욱 돋보여 미남중의 미남이라 할만 했다.
과연 저 량반팔자는 어떻게 돼먹었기에 날로 부유해지고 귀해지고 용모마저 허여멀쑥해지는걸가.

남권부를 조롱하던 리자연이 갑자기 쌀쌀해졌다.

《자네 귀밝은 사람은 소리없는 소리를 듣고 눈밝은 사람은 형체없는 형체를 본다는 말 아나?》

가시가 돋힌듯한 물음에 남권부는 더럭 겁이 났다.

그러니 문초를 하자고 불렀구나.

《자네가 천금을 뿌리면서 놋쇠를 구해와서 천균노를 만들게 했다면서?》

귀뺨을 치는듯한 맵짠 소리에 남권부는 금시 자라목이 되였다. 하면서도 의문이 가득했다.

어떻게 개경땅에 있으면서 서경일에 그다지도 환할가.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빨리 서경소식을 알수 없겠는데… 혹시 이 사람이 그동안 도술이란걸 닦아서 소리없는 소리를 듣고 형체없는 형체를 본다는 그런 기인이 된것이나 아닐가. 아니, 그럴수 없지. 이건 분명 쥐상판같은 심국종 그놈이 고해바쳤을것이다.

남권부는 혀가 문드러진 놈처럼 입을 다물고만 있을수 없어 기여드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사… 사실이오이다.》

《허— 충신이 났군, 충신이 났어. 이제 곧 큰상이 내릴거네.》

리자연의 빈정질에 남권부는 그가 무엇때문에 불렀는지 짐작이 갔다.

《옛 성현들이 이런 말을 남겼지. 남의 마차에 탄 사람은 마차를 태워준 주인과 같은 걱정을 하게 되고 남이 준 옷을 받아입은 사람은 옷을 준 사람과 같은 걱정을 한다는 말. 그래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나?》

리자연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잡아먹을듯 날칠줄 알았는데 고담풀이를 하며 제 속심을 암시하려드니 남권부는 안도의 숨이 나갔다.

《령공! 제가 어찌 령공에게서 받은 은덕을 잊겠소이까. 령공이 아니였던들 몰락해버린 선비집자식인 제가 어떻게 국자감을 나오고 과거급제까지 하며 벼슬길에 오를수 있었겠소이까. 계집이 자

기를 좋아하는 사내의 마음에 들기 위해 몸치장을 한다면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어른을 위하여 한몸을 바친다고 하였소이다.》

리자연의 입가에 가는 웃음이 비꼈다.

《알긴 아누만. 그런데도 나와 수화상극인 최충의 패당과 동침할수 있는가?》

남권부는 황급히 머리를 조아렸다.

《령공! 전 몸은 비록 다른 무리속에 끼여있어도 그네들과 뜻을 함께 한적은 한번도 없소이다. 이건 하늘이 다 아는것이오이다. 장부일언이 천년불개라고 전 령공을 따르는 한마음 천년이 지난다 해도 고치지 않겠소이다.》

리자연의 얼굴이 흐려졌다. 그는 노복같은 남권부따위에게 자기 본색을 지내 드러낸것 같아 변명투로 말했다.

《자네 말이 진심이라면… 이보게 내가 왜 최충을 미워하는지 아는가? 그건 노비와 전장을 사들인 내 부친을 무슨 큰 도적인듯 과장해서 임금에게 고소한 그때문만은 아니야. 그런 일로 평생 앙숙하는건 소인배들이나 할짓이야.

난 그와 뜻이 맞지 않아. 뜻이 다르기때문에 난 그를 좋아하지 않는걸세.》

남권부는 화제거리가 최충에게로 번져가자 숨이 크게 나갔다.

《자네도 생각을 좀 깊이해보게.

그래 최충이나 박원작이 마음먹었대서 천균노를 만들어낼상싶은가? 형체도 모르는걸 만들겠다고 임금의 어지까지 받아놓았으니 이게 어디 애들놀음인가 말일세. 그걸 만들수 없다는건 뻔한 리치인데 어지가 내렸으니 임금의 위엄이 뭐가 되겠는가.》

리자연은 정녕 가슴이 아픈지 방바닥을 두드렸다.

남권부는 제가 마치 어전회의에 참가한듯한 기분이여서 가슴이 활랑거렸다.

리자연의 한마디한마디 말은 그의 귀에 무겁게 들려왔다.

《정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하나 하려고 하기 전에 그 일로 하여 생길수 있는 후환을 심중히 타산해야 하는거야. 천균노를 만들라는 어지가 내려가고 신하들이 그것을 실행하느라 올리뛰

고 내리뛰고있으니 이젠 이웃나라들까지 다 그 일을 알거네.
우리가 천균노를 만든다는걸 이웃나라들이 알면 어떻게 나올것 같은가? 우리가 천균노같은 큰 병기로 저희들을 치련다고 걸고들건 뻔하단 말이야.
남들에게 없는 화약과 뢰등석포 같은 병기를 가졌으면 만족해야지 형체도 모르는 천균노를 빚겠다고 억지공사를 벌려놓았으니 이거야 화를 청해오는게 아니고 뭔가. 자업자박(자기가 저지른 일의 후과를 자기가 받는다는 뜻)이지.》
남권부는 그냥 듣고있기가 무안하여 《지당하신 말씀이오이다.》 하고 입을 열었다.
리자연은 제 말을 막지 말라는듯 손을 내저었다.
《옛 성현들이 이르기를 국력이 미치지 못하면 도전하지 말라고 했네. 이 말은 약소국이 나라를 보존하려면 강대국에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뜻이야. 숙인 고개는 버이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난 우리 고려가 큰 나라들의 눈치나 보며 살아가자는건 아니야. 우린 마땅히 고구려를 이은 나라답게 존엄을 지켜 당당하게 처신해야 돼.》
리자연의 능청스러운 언변에 남권부는 감동된듯 머리를 조아렸다.
《허— 이번에 부은 천균노가 잘못되였다지? 거보라구, 하늘도 그걸 바라지 않아.》
리자연은 애초에 천균노를 만들수 없다고 한 자기의 생각이 빗나가지 않았다는것을 다시금 굳히였다.
그는 넌지시 남권부를 건너다보며 저놈의 몸값이 도대체 얼마나 나갈것인가 하고 되박질을 해보았다. 남권부같이 재주가 박한자를 부하로 두면 크게 덕볼것은 없다지만 세력을 늘이는데서는 몇사람 맞잡이가 될상싶었다. 남권부의 성품이 본래 남이 잘되는것을 보면 배를 아파하는 위인인지라 최충이같은 정적을 물고늘어지는 일에서 사납게 날뛸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였다.
리자연은 제법 너그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얼마전에 북계병마도감사로 되도록 힘써달라고 한 자네의 글

월을 받아보았네. 나라를 근심하여 나라에 도움이 되고저 하는 큰 일감을 맡겨달라는 자네의 마음이 갸륵해.

좋아, 자넨 되지도 않을 천균노일엔 너무 나서지 말고 박원작이 밑에서 한두해만 더 성근하고 꾸준하게 병기를 만드는 재주를 닦게. 그러면 내 자네를 중히 써주겠네.》

남권부는 감지덕지하여 코가 구들에 닿아라 절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의문이 들었다.

리자봉은 화약의 비방을 뽑아오는 즉시로 군기감의 주인자리를 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도 그의 형은 한두해씩이나 더 박원작의 밑에서 일하라는건 뭔가.

남권부는 리자봉의 속심을 알수 없었다.

사실 외국장사치들과 거래하며 어벌이 커진 리자봉은 큼직하게 묵돈을 벌어서 형인 리자연의 뒤받침을 하기 위해 그도모르게 화약의 비방까지 다른 나라 장사군들에게 팔기로 마음먹고있었다.

하여 리자봉은 남권부만 믿을수 없어 군기감에 심복으로 박아넣었던 심국종을 서경에 내려보냈던것이다.

그런 내막을 남권부나 리자연이 알리 없었다.

만일 리자연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무리 한피줄을 나눈 친동생이라도 용서하지 않았을것이다.

리자연은 자기 뒤를 대주고있는 리자봉이 화약이며 《신기한 병기》를 밀매하여 돈을 벌어들이는것은 눈감아주고있지만 화약의 비방만은 타국에 새여나가지 못하게 엄중경계하고있었다.

남권부는 리자연이 자기를 불러들인 까닭을 깨닫자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조아렸다.

《소인이 어떻게 하나 되지도 않을 천균노를 다시 부으려고 하는 박원작을 눌러놓겠소이다.》

《좋아.》

리자연은 눈을 치뜨고 능청스럽게 남권부를 건너다보았다.

《이 사람, 혹시 그쪽에서 화약이라든가 〈신기한 병기〉를 빼내여 장사하는건 없나?》

그 말에 남권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그것까지도 알고있단 말인가?! 그게 참말이라면 이 목숨은 저 리자연의 줌안에 송두리채 들어있다는게로구나.

리자연은 대답을 못하고 쩔쩔매는 남권부를 보고 그도 리자봉이처럼 그런것을 일삼고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하긴 돈맛을 들인 놈이 돈냥깨나 나가는 그런 물건을 보고 어찌 곱게 앉아있을텐가. 이젠 됐다.

박원작이 정 시끄럽게 굴면 남권부가 한짓을 그에게 넘겨씌워 엄한 벌을 내릴테다. 그러면 제까짓게 꼼짝 못하고 망했지 별수가 있을라구.

리자연은 남권부를 안심시키느라고 부드럽게 일렀다.

《됐네, 내 더 따지지 않겠으니 앞으로 채심하게.》

기분이 좋아진 리자연은 밖에 대고 소리쳤다.

《게 누구 없느냐?—》

곧 방문이 열리고 곱게 생긴 젊은 하녀가 들어와 절을 차렸다.

《소녀 대령했사옵니다.》

리자연은 남권부를 가리키며 분부했다.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주안상을 잘 챙그려오너라.》

《예, 알겠사와요.》

6

점점 어두워지던 하늘에 시꺼먼 먹장구름이 한벌 뒤덮이더니 이어 폭우가 무섭게 쏟아졌다. 이내 강물은 범람하고 바다에서는 집채같은 파도가 룡트림을 해댄다.

가랑잎마냥 집채같은 파도에 휘말려 정처없이 떠밀려가는 돛배에서 박원작은 필사의 힘을 다해 키를 잡고있었다.

련이어 집채같은 파도가 배전을 덮친다. 그때마다 배는 금시 뒤집혀질듯 위태롭게 태질한다.

심술궂은 파도가 또다시 달려들었다. 파도는 돛천을 짓부시고 사나운 기세로 키를 잡은 박원작을 삼킨다.

아이구, 끝장이로구나 했는데 어찌된 조화인지 배는 고요한 바다기슭으로 떠밀려나온것이 아닌가.

허나 그것은 잠시 잠간, 이번에는 세찬 눈보라가 미친듯이 달려든다. 그속을 뚫고 박원작은 간신히 앞으로 나아간다.

얼마나 왔는지…

귀뺨을 얼구는 맵짠 눈보라속을 헤치고나가자 이번에는 아스라한 칼벼랑이 앞을 막는다.

박원작은 젖먹은 힘까지 다해 한치한치 칼벼랑을 톺아오른다. 손은 얼어터지고 피가 흐르건만 오로지 살아야 한다는 그 한생각으로 벼랑을 이악하게 기여오른다.

천신만고하여 마침내 벼랑우에 두손을 올려놓았는데 누군가가 그 우에서 소리쳤다.

《내가 구원해주지!》

참말 누군가의 억센 손이 점점 맥이 진해가고있는 박원작의 손목을 꽉 움켜잡는다.

아, 살았구나!

그 손에 이끌린 몸이 허공으로 떠오르려는데 갑자기 자기 손목을 놓아버렸다.

아, 아! 제발… 제발…

벼랑틈에 붙인 두발에 간신히 의지한 몸이 점점 뒤로 기울어진다.

《날 살려줘!－》 하는 비명이 터질 때 몸은 허공으로 던져졌다.

《악!－》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박원작은 벌떡 자리를 차고 몸을 솟구쳤다. 그와 동시에 부드러운 팔이 벌벌 떠는 그의 몸을 감싸안았다.

《이보세요! 진정하시오이다.》

박원작은 공포로 벌벌 떨며 소리쳤다.

《그… 그댄 누군가? 귀신인가, 사… 사람인가?》

《이보세요! 저예요. 저!》
《임자가?!…》
박원작은 와락 해연을 부둥켜안고 몸을 떨었다.
《후유— 꿈이였구나. 아, 무섭기란…》
이윽고 해연은 박원작을 부축하여 자리에 눕혔다.
《흉한 꿈을 꾼건 몸이 허약해졌기때문이예요. 하루이틀 일할것도 아닌데 몸을 돌보셔야겠소이다.》
《숯이 해결됐는데 난 병석에 들었으니… 아!》
며칠전부터 박원작은 오한이 나고 명치부위가 아파나면서 먹은것이 내려가지 않았다.
체기를 만났으니 하루이틀 지나면 낫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병은 점점 더 심해졌다.
의원에게 병을 보였더니 맥을 짚어보고나서 탄식하여 말하였다.
《과로에 과로가 겹쳤은즉 어찌 허손증이 생겨나 몸을 망치지 않으리요.》
박원작은 그날 처음으로 자기가 지금껏 과로속에서 살아왔다는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때부터였을것이다. 나라에 소용되는 병기를 만들라는 아버지의 간곡한 유언을 가슴에 새긴 그날부터 밤낮이 따로없이 박원작은 그 뜻을 지키려 애써왔다. 그길이 어렵고 힘겨웠지만 효도를 지키는 길이였기에 과로에 과로가 잇닿고있음을 느끼거나 돌이켜볼 일각의 여분도 없이 오직 당연한것으로 여기며 일에만 몰두해왔던것이다.
아픔을 참고 일한때문에서인지 박원작은 눈앞에서 별찌까지 일고 온배가 다 아파나 끝내 그제 저녁부터는 아예 몸져눕고말았었다.
어제오후에는 김충지가 홀로 병문안을 와서 서경류수부에서 백수십섬의 강동숯을 실어왔다는 희소식을 알려주었다. 그때 너무 기뻐 일어서려 했으나 머리가 휭하고 배도 몹시 아파 병마도감에 나가지 못했다.
오늘아침에는 남권부의 안해 마씨가 웅담을 가져와 배아픔을 한

결 덜고 머리도 맑아져 해연이 떠주는 잣죽을 퍼그나 받아먹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처 잤는데 그만 흉한 꿈이 달려든것이였다.

《아, 남공도 개경에 가고 없으니… 안타깝구나.》

해연의 따스한 손이 박원작의 손을 꾹 부여잡았다.

《이보시와요, 근심엔 병이 더해진다고 했으니 제발 마음을 늦추고 몸을 추세워야 천균노를 만들수 있사이다.》

박원작은 자기 얼굴에 무엇이 떨어지는것을 감촉했다. 해연이 떨구는 눈물이였다.

《임자, 우는구만. 내 임자 말을 듣겠으니 눈물을 거두게.》

× ×

박원작이 침상에 누워있는 이밤, 병마도감은 여느날보다 더 고요했다. 그믐밤이여서 사방이 칠흑같은데 이따금 바람부는 소리만이 간간이 들렸다.

천균노의 거푸집곁에서 파수를 서는 메득이는 자꾸만 몰려드는 졸음을 쫓느라 오락가락하였다. 다시는 천균노를 망치지 않자면 거푸집에 나쁜 놈의 검은 손이 닿지 못하게 해야 한다.

며칠전 박원작과 김충지의 주관하에 련장에서는 천균노의 거푸집을 다시 빚어냈다.

인차 숯도 해결될수 있고 잘못된 천균노를 깨여놓은 놋으로 다시 천균노를 부어낼수 있다는것으로 하여 장공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았었다.

그들이 나무잎 하나라도 들어갈세라 정성다해 빚은 거푸집에 그날부터 주야로 파수가 세워졌다.

이밤의 파수는 메득이와 군만이였다. 그런데 군만은 이미 천근만근으로 눈시울을 내리누르는 졸음에 견디지 못하고 거푸집앞에서 네활개를 펴버렸다.

익살쟁이 군만이에게 장점이랄지 단점이랄지 꼭 짚어말하기 힘든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해만 떨어지면 단잠에 곯아떨어지는것이다. 그때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지경이다. 그러다가 오경(4시를 전

후한 때)이면 영낙없이 깨여일어나 바지런을 피우는데 늙은이로 말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조침조기의 본보기라 할수 있었다.
메득은 초저녁잠에 꼼짝 못하는 군만의 사정을 생각하여 그가 굳잠에 든것을 나무라지 않았다.
까짓것, 하루밤을 꼬박 밝혔대서 큰일날게 없지.
사방이 캄캄한데다 고요하니 메득은 고독감이 더해났다.
이럴줄 알았다면 따라가겠다고 칭얼대던 애녀석을 안고오는건데…
메득이에게는 아들만 둘이였다. 큰 아이는 올해 세살인데 제법 말을 번진다.
그 아이의 귀여운 모습을 그려보고있는데 어데선가 알릴가말가한 기척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일가?!…
온 정신을 모아 귀를 도사리는데 또다시 인기척이 났다. 분명 누구인가 숯고간의 문을 여는 소리였다.
숯고간은 련장뜨락 한쪽에 있는데 메득이 선 자리에서 불과 쉰나문보 떨어져있었다.
재밤중에 숯고간을 열수는 없는데?… 이상하다. 혹시 나쁜 놈이 숯을 훔쳐가려는것이 아닐가. 어떻게 구해온 숯인데 훔쳐간단말인가. 진짜 숯을 훔쳐가는 놈이 있다면 정갱일 분질러놓고말테다.
메득이는 어둠속에서 발소리가 날세라 발볌발볌 걸음을 옮기며 숯고간으로 다가갔다. 숯고간을 가까이했는데 돌연 눈앞에서 화광이 충천하더니 이어 꽝!— 하는 요란한 폭음이 울렸다.
그 순간 세찬 폭풍에 메득은 《앗!—》소리를 지르며 뒤로 날아넘어졌다.
인차 정신을 차리고 앞을 바라보니 삼단같은 불길이 숯고간을 휘감고있었다.
《불, 불이야!—》
땅을 박차고일어난 메득은 갑자기 앞을 가로막는 사람을 보았다. 불길에 그자의 얼굴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네… 네놈이?! 네놈이였구나! 이놈아!—》

메듣은 다짜고짜 낮판에 살기가 가득한 그놈의 멱살을 잡으려 두 손을 내밀었다.

그찰나 놈은 옆으로 비켜서며 손에 든 비수를 휘둘렀다.

《헉—》

비수에 면바로 가슴을 찔린 메득은 땅에 주저앉았다. 그러자 놈은 메득의 가슴에서 비수를 뽑아 다시 그의 숨통을 정통으로 찔렀다.

메득은 마지막힘을 모아 《저놈… 잡아라.—》 하고는 그대로 절명하고말았다.

요란한 폭음소리에 깨여난 군만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세찬 불길이 숯고간을 완전히 삼켜버린 뒤였다.

그 불길에 땅바닥에 쓰러진 메득이가 눈에 띄였다.

군만은 정신없이 달려가 메득이를 부둥켜안았다.

《야! 메득아! 이 어찌된 일이냐? 누가 널 찔렀어?》

허나 메득은 눈을 뜨고있었지만 대답이 없었다.

《메득아, 야! 넌 죽어선 안돼. 메득아!—》

군만이의 처절한 곡성이 련장뜨락에 메아리쳤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는 숯고간이 깡그리 타서 주저앉은 뒤였다.

7

얼음이 풀리고 비우뢰에 놀란 온갖 땅속벌레들이 겨울잠에서 꿈틀거리며 깨여난다는 경칩도 지나갔건만 랑림산줄기의 아아한 소백산이 바라보이는 평로진(자강도 동신군)은 아직도 엄혹한 겨울이였다.

청새진(희천)에서도 청천강의 상류를 거슬러서 백여리나 깊숙이 험산으로 들어와있는 평로진으로 북계군의 본영을 옮겨온 최충은 성쌓는 일을 크게 벌려놓았다.

아침일찍 밥을 든든히 먹은 군사들이 평로진성공사에 달라붙었다.

최충은 평로진성을 빨리 쌓기 위해 세 부대를 편성했다. 성돌을 캐내는 부대, 성돌을 나르는 부대, 진성을 쌓는 부대 이렇게 셋으로 갈라놓고 하루몫을 정해주었다.

공사를 시작한지 열흘남짓한데 벌써 백간(한간은 약 1.82m)나마 성벽이 웅장한 제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기세로 내밀면 늦어도 가을까지는 근 600간으로 작정한 평로진성을 얼마든지 쌓을수 있다.

어찌 그뿐이랴. 6개의 보자(경비초소)도 진성주위로 다 지을수 있다.

그렇다고 장성공사가 호락호락 헐한 일은 아니다. 북방의 아아한 산발들을 가로지르는 험지에다 그 어떤 오랑캐도 감히 넘볼수 없는 높은 성을 든든히 쌓아야 하니 그 간고함이란 이루 말할수 없다.

최충은 장성공사를 다그치기 위하여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누고 그 한구간은 지병마사에게 맡겼다.

그리고 수하장수들을 전부 성쌓는 일에 붙여놓았다.

판북계병마사에겐 1대리인으로서 3품관인 지병마사 1명, 그아래 4품관인 병마부사 2명, 품계가 낮은 병마판관 3명과 병마록사 4명이 배속되여있었다.

최충은 서경류수부와 녕주에 각각 병마부사 한명을 떨구어두어 그들이 고을원들과 련계를 가지고 장성공사를 돕게 하였다. 그리고 개경에 병마판관 한사람을 남겨놓아 판도병마사 서눌을 통하여 조정의 령을 전달받게 하였다.

나머지 2명의 병마판관과 4명의 병마록사들은 자기와 지병마사가 절반씩 거느렸다.

최충은 장성공사의 신속한 지휘를 위하여 10명의 젊고 날랜 전령을 두었다. 전령들은 부단히 서경, 녕주 그리고 동쪽구간을 맡은 지병마사와 최충사이를 오고가면서 수시로 달라지는 정황을 알아오고 병마사의 령을 대방에게 전달하였다.

어제 전령들이 알아온데 의하면 지병마사가 맡은 동쪽구간에서도 성쌓는 일이 순조롭게 진척된다고 했다.
새로 쌓아야 할 500리 구간의 축성공사에서 제일 요점적인것은 평로진성과 녕원진성을 빨리 마치는것이다.
그래서 이 두개의 진성공사를 병마사와 지병마사가 직접 맡아보는것이다.
이 두개의 큰 성을 쌓고 서로 련결하여 성벽을 이어놓으면 장성은 제모습을 갖추게 된다.
최충은 두개 성을 잇는 성쌓기도 동시에 벌려놓았다. 500리 구간을 수십개로 토막쳐서 수백명의 군사들을 거느린 중랑장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 그들에게 백성들도 배속되여있었다.
이제 여름철과 마가을에 수십만명의 백성들까지 동원시키면 한해남짓한 기간에 능히 북계안의 장성공사를 마칠수 있다.
그다음 한두해안에 동계에서도 성벽을 쌓으면 마침내 장성공사는 그끝을 보게 된다.
몇해안에 장성공사를 끝내면 한시름을 놓을수 있다.
지금껏 어금이가 빠진듯한 장성문제때문에 가슴을 얼마나 조였던가.
지난날의 거란란을 돌이켜보면 압록강을 건너온 적군은 매번 다구주(구성)를 거쳐 쳐들어왔다.
그런 외적란이 또 일어난다면 구주로 통하는 길을 가로막은 장성에 진을 편 아군때문에 적들은 기필코 새 길을 찾아 부득이 랑림산쪽으로 우회할것이다. 그쪽으로 적군이 붙으면 아군에게 불리하다.
싸움의 승패는 누가 더 빨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가에 달려있는데 적군이 랑림산줄기를 타고 청천강과 대동강의 상류를 따라 남하해오면 고려군은 급소를 찔린셈으로 된다.
이것이 바로 최충이 오래전부터 근심해온 우환거리였다.
이제는 북방을 가로지른 장성을 쌓아 그 우환거리를 없앨수 있게 되였다.
최충은 이런 생각에 묻혀 진성에서 북쪽으로 몇리가량 떨어져있

는 채석장에서 말을 멈춰세웠다.

천명이 넘는 군사들이 벌떼마냥 달라붙어 돌을 깨는 모습은 참으로 볼만 했다. 그들은 찬바람에도 아랑곳없이 웃동을 벗어던지고 땀을 흘리며 일하고있었다.

《나도 메질을 좀 해볼가.》

최충이 말우에서 내려서는데 견마를 잡은 애숭이전령이 호로병을 내밀었다.

《판병마사님! 약을 드셔야 하오이다.》

《약을? 어, 그래야지.》

최충은 애숭이전령이 내민 호로병을 받아들었다.

호로병에는 해소(기관지염)에 특효라는 탕약이 들어있었다.

최충은 녕주에 당도한 그날부터 기침이 나고 오슬오슬 추우면서 가래를 뱉았다. 의원이 말하기를 해소에 걸렸으니 화개산을 쓰라고 했다.

늘 데리고다니는 애숭이전령은 최충이 한번이라도 약을 건늘세라 탕약이 든 호로병을 가지고다녔다.

10명의 전령들중에서 유일하게 총각인 애숭이전령은 15살인데 어려서 량친부모를 다 잃고 가난한 친척집에 얹혀살다보니 키도 자라지 못해 작고 여위였다.

녕주에서 군사들의 사열을 받던 최충은 남달리 애되보이는 그를 발견하고 일부러 전령을 삼았다.

호로병을 입에 대고 약물을 마시고난 최충은 입술을 문대며 말했다.

《네가 도리여 날 봉양하는구나. 네 성의를 봐서라도 병이 빨리 나아야겠다.》

호로병을 전령에게 넘겨준 최충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황새날개에서 뽑아던진듯한 하얀 깃털모양의 구름들이 드문드문 떠도는 하늘은 룡소처럼 파랗게 보이였다.

《날은 계속 개이겠군. 성쌓기엔 그저그만인 날이로다.》

최충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평로진을 둘러보았다. 진의 북쪽엔 마장산, 남쪽으로는 대동산이 두 기둥인듯 높이 솟은 그 한가운데서

청천강과 함지골천이 합쳐진다. 그것을 끼고 꽤 넓은 골안이 열렸는데 거기에 평로진이 자리를 잡았다.
평로진에 성을 번듯하게 쌓아놓으면 그 어떤 오랑캐도 청천강을 따라 남하할수 없게 된다.
과연 이쯤에다 장성을 쌓는게 옳은 처사인지. …
최충이 아득히 먼 북녘하늘을 쳐다보는데 전령이 조심스럽게 아뢰였다.
《판병마사님! 정오가 다되였는데 이젠 돌아가셔야 할줄 아오이다.》
전령이 아뢰이는 소리에 최충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에는 진성공사장에 나가야 하니 할수 없지.
최충은 다시 말우에 올라앉았다. 성질이 유순하여 갈갤줄 모르는 말우에 그것도 전령의 부축을 받아가며 올라앉기에도 숨이 찼다.
《허－ 이젠 늙긴 늙었어.》
옛적에 어떤 사람이 평생 바라던 일을 맡게 되였는데 그때 그의 나이 칠순에 이르러 장탄식을 하였다고 한다.
하듯이 나라의 북변에 일일천추 장성쌓기를 고대하다가 정작 그런 날을 맞고보니 어느덧 60고개를 가까이하지 않았는가. 준마도 한창시절에는 하루에 천리를 내달릴수 있으나 늙으면 느린 말조차 따라앞서지 못한다는데 너무 늦은 나이에 장성공사의 중임을 맡고보니 한스러웠다.
십년만 더 젊었으면…
이런 생각으로 무심히 앞쪽에 눈길을 주던 최충은 누구인가 말을 타고 달려오는것을 보았다.
가만 보니 우봉전령이였다.
그는 10명의 전령들을 쉽게 가려보려고 그들이 태여난 고장이름을 달아주었다. 우봉전령이라고 하면 개경과 북쪽으로 이웃한 우봉고을에 고향을 둔 전령이라는 소리다.
최충은 우봉전령을 보는 순간 박원작을 생각했다.
우봉전령은 주로 서경에 있는 병마부사와 오가면서 병마도감을 비롯한 서경형편을 알아온다.

최충은 서경에 들렸을 때 황보영류수에게 숯을 떨어지지 않게 병마도감으로 보내줄것을 당부했었다.

박원작이 숯을 넉넉히 받았겠는지?…

《판병마사님!—》

말에서 뛰여내린 우봉전령은 엎어질듯 하며 달려왔다. 성미가 느린 그가 오늘은 웬일일가?

우봉전령은 인사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손을 놀려 품에서 가죽주머니를 꺼냈다.

최충은 우봉전령이 가죽주머니에서 뽑아주는 둘둘만 봉서를 받아들었다.

봉서속의 글월은 물론 서경에서 병마부사가 써보낸것이였다.

글월을 몇줄 읽어내려가던 최충은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여 첫줄부터 다시 읽어내려갔다.

《…서경류수가 강동현에서 구해보낸 백수십섬의 숯이 병마도감에서 몽땅 타버리고말았습니다. 어떤 나쁜 놈이 숯고간에 화약을 터뜨려 불을 질렀습니다.》

최충은 억이 막혀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숯이 몽땅 재가 되다니… 그게 참말인고?》

우봉전령은 제 잘못인듯 목을 움츠렸다.

《왜 대답을 못하느냐? 왜?!》

얼굴이 해쓱해진 우봉전령이 땀을 빼며 대꾸했다.

《사… 사실이오이다. 숯고간은 타버리고 파수군도 칼에 찔려 잘못되였소이다.》

《뭣이라구, 사람까지? 그래 병마도감사는 일이 그렇게 되도록 뭘하고있었다는거냐?》

우봉전령은 고개를 푹 떨구고 말을 더듬었다.

《병… 병마도감사는 앓… 앓던중이여서 집에… 누워있었다고 했소이다.》

최충은 가슴이 섬찍해서 말우에서 미끄러져내리였다.

아, 이런 불상사가 생기다니… 숯은 다 타버리고 사람이 죽고 박원작이마저 병들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두 전령이 최충을 부축했다.

《판병마사님!》

애숭이전령의 부름소리에 최충은 한숨을 내그었다.

병마도감의 일이 역시 심상치 않다.

이제 당장 천리길을 달려간다고 해서 박원작이에게 별로 도움을 주지는 못할것이다. 걸린것을 풀어주어야 한다. 걸린 고리는 숯일것이다. 서경류수더러 재차 그 많은 숯을 해결해주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한 일이겠지.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숯부터 마련해주어야 한다.

숯고간이 변을 당한걸 보면 화약고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 당장 병마부사에게 분부해서 병마도감에 파수를 든든히 세워야 한다.

최충은 두 전령의 부축을 받아 말우에 올라앉았다. 몸은 거처지로 향하고있었지만 마음은 병마도감에 가있었다.

8

병약해진 몸으로 메득이의 장례를 주관하고 병마도감으로 돌아온 박원작은 그가 정말 죽어 땅에 묻혔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가.

그의 눈앞에는 처량한 호곡속에 장례를 지내던 가슴아픈 광경만이 얼른거렸다.

아, 한창나이에 사람이 죽다니!… 전장도 아닌 제 사는 고장에서 그것도 병기를 만드는 병마도감에서 그런 참변이라니 어인 말인가.

시뻘건 봉분을 그러안고 태질을 하던 메득의 안해 설영이며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두 어린 자식의 울음에 잠긴 모습을 멀쩡한 정신으로야 어찌 마주볼수 있었던가. …

집안의 기둥을 잃은 그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아,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천균노를 만들수 없다는건가. 어느 놈이 메득이를 죽였단 말이냐!

박원작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끌고 넓은 마당의 오얏나무앞에 다가섰다.

오얏나무를 보니 마음이 더 쓰리였다. 몇해전 메득이와 군만이, 능산이, 돌석이 같은 젊은 장공인들이 그와 함께 심은 오얏나무였다.

그때 오얏나무를 심으면서 박원작은 색시들이 입쓰리를 하면 오얏을 마음대로 따먹이라고 우스개소리까지 했었다.

그 오얏나무들이 이제는 두길넘게 크게 자라 오얏이 주렁지였다. 지난해에도 가지가 휘도록 오얏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몇섬을 따서 장공인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날 오얏을 받아가면서 메득은 다음해에는 기어코 딸을 보겠으니 더 많이 주어야 한다고 하여 웃음판을 펼쳐놓았었다.

그 메득이 오얏나무열매를, 딸을 낳은 안해에게 안겨주는 기쁨을 남겨놓고 영영 가버린것이다.

박원작은 걸음을 휘청거리며 저도모르게 별관으로 향했다. 별관방의 한구석에서 피리를 찾아든 그는 먼지를 닦고나서 놋쇠꼭지를 입에 가져다댔다.

박원작이 마음이 서글퍼질 때면 불군 하던 《누이생각》의 구슬픈 곡조가 별관방에 울렸다.

죽고 사는 일이란
마음대로 할수가 없어
나는 간다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가버렸는가

...

박원작은 신라 말기 월명사라는 중이 일찌기 세상떠난 누이동생을 불쌍하게 여겨 지었다는 이 노래의 구절구절을 속으로 부르

느라니 메득이의 죽음이 더욱 가슴아프게 미쳐와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비창하게 울리는 피리소리에 이끌려 사람들이 방에 들어섰다. 김충지와 근달이였다.

《병마도감사님!…》

울음을 머금은 부름소리에 피리를 불던 박원작이 천천히 눈길을 들었다.

박원작은 눈물에 젖은 두사람의 얼굴을 보자 다시금 오열이 터져나와 입을 싸쥐였다.

김충지가 자기 가슴을 쾅쾅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병마도감사님! 이번 불상사는 다 제가 각성이 무딘탓에 생겼소이다. 절 꾸짖어주소이다.》

근달이 박원작의 팔을 잡고 흔들며 말했다.

《행수란게… 나살이나 건사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길줄은 꿈에도 몰랐소이다.… 제발 비는데 병마도감사님은 제 몸을 좀 생각하셔야겠소이다. 지금 온 병마도감이 병마도감사님만 쳐다보고 있으니… 천균노를 위하여 앓는 몸을 부디 돌보셔야 하오이다.》

박원작은 격정에 끓어오르는 마음을 다잡으며 입을 뗐다.

《이번 일은 그대들탓이 아니라 다 내가 암둔해서 생겼소. 그런데도 도리여 날 위로하는구려.

메득이가 나라를 위해 한몸 바쳤는데 우리 꼭 천균노를 다시 부어내여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지.》

《병마도감사님! 우린 지금 당장 숯구이를 떠나겠으니 허락해주소이다.》

눈물을 거둔 박원작은 놀란 눈길로 간절한 눈빛을 담은 근달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숯구이라니?》

《숯이 있어야 철덕에 불을 지필게 아니겠소이까. 한 서른명쯤 산에 보내면 달포면 백섬은 넉근히 구워낼수 있소이다.》

박원작의 두눈에 생기가 돌았다.

그렇지. 숯을 자체로 구워내면 남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서도 마

음대로 놋쇠를 녹여낼수 있을것이다.

옛글에 소일거리에 몰두하는자는 큰일을 치지 못하고 작은 수치를 이겨내지 못하는자는 큰 공을 세울수 없다고 하였는데 과연 뜻이 깊은 글귀렷다. 오늘은 비록 일을 쓰게 하지 못해서 큰 수치를 당했지만 그 수치를 씻고저 열백배로 분발하면 메득이의 죽음을 정녕 헛되이 하지 않을것이다.

《행수가 내 눈을 틔워주었소.》

《원, 말씀을 낮추소이다.》

《병마도감사님!》

세사람이 흥분에 휩싸여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방에 병마도감사님 계시오이까?》 하는 귀에 설은 목소리가 울렸다.

김충지가 얼른 일어나 문을 여니 문밖에 전복차림의 젊은 군사가 서있었다.

검은 관복을 입은 박원작을 본 군사는 문밖에서 깍듯이 절을 차리고 어깨에서 전대를 벗어들었다. 그는 전대속에서 가죽주머니를 꺼냈다.

《전 판북계병마사의 전령인데 공문서를 가져왔소이다.》

전령이라고 한 군사는 우봉전령이였다.

박원작은 문가로 다가가서 우봉전령이 내민 공문서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스승이 어떤 글을 써보냈을가?

박원작은 병마도감에 불상사가 일어난 그 이튿날 아침 서경류수부에 자리를 잡은 북계병마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였다.

병마부사가 병마도감의 실태를 그시그시 평로진에 내려가있는 최충에게 알리도록 되여있었다.

공문서를 읽어내려가던 박원작은 눈물이 솟구쳤다.

아, 스승의 은정은 정녕 하해에 비길수 있겠구나!

박원작은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물거리는 글줄을 더듬어나갔다.

《…몸을 돌보는게 자네의 제일가는 중임일세. 병들어 쓰러지면 천하인재일지라도 무용지물로 되고마네. 충정이 있으면 보답되

지 않는 일 없다는 말은 다 몸이 건강할 때 하는 소리네. 그대는 이 글을 받는 즉시 의술에 밝은 의원한테 병을 보인 다음 그 상태를 글로 써서 알리게.

불상사에 대해선 너무 마음쓰지 말라구. 큰일을 하는데 어찌 손실이 없을수 있겠나. 놋쇠는 나라에서 주는것까지 받아오면 넉넉하겠고 당장 천균노를 부어내자면 걸린것은 숯이겠는데… 숯 걱정은 마오. 내가 직접 맡아서 병마도감에 숯을 넉넉히 보내줄테니 마음놓고 병치료에 전심하오.》

박원작은 공문서를 품에 안고 목메여 불렀다.

《사부님! 사부님의 가르치심은 소생에게 정녕 금정옥액(특효약이라는 뜻.)이라고 할수 있소이다.》

이윽고 마음을 가라앉힌 박원작은 우봉전령에게 눈길을 주었다.

《스승의 글월을 가져와서 정말 고맙네. 그래 판병마사님은 무고하신가?》

우봉전령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판병마사님의 옥체가 별로 시원치 않소이다. 해소병에 걸려 약을 자시면서 성쌓는 군사들을 독려하고계시오이다. 그러시면서도 녕주에 말을 타고 가시여 병마도감에 보내줄 숯을 마련하도록 조처를 하셨소이다.》

박원작은 우봉전령의 손을 덥석 감싸쥐였다.

《나때문에 스승께서 그런 고생을 하시니 정말 면목이 없구만.》

《병마도감사님!…》

9

의원에게 병을 보이고 앓는 병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최충의 당부가 적힌 공문서는 박원작에게 힘으로 되였다.

친부모와도 같이 세심하게 돌봐주는 스승의 손길이 있는데 내 어

찌 기운이 나지 않겠는가!

해연은 또 그대로 즉시 《서경명의》라 이름난 대동강건너 의암마을에 사는 늙은 의원을 청해다 박원작의 병을 보게 하였다. 박원작의 몸상태를 깐깐히 살펴보고난 《서경명의》는 해연을 따로 만나 이 병은 적취(배안에 혹이 생기는 병)라는 아주 무서운 병이여서 빨리 손을 써야 하는데 자기한테 랑독(오독도기)이라는 약초가 딱 떨어져 지금 당장 약을 짓지 못하는것이 한스럽다고 하는것이였다.

알고보니 그 약초는 성주고을의 물금산(회창군)일대에서 나는것이였다.

이런 우연도 있담. 바로 물금산어방의 한 마을에 해연에게 이모되는 사람이 살고있었다.

의원은 해연에게 적취에 걸렸다는걸 본인이 알지 못하게 하고 그저 위완통(위염)을 앓으니 약을 쓰면 인차 나을거라 말해주라고 당부하였다.

위완통에 걸렸으니 의원이 지어주는 약을 쓰면 곧 병이 나을수 있다는 말을 듣고 더욱 기분이 좋아진 박원작은 아예 병마도감으로 침식을 옮기였다.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마도감으로 침식을 옮기는 박원작을 보는 해연의 가슴은 찢어지는듯 하였다.

남정네가 속탈이 생기는것은 대개 안주인이 음식대접을 잘하지 못하는때문이다. 아들이 골병에 든줄 시어머니가 안다면 땅을 치며 한탄할것이다. 한시급히 약초를 캐여다가 약을 지어야 한다.

해연은 서둘러 아들을 옆집에 맡겨두고 그길로 약초를 구하려 집을 나섰다.

한편 병마도감의 별관으로 침식을 옮겨온 박원작은 벌써 그랬어야 했다는 후회가 들었다.

진작 그렇게 했더라면 야경도 더 빈틈없이 짜고들수 있었을것이고 지금쯤은 천균노를 다시 만들어 시험사격까지 했을지도 모른다.

병마도감으로 침식을 옮겨온지 며칠 안되여 웃고떠드는 장공인들과 함께 있어서인지 배아픔도 덜해졌다.

병들었다 근심말고 웃으며 살라는 말이 과연 맞는것 같다.
박원작은 오늘도 아침일찍 깨여일어나 병마도감을 한바퀴 돌아보고 련장으로 나갔다.
그는 많은 숯이 들어올 때까지 여기저기서 모아들인 숯으로 뢰등석포를 부어낼 놋쇠를 녹이도록 하였다. 당장 작은 철덕에서라도 연기를 내뿜어서 련장을 들끓게 하고싶어서였다.
련장이 들끓어야 온 병마도감이 들끓게 되는 법이니까.
이번에 새로 부어내는 뢰등석포들은 새로 쌓는 평로진성과 녕원진성에 보내줄것들이다.
박원작이 련장에 들어서니 벌써 장공인들이 모두 나와 뢰등석포를 부어낼 거푸집을 빚고있었다.
박원작은 인사를 차리는 장공인들에게 답례를 차리고는 하던 일을 계속하라는 손짓을 하였다.
장공인들이 다시 일에 달라붙자 박원작은 련장뜨락의 한구석에서 거푸집을 빚고있는 군만이에게 눈길을 주었다.
군만은 심국종이와 한조이다. 원래는 메득이와 한조인데 그가 죽은 후 심국종이 그자리를 메웠다.
아직도 군만은 풀이 죽어 침울해있었다. 제 친구가 칼에 찔려 잘못되는것도 모르고 잠만 잤으니 죄책감도 커서였지만 그보다 많은 장공인들이 그를 외면해서였다.
하긴 그의 잘못을 누가 쉽게 용서해주자고 하겠는가.
불행중 다행이라면 재간좋은 심국종이 메득이를 대신한 그것이다.
사람은 얼굴보다 일이 고와야 곱다는 말은 심국종을 념두에 두고 생겨난듯싶다.
일밖에 모르는 심국종은 늘 봐야 제일 일찍 나오고 제일 나중에 들어가는데 오랜 장공인들 못잖게 거푸집을 얼마나 잘 빚는지 모른다.
박원작은 일손을 잡을가봐 념려하는 장공인들의 뜨거운 마음을 생각하여 근달이 가져다놓은 평상에 걸터앉았다.
눈길은 여전히 군만이에게 가있었다.

어깨가 축 처진 군만이 손을 한번 놀릴새면 심국종은 한번 더 움직였다.

뢰등석포의 거푸집을 빚는 일은 여간 까다롭지 않다.

모장에서는 청새진에서 파온 무른 곱돌가루를 이겨 목침만 하게 빚은 다음 거기에 각이한 형태의 창날을 제 생김새대로 파낸다. 그게 곧 창날을 부어내는 거푸집으로 된다.

그런 거푸집은 한번 잘 빚어놓으면 열스무번이고 련이어 창날을 부어낼수 있다.

하지만 련장에서 부어내는 뢰등석포의 거푸집은 몇번 써보지 못하고 마사져버린다. 그것은 뢰등석포가 창날과 달리 속도 비여있고 생긴 모양도 복잡하기때문이다.

게다가 뢰등석포는 한몸이 아니고 완구와 약통으로 구별되여있어 다른 《신기한 병기》들보다도 거푸집을 만들기에 품이 많이 든다.

완구의 거푸집을 빚으려면 완구와 꼭같이 생긴 완구모형을 써야 한다. 완구모형을 넓은 포아구리가 땅바닥에 닿게 세워놓고 그 속에 흙반죽을 잘 다져넣는다. 그것이 곧 완구의 속거푸집이다.

완구모형을 뽑아내서 처음과 반대로 거꾸로 세워놓고 그보다 큰 상자모양의 나무틀을 넣은 그사이에 흙반죽을 다져넣으면 그게 또한 완구의 겉을 이루는 바깥거푸집으로 된다.

약통실의 거푸집도 완구의 거푸집처럼 빚으나 그보다 좀더 까다롭다.

이렇게 빚은 거푸집들은 기와처럼 해볕에 말려 거푸집가마에서 구워내야 한다.

거푸집에 뢰등석포를 부어내는 일도 헐치 않다.

완구를 붓자면 바깥거푸집안에 속거푸집을 바로 넣고 놋쇠물이 닿을 자리에 보드라운 숯가루를 물에 타서 고루 바른다. 그래야 놋쇠물이 거푸집에 달라붙지 않는다.

약통도 그렇게 붓는다.

박원작의 눈길은 오랜 장공인들처럼 능숙하게 거푸집을 빚고 있는 심국종에게로 옮겨갔다.

심국종은 일만 고운게 아니라 마음씨도 그만 못지 않은것 같다.
장공인들의 말이 심국종이 자기들의 생일을 어떻게 아는지 매번 닭을 사보낸다고 했다. 그는 메득이의 장례에도 쌀 한섬이나 부조를 했다.
심국종은 잽싸게 손을 놀리며 군만이에게 말을 걸었다.
《군만이! 자네가 〈처용가〉를 곧잘 부른다는데 이런 날 한번 목청을 뽑아보게나.》
군만은 들은척도 않고 거푸집만 빚는다.
《여, 그러다 자네 입에 좀이 쓸어. 어서 부르라니까.》
그래도 군만은 대척하지 않았다.
《에라, 싱거운 일이지만 내가 대신 불러주지.》
심국종은 헛기침까지 깇더니 목청을 뽑았다.

동경 달밝은 밤에
이슥토록 돌아다니며 놀다가
돌아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로구나

둘은 내해였고
둘은 뉘해인고
본디 내해다마는
빼앗는걸 어찌하리

새된 청이였지만 련장의 분위기는 확 밝아졌다.
근달이 웃으며 소리쳤다.
《이 사람! 자네도 명창이군 그래. 노래를 참 잘 불렀어. 이왕이면 〈처용가〉에 깃든 사연도 구수하게 들려주게나.》
그 말에 심국종은 팔을 내저으며 대꾸했다.
《행수어른, 저같은 막놈이 그런것까지 알턱이 있소이까. 행수어른이 한말씀 들려주소이다.》
근달은 벌씬 웃었다.

《허— 제가 춤추고싶으면 동서에게 권한다더니 실은 나도 좀 마실군노릇을 하고싶어 그랬네.

그럼 다들 손은 부지런히 놀리면서 잘들 들어보게나.》

근달은 흙을 이기면서 큰소리로 이야기를 엮어내렸다.

《옛적에 선조의 나라 고구려가 천하에 위엄을 떨치고있을 때 그 남쪽에는 동족의 나라 신라가 있었다네.

신라임금은 아마 무던히 풍류를 즐긴것 같애. 글쎄 어디에 경치가 좋다는 소문만 들으면 만사 전폐하고 놀러 다녔으니까.》

박원작의 귀에는 근달의 이야기소리가 흘러들지 않았다. 그대신 갖가지 생각이 두서없이 떠오르면서 가슴에 근심이 괴여올랐다.

해소병에 걸린 스승이 약을 자시면서 성쌓기를 독려한다는데 병세는 좀 어떤지. … 아직도 북방의 바람은 맵짤터인데.

그런데도 스승이 병약한 몸으로 숯을 도맡아 보내주시겠다니 참 면목이 없는 일이다.

개경에 간 남권부는 지금쯤 놋쇠를 싣고 길을 달리고있을것이다. 놋쇠를 실으러 보낸 말들과 마차들은 내가 서경으로 올 때 나라에서 준것들이니 별일은 없을것이다.

김충지가 하는 일이 걱정된다. 그가 숯고간을 불지르고 메득이를 죽인 놈을 찾고있는데 그 일이 어느 정도 진척되였을가. 그런 일에 경험이 별로 없는 그가 스승의 뜻대로 나쁜 놈들을 밝혀낼수 있을가. 아니, 괜한 걱정, 그는 스승이 특별히 선발한 수제자가 아닌가.

그렇더라도 현장에 파수군을 더 늘여 불상사를 미리 막아내야 한다.

아, 어머니는 어떻게 살고계시는지. 스승이 개경을 떠나올 때 어머니는 앓고있다고 했었다. 늘그막에도 여전히 자식복이 없는 어머니다. 언제 가면 못다한 효도를 다해 어머니를 남부럽지 않게 모실수 있겠는지. …

개경의 군기감에 가있는 번기네들이 건강해서 맡은 일을 잘한다는데 이젠 기한이 거의다 찼으니 인차 돌아올것이다.

박원작의 생각은 어느덧 약초를 구하려고 떠난 해연에게로 이어지고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요란한 박수갈채가 편장칸을 흔들었다.

근달이 《처용가》에 깃든 이야기를 마치자 그것을 재미있게 듣고있던 장공인들이 터친 박수갈채였다.

그제야 두서없는 생각에서 깨여난 박원작은 입이 귀밑까지 돌아간 군만을 띠여보고 웃음을 머금었다.

과연 구수한 이야기야말로 일판을 흥성케 하는 비방이로구나!

10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는데 병마도감의 별관방에 누워있는 박원작은 둔하게 잡아뜯는 배아픔으로 하여 잠들수 없었다. 웃배만이 아니고 온 배가 아파나는데 밤에는 더 심했다. 며칠전만 해도 이따금씩 아프던것이 지금은 밤새껏 멎질 않는다.

위완통이 이다지도 아플수 있는가. 아픔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건 속병이 더 심해진다는걸 말해준다. 도대체 무슨 속병이기에 이렇게 배아픔을 견딜수 없을가.

방문으로 희붐한 빛이 흘러들었다. 날이 밝아오는것이였다.

《벌써 새날이란 말인가?》

박원작은 아픈 배를 움켜쥐고 일어나앉았다.

(해야 할 일은 많고많은데 몸이 계속 이 꼴이니…)

박원작은 자기불만에 울기가 뻗쳤다.

옛 성현들이 이르기를 뜻을 품은자 때를 만나면 결단코 분발하라고 했다.

임금까지도 천균노의 고고성이 울리기를 바라고 떠밀어주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있을것인가.

허나 잘 크는 호박에 쇠꼬치를 박는다고 하필 이런 때 몸에 병이 들건 뭐람!

박원작이 개탄을 하는데 《계시나요?》 하는 귀익은 녀인의 목소리에 이어 방문이 열렸다.

목소리의 임자가 애타게 기다려온 해연임을 안 박원작은 벌떡 일어나 방에 들어서는 그의 손을 꽉 움켜잡았다.

하루만 못봐도 장중보옥을 잃은듯 허전하던 해연과 열흘나마 떨어져있던 그였다.

《왜 이제야 왔소? 약보다도 임자가 그리워 죽을번 했소.》

《아이참…》

해연은 박원작의 몸을 어루만지며 울먹거렸다.

《그사이 더 축가셨군요. 이젠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나도 임자를… 놓아주지 않겠어.》

해연을 이끌어 아래목에 앉힌 박원작은 그의 손을 어루만지며 정겹게 물었다.

《이모님네는 다 편안하시오?》

《예, 다 잘 있소이다.》

해연은 들고온 약꾸레미를 내놓았다.

《이건 위완통에 특효약이라고 하오이다.》

해연은 어제밤 대동강을 건너왔다.

물금산에서 캔 랑독을 가지고 의암동의 《서경명의》를 찾아가 약을 짓느라 늦은것이였다.

의원은 일부러 환약을 지어주었다. 탕약을 마시면 약효가 빨라 좋기는 하나 일에 바삐 돌아가는 박원작이 한번도 번지지 않고 약을 먹게 하자면 가지고다니기에 편리한 환약이 더 좋다는것이였다.

약을 지어가지고 대동강을 건너오니 벌써 자정무렵이였다. 그밤으로 병마도감으로 달려가고싶었지만 밤도 너무 깊고 아들도 보고싶고 하여 경상골로 길을 바꾼 해연이였다.

《이 환약은 한번에 다섯알씩 하루 세번 식간에 자셔야 하나이다. 그럼 드시오이다.》

해연이 일어서려 하자 박원작은 물을 떠오려 한다는걸 알아차리고 그의 손을 잡아 제지시켰다.

《방안에 떠다놓은 물이 있소.》

박원작은 방 한구석에 둔 자라물병을 집어들었다. 늪에서 헤

염을 치는 물오리들이 그려져있는 상감자기물병은 전번에 최충이 가져다준것이였다.

박원작은 해연이 준 알약을 입에 넣고 씹었다. 쓰고 텁텁하여 절로 오만상이 찌프러졌다.

《어서 물을 마시오이다.》

《어, 그렇지!》

물을 들이켜 약을 삼키고난 박원작은 해연의 귀밑머리를 손가락으로 비다듬어넘겨주며 물었다.

《영준인 별일 없겠지?》

《예.》

축축히 젖은 대답소리에 박원작은 아비로서 자식에게 너무했다는 자책이 들었다. 어미품에서 떨어진 자식을 열흘나마 그냥 내버려두었으니…

《아이를 데려다 함께 있어야 하는건데… 내 잘못했네.》

《그런 말씀 마시오이다. 아픈 몸으로 병마도감을 움직이는것만도 힘에 부친데 어떻게 철부지아이까지 맡아보겠나요. 그애걱정은 마시오이다.

참, 듣자니 스승께서 숯을 보내주셨다면서요?》

《그렇소. 이젠 숯걱정을 안해도 돼.》

어제 오전에 숯을 가득가득 실은 여러대의 마차들이 병마도감에 당도했던것이다.

최충이 보내준 마차대였다.

일행을 이끌고온 우봉전령은 며칠후에 또 여러대의 숯마차가 들어올거라면서 숯은 념려말고 오로지 천균노를 만드는 일에 전심하라는 최충의 분부를 전해주었다.

《그럼 됐소이다!》

박원작은 부부일심으로 남정네의 일을 도우려는 해연의 마음에 감동되여 그의 어깨를 꼭 껴안아주었다.

이런 녀인을 안해로 맞은것은 복중의 복이려니 어찌 어려운 때 술지게미와 쌀겨를 함께 먹으면서 생사고락을 나눈 조강지처의 녀인에 못미친다 하랴!

×　　　　　　×

해는 박원작의 머리우에서 소리없이 웃고있었다. 그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다. 오늘같이 기쁜 날에 해가 웃지 않으면 언제 웃겠는가.

오늘 이른새벽에는 해연이 특효약을 가져왔지 방금은 또 남권부가 놋쇠를 가득 싣고 돌아왔으니 이렇게 복이 쌍으로 드는 날이 한해에 과연 몇번이나 있겠는가!

남권부가 돌아온것으로 하여 박원작은 병마도감의 일에 한결 마음이 놓였다.

박원작이 련장 한켠에 지은 놋쇠고간에 마차들을 들이대고 놋쇠를 부리는 장공인들을 흐뭇하게 지켜보고있는데 우물에서 손을 씻은 남권부가 다가왔다.

《박공, 내 다 들었소. 그새 불상사를 겪으며 고생이 많았겠소.》

박원작은 메득이의 장례를 치르던 일이 새삼스레 떠올라 한숨을 길게 내쉬였다.

《내가 괜한 말을 했구만. 그래 몸은 좀 어떤가?》

박원작은 웃어보이며 손을 내저었다.

《걱정말게. 좋은 약을 먹고있으니 인츰 깨끗해질거네.

참, 번기네들은 만나보았겠지?》

《아, 누구령이라구 감히… 자네 분부대로 그들을 만나보았네. 다 잘 있네.》

박원작은 남권부를 개경으로 보낼 때 군기감에 가있는 번기네들을 꼭 만나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도와주고오라는 당부를 했었다.

《군기감에서도 뢰등석포를 만드느라 불이 붙었소. 지중추원사 리공이 직접 내미니 어련할라구.》

그 소식도 박원작에게는 기쁨이였다. 리공이라면 리자연을 말한다. 누가 관심하여 내밀든 하나라도 더 많은 뢰등석포를 만들어 군사들에게 보내주면 나라에 그만큼 리득이다.

《번기 그녀석 정말 철없더군. 박공의 집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쩍하면 찾아다닌다더군. 박공의 모친이 욕을 보겐 됐지.》

《그렇소?》
박원작에게는 그이상 기쁜 소식이 없었다.
객지에 나가 남의 손에 밥을 얻어먹으면 더 배고프기마련이다. 그래서 번기에게 개경집을 대주며 꼭 찾아가라는 당부를 한 박원작이였다.
그것이 바로 서경사람들에게 진 신세를 다문 얼마만이라도 갚는것이고 그보다는 장공인들이 반상구별없이 병마도감사의 집을 제집처럼 드나들면 그만큼 천균노를 만드는 일이 진척될것이라고 생각한 그였다.
《그녀석들이 막무가내로 따라오겠다는걸 겨우 떼놓았소.》
박원작은 마음이 뭉클했다. 얼마나 병마도감이 그리우면 그러했으랴.
《군기감에선 언제까지 그들을 데리고있겠다고 하오?》
《군기감판사의 말은 적어도 한달쯤은 더 잡아두겠다더군. 그런데 그 량반 염초장을 왜 빨리 내오려 하지 않는가고 화를 내더군.》
박원작은 쓴입을 다셨다.
지난해 군기감을 찾아갔을 때 염초장을 그곳에 내오게 해달라는 군기감판사의 청을 들어주마고 약속했던 그였다.
천균노가 뜻대로 되였더라면 지금쯤은 군기감에 염초장을 내오도록 조치를 취했을것이다.
올해는 틀린것이니 명년엔 꼭 판사의 청을 들어주리라.
남권부는 정색해서 물었다.
《박공! 어이하여 집소식은 묻질 않나?》
박원작은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그거야 남공이 어련히 전해주지 않을라구.》
《사람두 참. 어머니병은 다 나았네. 그대 부인이 꾸려준 오승포와 메밀가루를 전해주니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칭찬이 대단하더군.》
박원작은 속이 후더워났다.
늘 그러했듯 해연은 이번에도 박원작이에게 알리지 않고 남권부편에 물건을 보내주었다.

《어, 그렇지. 어머니가 꼭 전하라고 하더군. 스승의 자제분이 의원도 청해오고 쌀도 피륙도 보내주니 집걱정은 말라고 말일세.》
박원작은 코허리가 시큰해지면서 눈물이 글썽해졌다.
그러니 스승의 아들 최유선이 박원작을 대신하여 어머니를 돌보고있는것이다.
(사부님! 스승의 은혜는 날로 덧쌓이기만 하는데 불충한 제자는 언제면 스승의 뜻을 다 따르려는지. …)
이윽고 박원작은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열었다.
《남공! 정말이지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어 고맙네.》
《아아, 그런말 말게. 난 할 일을 했을뿐일세.》
《그래서 고맙다는거지. 그래 개경형편은 어떤가?》
남권부는 별로 기분이 나지 않는지 뜨직뜨직 대꾸했다.
《년초부터 서녀진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찾아오는지 객관들이 터져나갈듯 하오. 시전거리엔 녀진사람들이 끌고온 말이 어찌나 흔한지 지난해 절반으로 말값이 뚝 떨어졌소. 그래서 병마도감에서 부리자고 말 몇필을 사왔소.》
박원작은 언제 봐야 병마도감부터 생각하는 남권부가 고마와 그의 손을 잡았다.
《남공! 난 공이 있어 마음이 든든하오.》
《아아, 그런 말말게. 그것도 내 할바를 했을뿐일세.》
《그래서 남공이지. 그건 그렇고. 시중어른은 무고하시오?》
《무고하구말구. 정초에 임금은 시중에게 안석(방에서 몸을 기대는 크고 두툼한 받치개)과 지팽이를 하사하시고 중대광의 벼슬을 더해주셨소. 시중은 임금이 하사한 지팽이를 짚고 군기감에 나와 내가 놋쇠를 받아싣는걸 봐주시였네.
참, 이번에 공부상서가 송악산좌우로 소나무를 심자는 표문을 임금께 올렸는데 그렇게 하라는 어지가 내려 온 장안사람들이 나무심는 일에 떨쳐나섰더군. 개경소식은 대체 그게 달세.》
박원작은 이름할수없는 격정이 끓어올라 가슴이 찡했다. 70고령의 서눌시중이 년로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마차에 놋쇠를 싣는 소소한 일까지 직접 돌봐주었다는데 나는 더 힘껏 일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

《박공! 아무래도 개경에서 가져온 놋쇠는 놋쇠장사군에게 갚아야 할가부네.》

그 말에 박원작은 몸을 흠칫했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말았다.

놋쇠를 꿔온 남권부가 그 주인에게 꿔온 량만한 놋쇠를 돌려주겠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으랴.

남권부는 천균노를 바라지 않는다는 리자연의 분부를 조금이나마 실행했다는것으로 하여 마음이 가벼워지는것 같았다.

11

다음날 정오무렵이였다.

박원작이 천균노를 다시 부어낼 작정으로 련장에 나가 장공인들과 철덕에 불을 지필 일을 의논하고있는데 말탄 두명의 벼슬아치가 전배후배사령들을 한무리 거느리고 병마도감에 들이닥쳤다.

벼슬아치의 한사람은 금어를 찬 중추원의 승선이고 다른 한사람은 진홍색공복에 붉은 띠를 띠고 은어(6품관부터 4품관임을 의미하는 은으로 만든 물고기모양의 장식품)를 찬 어사대(현행정사를 토론하고 모든 관리를 규찰하는 일을 맡은 중앙관청)의 시어사였다.

그들은 곧장 별관으로 들어가면서 박원작과 남권부를 불러들이라는 분부를 내렸다.

개경에서 고관들이 내려왔다는 전갈을 받은 박원작은 급히 남권부와 함께 별관으로 달려갔다.

별관에서 제일 큰 방에 들어선 박원작은 아래목에 틀지게 앉아있는 두 벼슬아치에게 깍듯이 절을 차렸다.

그들은 시답지 않아하는 눈길로 박원작의 절을 건숭 받고나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자리에서 일어선 승선이 비단보자기에 꾸린 종이말이를 꺼내

들며 갑자기 목에 피대를 돋구었다.
《어지를 받으라!―》
남권부가 먼저 종이말이를 펼쳐든 승선앞에 꿇어엎드렸다.
어지라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란 박원작은 어리둥절해하다가 급기야 무릎을 꿇고엎드렸다.
어지라니 무슨 어지가 내려왔을가. 천균노를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꾸짖는 어지일가.
이어 승선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는데 그 어조에서는 차디찬 랭기가 풍기였다.
《신 북계병마도감사 박원작은 불법무도하게 나라에서 그토록 중시하는 화약과 〈신기한 병기〉를 뽑아내여 타국과 장사를 하였다니 심히 불충불효하도다. 그대가 지은 죄 실로 엄중하기 그지없어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나 다년간 나라의 병기를 만들어낸 공적을 가상히 여기여 참형은 면케 하고 삭탈관직에 처하여 서민으로 종신 병마도감에서 쇠를 녹이는 역을 질지어다.》
박원작의 안색은 대번에 새까맣게 죽어버렸다. 이거야말로 청천벽력이 아닌가! 내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라의 재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면 터럭만큼도 다친적이 없는데 화약과 《신기한 병기》를 빼내여 그것도 타국에다 팔아버릴수 있는가.
아버지의 피가 스며있고 나의 땀이 바쳐진 그것들에 내 어찌 꿈에서나마 손을 댈수 있단 말인가.
하다면 이리도 엄청난 모함을 꾸며내여 어지를 내리게 한 놈은 누구일가. 내 생전 남에게 해되는 일은커녕 그런 말조차 내뱉은적 없는데 누가 과연 나를 죽일 명부를 들이밀었단 말인가.
《남공은 어지를 받으라!》 하는 승선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는 어찌나도 부드러운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근한 정을 느끼게 하였다.
《남권부는 마음이 착하고 어질뿐아니라 병기를 만드는 재주 또한 뛰여나 능히 나라의 중임을 감당할만 하다니 북계병마도감사로 봉하노라.
그대는 오로지 나라위한 충정을 안고 맡은 일을 잘해나갈지

어다.》
남권부는 방바닥에 이마를 조아리며 큰소리로 부르짖었다.
《신 남권부 성상의 은혜에 꼭 보답하겠소이다.》
남권부는 지금 막 자리를 차고일어나 덩실덩실 춤추고싶은 심정이였다.
산이 평지가 되고 평지가 산이 되였다면 바로 이런걸 가리켜 하는 소리일것이다. 박원작이 곁에 있는 한 벼슬길에서 물러설 때까지 그의 밑에서 잔시중이나 들줄 알았는데 도리여 그를 디디고올라 병마도감의 실권자가 되였다.
이게 다 리자연이 힘써준 덕이다. 그러고보면 리자연이 속도 깊고 도량도 넓은 큰 인물이다.
그는 분명 나를 제집에 불러들였을 때 벌써 박원작의 목에 든든한 올가미를 씌울 계책을 꾸미고있었을것이다. 그러고도 그것을 전혀 내색치 않았으니 정말 보통인물이 아니다.
하여간 리자연의 덕으로 병마도감의 주인이 되였으니 더 힘껏 재물도 모으고 그한테도 보은을 해야 한다.
또다시 승선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방안을 울리였다.
《남공은 일어나라.》
《황송하오이다.》
남권부는 방을 나서는 승선과 시어사의 뒤를 황급히 따랐다.
큰 방에 홀로 남은 박원작은 너무도 억울하여 몸부림을 쳤다.
책에 지은 죄로 하여 죄인이 되는 사람보다 남이 씌워준 죄아닌 죄로 하여 죄인이 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씌여졌는데 오늘에야 그 의미를 알겠다. 일 잘하는 충신을 시기질투하는 간신들이 조정에 도사리고있는 한 그놈들은 생사람잡이를 그만두지 않을것이다.
《아, 내가 품었던 뜻은 오늘로써 끝장났단 말인가.》
가만히 따져보니 어지에는 천균노를 빨리 만들어내라는 구절이 일언반구도 없었다. 하다면 임금은 이 박원작을 아예 역적으로 치부하다보니 천균노를 만들자던 국사마저 단념했단 말인가. 그게 사실일가.
박원작은 도리머리를 하였다.

백관을 모아놓고 어명으로 락착지은 그 일을 가볍게 줴버릴 임금이 아니다. 임금께서 천균노를 단념했다면 중죄인이 된 이 박원작을 정배지로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종신역을 살라 했겠는가.
박원작이 이런 생각으로 자기를 위안하고있는데 밖에 나갔던 남권부가 사기가 나서 들어왔다.
그는 아직도 꿇어앉아있는 박원작을 보고 비웃음을 지었다.
《이젠 편안히 앉게. 그 어른들은 서경류수부에서 쉬겠다며 그리로 가셨네. 그건 그렇고.》
남권부의 어조는 이전과 달리 오만하게 반말투였다.
《자네 오늘부터 관복을 벗고 평복차림을 해야겠어. 직첩(관리임명장)도, 타고다니던 말도 다 바치고 시비들도, 아, 그렇지. 집에 시비는 두지 않았으니 그건 일없겠고… 일은 자네가 마음에 드는 장에 가서 하게.》
《그래야지. 난 련장에서 일하겠네. 거기서 천균노를 만들어야 하니까.》
남권부는 성이 나서 소리쳤다.
《가만! 자네 그 말투부터 고쳐야겠어. 오늘까지는 그냥 내버려두겠는데 래일부턴 내앞에서 공손한 자세로써 자기를 소인이라고 해야겠어.》
박원작은 한숨을 내쉬였다.
삭탈관직을 당하고 서민이 되였으니 그렇게 처신하는것이 국법이다.
《알겠소이다.》
《좋아. 그리고 천균노는 만들수 없네.》
그 말에 박원작은 머리를 쳐들고 남권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수 있는가.
《천균노를 만들지 말라는건 내 말이 아닐세. 승선어른이 이르시기를 그건 바로 중추원의 지원사(리자연)의 뜻이고 또 성상의 뜻이기도 하다는거야.》
《아!―》
박원작은 탄식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니 나의 한가닥 기대마저 허물어져버렸구나.

팔짱을 끼고선 남권부는 조소에 찬 눈길로 박원작을 굽어보며 호령조로 말했다.

《내가 병마도감의 주인이 되고 자넨 서민이 되였은즉 화약의 비방을 내놓게.》

박원작의 가슴엔 금시 분노가 치밀었다. 물은 건너보아야 알고 사람은 지내보아야 안다더니 이제는 남권부 네가 어떤 사람인줄 똑똑히 알겠다. 그전에는 너에게 화약의 비방을 배워주고 군기감으로 올려보내려고 하였지만 이제 와서 상전에게 추종하여 천균노를 짓밟자고 하는데 내 어찌 네 요구에 굴복할수 있단 말인가? 박원작은 조소에 찬 눈길로 남권부를 쏘아보며 단호히 잘라 말했다.

《안돼. 그것만은 안된다!―》

남권부의 얼굴이 험악하게 이그러졌다.

《무엇이? 감히 어따대고. 아직도 제가 병마도감사인가 해? 염초장도 내가 다스리는 한개 장이고 너도 내가 부리는 일개 장공인이야. 난 국법에 따라 화약의 비방을 넘겨받아야 해.》

박원작은 말문이 막혔다.

남권부는 제 말대로 병마도감사의 직분을 따르고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화약의 비방만은 아직 그 누구에게도 내놓을수 없다.

그게 어떤 비방인가. 그것은 박씨가문의 비방이기 전에 나라의 제일가는 비방이여서 그것을 물려받을 명분과 자질이 부족한 남권부같은 사람에게는 목에 칼이 들어온대도 넘겨줄수 없다.

박원작이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자 남권부는 더럭 겁이 났다.

병마도감사의 자리까지 마련해준 리자연에게 화약의 비방을 가져다 바치지 않으면 그땐 끝장이다.

남권부는 언제 큰소리를 쳤던가싶게 약은 웃음을 짓고 박원작의 손을 잡았다.

《박공! 내가 너무한것 같소. 허지만 생각 좀 해보게.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이니 나도 어쩔수 없어 그러는거네. 일개 장공인이 된

자네가 화약의 비방을 가지고있다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나라 앞에 그보다 더 큰 죄가 있겠소?

난 병마도감사이기 전에 자네의 친구로서 박씨가문의 비방을 더 잘 지키고싶어 이러는걸세. 그것만 내놓으면 내 그대를 금방석우에 앉혀놓고 아무 근심걱정없이 잘살도록 해주겠네. 이건 내 진심이야.》

박원작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곧 그의 입술에서는 시뻘건 선지피가 흘러나와 턱을 랑자하게 적시였다.

12

백마에 올라앉아 애숭이전령에게 견마를 잡히고 거처지를 나선 최충은 사뭇 기쁜 얼굴로 산판을 둘러보았다.

천리장성을 쌓아나가야 하는 사방의 산판들에는 천고의 참나무숲이 끝간데없이 펼쳐져있다.

수수천년 사람의 발길이 미쳐보지 못한듯한 산마다에 아름드리참나무가 울창하여 하늘을 찌를 기세였다.

저런 산판에서 발을 자칫 잘못 내짚으면 한다하는 사냥군들도 길을 잃기가 십상일것이다.

왜 진작 저 산판들에서 숯을 구워낼 생각을 못했는지. …

어찌나 나무가 빽빽한지 수백명이 달라붙어 이 한골안의 참나무를 다 베여 숯을 굽자고 해도 십년은 실히 잘 걸릴것 같았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일석이조라고 할것이다. 장성공사를 하면서 아름드리참나무를 베여 굵은 토막으로는 숯을 구워 병마도감에 보내주고 가지는 땔감으로 쓰니말이다.

이런 좋은 일거리를 애숭이전령이 찾아낼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최충은 산판의 여기저기서 뭉게뭉게 타래쳐오르는 연기를 보며 서로 부르고 화답하는 군사들의 떠들썩한 목소리를 듣느라니 기분이 상쾌해졌다.

이제 더는 숯때문에 근심을 안해도 된다. 병마도감의 숯고간이 통채로 타버렸다는 비보를 받았을 때같아서는 사태를 인차 바로잡을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기껏 세웠다는 방책이 녕주대도호부사에게 숯을 내라는 령을 내린것이 고작이였다.

최충의 엄한 령에 못이겨 도호부사는 관청들에 가지고있던 숯을 모아 병마도감에 보내주었다.

허나 그런 분부도 한두번이지 어떻게 자꾸만 내리먹이겠는가.

며칠전 애숭이전령이 최충에게 자기 생각을 내비쳤다.

《소인이 숯구이를 좀 아는데 예서 숯을 구으면 참 제격이겠소이다. 여긴 사방이 참나무산이 아니오이까. 숯중에선 참나무숯이 으뜸인줄 아오이다.》

그 말이 최충에게는 대뜸 금같이 비싼 조언으로 들렸다.

그날로 최충은 즉시 채석장에서 백여명의 군사들을 떼내여 숯구이를 통이 크게 벌렸다.

쇠를 녹이는데서 참나무숯이 제일 좋고 그다음은 소나무숯이라고 하니 이곳에 무진장한 참나무로 숯을 구워 서경에 보내주자는 최충의 령에 군사들의 열성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단 며칠내로 숯구이가마를 여러개 쌓은 군사들은 밤낮으로 숯을 구워내고있었다.

《판병마사님!》

욕심스런 눈길로 산판을 둘러보던 최충은 애숭이전령의 부름소리에 그를 굽어보았다.

애숭이전령이 손을 들어 뒤쪽을 가리켰다.

《우봉전령이 오고있소이다.》

뒤를 돌아다보니 정말 우봉전령이 채찍질을 하며 말을 달려오고있었다. 서경에서 오는 길이였다.

최충은 한탄조로 입을 열었다.

《허참, 오늘은 숯구이막들을 돌아보려 했는데 또 발목을 잡히는군.》

거의 뒤따라온 우봉전령은 말우에서 껑충 뛰여내리더니 급히 뛰

쳐왔다.

《판북계병마사님! 서경에서 리공어른이 보내는 공문서를 가지고왔소이다.》

최충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경의 리공이란 서경에 떨궈놓은 리순일북계병마부사를 이르는 말이다.

공문서를 뜯어본 최충은 대경실색하였다.

박원작이 임금이 내린 어지에 따라 삭탈관직을 당하고 서민이 되였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만사전페하고 박원작의 일부터 바로잡아야 할것이였다.

13

박원작이 삭탈관직을 당하고 서민으로 되였다는 소문은 어지를 받은 그날로 온 병마도감에 짜했다.

병마도감은 벌둥지를 쑤셔놓은듯 하였다. 남권부가 병마도감사로 출세했다는것을 안 장공인들은 병마도감이 망했다고 울분을 터치였다.

박원작은 어지를 받은 그날 오후부터 관복을 벗어놓고 련장에 나가 일손을 잡았다.

불시에 닥친 도저히 예상치 못했던 이런 엄청난 사변은 그로 하여금 마음의 안정을 잃게 하였고 그러자 일시 기세를 숙였던 배아픔이 다시 용을 써댔다.

그의 배아픔은 남권부가 련장에 나타나서 이젠 천균노를 만들지 않으니 큰 철덕에 불을 지피지 말라는 령을 내린 다음 극도에 달하였다.

박원작은 그만 배를 그러안고 련장뜨락에 쓰러졌다.

놀란 장공인들이 그를 업어다 별관의 방에 눕히였다.

이 소식을 전해받은 해연이 사색이 되여 박원작을 찾아왔다.

해연의 병구완으로 박원작은 다음날에야 배아픔을 잊을수 있었다. 허나 그대신 머리가 쑤셔났다. 그것이 마음의 상처탓인줄 박원작은 잘 알고있었다.

남이 씌워준 중죄인이라는 루명을 쓰고 종보다도 못한 가련한 신세가 되였으니 이대로 살아서는 무엇하랴.

눈물을 머금고 미음을 떠먹여주는 해연을 보느라니 마음이 더욱 아파났다.

녀인이란 사내를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이다. 가난으로 고생하는건 대개 수다한 녀인들이 겪는것이니 그런 고생은 얼마든지 참을수 있는것이다.

참을수 없는건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제딴에 나라를 위한 큰일을 하려다가 졸지에 죽지 부러진 수리개꼴이 된 사내를 남정네로 둔 녀인이 겪게 되는 고생이다. 그런 고생은 극도의 가난에 견딜수 없는 심신의 고통이 동반되는것이여서 삶이라고는 말할수 없다.

해연이 바로 그런 고생을 당하게 하였으니 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것이다.

이런 마음의 괴로움으로 하여 박원작은 다음날에도 일어나지 못하였다.

박원작이 병상에 누워있은지 여러날이 지난 한낮무렵에 근달을 위시한 병마도감의 행수들이 병문안을 왔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행수들을 본 박원작은 더욱 가슴이 쓰리여 눈물부터 앞세웠다.

며칠사이에 산송장처럼 피골이 상접해진 박원작을 바라보며 행수들은 눈물을 흘렸다.

근달이 힘겹게 일어나앉은 박원작의 두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병마도감사님! 힘을 내소이다. 저희들은 누가 뭐라하든 오로지 병마도감사님의 뜻을 따르겠소이다.》

박원작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도 몹시 가늘었다.

《그러면 안되오. 난 중죄인이니 다시는 병마도감사라고 부르지

마오. 그래야 행수들도 무사할수 있소.》

근달이 부르짖었다.

《아니올시다. 우리 장공인들은 병마도감사님이 나라앞에 티끌만한 잘못도 짓지 않았음을 잘 알고있소이다. 오직 하나 나라를 위하여 세상에서 으뜸가는 병기를 만들려 애쓰는 병마도감사님 같은 충신이 어찌 제손으로 만든 병기를 가지고 돈벌이를 생각이나 할수 있겠나이까.

이건 다 어느 간신이 꾸며낸것인데 그걸 잘 알면서도 병마도감사님은 왜 자기를 스스로 죄인이라 탓하는것이오이까?》

그 말에 박원작의 두눈이 번쩍했다.

왜 진작 자기의 청백함을 까밝힐 생각을 못했을가. 이게 정녕 나라위한 큰뜻을 품었다는 사람이 할 태도인가.

근달의 목소리가 다시금 방안을 울렸다.

《우린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병마도감사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에 크게 소용되는 천균노를 기어이 만들어내겠소이다.》

박원작은 자기도 놀라울만큼 온몸에서 기력이 솟구침을 느꼈다.

천균노만 만들수 있다면 이 몸을 열백번 바친다한들 무슨 한이 있으랴.

박원작은 여러 행수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소.》

이번에는 돌석이 박원작의 앞에 꿇어앉아 입을 뗐다.

《병마도감사님은 화약의 비방을 하나도 념려마소이다. 소인이 죽으면 죽었지 그 비방만은 발설하지 않겠소이다.》

박원작은 가슴이 뭉클하여 눈물을 흘리였다.

물어보나마나 남권부가 화약의 비방을 내놓으라고 돌석이를 못살게 굴었을것이다.

장공인들이 입을 모았다.

《우린 누가 뭐라든 병마도감사님을 믿소이다.》

그 말이 박원작의 가슴을 쿵! 하고 울려주었다.

가슴속의 세찬 충격은 그순간 박원작으로 하여금 보다 새로운것을 불쑥 깨달아지게 하는것이였다.

처음에는 장공인들을 밥벌이때문에 시키는 일이나 받아하는 막사람이라고 하찮게 여겼다. 그러다 다년간 지내보면서 고심도 함께 하고 땀도 함께 흘려보니 장공인들도 나라를 위하고저하는 애국충정의 마음을 안고사는 의로운 사람임을 알았다.

허나 그들과 꼭같은 처지에 놓인 오늘의 시점에서 새로운 눈으로 이들을 대하고보니 장공인들이야말로 나라를 아끼고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고 바칠수 있는 그 누구보다도 충의로운 대장부들임이 불쑥 깨달아졌다.

아, 이들이 지닌 나라위한 마음과 절개는 진정 벼슬아치들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지극히 갸륵하고 지극히 훌륭한것임을 왜 진작 몰랐을가.

그것을 환히 깨닫고보니 자기로서도 꿈만같이 여겨져온 그 모든 성과들이 바로 이들, 서경사람들을 떠나서는 바랄수 없는것이였음을 흉벽을 치며 절감하게 된다.

이들이 아니였다면 아무리 병마도감의 주인이라한들 변변한 병쟁기 하나 새롭게 내놓지 못했을것이다.

화전, 수질노, 팔우노, 뢰등석포, 수질구궁노… 그 하나하나에 장공인들의 피땀만이 아닌 무수한 심혈도 바쳐져있으니 《신기한 병기》는 바로 그들의것이였음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장하고 의로운 일을 할수 있도록 추동하였을가. 박달조선의 혼과 동방강국 고구려의 장한 기상이 어려있는 서경의 기운이 그들로 하여금 벼슬아치들과는 비길수 없는 애국충정을 북돋아주었을가.

이런 감흥은 박원작에게 련속 새로운것을 또 깨달아지게 하였다.

그것은 짙은 안개가 말끔히 걷혀져서 깨끗이 드러난 강산의 형체를 보는것처럼은 아니더라도 어렴풋한것보다는 더 선명한것이였다.

선조들이 대대손손 물려준 겨레의 삶의 터전을 다지고 가꾸느라 한몸 바쳐 일할적에 흘리는 땀방울들이 바로 애국충정의 마음을 분출시킨것이니라.

옳다. 그게다. 백성들의 피땀이 슴배인 재물로 살아가는 벼슬아치들로서는 죽을 때 가서도 깨닫지 못할 진리가 바로 이 아닌가.

아, 내 주위에 이런 훌륭한 장공인들이 가득한데 이 박원작이 없다한들 천균노가 어찌 자기의 억센 웅자를 드러내지 못하겠는가. 이미 천균노는 장공인들의것이 되였다.

박원작은 돌석이의 손을 꽉 부여잡으며 부르짖었다.

《난 서경사람들을 믿소. 서경사람들을 말이요!》

돌석은 박원작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병마도감사님!-》 하고 목메여 불렀다.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최충이 들어섰다. 그의 뒤로 리순일과 남권부가 따라 들어왔다.

최충은 황급히 꿇어엎드리는 행수들을 둘러보며 나직이 일렀다.

《일어들 나오. 어서!》

행수들이 주섬주섬 일어서자 최충은 아직도 꿇어엎드린채 일어설념을 못하는 박원작을 부둥켜안았다.

《이 사람아!…》

최충의 목소리는 몹시 갈려있었다. 최충은 장성공사의 그 바쁜 속에서도 만사전폐하고 평로진의 본영을 떠나 곧장 여기로 찾아온것이였다.

최충의 손이 흐느껴우는 박원작의 몸을 어루만졌다. 바싹 여윈 그의 몸을 느끼였을 때 최충은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다.

《이 사람아,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왜 제몸을 돌보지 않았나말일세. … 자네가 할일은 아름찬데 몸을 생각지 않으니 어쩔셈인가.》

그 말에 행수들은 감동되여 눈물로 얼굴을 적시였다. 최충의 얼굴에서도 눈물이 흐르고있었다.

남권부만이 뱁새눈이 되여가지고 행수들에게 어서 나가라고 눈화살을 쏘아댔다.

그 눈화살에 쫓기운 행수들이 방을 나서자 이윽하여 최충은 눈굽을 닦고나서 남권부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그의 눈길에서 시퍼런 불길같은것을 느낀 남권부는 속이 한줌만해졌다.

《남공은 듣거라. 박공은 나라에 둘도 없는 재사이니 이 사람의 신상에 조금이라도 변이 생긴다면 내 결단코 그대를 용서하지 않

겠다.》
그 말이 남권부에게는 지옥사자의 호령으로 들렸다.
병마도감은 리자연에게가 아니라 북계군을 통솔하는 저 최충의 줌안에 들어있다. 그러니 최충의 비위를 상하게 했다가는 어떤 날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는것이다. 더우기 부월을 가지고 변방에 나온 병마사에게는 먼저 형을 실행하고 그다음 그 실태를 임금에게 알려도 되는 큰 권한이 부여되여있다.
박원작이로 말하면 최충이 오래전부터 손때를 묻혀 키운 수제자이고 또 그의 령만을 따라야 하는 수하이다. 반대로 이 남권부는 최충의 정적인 리자연과 한패이다.
남권부는 비로소 자기가 두개의 큰 쇠바퀴가 맞퉁기며 돌아가는 그 틈새에 끼운 신세임을 알아차렸다.
그러니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편에서도 저편에서도 치여죽이자고 할것이다. 이런 판국에서 살아남자면 최충과 리자연에게 다같이 발라맞추는 수다.
남권부는 아첨기를 가득 짓고 허리를 굽신댔다.
《아무렴 여부가 있겠소이까. 소인은 판병마사님의 수하이니 그 분부를 명심불망하겠소이다.》
최충은 쓰겁게 웃으며 남권부에게 일렀다.
《그대는 종전처럼 하던 일을 맡아하라. 천균노를 만드는 일은 이전처럼 박공에게 맡기겠다.》
남권부는 두눈이 올롱해서 목청을 돋구었다.
《천균노를 만들다니요? 천균노를 만들지 말라는건 중추원의 지원사의 뜻이고 성상의 뜻이라고도 하오이다.》
최충은 어이가 없어 한동안 남권부를 바라보기만 하였다.
저런 속물따위에게 마음이 어질고 착하며 병기를 만드는 재주 또한 뛰여났다고 치하하는 어지가 내렸다는것은 후세토록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이건 다 천균노를 만들어내는 일을 백방으로 방해하는 리자연이 그런 어지가 내려지도록 작당질을 하였기때문이다.
일신의 권세를 위해 못된짓도 가리지 않는 리자연의 턱밑에 붙어 저 살 궁리만 하는 저따위에게 나라의 큰 병마도감을 맡기였으

니 대성통탄할 일이다.

최충은 여기로 오기에 앞서 박원작의 무죄를 알리는 표문을 임금에게 올리였다.

표문에서 최충은 박원작을 복직시켜서 천균노를 만들자고 하였다.

최충은 그와 같은 글을 또하나 써서 서눌시중에게도 보냈다.

조정에 리자연이 틀고앉아있어서 당장 박원작을 복직시키기는 힘들어도 천균노를 만드는 일만은 중단말라는 어지가 내려올것이다. 아무리 리자연이 못되게 굴어도 임금의 안목을 전부 가리우지는 못할것이다.

《남공은 아직도 내 말뜻을 모르겠는가?》

추상같이 울리는 최충의 호령에 남권부는 몸을 떨었다.

분명 선견지명이 뛰여났다는 최충은 박원작의 일을 가지고 임금에게 간하는 글을 올렸을것이다. 그러했기에 어지를 받은 사람에게 그를 뒤집는 령을 당당히 내릴것이다.

남권부는 급히 꿇어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명심하겠소이다. 소인은 그전처럼 일하겠소이다.》

최충은 리순일에게 분부했다.

《병마부사는 염초장에도 군사를 파해 파수를 세워야겠소.》

《알겠소이다.》

최충은 직접 박원작을 부축하여 자리에 눕히였다.

《박공! 내 당분간 여기에 남아 천균노를 만드는 일을 돌봐주겠으니 자넨 몸조리에 전심해야겠네.》

그 말에 박원작은 감격했다면 남권부는 자기에게 차례진 병마도감사란 자리는 단지 명색뿐임을 절감하였다.

14

김충지는 오늘아침 병마도감이 아니라 서경류수부를 찾아떠났다. 요즘 그는 남들이 알아서는 안되는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있었

다. 처음에는 막연하게만 여겼던 그 일이 서경류수부에서 류숙하는 병마부사와 손을 잡은 다음부터 한고리, 한고리씩 풀려나가는것이 일하는 재미를 느꼈다.

그게 다 스승의 덕분이기도 하다.

요새 병마도감에 머물러있으면서 천균노를 만드는 일을 돌보고있는 최충은 리순일에게 김충지가 하는 일을 도와주라는 분부를 내리였다.

그래서 며칠전 그를 찾아가 병마도감에서 누가 잡입한 녀진인이고 특히는 남권부와 가까운 녀진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줄것을 부탁했다.

김충지가 남권부와 가까운 녀진사람들을 의심하게 된것은 그들속에 나쁜놈이 배겨있을수 있다고 한 심국종의 말을 새겨들은 다음부터였다.

리순일은 그날로 서경류수부의 호적을 뒤져 김충지가 알고저하는 사람들을 찾아냈다.

그들속에서 김충지의 주목을 끄는 사람은 남권부와 친교가 이만저만 아니라는 조득국이였다. 서경류수부의 사록참군사로서 진상품을 떼먹고 파직되기까지의 그의 래력이며 그이후로는 사냥을 한답시고 청새진의 이북으로 드나든다는 자료는 김충지의 의심을 부쩍 돋구었다.

그렇다면 조득국이 변방너머의 녀진부락들과 아니 접촉했다고 장담할수 없지 않은가.

김충지는 조득국을 과녁으로 정하고 그에게 의심이 가니 보다 더 그자를 구체적으로 파헤쳐달라는 부탁을 리순일에게 하였다.

그는 며칠만 말미를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오늘 그를 찾아떠난 김충지였다.

류수부의 객관에 이르니 마침 버드나무가 서있는 마당을 거닐던 리순일이 김충지를 알아보고 반겨주었다.

《김공! 그렇지 않아도 공을 찾아가려고 했소.》

리순일은 김충지를 마당 한켠의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다.

《그동안 내 좀 알아낸것이 있소.》 하고 허두를 뗀 리순일은 진

지한 태도로 말을 이었다.

《남권부가 쓰고사는 집말이요. 그 집이 글쎄 조득국이 준 집이라누만.》

《그게 참말이오이까?》

《그쯤에 놀라긴, 남권부의 집사람도 조득국이 소개해주었다고 하오.》

그 소리에 김충지는 께름하게 여겨지며 안개속의 인물이라 밉게 보던 남권부가 마침내 걸려들었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후두둑 높뛰였다.

이모저모로 사람들의 뒤손가락질을 받는자치고 뒤가 깨끗한자 어디 있겠는가.

《김공! 이번 새해때 남권부가 병마도감사네 집에 보내주었다는 그 노루와 사슴말일세. 그것도 다 조득국이 남가한테 가져다준거라오.》

김충지는 중요한 단서들이 련이어 풀려나오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김공! 놀라지 말게. 그때 짐작이 맞는것 같아. 조득국은 남권부와 사귀게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루차에 결쳐 적지 않은 은붙이를 안겨주었소. … 이번에 남권부가 어떤 장사치한테서 사다바쳤다고 하는 놋쇠도 기실은 조득국이 안북부에서 실어온것이라오.》

김충지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 웃음어린 리순일의 얼굴을 한동안 쳐다보았다.

《그… 그걸 어떻게 알아냈소이까?》

《허－ 뭐 별루 신기한건 아니요. 서경류수부에서 판관(4품～6품관)을 하는 사람이 내 친구인데 그한테 신세를 졌소. 그가 남권부네집 사환군을 남몰래 끌어다 엄하게 문초했소. 그자는 원래 조득국이네 집에서 사환질을 해먹댔는데 남가가 고리문결의 큰 집에다 살림을 펴자 조득국이 그한테 주었다누만.》

《아, 그렇게 됐구만요. 이젠 눈앞이 밝아지는것 같소이다. 조득국이 뭣때문에 친혈육도 아닌 남권부한테 집도 재물도 계집까지 안겨주었겠소이까.

분명 남가는 조가한테 신세갚음으로 뭔가 큼직한걸 주었을겝니다.》

《그건 명백하오. 제 잘못으로 해서 벼슬길이 막혀버린 조가는 변방너머의 녀진과 손을 잡았을것이고 그것들이 주는 재물로 남가를 매수하여 〈신기한 병기〉들을 뽑아갔을거요.》

김충지의 두눈이 번쩍했다.

《이번에 조득국 그놈이 3만근의 놋쇠를 남가한테 준걸보면 화약의 비방이나 천균노를 만드는 비방을 노리는것 같소이다. 일이 이쯤 되였으니 빨리 손을 써야겠소이다. 그놈을 잡아치웁시다.》

리순일은 급히 손을 쳐들었다.

《김공! 덤비지 마오. 옛말에 도적을 잡으려거든 놀래우지 말라고 했소.》

《그러다 그놈이 무슨 낌새를 채고 달아나버리면 나무아미타불이오이다.》

리순일은 김충지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이런 일에선 조급함은 금물이요. 근거가 좀 있대서 의심스런 놈들을 붙잡아치우면 다른 놈들은 다 숨어버릴거란 말이요. 이런 일은 네놈들이 뛰여야 벼룩이라는 배심을 가지고 배포유하게 그물을 든든히 친 다음 일격에 그물질을 해야 랑패가 없소.》

김충지는 그의 말이 옳게 여겨져 달아오른 가슴을 가라앉히였다.

《참, 남권부집 사환군의 말에 의하면 개경에서 왔다는 심국종이란 사람이 그의 집을 찾아왔댔다고 하오.》

김충지는 심국종이 한 말이 생각나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저도 아오이다. 심국종은 남권부와 한고향내기라고 하며 또 그의 연줄로 병마도감에 들어왔으니 그의 집을 찾아가는거야 당연하지요.》

리순일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만 생각할게 아닌것 같소. 사환군이 토설한데 의하면 심국종이 자주 남가한테 심부름군을 보내 뭔가 전했다고 하오. 일개 장공인이 심부름군까지 부릴수 있겠소?》

그 말에 김충지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을 지켰다.

병마부사의 말에 일리가 있다. 심국종이 돈이나 벌자고 왔다는데 무슨 돈이 많아서 장공인들에게 재물로 인심을 쓰고 지어는 독집까지 마련할수 있겠는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병마도감에 새 사람이 들어온 다음부터 불상사가 일어나고있다는 소문을 탓할수도 없다.

심국종의 언행들을 곰곰히 따져보니 그가 표리부동하고 염통을 두개 찬듯한 생각이 들었다.

《병마부사님! 전 오늘부터 심국종의 일거일동을 살피겠으니 병마부사님은 개경에 알려 그 사람의 래력을 캐보아주소이다.》

《아주 잘 생각했소. 이제야 김공이 제값을 탄것 갈소.》

김충지는 호탕한 웃음을 터치는 리순일을 새로운 눈길로 쳐다보았다. 40대의 리순일이 평범하게 생겼다지만 여간 학식과 견문이 넓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윽고 김충지는 시장기를 느꼈다. 그는 리순일을 만나려고 서두르다보니 아침끼식을 건넜던것이였다.

김충지는 정오가 다 되여오는데 함께 점심을 하자는 리순일의 권고를 마다하고 부지런히 거처지로 향했다.

집에 들어선 그가 아침겸 점심으로 밥을 먹고났는데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인 계시오?》

방에 누워 눈을 좀 붙이려 하던 김충지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게 누구요?》

《옳거니! 〈황도친구〉의 목소리가 옳다니까.》

《황도친구》라는 소리에 김충지는 무릎을 쳤다.

김충지를 개경에서 왔다고 해서 《황도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은 오직 한사람이 있을뿐이였다.

(절령역관지기로구나!)

김충지는 반가움에 사로잡혀 방문을 열어제꼈다.

정말 사립문밖에 절령역관지기가 서있었다.

김충지는 뜨락으로 뛰쳐나가 사립문을 열고 그의 손을 덥석 잡

았다.
《여길 찾아오다니… 어서 안으로!》
김충지에게 이끌려 뜨락에 들어선 역관지기는 등에 진 짐을 토방에 내려놓았다.
김충지는 의아해서 물었다.
《이건 뭐요?》
역관지기는 소리없이 웃으며 대꾸했다.
《노루네.》
《노루라니요?》
역관지기는 짐을 풀어보이며 자랑조로 말했다.
《언제인가 병마도감사어른이 심심풀이로 사냥을 하라면서 활을 하나 가져다주었네. 그 활이 얼마나 좋은지… 글쎄 쏘면 쏘는대로 명중이네. 그 활로 아들녀석이 사흘이 멀다하게 산짐승을 잡아오는데 어젠 이걸, 노루를 잡아오지 않았겠나.》
역관지기가 풀어보이는 보짐속에 정말 노루다리가 두짝이나 있었다.
김충지는 마음이 통쾌해서 소리쳤다.
《거 정말 대단하오이다. 산중에서 명궁이 났구만요.》
《명궁까지야 뭘…》
《헌데 고기는 집에서나 먹을것이지 왜 가져왔소이까?》
《우린 실컷 먹었네. 사실 이 노루다리는 활을 주신 병마도감사어른에게 인사차림을 하자고 가져온건데… 그 어른은 집떠나온 〈황도친구〉가 고생한다면서 여기로 가져다주라고 하더군.》
김충지는 속에서 뜨거운것이 치밀어오름을 느꼈다.
어쩜 박원작은 마음이 그리도 어질가. 골병든 몸에 억울한 죄까지 쓰고 천균노를 만들어내느라 고생이 많은데 어쩌다 차례진 색다른 음식감을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주게 하다니…
지내볼수록 박원작이 천금같은 사람이라는것을 알수가 있다.
방에 들어선 역관지기는 찾아온 용건을 털어놓았다.
《내가 오늘 자네를 찾아온건 다름이 아니라 자네가 부탁했던 그 일때문일세.》

김충지는 긴장해졌다.

김충지는 박원작이와 함께 절령역참에 들렸을적에 역관지기를 남모르게 따로 만나 긴한 부탁을 했었다.

북계병마도감에서 소감벼슬을 하는 사람이 개경에 보내는 공문서가 있거들랑 날자들을 적어놓으라고 하였다.

이미 개경에서부터 리자연과 학우인 남권부를 의심하고있던 그는 어느 역참이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귀여서 그런 부탁을 하려했다.

서경을 가까이했건만 그 적임자는 물색하지 못해 안타까와했는데 박원작과 가까운 절령역관지기를 보니 마음에 든것이였다.

역관지기는 박원작의 수하인 김충지의 부탁을 쾌히 들어주었다.

그렇지 않아도 역참에 들려갈 때면 괜히 우쭐해서 생트집을 잡아 역졸들을 들볶던 남권부를 좋지 않게 여겼댔는데 그의 뒤를 파는 기미를 느끼자 김충지를 돕고싶은 마음이 우러난것이였다.

김충지는 그런 부탁을 하였으나 절령역참에 가보지는 못하였다. 한것은 그만 남권부를 살펴보는 눈이 어두워져 그를 성실한 사람으로 잘못 알고 절령역관지기에게 부탁했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때문이였다. 그런데 지금 역관지기가 일부터 찾아왔으니 필경 무슨 단서로 될만한것을 가져왔을것이였다.

《어서 말씀하시오이다.》

《그동안 병마도감의 소감이란 사람의 이름으로 례빈성에 보낸 공문서가 몇장 되네.》

《례빈성에요?》

이건 무슨 놈의 감투끈같은 소리인가. 남권부가 례빈성에다 공문서를 띄우다니… 그가 무엇때문에 하등 저와는 관계가 없는 례빈성으로 공문서를 보낸단 말인가.

《례빈성이 적실하오이까?》

《적실하지 않구. 례빈성판사앞으로 보냈네. 믿어지질 않으면 이걸 보게나.》

역관지기는 허리춤을 뒤지더니 염낭에서 종이쪽지를 꺼내주었다.

종이에는 남권부가 례빈성에 보낸 공문서들이 절령역에 당도

한 날자가 적혀있었는데 매번 례빈성판사 리공에게 올린다는 글이 씌여져있었다.

례빈성판사 리공이라면 리자연의 동생이 아닌가.

이건 정말 모를 일이다. 남권부가 정말 리자봉에게 그런 공문서를 보냈다면 여기에서 뭔가 긴요한걸 알아낼수 있을것이다.

이걸 꼭 알아내야 한다.

《일랑이 아버님! 정말 긴한걸 알아다주었소이다. 이제 남권부가 례빈성으로 보내는 공문서가 있거들랑 그걸 꼭 고생스러워도 가져다주소이다.》

《고생이랄게 있나. 내 꼭 그러하겠네.》

《이거 무슨 말로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역관지기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그런말 말게. 난 이 일을 병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는걸세. 그러니 다시는 인사고 뭐고 하는말 말게.》

《예, 예. 그렇게 애써보겠소이다.》

역관지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 또 찾아오겠으니 잘 있으라구.》

김충지는 바빠맞아 역관지기의 옷자락을 부여잡았다.

《왜 가시겠다고 하는겁니까? 점심참인데…》

《아아, 별다르게 생각 말게. 점심을 끓여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

그 말에 김충지는 웃음이 났다.

점심을 마련해놓고 역관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이 간다.

김충지가 서경에 올 때 역관지기의 아들 일랑이가 서경성에 작은어머니가 산다고 했었다.

작은아버지이면 작은아버지이지 작은어머니라 하기에 그게 이상하여 일랑이에게 슬그머니 물어보니 홀로 사는 서경어머니가 자기를 친자식처럼 끔찍이 대해준다고 하였다.

김충지는 직판 물었다.

《그 사람이 소실은 아니겠지요?》

역관지기의 얼굴이 벌개졌다.
《허— 자네 눈은 매눈 한가지일세그려. 아닌게아니라 그쯤되는 녀인일세.》
김충지는 기뻐 역관지기의 손을 잡아흔들었다.
《거참 잘됐소이다. 아무렴 마음에 둔 녀인이 해주는 밥이 얼마나 달다구요. 그런데 왜 모여살지 않소이까?》
역관지기는 가벼운 한숨을 지었다.
모여살면 좀 좋겠는가. 서경녀인을 사귄지도 벌써 이태가 지났는데…
이태전 어느 봄날 한 녀인이 무거운 임을 이고 절령고개를 넘어왔다. 해가 반쯤 서산으로 기운무렵이였다.
녀인은 임이 무거워 더 걷기 힘든지 역참마당에 짐을 내려놓고 주저앉았다.
역말들에 꼴을 가져다주던 역관지기는 그 녀인을 띠여보고 어데가는 나그네인가고 물었다.
녀인은 자기는 서경성에 사는데 봉주고을 친정집을 찾아간다고 하였다.
봉주고을이라면 절령역참에서 아직 수십리는 더 가야 했다.
역관지기는 생각다못해 역말을 끌어냈다. 그리고 녀인을 뒤에 태우고 말을 달려 친정집까지 데려다주었다.
그 녀인이 며칠후 은혜갚음으로 옷을 한벌 지어가지고 역관지기를 찾아왔다.
그날 역관지기는 그 녀인이 홀로 사는 녀인임을 알게 되였고 그 녀인 역시 역관지기가 아들아이 하나를 거느린 홀아비라는것을 알았다.
이렇게 알게 된 두사람은 자주 오가면서 더욱 정을 깊이하였다.
과부와 홀아비가 모여사는것은 당연한 일이라지만 역관지기는 절령같은 험지로 그 녀인을 데려다가 고생을 시키고싶지 않았다. 그래서 역관일을 그만두고 서경에 나가겠으니 그때 함께 모여살자고 녀인과 약속을 하였으나 하루이틀 미루다보니 오늘에 이르게 되였다.

《자넨 아직 젊어서 다는 몰라. 큰 도회에서 사는 녀인이 절령같은 험한 고장에서 어떻게 산다고 그러나. 일랑이 에미도 고생만 시키다가 보냈는데…》

김충지는 가슴이 찡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이윽고 김충지는 채롱속에서 비단천을 찾아들었다.

시전거리에 나갔다가 서경의 비단이 유명하다기에 안해에게 주려고 산것이였다.

《이걸 제 성의로 알고 받아주소이다.》

《원 사람두… 하여간 고마우이.》

사립문밖에 나가 절령역관지기를 바래주는 김충지는 마음이 아팠다.

저렇게 어지고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어이하여 고생이 기를 쓰고 따라다니는것인지…

15

박원작의 삭탈관직으로 하여 나갔던 집같았던 병마도감이 최충의 행차로 다시 흥성거렸다. 최충은 삭탈관직된 박원작이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천균노를 부어내서 그 위력사격을 치를 때까지 병마도감에 묵을 작정이였다.

병마도감을 일일이 돌아보고난 최충이 먼저 벌려놓은 일은 큰 철덕에 불을 지피는 일이 아니라 닭싸움놀이였다.

사기가 저락된 사람들을 일에 성수가 나게 하자면 우선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는것이 그의 지론이였다.

병마도감의 넓은 마당에 벌려놓은 수닭들의 싸움을 구경하려 장공인들만 아니고 그들의 식솔까지 모여들어 사람사태가 났다.

죽을둥살둥 모르고 맞붙어 싸우는 닭싸움놀이에 이어 씨름이 벌어졌다.

이로써 장공인들은 활기를 되찾게 되였다.

최충은 리자연의 모함으로 박원작이 비록 삭탈관직은 당했지만 그가 천균노를 만드는 일에서 그 누구에게도 구애됨이 없이 일할수 있도록 내세워주었다.

워낙 장공인들속에서 인망이 컸던 박원작인데다가 판북계병마사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최충이 힘껏 떠밀어주니 그의 분부를 온 병마도감이 이전처럼 받들었다.

박원작은 큰 철덕들에 불을 지피고 잘못된 천균노를 깨여두었던 놋쇠를 녹이도록 하였다.

최충이 지켜보는 속에서 온 병마도감이 달라붙어 천균노를 새롭게 부어냈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온 병마도감이 모여들어 천균노의 거푸집을 뜯어냈다.

우람찬 동체를 드러낸 천균노는 티끌만한 흠집 하나 없었다.

그야말로 만사 뜻대로 된 일대 거사였다.

누런빛을 번쩍거리는 천균노를 둘러싸고 춤바다가 펼쳐졌다.

박원작은 천하가 아직 모르는 거대한 화포를 보란듯이 당장 대동강변으로 끌고나가 서경땅이 들썩하게 포성을 울리고싶었다.

그러나 시험사격의 관례를 지켜야 했다.

하여 박원작은 천균노를 병마도감의 뒤골안에 있는 사격장으로 옮겨가도록 하였다.

천균노를 사격장으로 실어가는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였다.

이미 3만근의 무게에 견딜수 있는 든든한 수레를 만들어놓았기에 즉시로 천균노를 실어갈수 있었던것이다.

박원작은 천균노를 만들면서 그 명중률을 높이기 위한 생각을 했었다. 화포의 명중률을 높이자면 화포를 바른자세로 앉혀놓아야 한다.

천균노는 뢰등석포와는 비길수 없는 대단한 거물이다. 단번에 수십근이나 되는 화약을 재워야 하니 화약 터지는 힘을 헤아리기 어렵다. 나무로 만든 포가는 그런 충격에 견디지 못할것이다.

하긴 천균노란게 명실공히 이 땅을 침노하는 외적을 단숨에 제압하고저 만든 화포이니 바위돌로 든든히 축대를 쌓고 거기에 올

려놓으면 좋을것이다.
박원작의 분부에 따라 장공인들은 미리 천균노의 포가를 바위돌로 쌓아놓았다.
든든한 포가우에 천균노를 차려놓으니 그 웅자가 더욱 볼만하였다.
천균노를 뒤끌안으로 옮겨놓은 그 이튿날 천균노를 만드는 일을 중단말라는 임금의 어지가 내려왔다.
어지를 받은 박원작은 너무도 감격하여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비록 삭탈관직은 바로잡히지 않았지만 천균노를 만들어내라는 어지까지 받았으니 뜻을 이룰수 있게 되였다. 이게 다 스승이 힘써준 덕이다.
최충은 서눌시중이 써보낸 글도 받았다.
글에서 시중은 박원작을 복직시키는 일을 반드시 성사시키겠으니 그가 주저앉지 않도록 내세워주라고 당부하였다.
이쯤 되였으면 박원작은 스승이 곁에 없어도 이전처럼 하고싶은 일을 마음대로 내밀수 있다.
병마도감에 나와서 별로 하는 일없이 박원작의 뒤를 따라다니는 남권부는 줄타기를 하는듯한 심정이였다.
보름안팎에 자기 신세가 이렇게까지 뒤집혀질줄은 몰랐다.
이제 와서 병마도감사 자리는 그에게 거치장스러울뿐더러 살을 슬슬 내리게 하는 말썽거리였다.
만나는 장공인들마다 더러운것을 보는듯 고개를 외로 트는데 그게 다 남의 자리를 앗아가졌다는 말을 못해 그러는게 아니고 뭔가.
행수들의 눈길도 곱지 못하다. 돌석이는 더 심하다. 화약의 비방을 내놓으라고 강박했던 일로 해서 그는 멀리서 보기만 해도 매섭게 눈을 치뜨는데 그 눈길에서 불찌가 튀는것 같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자칫하다가는 장공인들에게 뭇매 맞아 병신이 될수 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화약이며 《신기한 병기》들을 몰래 빼여다 조득국이한테 팔아먹은 사실이 탄로날가봐 두려웠다.
괜히 남모르는 그 일을 박원작이에게 들씌워가지고 최충을 성나

게 하였으니 그가 나서면 진상은 백일하에 드러나고말것이다.

이럴줄 알았으면 어지를 받던 날 박원작이한테 못되게 굴지 않는건데… 이제 와서 눈물을 흘리며 한탄할게 없다. 앞으로 무사하자면 낯 간지럽다고 해도 박원작이에게 낯추붙는 수다.

남권부는 해질녘에 최충을 찾아가서 병마도감사자리를 내놓겠다고 아뢰였다.

《아직은 그대로 있소. 재삼 당부하건대 박공이 하는 일에 자그마한 훼방도 있어서는 안되겠소. 내가 지켜보고있다는걸 한시도 잊지 마오.》

최충의 말에 남권부는 등골이 서늘해져 몸을 떨었다.

16

천균노를 지체말고 만들어내라는 임금의 어지를 받은 다음날 병마도감의 뒤뜰안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황보영류수가 서경류수부의 관원들까지 거의다 거느리고 나와서 더욱 흥성거렸다.

박원작이 선발한 열댓명의 장공인들이 천균노앞에 나와서자 관중은 숨을 죽였다.

박원작의 눈길은 이전과 달리 몹시 긴장되여있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되는 거대한 화포의 첫 포성을 울려야 하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박공! 침착하라구.》

최충의 일깨움에 박원작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래서인지 마음이 한결 가라앉았다.

박원작은 숨을 크게 내쉬고 최충에게로 돌아섰다.

《사부님! 그럼 시작하겠소이다.》

《시작하게.》

박원작은 근달이네들에게 돌아섰다.

《드디여 천균노의 포성을 울릴 때가 왔소. 솜씨를 보여주소.》

《알겠소이다!》

박원작은 최충을 부축하여 천균노에서 멀찌감치 물러섰다.

천균노를 둘러싼 장공인들이 재치있게 일손을 놀렸다.

군만이 날래게 요자를 들어 천균노의 포아가리에 화약을 쏟아부었다.

그러자 김충지가 고무래처럼 생긴 화약다지개를 포아가리속으로 들이밀었다. 그는 꼼꼼히 화약을 다져넣고 화약다지개를 뽑아냈다.

이번에는 심국종이 절구통같이 생긴 큰 격목을 안아다 포아가리속으로 밀어넣었다.

근달은 격목이 격목통에 바로맞추어졌음을 확인하고는 웨쳤다.

《돌탄을 넣게!》

천균노의 곁에 삼백근짜리 돌탄이 몇개 있었다. 노통장에서 깎은것인데 두아름이 잘되였다.

여러 장공인들이 멍석에 둥근 돌탄을 담아들고 천균노의 아가리에 들이밀었다.

매끈하게 잘 다듬은 둥근돌탄은 제자리인듯 포아가리로 깊숙이 들어갔다.

근달은 포아가리를 들여다보고서야 박원작을 쳐다보았다.

박원작은 근달의 눈길에서 천번중 한번의 실수라도 있을가봐 우려하는 그의 마음을 읽을수 있었다.

《별일 없을테니 마음놓고 불을 다시오이다.》

박원작의 자신있는 어조에서 힘을 얻은 근달은 불화로에서 시뻘겋게 단 화심을 집어들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오로지 근달의 한몸에 쏠려들었다.

근달은 이를 사려물고 화심을 천균노에 가져다댔다.

치익—

불심지에서 짙은 연기가 타래쳐올랐다.

긴장한 시선들이 불심지를 지켜본다.

박원작은 한치한치 타드는 불심지를 지켜보느라니 가슴이 빠질빠질 타는듯 하였다.

근달에게는 선뜻 불을 달라는 분부를 내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는 불안의 그림자가 고개를 쳐들었다.

일이란 생각대로만 되는것이 아니다. 미끈하게 빚은 천균노가 몇십보밖에 돌탄을 날리지 못하거나 터지는 화약의 힘에 견디지 못하고 깨져버린다면?… 아, 이 무슨 망녕된 생각이람.

품들인것만큼 결과를 이룬다는데 천균노는 마땅히 자기의 세찬 위력을 보여줄것이다.

별안간 땅이 움씰하며 지축을 울리는 굉장한 포성이 울렸다.

꽝!—

골안이 함몰되는듯한 느낌에 박원작은 가슴이 후두둑 높뛰였다.

화포와 함께 늙어가는 박원작이조차 포성에 깜짝 놀랐으니 다른 사람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사내들이 겁결에 몸을 떨었다면 아녀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질렀다.

삽시에 관중들은 서로 몸을 기대며 갈팡질팡하였다.

최충도 황보영도 혼겁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온 골안이 떠나갈듯 요란한 포성을 울린 천균노의 포아가리에서 황룡이 하늘로 날아오른듯 자욱한 안개가 구름처럼 피여올랐다. 그것은 매캐한 화약내를 풍기는 내굴이였다.

천균노에서 솟구쳐오른 수백근짜리 큰 돌탄은 백여보앞에서 떨어졌다.

돌탄이 떨어지면서 타래쳐올린 요란한 흙먼지기둥을 본 사람들은 너무 좋아 환성을 올렸다.

박원작도 몇길높이로 타래쳐오르는 흙먼지기둥을 보았다.

허나 그는 천균노의 몸체가 무사한지 그것부터 몹시 알고싶어 앞으로 달려나갔다.

천균노에 다가가서 보니 그것에는 아무런 흠집도 없었다.

《됐구나, 됐어!》

박원작은 더할나위없는 기쁨에 사로잡혀 《보라, 우린 해냈단 말이요. 다들 보시오이다.》라고 소리치고싶었다.

지금껏 숱한 병기를 만들어냈지만 이렇게까지 흥분한적이 없는 박원작이였다.

근달이며 장공인들이 와— 소리치며 천균노를 둘러쌌다. 그들은 천균노를 부둥켜도 안아보고 어루만져도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젠 됐소이다.》

근달은 고랑진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박원작의 팔을 부둥켜잡았다.

최충은 기쁨속에 우는 장공인들을 보며 마침내 천균노가 성공했음을 믿어마지않았다.

이런 때는 무슨 말로 장공인들을 칭찬해야 하는가.

최충은 박원작의 어깨를 두드리며 입을 열었다.

《끝내 해냈구만!》

그순간 박원작은 돌탄이 분명 백여보앞에 떨어졌다는것이 생각났다. 그는 방금전과 달리 랭정해졌다.

다른 사람들은 돌탄을 백보정도 날린 천균노를 보고도 대단하다고 여길지 몰라도 박원작이로서는 기뻐할것이 못되였다.

그는 천균노를 다시 부어내면서 그것으로 적의 충차만을 족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보다는 천보 아니 수천보 멀리로 돌탄을 날려보내 먼곳의 적진까지도 송두리채 들부시려고 하였다.

천여보 멀리에 진을 친 적진에 아름드리 돌탄이 날아드는 광경을 상상해보라. 그야말로 온 적진을 혼비백산케 하는 일대 장거로 될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천균노로는 기껏 백여보정도밖에 돌탄을 날릴수 없다. 물론 그것으로도 성가까이 달려드는 적의 충차쯤은 묵사발낼수 있다.

왜서 천균노가 포성에 비해 힘을 쓰지 못하는걸가.

박원작은 지금껏 다진 학식과 경험을 다해 그 까닭을 파고들었다.

그대로 순간순간이 하루맞잡이였다. 천균노에 다져넣은 수십근의 화약이면 수백근짜리 돌탄을 얼마든지 천보이상 날려보내야 한다.

그는 곧 천균노에 문제점이 있는것이 아니라 화약에 무슨 쪼간이 있겠다는 결말에 이르렀다. 그것을 확신하려면 천균노를

또 쏘아보아야 했다.

박원작은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다.

《천균노를 다시 쏘겠소.》

박원작의 분부에 술렁대던 사람들이 조용해서 제자리를 차지했다.

장공인들이 다시금 천균노에 달라붙었다. 장약을 한 천균노에 돌탄이 재워졌다.

근달은 몇번이나 천균노를 들여다보며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하고서야 웨쳤다.

《불을 달겠소이다.》

《가만!》

근달을 제지시킨 박원작은 제가 직접 화로에서 화심을 집어들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화심을 불심지에 가져다대는 박원작을 지켜보았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는지…

꽝—

골안을 태질하는듯 요란한 포성이 지축을 때렸다.

거대한 포아가리를 크게 벌린 천균노에서 육중한 돌탄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사람들의 틀어쥔 주먹마다에 땀이 내배였다.

요란한 포성에 이어 불과 백보정도앞에서 흙기둥이 타래쳐올랐다.

이번에도 천균노는 끄떡없었다.

아직도 천균노의 결함을 알리없는 사람들은 또다시 기쁨에 넘쳐 환성을 올렸다.

박원작은 터벅터벅 걸어 땅바닥에 구겨박힌 돌탄앞에 나가섰다.

완전한 성공이 아니며 그 원인은 천균노가 아니라 화약에 문제점이 있는것 같았다. 그래서 자기도모르게 두손으로 배를 그러안았다.

박원작의 모습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낀 최충이 급히 그에게로 다가갔다.

《이 사람, 박공! 웬일인가?》

최충을 향해 돌아선 박원작은 배아픔을 감추고 대꾸했다.

《선생님! 면목이 없소이다. 이 골안 끝까지 돌탄을 날리는 천균노의 장쾌한 모습을 보여드리자고 했는데…》

최충은 병색이 짙은 박원작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니 랑패라는건가? 아니, 자넨 랑패보지 않았어. 보다싶이 천균노는 무거운 돌탄을 허공으로 날려보냈네. 무엇보다 자네가 무사하고 천균노도 무사하니 이 골안 끝까지 돌탄을 날려보내는건 어렵지 않네. 난 웃으며 장성쌓으러 돌아가려네. 그러나 자넨 그 어느때보다도 몸을 잘 돌봐야겠네.》

박원작은 나무랄대신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최충의 손을 부둥켜잡고 눈물을 머금었다.

《사부님! 제 기어이 천균노를 뜻대로 만들어내겠소이다.》

《암, 그래야지. 난 자네를 믿네. 자 오늘은 절반쯤 뜻을 성취한 날인즉 풍악을 울려야지.》

《사부님!…》

제 4 장

1

박원작은 병마도감의 마당가에 줄맞추어있는 오얏나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잎새가 무성한 오얏나무들에서 주렁주렁한 열매가 눈길을 끌었다.

오얏꽃이 하얗게 피였던것이 엊그저께같은데 벌써 오얏이 저렇게 컸다.

대추보다도 훨씬 커진 오얏열매를 바라보느라니 올해는 절기가 어떻게 지나는지 알지 못하고 산다는것을 다시 절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일에 부대끼며 시간에 쫓기다보니 언제한번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지 못했다.

박원작은 오얏열매를 손더듬하며 한숨을 내쉬였다.

련장에서 놋쇠를 녹이느라 연기가 보기 좋게 타래쳐오르고있지만 이전처럼은 즐겁지 않았다.

지금 련장에서는 근달이 장공인들을 휘동하여 밤새 불을 땐 철덕에서 뢰등석포를 부어낼 놋쇠물을 받자고 차비를 하고있을것이였다.

판북계병마사 최충은 평로진으로 돌아가면서 실패한 천균노의 부족점을 찾아내는 동안 기세를 떨구지 말고 뢰등석포를 힘차게 만들어내라는 당부를 하였다.

새로 쌓는 진성들에 뢰등석포가 많이 요구되기때문이였다.

하여 작은 철덕에 불을 지폈지만 박원작의 마음은 울적하기만 하

였다.

수레를 메울 하늘소 몇마리가 말 한필을 당할수 없듯이 뢰등석포를 많이 부어낸단들 천균노 한문을 당할수 있으랴.

허리부러진 장수꼴이 된 천균노를 열흘나마 그대로 내버려두고 속수무책하고있으니 심화가 은근히 덧친다.

아, 지금의 이 신세가 숨져가는 자식을 안타까이 지켜보며 의술이 없음을 한탄하는 무기력한 아비와 무엇이 다른가. 정녕 제힘으로 화약의 부족점이 무엇인지 밝혀낼수 없단 말인가.

이 열흘나마 박원작은 수십차례 천균노를 살펴보며 천균노에서 화약이 어이하여 자기의 힘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지 그 까닭을 밝혀내려고 모지름을 썼다.

허나 누가 까마귀 암놈수놈을 알랴하듯 좀처럼 그 까닭을 밝혀낼수 없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도달한 결론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돌탄을 지금보다 작게 만들어쓰자는것이였다.

그러면 지금의 화약을 그대로 쓰면서도 돌탄을 멀리 날려보낼수 있을것이다.

박원작은 그 의견을 받아들일수 없었다. 지금보다 작은 돌탄을 쏘자고 무려 3만근이나 되는 화포를 부어낼 필요가 뭔가.

그럴바에는 뢰등석포를 더 많이 만들어쓰는게 나을것이다.

고구려때 천균노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조상들은 오늘과 같은 화약이 아니라 염초 한가지로 화포를 쏘았을것이다.

그러니 고구려의 천균노는 위력이 약하여 오늘날 뢰등석포에서나 쏘는 그런 작은 돌탄을 날렸을것이다. 그때의 천균노는 분명 3만근짜리 화포이긴 하나 지금 만들어낸 천균노보다 포아가리 폭이 훨씬 작은 대신 동체는 썩 길었을것이다.

천균노를 조상들처럼 만들면 작은 돌탄이긴 해도 염초가 아닌 화약을 쓰는 까닭에 고구려때보다 썩 멀리로 날릴수는 있다.

이것이 여러 사람들의 주장이였다.

때로는 다수가 주장한다 해도 그 주장이 옳은것은 아니며 홀로 주장한다 해서 그른것도 아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고구려때의 천균노는 그렇다할지라도 보다 진보한 오늘날에는 그때의것보다 훨씬 더 위력한 화포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조상들을 대하는 후손들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마음은 그러한데 뚫고나갈 방책이 나지지 않으니 이게 난사가 아닌가.

맥을 모르면 침통을 꺼낼수 없다고 그 까닭을 알지 못하고서는 천균노를 다칠수 없기에 박원작은 밤낮으로 고심을 이어가고있었다.

아, 이제는 심신마저 진해버렸는가.

박원작은 오얏나무에서 물러나 저 하늘로 막연한 눈길을 던졌다.

좀 있어 흰구름이 뭉게뭉게 떠도는 하늘에 옛글 몇문장이 새겨졌다.

좋은 시작을 떼는 사람은 많으나 좋은 결과를 거두는 사람은 적다. 일을 할줄 아는 사람은 화를 복으로 만들고 실패를 성공에로 이어나가며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때를 놓쳐 공을 버리지 않는다.

박원작은 마음이 구슬퍼졌다.

옛글을 지은 사람이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는것 같았다.

아, 시절도 좋고 벗들도 많은데 바퀴빠진 수레마냥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 이게 바로 일할줄 모르는게 아니고 뭔가, 룡천검도 쓸줄 알아야 하고 룡마도 탈줄 알아야 한댔다는데…

박원작이 눈물이 그렁그렁하여 오얏나무를 쳐다보고 섰는데 웬 로인이 그에게로 다가왔다.

《저… 혹시 박공이 아니신지요?》

지척에서 울리는 석쉼한 소리에 박원작은 의아한 눈길로 그쪽을 돌아보았다.

《아, 옳군요!》

박원작은 곧 앞에 선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보았다. 수수한 베도포를 차려입고 백발수염을 가슴에 드리운 로인은 《서경명의》였다.

《의원님!》

박원작은 반색하며 절을 차렸다.

《아아, 이러지 마시오이다.》

《서경명의》는 급히 맞절하며 바빠했다.
절을 차린 박원작은 《서경명의》의 팔을 잡으며 웃음을 지었다.
《의원님! 그간 편안하셨소이까?》
《저야 생업이 의술인데 어찌 제몸 하나야 편안케 살지 못하겠소이까.
헌데, 박공의 안색이 좋지 않소이다.》
《서경명의》는 박원작의 손목을 잡으며 맥부터 짚었다.
《의원님께 미처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가지 못했소이다. 의원님이 지어주신 약을 먹으니 배아픔이 한결 덜어지고 힘이 나오이다.》
《고맙다는 인사는 내게 아니라 댁의 부인에게 하소이다. 인정깊고 강인한 부인을 두신건 박공의 복이오이다.》
박원작은 할말이 없었다. 의원의 말대로 서경에 와서 얻은 큰복의 하나는 해연을 만난 복이다.
오복에는 부인복이란 말이 없다. 그것은 만복중의 으뜸가는 복이 안사람복인 까닭에 구태여 더 론하지 않아서일것이다.
박원작의 손목을 조심히 놓는 《서경명의》의 얼굴이 흐려졌다.
《오늘 제가 여길 찾아온것은 박공이 약을 자시는가를 알아보려고 해서요. 자고로 천하명약일지라도 한첩 약을 소홀히 해서 명을 재촉했다는 말이 있소이다. 박공은 부인의 만지성이 깃들어있는 약을 적지 않게 번졌소이다. 그래가지고서는 큰뜻을 이룰수 없소이다.》
박원작은 깜짝 놀랐다.
귀신이 아니고서야 맥이나 한번 짚어보고 약을 꼭꼭 먹지 않은것을 어떻게 알아맞출수 있단 말인가.
박원작은 오늘 아침에도 약을 먹지 않았다. 배가 아파나면 먹고 아픔이 멎으면 먹지 않기가 일쑤였다.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소이다.》
《제발 그래주소이다. 박공의 건강은 나라가 바라는것이 아니겠소이까. 참, 요즘 서경장안이 들썩하오이다. 천하대포가 나왔다구요. 비록 돌탄을 멀리 날리진 못했지만 미구에 멀리 나갈거라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소리입니다.》

박원작은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은 어서 빨리 천균노가 성공하기를 바라고있는데…
《의원님, 좋은 말을 해주어서 고맙소이다. 허지만…참, 머리가 아프오이다.》
박원작은 《서경명의》가 마치 스승처럼 돋보여 기탄없이 속을 터놓았다.
《말이 짐을 끌 때 두마리로 끌게 하면 두곱을 끌수 있고 세마리를 끌게 하면 세곱을 끌수 있소이다. 헌데 어찌된 까닭인지 천균노는 뢰등석포보다 화약을 많이 먹고도 힘은 그만큼은커녕 반에 반도 쓰지 못하니…》
박원작의 얼굴은 소태를 씹은듯 이그러졌다.
《서경명의》는 수염을 어루만지며 무엇인가를 생각하더니 박원작을 건너다보았다.
《저도 박공이 화약때문에 고심한다는 말을 들었소이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소이다. 사방을 둘러보면 먹은만큼 힘을 쓰지 못하는것이 한둘이 아니오이다.
소에게 꼴을 두곱으로 먹였대서 두곱의 짐을 끌진 못하지요, 사람도 밥을 두그릇 먹었대서 짐을 두곱 지지 못하오이다.
약도 마찬가지지요. 산삼을 약처방에 두곱으로 넣었대서 그 효험이 두배로 늘어나진 않소이다.》
박원작은 《서경명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확실히 일리가 있고 귀맛이 나는 말이였다.
《의원들에겐 적은 량의 약을 먹이고서도 많이 먹인것처럼 약효를 높이는 비방이 있소이다. 값비싸고 진귀한 약재일수록 그 비결을 알아야 하는데… 가령 인삼을 단방으로 쓰기보다는 감초나 꿀같은 약재와 섞어쓰면 보다 적은 량으로도 효험을 크게 볼수 있소이다.》
《서경명의》의 말을 귀담아듣는 박원작에게 뇌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의원들이 약처방을 짓는것처럼 지금 쓰고있는 화약에다 인삼에 섞어주는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무엇인가를 넣어주면 보

다 화약의 힘이 세질것이다.

《염초도 그렇소이다.》 하는 《서경명의》의 말에 박원작은 바늘에 찔린듯 흠칫하였다.

《염… 염초라니요?》

《서경명의》는 놀라와하는 박원작을 바라보며 웃음을 거두었다.

《염초는 화약으로만 쓰이는것이 아니라 약재로도 귀히 쓰이고있소이다. 우리 선조들은 오래 묵은 새똥이 오줌내기약으로 좋다는것을 알고있었소이다.

날새들이 무리지어 싼 똥이 오래 묵으면 흰돌처럼 굳어지는데 그것을 불속에 넣으면 불꽃을 튕기며 잘 탑니다. 그래서 아마 조상들은 돌처럼 굳어진 새똥을 염초라고 한것 같소이다. 그후 오랜 세월 흐르면서 해묵은 새똥이 바닥나게 되니 흙을 달여 염초를 얻어내게 된것 같소이다.》

박원작은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서경명의》의 말을 들어보니 염초는 분명 의원들이 먼저 발견하여 약재로 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의원들인가.

《염초를 오줌내기약으로 쓸 때 단방치기보다는 백봉령(솔뿌리혹)을 섞어주면 그 효험이 갑절 더 세지오이다.》

박원작은 마침내 눈앞이 환해지는것 같았다.

그는 기쁜 나머지 《서경명의》의 두손을 잡고 흔들었다.

《의원님! 깨달았소이다. 의원님은 저의 눈을 틔워주셨소이다.》

《원, 별말씀을 다…》

껄껄 웃어대는 박원작의 두눈은 총기를 뿜고있었다.

2

보름달이 구름속으로 깊이 몸을 숨겼다 다시 헤염쳐나왔다. 숨박곡질이런듯 구름속을 들며날던 보름달이 솟구쳐나오자 개경장안

이 대낮같이 밝아졌다.

지중추원사 리자연은 합각지붕의 멋스로운 루대에 차려놓은 두툼한 비단방석에 실팍한 궁둥이를 파묻고 회심속에 달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하늘중천의 보름달이 후원을 들썩케 하는 풍악소리에 끌려나온것처럼 보였다.

리자연네 집의 넓은 후원뜨락에서는 초저녁부터 이채로운 가무놀이가 벌어지고있었다. 궁중악공들이 별의별 악기들을 가지고 풍악을 울리였다. 그 곡조에 맞추어 무희(녀자무용수)들은 물찬 제비같은 날씬한 몸매를 뽐내며 굴신좋게 춤판을 펼쳐놓았다.

그 흥취에 유혹되였는지 뭇별들과 공중에 띄워놓은 등롱들이 초롱초롱한 빛을 뿜었다.

《과시 좋은 때노라.》

리자연은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춤판에로 눈길을 옮겼다.

보면볼수록 무희들의 춤맵시는 심금을 치고 가기(녀성성악가)들의 노래소리는 마음을 틀어잡는다.

임금은 아비여
신하는 자애로운 어미여
백성은 어린아이라 할지
…

임금은 임금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할 때면
나라가 태평하리라

리자연은 가기들이 부르는 《백성가》의 구절구절을 속으로 따라부르며 곁의 호피상에 걸터앉은 태제를 슬쩍 곁눈질해보았다.

태제의 안색이 겉보기엔 태연하지만 심중은 그렇지 않을것이다. 비둘기마음은 콩밭에 있다고 태제의 마음은 이 집 미인들한테 가있을것이다.

태제는 지금 요조가인(몹시 아름다운 녀자)들이 분내를 풍기는 규방으로 데려가주기만을 애바르게 기다릴것이다.

리자연은 자기가 벌써 태제의 가시아버지가 된듯한 심정이여서 어깨가 으쓱거렸다. 이런 가무놀이를 왕족이 아닌 신하의 집에서 엄두나 낼수 있는 일이겠는가.

리자연에게는 아들 넷에 딸 셋이 있었다. 천분인듯 그 세 딸의 미모는 삐여지게 잘나서 절세가인이라고 할만 했다. 이 집에 미녀들이 있다는 소문이 나서 지난해 태제(임금의 동생으로서 왕위계승자)인 락랑군(후에 11대 문종대왕)이 대문을 두드렸다.

태제는 첫 대면에 벌써 이 집 딸들의 미모만이 아니라 그들의 뛰여난 학식에 반해버렸다.

그때부터 태제는 이틀이 멀다하게 이 집을 드나들었다.

리자연의 기쁨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

물론 태제한테는 부인으로 태제비가 있었다. 하지만 태제비는 정혼한지 여러해가 지나도록 태기가 없는데 어의들의 말이 잉태하기 어렵다는것이다.

이게 바로 하늘이 리씨집에 주는 복이 아니겠는가. 이 집의 맏딸이 태제의 눈에 들었으니 머지않아 궁중에 들어갈것은 정해진 리치였다.

사실 리자연이 쉰살도 되기 전에 지중추원사라는 조정3재로 될수 있은것은 태제의 뒤받침이 있어서였다.

리자연의 꿈은 후궁자리들에 자기의 피를 받은 인주 리씨의 녀인들을 차례로 들여앉혀 임금의 외척을 이룸으로써 조정을 장악하는것이였다.

시중 서눌이 고목이 되여서도 조정의 으뜸가는 벼리를 부지할수 있는것은 아버지 서희장군의 공적뿐아니라 제 딸을 황후로 들여앉혔기때문이 아닌가.

태제는 오늘이 리자연의 생일임을 알고 임금에게 아뢰여 궁중악단을 이 집으로 불러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참석함으로써 가무놀이의 흥취를 돋구었다.

물론 태제는 리자연의 딸을 마음에 두고 특별히 이자리를 마련한것이지만 또 한가지 이자리를 빌어 조용히 하고싶은 말이 있었다.

허나 태제의 마음을 알리 없는 리자연은 어서 딸들을 무대에 내세워 그들의 고운 자태를 보여주고싶었다.

리자연은 태제를 모시고 가무놀이를 펼치는 자기의 위세를 최충이 보지 못하는것이 한스러웠다.

최충이 이걸 보았더라면 얼마나 배를 아파할것인가. 더우기 천균노를 망쳐놓은 그가 달밤의 온 장안을 들썩케 하는 이 집의 흥성함을 가까이에서 목격했다면 기절초풍을 할지도 모른다.

어제 오전 최충의 표문이 중추원에 올라왔다.

표문의 골자인즉 천균노의 시험사격을 하였는데 예상외로 돌탄이 멀리 나가지 못했다는것이였다.

표문을 받아본 임금은 안색이 어두워져 몇번이나 한숨을 내쉬였다.

임금앞에서 당장 일을 칠듯 천균노를 만들어야 한다고 열을 올렸던 최충이 자기 손으로 망쳐놓은 일을 쓰자니 쓰디쓴 열물깨나 삼켰을것이다.

리자연은 깨고소해하는 심정으로 되지도 않을 천균노일을 벌려놓아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최충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었다.

붉은 바위가에서
손에 잡은 이내 손 놓아두고
…

(엉?!…)

리자연은 문득 너무도 귀익은 노래소리에 정신이 다 떨떨해졌다.

분명 애지중지하는 딸들이 부르는 목청고운 노래소리였다.

(그럴수 없겠는데…)

무희들이 춤추는 무대를 바라보던 리자연은 《아!—》 하고 경탄을 터치였다.

검은 치마저고리차림의 무희들속에서 분홍치마에 노랑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두 딸이 두손을 모아쥐고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맏딸과 둘째딸이였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리자연의 딸들은 너무나도 삐여지게 잘나서 경국지색에 비길만 하였다.

리자연은 두 딸이 다 꾀꼴새인양 목청도 곱고 자태도 닭무리속의 봉황인듯 하여 가슴을 쭉 펴고 태제를 바라보았다.

곁에 앉은 태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옷깃을 헤치고있었다.

얼마나 속이 타고 기갈이 나면 저러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면
꽃을 꺾어드리오이다
…

리자연의 딸들은 무희들 못잖게 멋들어진 춤가락을 펼쳐보이며 《꽃을 드리는 노래》를 건드러지게 뽑았다.

그럴수록 리자연은 만만한 자부와 궁지로 해서 가슴을 들먹거렸다. 거만의 돈을 들여 딸들을 키우기 얼마나 잘했는가. 똑똑하고 생기발랄한 저애들을 어느 미녀들이 감히 당할텐가.

태제는 어쩔수없이 저 노래에 깃든 사연을 음미하며 더욱 애간장이 말라할것이다.

후기신라때 강릉태수로 부임된 어떤 사람이 아릿다운 부인을 데리고 부임지로 가고있었다. 가던 도중 바다가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깎아지른 절벽우에 핀 꽃이 부인의 눈을 끌었다.

부인은 남편에게 꽃을 꺾어달라고 청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절벽이 높아 위험하다면서 머리를 저었다.

그때 소를 끌고가던 농사군이 부인의 말을 듣고 아스라한 절벽에 기여올라가 꽃을 꺾어왔다.

농사군은 아름다운 꽃을 아릿다운 부인에게 주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바로 《꽃을 드리는 노래》였다던지…

리자연은 코웃음을 쳤다.

꽃을 꺾어달라는 아릿다운 안해의 작은 청 하나 들어주지 않은 강릉태수야말로 졸장부로다.
태제는 저 노래를 들으면서 미인들이 바란다면 절벽이 아니라 달나라에까지 가서라도 꽃을 꺾어다 주려 할것이다.
그러고보면 하많은 노래들가운데서 굳이 저 노래를 골라 부르는 딸들의 뜻을 알만하다. 그 뜻을 진작 알았어야 했다.
지금 딸들은 이 집을 찾아온 태제를 부르고있다. 꽃과 나비가 서로 그리워하면 제아무리 높이 친 울담도 소용없거늘 공연히 시간을 끌게 있는가.
리자연이 이런 생각으로 흠흠해하는데 태제의 목소리가 울렸다.
《리공도 천균노를 만들수 있도록 도와야겠소. 과인은 북계병마도감사였던 박원작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것을 뒤늦게야 알았소.》
리자연은 전혀 생각밖의 말에 멍해졌다.
며칠전 태제는 서눌시중의 청대를 받아주었다.
이미 임금을 찾아가 꼭같은 말을 드린 시중은 태제에게도 박원작을 삭탈관직시키라는 어지는 리자연이 아무 근거도 없이 함부로 남을 모함하여 내려진것이라는것을 밝히고 그를 복직시키기를 청하였다.
그 일때문에 태제는 어제 임금을 만났었다. 임금은 잘못된 어지를 내려보낸 일을 후회하면서 일단 내려진 어명은 곧 철회할수 없는것이니 박원작이 뜻대로 천균노를 만들어내는 그때 가서 그를 복직시키겠다고 하였다.
《리공은 조정대신으로서 국정을 기분에 따라 처결하려 해서는 안되오. 천균노는 고려의 오늘뿐아니라 래일과도 관련되는 위력한 병기니만치 누구보다도 리공께서 그걸 만들어내도록 잘 돌봐주어야 하지 않겠소?》
리자연은 속으로 최충을 죽일 놈 살릴 놈 하며 된욕을 퍼부었다.
그는 최충이 병마도감에 머물러있으면서 남권부를 눌러놓고 박원작을 내세워 천균노를 새로 부어냈다는것을 제일먼저 알고있

었다.

최충이 아니였다면 골병든 박원작은 쓰러졌을것이고 화약의 비방을 가져다 군기감에 염초장을 크게 차려놓았을것이다. 그러면 병마도감에서 염초장을 없애치울수 있으니 군국대사를 처결하는데서 판북계병마사 최충을 제쳐놓고 이 리자연이 큰몫을 맡아할수 있었다.

태제의 목소리가 리자연의 귀박죽을 무겁게 후려쳤다.

《과인은 리공이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고 최공과 손잡고 하루속히 천균노를 만들어내도록 밀어주리라고 믿소.》

리자연은 최충과의 힘겨루기에서 자기가 패했다는것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을 인정하자니 울분이 치밀었다. 생각같아서는 더 큰 험턱을 박원작에게 들씌워 최충을 골탕먹이고싶지만 태제까지 나서서 병마도감을 도우라니 이번만은 참아야 했다.

《태제전하의 하교를 충정으로 받들겠소이다.》

《공은 말씀을 낮추소.》…

다음날 중추원에 나간 리자연은 쓴입을 다시면서 천균노를 속히 만들수 있도록 박원작을 도와주라는 공문서를 남권부에게 띄우고 또 자기의 명의로 쌀과 피륙을 병마도감에 보내주라는 분부를 부하들에게 내렸다.

3

기생들을 찾아 서경거리를 돌아치던 조득국은 화약의 비방을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남권부의 집을 찾아갔다.

해질녘이여서 마침 남권부가 집에 있었다.

음식상에 마주앉은 조득국은 술잔을 들기 전부터 위세를 부리느라 남권부를 향해 두눈을 부릅떴다.

그는 소문을 들어 병마도감의 실정을 알고있었다. 남권부가 어지를 받고 병마도감사로 된지도 퍼그나 시일이 지났으니 이제는 화

약의 비방을 알고있을것이다.
조득국의 불량스러운 눈초리에 남권부는 뱀앞에 꿇어엎드린 개구리마냥 꼼짝 못했다.
그는 금시 심술궂은 조득국의 된주먹이 날아들것 같아 숨도 크게 쉬지 못하였다.
일어서면 남권부와 조득국의 키가 어슷비슷하지만 앉은키는 형편없이 차이난다. 앉은키가 조득국이보다 머리 절반은 작은데다 몸집도 그의 절반이 되나마나한 남권부였다.
든든한 수말같은 몸집이며 쌀함박보다 큰 머리, 주먹만한 큰 코로 하여 조득국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위압을 주었다.
남권부가 조득국의 앞에서 날로 기를 펴지 못해하는것은 단지 이런 우악스러운 생김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가져다주는 행운의 의미를 점차 깨닫게 되기때문이였다.
록봉을 타먹는 벼슬아치들치고 공짜를 먹지 않는 량반이 없지만 말직벼슬이나 하는 주제에 남권부같이 크게 먹는자도 쉽지 않다. 더우기 마씨와 같이 젊은 미인은 조정에서 한다하는 리자연도 거느리지 못했다.
이게 다 뉘덕인가. 조득국의 덕이다.
그런데 그의 덕이 커갈수록 그 덕이 목을 조이는감도 커만진다. 그의 덕이란것이 꼭 큰것을 바라고 먹이는 미끼같아서였다.
도대체 무얼 바라기에 자꾸만 가져다 먹이는걸가.
조득국이 분명 언제인가는 반드시 먹인 값을 받겠다고 된주먹을 비껴들고 달려들것이다.
이제라도 조득국이와 일체 손을 끊어버릴가.
그러나 그의 도움이 없이는 더 큰 벼락부자로 될수 없지 않은가. 어쩐다… 손을 끊자니 재물이 그립고 손을 그냥 잡고있자니 장차 목숨이 위태롭겠고…
에라, 곰같이 생겨먹은 조득국이 곰같이 미욱하니 살살 얼리면서 리득을 보는것이 상책이렷다.
이것도 운수놀음이다.
남권부는 억지로 웃음을 짓다보니 얼굴이 별나게 이그러졌다.

《조공, 웃으시라구요. 웃으며 살면 장수한다는데… 물을 거울로 비추어보는자는 자기의 생김을 알수 있고 사람을 거울로 비추어보는자는 길흉을 알수 있다는데…
난 워낙 덜퉁하고 세심하지 못하다보니 그렇게 하지 못했소그려. 오로지 그대같은 벗을 잘 만난 덕으로 이처럼 일떠섰으니 앞으로도 공에게만 의지해서 살아갈가 하오.》
조득국은 들었는지 말았는지 아무런 대척도 않고 마씨가 부어준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자기의 말을 개짖는 소리만큼도 여기지 않는 조득국을 보자 남권부는 무안스러워 자기도 술을 입에 쏟아부었다.
몇잔 거퍼 술을 들이켰건만 속이 불안해서인지 취기가 오르지 않았다. 대신 살기가 돋치면서 천균노를 망쳐먹은 심국종을 쳐죽이고싶었다.
놋쇠를 가져오려 개경에 갔을 때 만난 리자봉이 뭐라고 했더라. 래일이라도 화약의 비방만 뽑아오면 군기감의 주인자리를 내주겠다고 장담했다.
그보다 앞서 만났던 리자연은 한두해만 더 병기를 만드는 재주를 닦으라고 하였는데 그건 다 화약의 비방을 빼오라는 말을 못해 그랬을것이다.
심국종 그놈만 아니였다면 벌써 천균노는 볕을 보았을것이고 이 남권부는 박원작이한테 화약의 비방을 떳떳하게 넘겨받아가지고 개경행을 했을것이다. 심가놈때문에 그 잘난 병마도감사자리나 차지하고 남의 눈치나 보아야 하니 이게 망조가 아니고 뭔가.
조득국은 슬금슬금 자기 눈치만 엿보는 남권부를 가시눈으로 쏘아보다가 야유조로 말했다.
《병마도감사로 출세했은즉 이젠 병마도감의 일에 환할거야. 화약의 비방까지 알았을테니 나라에서 제일가는 병기쟁이로 되였는데 큰소릴 치며 잘살아야지.》
남권부는 소태씹은 상이 되여 아부재기를 쳤다.
《화약의 비방? 흥, 개떡같은 소리 마오. 난 하루에도 골백번 지긋지긋한 병마도감사자리를 내던져버리고 여길 뜨고싶은 생각

뿐이요.》
조득국의 두눈이 휘둥그래졌다.
《그건 무슨 소린가?》
《말도 마오. 복이 화가 되였는지 보는 놈들마다 나에게 눈화살을 쏘는데… 오히려 소감시절이 그립기만 하오.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최충이 날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는데 내가 어떻게 병마도감의 주인노릇을 바로할수 있으며 화약의 비방을 걷어쥘수 있는가 말이요?》
조득국은 그 말에 리해가 갔다.
깊은 학식과 뛰여난 재주를 가진 인재가 앉아야 하는 병마도감사의 자리를 무능하고 무식한 남권부따위가 차지했으니 어찌 사람들이 그를 곱게 보겠는가.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내리는 남권부처지에 그가 내리는 분부가 무슨 힘이 있어 박원작이 목숨처럼 여기는 화약의 비방을 벌써 손에 넣을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병마도감의 주인이니 긴 날을 두고 애쓰면 화약의 비방을 손에 넣게 될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 없지.
조득국은 빈입을 다시며 허리춤을 매만졌다. 불룩한 염낭이 감촉되였다. 밤톨만한 금덩이 몇개와 짐새의 깃털이 들어있는 염낭이였다.
고려에는 짐새가 없다. 짐새는 사시절 더운 여름만 있다는 남쪽나라에서 독뱀을 먹고 사는 새라고 한다. 독뱀을 잡아먹는탓에 짐새의 깃털에는 뱀독이 몰려든다.
뱀독이 몰린 짐새깃털을 물이나 술에 휘저어서 사람에게 마시게 하면 그 어떤 장사일지라도 단숨에 숨이 끊어지고야만다.
이번에 요긴하게 쓰려고 가져온건데 아직은 염낭안에 그냥 두어야 할가부다.
조득국은 술잔을 밀어놓으며 독을 울리는듯한 웅글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천균노를 못쓰게 한 놈이 누구라구?》
남권부는 덮어놓고 대꾸하기에 급급했다.

《내 생각엔 심국종이라고 련장에 있는 놈인데 그자식이 못된짓을 한것 같소. 숯고간도 그놈패거리가 불을 질렀을거요.》

《그놈이 왜 그런대?》

《사실 심가 그놈은 리자연의 동생 리자봉이 내려보낸 작자요. 리자봉은 개경군기감에다 염초장을 내오려고 하는 형을 돕고저 그놈에게 화약을 만드는 비방을 뽑아오라고 했을거요.

그런데 그자식이 한수 더 떠서 천균노를 만드는것을 달가와하지 않는 상전에게 잘 보이려고 못된짓을 했을거요.》

조득국의 곰상판이 당장 누구를 잡아먹을듯 험악해졌다.

그의 낯판을 본 남권부는 소름이 쫙 끼쳐 목을 움츠렸다.

남권부는 고개를 떨구고 조득국이 어이하여 천균노에 관심이 큰지 의심이 부쩍 들어 생각을 파고들었다.

놋쇠까지 구해다주면서 천균노를 빨리 만들도록 도와주는 조득국의 속심은 무엇일가.

아무리 생각을 파고들었지만 음험한 조득국의 속통을 헤쳐볼길 없었다.

《남공! 공은 어이하여 이 조득국이 천균노가 잘되기를 바라고있는지 알고싶을테지?》

남권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우둔하다고 여긴 조득국이한테 남의 속을 꿰뚫어보는 재간이 있다니… 남권부에게는 조득국이 지옥의 사자처럼 보였다.

조득국은 하루빨리 천균노가 별을 보기 바라는 제 진속을 남에게 털어놓을수 없었다. 그가 천균노를 만드는 박원작을 돕도록 남권부를 떠미는것은 큰 속심이 있어서였다. 천균노가 성공하면 남권부는 박원작이한테서 화약의 비방을 넘겨받게 될것이다.

바로 그때를 기다려 남권부의 손에 들어온 화약의 비방은 물론 천균노를 만드는 비방도 앗아가지고 녀진으로 달아날것이다.

조득국은 이런 진속을 숨기고 천연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난 천균노가 잘되길 바라는 내 마음을 숨기지 않네. 내가 진상품까지 떼먹고 삼문파직은 되였지만 고려는 나를 품어주고 키워준 고국이란 말일세.

내 지금껏 열백가지로 고려를 위해 잘한것은 없지만 나라를 지켜내는 일만은 돕고싶네.

집이 불타버리면 쥐들도 한지에 나앉게 된다고 고려가 있기에 나도 살아가는게 아니겠나.》

남권부는 조득국의 말이 그럴듯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나라잃은 사람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는데 그래서 조득국이 한가닥 애국의 마음이 남아있어 천균노가 잘되기를 바라는 모양이다.

《조공! 사람속은 소금 서말을 같이 먹어봐야 안다고 했네만… 난 오늘에야 공의 충의로운 뜻을 안것 같네. 공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 잘되길 바라고있는데 어찌 천균노가 일어서지 못하리오. 념려마오. 박원작이 그러는데 천균노가 살아날수 있는 비방을 찾아냈다누만.》

남권부의 말은 헛소리가 아니였다.

오늘오전 남권부는 그동안 부어낸 뢰등석포를 북계군에 넘겨주는 일로 해서 박원작을 만났었다.

요즘 내내 흐려있던 박원작의 얼굴이 환해져있는것을 본 남권부는 의아함을 금치 못했다.

인차 그 의문은 풀렸다.

박원작은 천균노가 돌탄을 멀리로 날려보내지 못한것은 화약탓이라고, 이제는 그 까닭을 알아냈으니 조만간에 끝을 보게 될거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

《그게 참말이란 말이지. 그럼 됐구만. 이제야 술맛이 나겠어.》

조득국은 와락와락 웃동을 벗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 목함지에 담긴 삶은 개에 손을 뻗쳤다.

손을 쭉 뻗친 조득국의 털부숭이가슴이며 다리통같이 굵은 팔에서 울끈불끈한 근육덩이들이 힘차게 오르내렸다.

그앞에서 남권부는 황소앞의 애마냥 작아보였다.

《자, 받게.》

조득국은 쑥 뽑아낸 개다리를 남권부에게 내밀었다.

남권부는 자기가 집주인이라는 생각에서 사양않고 개다리를 받

아들었다. 받고보니 살이 적게 붙은 앞다리였다.
조득국은 살이 뭉실뭉실한 뒤다리를 뽑아들고 잠간사이에 고기를 후무려쳤다.
《술도 드시면서 고기를 잡수시와요.》
《어, 그러지.》
조득국은 마씨가 내민 술사발을 받아 랭수마시듯 꿀꺽꿀꺽 마셔댔다.
청주쯤은 동이채로 마셔야 간에 기별이 간다고 하는 그였다.
남권부는 조득국의 몰골이 역겨워 두손으로 술사발을 집어들고 들이마셨다.

4

박원작은 오늘도 신새벽에 깨여났다. 집에서 잘 때에도 새벽이면 꼭꼭 해연을 따라 깨나군 하였는데 병마도감으로 침식을 옮겨온 후로는 더 일찍 서둘러진다.
박원작이 밖에 나가 세면을 하고 들어오니 부엌일을 맡은 시비가 사발에 더운물을 떠들여왔다.
더운물을 받아 약을 먹고났는데 방문이 열리며 남권부가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비색항아리가 들려있었다.
남권부는 어줍게 웃으며 먼저 입을 뗐다.
《박공! 몸보신에 좋은 꿀을 가져왔네. 맛좀 보게나.》
박원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삭탈관직을 시킨다는 어지를 받던 날 같아서는 이 박원작을 다시는 사람취급할것 같지 않았던 남권부는 스승이 행차하자 태도가 싹 달라졌다.
그는 최충에게 병마도감사자리를 내놓겠다고 아뢰인 그날저녁 박원작을 찾아와 이전처럼 친구로 지내자며 잘못을 빌었다.
그날 박원작은 자기를 그토록 괄세했던 남권부를 너그러이 용서

해주었다.
사람이 살아가느라면 어찌 잘못이 없겠는가.
다음날부터 남권부는 병마도감의 모든 일을 박원작이와 의논하여 처리했다.
《박공! 개경에서 실어온 놋쇠말이요. 그것으로도 천균노를 부어야 할가부네.》
박원작은 그 말이 선뜻 믿어지지 않아 침묵을 지켰다.
《박공! 가만 따져보니 장사군에게 놋쇠를 그냥 돌려주어서는 안되겠소. 조정에서 준 놋쇠로 천균노를 부어내지 않는다면 죄를 질거란 말이요. 그러니 돈으로 갚겠소.》
박원작은 크게 감동되여 남권부의 손을 덥석 잡아쥐였다.
《남공! 정말 잘 생각했네.》
남권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사실 그는 그 놋으로 천균노를 부어낼 생각은 끄물만치도 없었다.
그런데 어제오후 천균노를 속히 만들수 있도록 박원작을 도우라는 리자연의 공문서를 받아보고 마음을 달리하였다.
대세를 따라 설자리를 가려 서는자가 현명한 사람이 아닌가. 그토록 천균노를 달가와하지 않던 리자연이까지 최충처럼 하려 하는 때에 삐뚜로 나가다가는 큰코 다친다.
골병든 박원작이 어려워하는 이때 발벗고나서서 돕는척 하면 그는 틀림없이 화약의 비방을 알수 있게 해줄것이다.
그러면 팔자가 달라진다.
남권부의 이런 음흉한 속심을 알리 없는 박원작은 그의 손을 놓을줄 몰랐다.
남권부와 함께 아침상을 물리고난 박원작은 련장이 아니라 염초장으로 향했다.
화약의 질을 일신시키지 않고서는 천균노의 위력을 보여줄수 없다는것을 깨달은 이상 이제부터는 염초장에 힘을 돌려야 한다.
박원작은 염초장의 대문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다른 장들과 달리 화약고가 있는 염초장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쳤다.
평소에도 염초장에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내놓고는 박원

작이밖에 출입할수 없게 질서를 세웠는데 요즘은 그 질서가 더 엄했다.

리순일병마부사가 열댓명의 군사들을 더 보내주어서 밤낮으로 파수를 서니 타인은 그림자조차 얼씬할수 없다.

파수병들을 관할하는 애젊은 대정(종9품의 무관)이 대문앞에 서있는 박원작을 알아보고 깍듯이 절을 차렸다.

《오셨소이까?》

박원작은 대문을 열어주는 대정을 믿음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군교인가! 염초장을 지키느라 고생많겠네.》

《고생이랄게 없소이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고…》

박원작은 서글서글해보이는 대정의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대문안으로 들어섰다.

염초장의 뜨락에 들어서니 신새벽부터 나와 구재와 벼짚재를 섞는 일을 하던 장공인들이 반겨맞는것이였다.

박원작은 늘 궂은일로 바삐 돌아가는 그들의 수고를 생각하며 답례를 차렸다.

《나도 오늘부턴 염초장에서 함께 일하자고 왔소.》

《그게 참말이오이까?》

장공인들은 환성을 올리며 박원작을 에워쌌다.

《내 언제 실없는 소릴 했던가. 어디 구재를 만져볼가?》

박원작은 두팔을 걷어올리고 구재와 벼짚재를 섞어놓은 무지로 다가갔다.

아무말없이 박원작을 지켜보던 돌석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그 몸으로는 안되오이다.》

박원작은 웃으며 눈을 끔뻑했다.

《내 몸이 어째서? 난 보다싶이 아무 탈도 없네.》

《누굴 업어넘기려고 그러하오이까? 뭐 저희들에겐 눈도 귀도 없는줄 아오이까. 병마도감사님의 병이 중하다는걸 다 아오이다.》

돌석이 울먹이며 하는 말에 장공인들이 합세했다.

《예, 다 알고있소이다.》

《제발 몸을 돌봐주사이다. 병마도감사님!》

박원작은 자기를 여전히 병마도감사라고 깍듯이 불러주는 장공인들의 마음에 목이 메였다.

돌석이 애원하여 말했다.

《지금 병마도감사님의 모색이 어떠한줄 아오이까? 병색이 짙고 몸은 수척해져서 차마 마주볼수가… 그러니 제발 여기 걱정은 마시고 병을 고치는 일에 힘써주사이다.》

박원작은 마음이 젖어들어 눈시울을 슴벅거렸다.

사람이 사람들의 진정을 받는다는것이 얼마나 복있는 일인가.

《고맙네. 내 자네들의 그 마음을 잊지 않겠네.

지금 할 일이 많아. 나에겐 하루가 새롭네. 난 자네들을 도와 새로운 화약을 만들 생각이네. 그건 그렇고. 날 병마도감사라고 부르지 말게. 거북스러워서 그래.》

돌석이 눈굽을 닦으며 목메여 부르짖었다.

《아니, 그렇게는 못하오이다. 병마도감사님은 오늘도 래일도 저희들의 병마도감사오이다.

병마도감사님이 병약하시면 뜻을 이루지 못하오이다. 병부터 고치소이다.》

《허— 자넨 고집불통이군 그래. 사람이 하고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도리여 병이 나네.》

돌석은 할수없이 한걸음 물러섰다.

《그럼, 병마도감사님은 앉아서 분부만 하시겠다는걸 언약해주소이다.》

박원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반대없어. 입만 가지고 한몫 하겠다는걸 언약하겠네. 그럼 됐지? 자, 안으로 들어가볼가?》

돌석은 장공인들에게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이르고는 박원작을 부축하여 집안으로 이끌었다.

열댓간이 잘되는 넓은 집안의 한켠에는 염초가루가 무져있었다.

《그새 많이는 구워냈구만. 열섬은 잘되겠어. 한달에 열섬이면 괜찮아.》

박원작은 희여스름한 염초를 한줌 쥐여들고 만족해하였다.
《우리 조상들이 이 신기한 염초를 잘 만들어냈거든. 참말 신기해.》
이윽고 박원작의 얼굴에 그늘이 비꼈다.
《과연 이 염초에 어떤걸 섞어야 힘이 세지겠는지…》
그 말에 돌석은 가슴이 후두둑 높뛰였다.
염초에 무엇을 섞어주면 힘이 세진단 말이지. 어쩜 생각이 일치할가.
지금의 화약이 불당김성이 나빠 화포에 그 량을 많이 재울수록 화약의 허실이 늘어나므로 응당한 힘을 내지 못한다는 결함을 아는 사람은 박원작이만이 아니였다.
돌석이도 아버지 근달이와 함께 그런 생각을 하고있었다.
돌석이네 부자는 천균노가 돌탄을 겨우 백보밖에 날리지 못한것이 안타까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그들은 의논끝에 화약에 쪼간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돌석은 한걸음 더 나아가 염초에다 다른 그 무엇을 보태주면 화약의 불당김성이 좋아질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병마도감사님! 제 의견을 말해도 일없겠소이까?》
박원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소인생각엔 천균노가 맥을 추지 못하는건 화약에 부족점이 있는것 같소이다. 그렇다고 염초가 나쁘다는건 아니오이다. 가만 보니 지금의 화약은 불타는 성질이 그닥 좋은것 같지 않소이다. 화약의 량이 늘어날수록 불을 더 안받으니 천균노가 맥을 출수 있겠소이까.》
박원작의 숨결이 가빠졌다.
처음에는 별로 들을게 있겠는가 하여 건성으로 머리를 끄덕였던 박원작은 물도랑에서 금덩이를 발견한듯 두눈이 번쩍였다.
《다시 말해보게, 어서!》
대답하는 돌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의 화약은 량이 늘어날수록 불을 더 고루 받질 못하오

이다.》
《참말 그렇게 생각하나?》
돌석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할수 없었지만 대답을 늦잡지 않았다.
《예, 제 말을 좀 들어보소이다. 엿을 달일 때 은근히 불을 때면 나무를 많이 허비하지만 불을 냅다 때면 나무를 적게 들이고도 인차 강엿을 얻을수 있소이다.》
박원작은 자기 생각과 한곬으로 흐르는 돌석이의 생각을 단숨에 알고싶었다.
《그래서?》
《여기에 무져있는 염초를 장작에 비유하면 젖은 장작이라고 할수 있소이다. 젖은 장작으로 엿을 달이면 나무만 많이 허비하게 되지요.
젖은 장작으로는 불을 지피기도 힘드오이다.
그러나 젖은 장작은 말려쓰면 되지만 염초는 그렇지 않소이다.
어떻게 하면 젖은 장작같은 염초를 단숨에 더 빨리 태울수 있겠소이까. 장작같으면 바싹 마른 솔가리와 삭정이를 섞어때면 잘 타겠는데…
바로 그렇소이다. 병마도감사님은 그 리치를 벌써 아시고 염초에다 류희(숯)를 섞어 화약을 만드셨소이다.
염초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있지만 젖은 장작같기에 서서히 불에 타 제힘을 다 내지 못하오이다. 그러나 류희를 섞어주니 염초를 더 빨리 불탈수 있게 하였소이다.
류희 못잖게 염초를 더 빨리 탈수 있게 하는 그런걸 새롭게 찾아낸다면 화약의 힘이 세차질게 아니겠소이까.》
박원작은 너무 기뻐 말이 나가지 않았다.
어쩜 돌석이 그런 생각을 다 해냈을가.
의논이 맞으면 부처도 함께 데려갈수 있다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통하니 앞길이 활짝 열렸다고 할수 있다.
《행수, 이 사람! 가는 길이 다르면 서로가 돕지 않는다는데 한길을 가니 좋은 궁냥이 나졌어.
자네 정말 괜찮아.》

박원작은 좀더 적중한 치하의 말이 떠오르지 않아 입을 다물었다.

《병마도감사님! 사실 이건 저절로 떠오른 생각이 아니오이다.》

《?…》

돌석은 신바람이 나서 누가 제 말을 가로채기라도 하는듯 언성을 높였다.

《련장에 키 작고 얼굴이 구들쟁이처럼 새까만 심국종이란 사람 있지 않소이까. 며칠전 그 사람이 집을 가는 내앞을 가로막고 야료를 부렸소이다. 염초장에서 만든 화약이 나빠 련장에서 잘 만들어낸 천균노가 버림을 받게 되였다나요.

그 말이 괘씸해서 한바탕 다툼질을 했는데 말싸움을 하고나서 곰곰히 따져보니 일리가 있는 소리였소이다.

그래서 화약에 부족점이 있다 하고 여기고 생각을 깊이하게 되였소이다.》

《음, 일은 그렇게 됐군.》

박원작은 심국종이 고맙게 생각되였다.

그가 입바른 소릴 하지 않았더라면 돌석이 그런 좋은 궁냥을 해낼수 없었을것이다.

박원작이 심국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있는데 대문밖에서 대정이 소리쳤다.

《병마도감사님께 아뢰오이다. 누가 찾아와 뵙자고 하오이다.》

(?…)

《알겠소.》

박원작은 돌석이와 함께 대문을 향해 뜨락으로 나섰다.

대문에 이른 박원작은 첫눈에 찾아온 사람들을 알아보았다. 개경 군기감으로 떠나보냈던 번기와 능산이가 대문밖에서 절을 차리였다.

박원작은 너무 반가와 그들의 손을 덥석 부여잡았다.

《이 사람들아!》

《병마도감사님!》

《언제 왔나? 군기감에서 쉽게 놓아주던가?》

능산이 번기를 앞질러 대답했다.

《방금 대동강을 건너왔소이다. 병마도감이 보고파 죽는줄 알았소이다.》

박원작은 몇달동안 개경군기감에서 《신기한 병기》들을 어떻게 부어내는가를 배워주고 돌아온 그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번기는 서두르며 허리에 찬 결랑을 풀어내여 보자기에 꾸린걸 꺼내들었다.

《병마도감사님! 개경집은 다 무고하오이다. 판북계병마사어른의 자제분이 계속 돌봐주어 할머님병도 깨끗이 낫고 죽화도 잘 있소이다. 이번에 소인들이 할머님께 폐를 많이 끼쳤소이다.》

박원작은 이미 남권부한테서 전해들은 집소식이지만 또다시 들으니 스승과 그의 집식구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하여 눈시울이 축축해졌다.

《병마도감사님, 이건 죽화 할머님이 보내시는 물건이오이다.》

《?!…》

《개경을 떠나올 때 죽화 할머님이 이걸 주셨소이다. 할머님은 천균노가 여의치 않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마음같아서는 이걸 직접 가져다주고싶다고 했소이다.》

능산이 번기의 말꼬리를 물었다.

《할머님은 그 물건이 꼭 병마도감사님에게 도움이 될거라고 말씀하셨소이다.》

보자기에 싼 물건을 받아든 박원작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도대체 무슨 물건이기에 도움이 될거라고 했을가.

박원작은 당장 보자기를 헤쳐보고싶었지만 집을 그리워하는 번기와 능산이를 생각하여 그것을 옆구리에 꼈다.

《그동안 객지에서 정말 고생이 많았네. 며칠 푹 쉬고 나오라구.》

박원작은 그들의 등을 떠밀어 집으로 보냈다.

번기와 능산을 집으로 보낸 박원작은 급히 별관으로 걸음을 재우쳤다.

그는 방에 들어서기 바쁘게 옆구리에 낀 물건을 손에 들었다.

보자기를 헤치니 명주옷이 나졌다. 그런데 명주옷은 새옷이 아니고 누렇게 퇴색된 낡은 옷인데 그나마 밤색의 얼룩점들이 나있었다.

어머니가 어이하여 입을수 없는 이런 옷을 도움이 된다고 보냈을가.

의문이 가득하여 옷을 펼치니 종이 한장이 나타났다. 어머니가 써보낸 글월이였다.

박원작은 급히 글줄을 더듬었다.

《인편에 네 부친이 운명할 때 입었던 피로 얼룩진 옷을 보낸다.

네 부친은 아들이 아비의 뜻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한다면 피로 얼룩진 이 옷을 내주어서 자식을 각성시키라고 하셨다.

네가 나라의 령을 받들어 큰 병기를 만들고있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니 이 옷을 보낸다.

난 네가 부친의 피로 얼룩진 옷을 받아안고 반드시 나라의 령을 잘 받들어내리라고 믿는다.》

《어머님!—》

박원작은 왈칵 눈물이 쏟아져 고개를 떨구었다.

아버지는 나라를 위한 일에 목숨까지 바쳤건만 그 아들은 정녕 그렇게 살수 있는가. 아니, 나도 아버지처럼 한목숨을 내대고 일을 할테다.

박원작은 고개를 쳐들고 다음 글줄들에 눈길을 주었다.

《네 하는 일이 씨원치 않다기에 행여 도움이 되지나 않을가해서 네 부친의 마지막시기를 돌이켜보았다.

보다 더 세찬 화약을 만들어내는것이 네 부친의 소원이였다.

그래서 구리가루라든가 여러가지 돌가루를 섞은 화약도 만들어보았지만 끝내 소원성취를 못하셨다.

내 생각엔 네 부친이 마지막에 반묘를 섞은 화약을 터치다가 봉변을 당한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야 어째서 운명직전에 반묘란 말을 곱씹었겠느냐.

반묘는 원래 옴이나 부스럼에 바르는 약재란다. 그때 나는 경주에서 나는 반묘를 약으로 쓰려고 그걸 집에 구해다놓았댔다.

후날 네 부친의 장례를 치르고 찾아보니 반묘가 없었다.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해냈는지…
하여간 이 에미의 소견에는 아버지가 숨지면서 남긴 부탁대로 그 반묘에 관심을 돌렸으면 한다.》
박원작은 격정에 휩싸여 와락 아버지의 옷을 품에 껴안았다.
《어머님! 아버님!… 아, 그래서였구나!》
박원작은 오늘 비로소 아버지가 남겨준 표제없는 책을 보며 이미 화약을 만들줄 아는 아버지가 왜서 화약을 태우는 시험을 또 하다가 참변을 당했는가 하는 오래전의 의문을 드디여 풀수 있었다.
내 지금껏 효도자식이라 자부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지켜왔는데 실은 지하에 계시는 아버지가 자애로운 손길로 이 아들을 보살피고있었구나. 그런 아버지를 모신 자식이 어찌 세운 뜻을 이루지 못하랴.
박원작은 아버지의 피로 얼룩진 옷을 어루만지며 부르짖었다.
《지체없이 반묘를 구하려 사람을 띄워야지.》

5

강을 건느지 말랬는데
왜 굳이 건느셨소
…

절령역관지기는 말잔등을 닦던 물걸레질을 멈추고 구슬프게 울리는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들 일랑이가 콩밭김을 매며 부르는 노래였다.
일랑이 봄내 역참주변으로 일군 밭에 썩은 락엽을 듬뿍 내고 콩을 심었더니 벌방 부럽지 않게 잘되였다.
부지런한 농사군에게는 나쁜 땅이 없다더니 정말 옳은 말이다.
헌데 저녀석은 왜 하필 쓸쓸한 노래만을 부르는걸가. 병마도

감사어른이 배워주었다는 그 노래가 듣기 좋던데…

물에 빠져죽었으니
님아, 이 일 어이하오

역관지기는 마음이 처량해져 시무룩해졌다.

혹시 저녀석이 일찌기 죽은 제 어미 생각이 나서 저러는걸가. 아니면 서경에 떨어져서 사는 그 녀인 생각이 나서?

역관지기는 며칠전 또다시 서경을 다녀왔다.

김충지에게서까지 외기러기신세를 면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서경과부》와 더는 갈라져 살아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이 굳어졌다. 그래서 결단코 한두달안에 역관지기를 그만두고 서경에 가 살겠다는 뜻을 알리고저 《서경과부》를 찾아갔던것이였다.

그러나 막상 과부집에 이르고보니 절령역관지기로서 제일을 도와달라고 한 김충지의 부탁이 가슴에 걸려 차마 그런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한해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고 돌아섰다.

이 아비의 이번 걸음에 새어머니를 데려오는줄로 여겼던지 일랑은 아버지 혼자 왔다고 섭섭해하였다.

녀석이 철이 없기란 참…

아마 전처가 이런 험지로 시집을 안왔더라면 지금도 살아있을것이다.

역관지기는 가슴아픈 참상이 떠올라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가 일랑이 한살나던 해 초봄이였다. 그날 눈석이물이 장마비처럼 산골짜기들에서 쏟아져내려 령길의 한구간이 뭉청 패여나갔다.

그래서 역졸들은 길을 수리하러 나가고 역관지기만이 홀로 남아 역참일을 하고있었다.

늘 그러하듯 이웃역에서 공문서를 가진 역졸이 말을 달려왔다.

역졸로부터 개경으로 보내는 공문서를 인계받은 역관지기는 안해를 불러내여 역참을 지키게 하고는 다음역으로 말을 달리였다.

그 길이 안해와의 마지막이 될줄이야 어이 알았으랴.

다음역인 도공역에다 공문서를 전하고 돌아오니 안해가 마구간앞에 피투성이 되여 쓰러져있었다.

깜짝 놀란 그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안해를 부둥켜안았다.

안해는 역말을 해치려 달려든 호랑이를 쫓다가 화를 당한것이였다.

절령이란데는 호랑이가 어찌나 많은지 한낮에도 역참에 달려들어 말을 물어가는 무서운 곳이였다.

역관지기는 안해를 살려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에서 린접마을로 달려가 무당을 데려왔다.

의술을 아는 사람을 청해오면 좋으련만 궁벽한 산골마을들에 의원이 있을리 만무하였다.

무당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어본다는 명도거울을 안해에게 들이대며 푸념을 하더니 워낙 범살을 타고난 팔자여서 살릴 가망이 없다는것이였다.

그날로 안해는 어린 아들을 외로이 남겨두고 숨을 거두었다.

안해를 잃은 역관지기는 절령을 떠나버릴 마음까지 먹었었다. 허나 안해가 묻혀있는 절령이 발목을 잡는것 같아 차마 절령을 나설수 없었다.

안해만큼 절령을 정든 고장으로 여긴 사람도 없을것이다.

어느해인가 친척이 있는 강음현으로 살길을 찾아간다는 늙은 내외가 과년한 딸 하나를 데리고 절령역참에서 쉬여간적이 있었다.

늙은 내외는 역관지기가 나이 서른이 넘도록 홀로 사는 총각이라는것을 알고는 여기도 사람사는 땅이 분명한데 시집을 오겠다는 처녀가 없어서야 되겠느냐며 딸을 남겨주었다.

그 처녀가 바로 일랑이 어미였다.

그 녀인의 손길이 여기저기에 어려들면서 역참은 비로소 활기를 띠였다.

지나가던 길손들은 험지에 별들었다며 절령역에 뿌리내린 그 녀인을 칭찬하였다.

인정이 무르고 손부리가 여문 안해를 잃고보니 다시는 녀인을 데

려다가 그런 참변을 되풀이하고싶지 않았다.
역관지기는 이미 굳힌 그 마음이 흔들릴수 없다는 생각에서 중얼거렸다.
《얘야, 한해만 좀더 참아라. 우리 래년에는 꼭 서경에 나가 오늘일을 옛말하며 잘살아보자꾸나.》
콩밭김을 다 맸는지 일랑이 마구간으로 꼴을 한아름 안고 들어갔다.
역말들은 저마다 꼴을 먼저 먹겠다고 구유통에 달라붙었다.
절령역참은 이웃역참들보다 크다보니 역말이 많았다.
나라에서는 공무행차를 하는 조정3재(종2품이상의 고관)에겐 역말을 10필, 정3품관은 7필, 참상관(정6품으로부터 종3품까지의 벼슬아치)인 경우 개경량반은 5필, 지방관은 3필, 그이하의 참하관은 2필, 군교들에게는 1필을 내주도록 정해놓았다.
이 법을 지키려면 역참마다 적어도 스무필의 말을 길러야 했다.
절령역참은 나라에서 중요시하는 역참이여서 이웃역참들보다 말 10필을 더 기르고있었다.
역관지기가 제일 아끼는 말이 있다면 잔등을 닦아주던 이 가라말이다. 가라말이 다른 말들보다 더 령리하다거나 잘 달려서라기보다 이 가라말에다 《서경과부》를 태우고 그의 친정집에 데려다주었기때문이다.
하기에 그 녀인이 보고싶어지면 가라말을 끌어내다 잔등을 닦아주면서 처음 만났던 그날을 생각하며 마음을 달래군 하는 역관지기였다.
《이젠 너도 마구간에 가 뭘좀 먹어야지.》
역관지기가 가라말을 마구간으로 끌고가려는데 등뒤에서 꿈결에도 듣고싶던 녀인의 부름소리가 울렸다.
《일랑이 아버지.》
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재차 울리는 부름소리에 역관지기의 손에서 말고삐가 툴렁 떨어졌다.
가라말이 녀인쪽으로 돌아서며 오홍— 하고 울었다. 가라말도 녀

인을 알아본 모양이였다.
　마구간을 나서던 일랑이 목메여 소리쳤다.
　《작은어머님!—》
　녀인은 일랑을 향해 두팔을 벌리더니 달려온 일랑이의 두손을 꽉 부둥켜잡았다.
　《얘야, 보고싶었다. 너와 모여살고싶어 찾아왔단다.》
　《작은어머니…》
　두손을 서로 부둥켜잡은 그들을 보는 역관지기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녀인은 역관지기쪽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일랑이 아버지, 절 돌려보낼 생각은 마시와요. 절령이 아무리 험한 고장이란들 사람까지야 못살데겠나요. 남녀가 모여살지 못하는건 정이 부족해서이지 지세가 험한탓때문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소이다.》
　역관지기는 말문이 막혔다. 녀인이 이미 험한 절령에서 함께 살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왔으니 무슨 말을 할수 있으랴. 저런 녀인과는 석삼년 눈속고생이라도 견딜수 있을것이다.
　역관지기가 눈물이 글썽해서 《서경과부》에게 다가가려는데 서경쪽에서 흙먼지를 가득 말아올리며 말을 때려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오흐응—
　역참에 들어선 황부루는 느침을 한입 물고 헐썩거렸다.
　역관지기는 분노를 느꼈다. 아무리 역말이라도 그렇지 죽어라고 마구 때려몰면 되겠는가. 바로 저래서 역말들이 인차 페마가 되고 만다.
　황부루에서 뛰여내린 사람은 이웃역참의 역졸이였다.
　역관지기는 성이 나서 그를 다몰아댔다.
　《자네 역참사람이 맞아? 맞느냐 말이다?》
　역졸은 눈살이 꼿꼿해서 대들었다.
　《만나자마자 웬 욕설이시우?》
　《에끼, 덜된 사람같으니. 자네같은 사람때문에 우리 역말들

이 녹아난단 말이다.》
《흥! 역말이 뭐 우리 말이우? 량반네거지!》
《나라것을 보고 뭐가 어쨌어?》
《됐수다. 자, 이거나 얼른 받수다. 제길할, 이 잘난 공문서인지 병문서인지 하는것때문에 끼식도 제때에 못먹고 이 지랄이라니까.》
《허튼소리 말아.》
《이거나 보시우다. 방울 세개 매단걸!》
역졸은 공문서가 든 가죽주머니를 내밀었다. 종이말이같은 가죽주머니에 정말 구리방울이 3개씩이나 매달려있었다.
이런것은 흔치 않은 공문서였다.
역졸은 공문서를 받아든 역관지기에게 책 한권을 내밀었다.
《여기에다 지장을 눌러주시우.》
《그래야지.》
역관지기는 책을 받아가지고 역관으로 들어갔다.
역참들에 공문서가 당도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그것을 넘겨주고 넘겨받았는가를 자세히 써넣고 손도장을 찍어 후날의 증명을 삼게 했다.
만일 공문서가 잘못되면 책을 뒤져보고 죄를 따지였다.
역관에 들어선 역관지기는 책에다 글을 쓰고 엄지손가락에 먹즙을 발라 손도장을 눌렀다.
역관을 나서기 바쁘게 역졸이 책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옛네.》
책을 돌려받은 역졸은 《빨리 공문서를 띄우소이다. 공연히 고목에 벼락맞지나 말고.》라는 퉁명스러운 말을 남기고 말우에 뛰여올랐다.
그가 탄 말은 또다시 흙먼지를 말아올리며 멀어져갔다.
《원 녀석두, 성미가 못돼먹었다니까.》
혼자소리로 두덜거리고난 역관지기는 《서경과부》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먼길을 온 임자에게 안됐네. 내 잠간 이웃역에 갔다오겠으

니 일랑이와 함께 집에 들어가게.》
《예.》
일랑이 《서경과부》를 이끌고 집으로 들어가자 역관지기는 하필 이런 때 공문서가 왔다고 혀를 찼다.
《허— 재수가 없기란… 쯧쯧.》
손에 들린 가죽주머니에서 구리방울 3개가 어서 말을 달리라고 호령치는것 같았다.
3개의 구리방울을 단 공문서와 맞다들리면 만사를 뒤로 물리고 그것부터 빨리 날라가야 하는게 국법이다.
방울을 한개 단 가죽주머니는 2월부터 7월까지에는 하루에 4개역, 8월부터 다음해 정월까지는 3개역씩 가야 하며 방울 2개를 단것은 그것보다 중요한 공문서인 까닭에 하루 한개역씩 더 보내주어야 한다. 방울 3개짜리는 제일 중요한 공문서여서 방울을 두개 단 공문서보다도 한개역을 더 보내주어야 한다.
가죽주머니를 품에 넣으려던 역관지기는 공문서에 씌여진 남권부의 이름을 보자 잠시 주춤거렸다.
김충지는 매번 공문서와 맞다들리면 누가 보내는것인가를 확인하고 남권부의 이름으로 된것이면 남모르게 서경으로 가져다 달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남권부의 이름으로 된 공문서는 방울을 한개 아니면 두개를 달았었다.
그런데 지금 공문서를 들여다보니 남권부의 이름이 씌여져있는것이다.
아까는 어찌나 역졸이 보채는지 아무 생각없이 장부에 글을 쓰다보니 남권부의 이름을 보고서도 김충지의 부탁을 잊었었다.
례빈성으로 보내는 남권부의 공문서에 이전과 달리 방울이 세개씩이나 매여달린걸 보면 꽤나 중요한 글을 써놓은 모양이다.
《이건 개경으로 못가. 암, 그래야 하구말구.》
잠시 생각에 잠겼던 역관지기는 마구간으로 뛰여가 빠르기로 소문난 《새매》란 이름이 붙은 백마를 끌어냈다.
《어서 서경으로 가자!》

역관지기가 말에 막 올라타려는데 언제 나왔는지 일랑이 말고삐를 잡았다.

《아버지! 제가 가겠으니 아버진 집에 들어가시오이다.》

《네가? 허— 이건 안돼. 아빈 서경으로 가야 한단다.》

일랑의 두눈에서 영채가 일었다.

《아버진 〈황도친구〉분에게 가려 하지요? 전 어린아이가 아니니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아오이다. 저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고 아버진 집으로 들어가시오이다.》

역관지기는 할 말이 없었다.

저녀석이 다 자랐어. 하긴 아들이 아비의 일을 돕는거야 응당한 도리지.

역관지기는 품에 넣은 가죽주머니를 꺼냈다.

《이걸 소중히 간수해가지고 〈황도친구〉에게 가져가야 한다. 이 일은 남이 알아서는 안되니 극력 조심하거라.》

일랑은 가죽주머니를 받아 품에 찔러넣고 나는듯이 말우에 뛰여올랐다.

《아버지! 념려마시오이다. 이랴, 쩌—》

일랑이 박차를 한번 가하니 《새매》는 힘껏 땅을 차며 질주했다.

《원 녀석두, 어른이 되였다니까.》

6

꿍—꾸르릉—

그 소리는 뢰등석포의 포소리도 천균노의 포성도 아니였다. 먼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둥소리였다.

날밝기 전부터 일어나 병마도감의 마당을 거닐던 박원작은 불안한 눈길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복기운이 떠도는 하늘에서 곧 장마가 시작됨을 예고하는듯 하

였다.

제발 경주에 간 군사들이 돌아올 때까지만 큰비가 내리지 않으면 좋겠는데…

반묘를 가지려 군사들이 떠난지도 어느덧 열흘이 흘렀다.

왕복 수천리길에 짐마차를 끌고오자면 빨라도 열흘은 더 기다려야 할것이다. 비가 쏟아지면 그들의 걸음이 지체될것이니 어떻게 마음이 편할수 있겠는가.

박원작은 배가 뜨끔거려 손을 배로 가져갔다.

요즘 배가 점점 더 아파나는것이 불길한 징조같다.

그가 처음 배를 아파한적은 지난해 가을이였다.

처음엔 입맛을 잃고 몸이 나른해지기에 피로한탓인줄로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인차 명치부위가 불어나는듯 괴롭고 살살 아프더니 그 아픔이 온배로 퍼져나갔다.

허지만 배아픔은 때때로일뿐이여서 그런대로 견딜만 하였다. 그래서 배아픔을 혼자 묵새기고 일손을 놓지 않았다.

정초부터는 배아픔뿐아니라 메스껍고 헛구역질이 나면서 가끔 눈앞이 캄캄해지군 하였다.

뒤늦게 병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린 해연이 《서경명의》를 청해왔다.

병을 보고난 《서경명의》가 흔히 있는 위완통이라기에 안심하고 그가 지어준 약을 받아먹었더니 곧 배아픔이 한결 덜해졌댔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 모양이니 이상한 일이였다.

아무리 의술이 없기로서니 위완통의 병증세 하나 알아낼수 없으랴 하는 생각이 들어 며칠전에 수서원에서 의서들을 가져다 보았다.

의서를 보니 앓고있는 병이 심상치 않았다. 의서에는 식전이나 식후에 배를 아파하는 위완통은 약을 바로 쓰면 몇달안에 고칠수 있다고 씌여있었다.

박원작은 의서에서 자기가 앓는 병증세와 별로 차이없는 병의 이름을 찾아냈다. 그것은 적취라는 병이였다.

고구려때의 이름난 의서 《로사방》에서 취한 글이라고 씌여있는데 적취에는 병증세만 세세히 설명하였지 경험이나 침구방, 약방 같은 병을 다스리는 처방은 전혀 없었다.

세월이 흐르다보니 처방을 류실했을가.

허나 다른 의서에도 적취를 고치는 처방만은 없었다.

그렇다면 적취병은 알고죽는 병이란 말인가.

아, 그래서 병을 고치는데 귀신이라는 《서경명의》가 일부러 위완통이라고 했을것이다. 그라면 위완통으로 오진할수가 없다.

《서경명의》는 그 병을 잘 알면서도 병자를 안심시키려고 일부러 그랬을것이다.

이젠 명백하다. 아직 큰일도 치르지 못했는데 하늘은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 몸에 병이 들게 하였단 말인가.

적취병에 걸리면 배안의 혹이 주먹만 하게 커지면서 돌처럼 굳어지는데 그로 하여 병자는 마지막까지 심한 고통을 겪는다고 하였다.

정녕 뜻을 이루지 못하고 쓰러져야 한단 말인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서야 어찌 눈을 감을수 있으며 지하에서 부친을 만나뵈올수 있으랴.

죽음을 알면 반드시 용기가 나는 법이라고 하였다. 과시 그 말이 옳다. 이미 수명은 하늘의 운수로 정해져있으니 기운이 더 진해지기 전에 열스무배로 하루를 쪼개가며 분발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다듬어서인지 배아픔이 한결 기세를 숙이는것 같았다. 그래서 여전히 집에 들어가지 않고 별관에서 침식을 하고있는것이다.

다행히도 별관에서 끼식시중을 드는 녀인의 음식솜씨가 괜찮아 밥을 몇술씩은 놓지 않는다.

스적스적 옮기던 박원작의 걸음은 늘 마주하고있어도 싫지 않는 오얏나무들앞에서 멈춰섰다.

박원작이 가지가 휘여지게 오얏이 주렁주렁한 오얏나무를 눈더듬질하는데 방금 병마도감에 들어선 남권부가 그를 띠여보고 소리쳤다.

《박공!—》
그는 부리나케 걸어오며 물었다.
《몸은 좀 어떤가?》
박원작은 동정이 어려있는듯한 남권부의 눈길을 마주보며 대꾸했다.
《언제 보나 선참 나오누만.》
남권부도 박원작을 마주보며 웃었다.
《박공! 내가 무슨 보약을 가져온줄 아나? 세상 약해빠진 병다리도 장사로 만들어주는 만병통치약을 구해왔단 말이요. 자 받게. 백년묵은 산삼일세.》
남권부는 손에 든 자개박이함을 내밀었다.
《내 이걸 손에 넣느라고 품깨나 들였네. 백년묵은 산삼을 쓰면 위완통이 아니라 그 하내비가 되는 병도 뚝 떨어진다네.》
박원작은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저었다.
《병마도감사, 알아보지도 않고 망탕 돈을 쓰면 되나. 내 병엔 산삼이 맞지 않으니 돌려주라구.》
남권부는 펄쩍 놀라더니 성을 내며 말했다.
《난 이미전에 병마도감사는 내가 아니라 여전히 박공임을 절감했네. 다들 그대를 보고 변함없이 병마도감사라고 부르는데… 다시는 내게 병마도감사란 말 말게. 그리고 친구가 주는 약을 거절하는건 덕행이 아니라 악행일세.》
박원작은 마지못해 남권부가 들려주는 자개박이함을 받아들었다.
《이보라구, 남공! 자네 그렇게 돈을 망탕 쓰다가 안사람한테 내쫓기지 않나 두고보게.》
《핫핫하—》
웃음을 터치는 남권부를 보며 박원작은 눈물을 머금었다. 일시 잘못이 없는이 없고 허물을 두지 않은이 없다고 남권부가 어지를 받고 망탕처신을 한건 본의가 아닐것이다. 진심으로 그때의 잘못을 뉘우치려 애쓰는 남권부인데 이전처럼 친구로 대하지 못할건 뭐겠는가.
이런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뜻을 성취할수 있을것이다.

《박공, 지원사가 보내준 쌀과 천필은 어떻게 하자나?》
박원작은 쓰거운 웃음을 지었다.
병주고 약준다더니 어제오후 리자연이 보낸다는 여러대의 마차들이 쌀과 천을 가득 싣고 병마도감에 당도했다.
《그거야 남공 자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럼 좋네. 난 그걸 장공인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겠소.》
박원작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남권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남공, 내 한가지 부탁을 해도 되겠나?》
《무슨 부탁인데 다짐부터 두려 하나?》
《어려운 부탁이여서…》
《귀젖 떨어지겠군. 어서 말하게!》
《좋아. 자네한테 덧짐을 또 지워야 할가부네. 다른게아니라 자네 이제부터 화약을 만드는 일을 배워야겠네.》
그 말에 남권부는 어지럼증이 난듯 비칠거렸다.
《남공! 왜 그러나? 어디 아픈가?》
남권부는 급히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아니네. 아침술을 마셨더니… 이자 뭘 배우라고 했던가?》
《힘들더라도 화약을 만드는 일을 배우라는거네.》
남권부는 혀가 굳어지는듯 하였다. 소원을 이렇게도 불쑥 성취할수 있단 말이지. 사람이 살다가 이런 때도 다 있군… 이런걸 가리켜 벼락횡재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에 능먹은 남권부는 딴전을 부렸다.
《박공! 내가 어떻게 박씨가문의 비방을 배울수 있단 말인가. 안될 말일세.》
박원작은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면서 마음을 몰라주는 남권부가 야속하였다.
박원작은 자기 병은 골수에 든 병이여서 화약의 비방을 넘겨주련다는 말을 도루 삼키였다.
그 말을 들으면 남권부가 오죽 섭섭해하겠는가. 지금의 병상태를 보아서는 오래 살기 틀렸는데 이 몸이 쓰러지기 전에 대를 물려줄 적임자를 택해야 한다.

그 적임자로는 바로 자기를 반성하고 어려울 때 발벗고나서서 도와주는 남권부라고 해야 할것이다.

《하여간 반묘가 당도하면 함께 화약을 만들기요.》

《박공!…》

남권부는 너무 심기가 끓어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7

가물끝에 큰비가 온다고 이해가 그러했다. 올해는 봄내 가물고도 부족하여 보리장마까지 지지 않았다.

사방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지냈더니 실컷 먹어라 하는듯 폭우가 들씌워졌다. 련 사흘째 줄곧 퍼붓는 폭우에 사람들은 아우성을 쳤다.

대동강은 범람하는 강물로 하여 날바다를 련상시켰다.

나흘만에 잠시 비구름이 걷혔던 하늘은 또다시 심술궂은 먹장구름으로 뒤덮였고 이어 쏟아지는 대줄기같은 무더기비에 천하는 몸부림을 쳤다.

박원작은 매일같이 밖을 내다보며 가슴을 조이였다.

제발이지 그만 비질을 끝내주렴.

그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였는지 장마비는 열흘이 지나서 기세를 숙이더니 마침내는 구멍이 펑 뚫린 구름사이로 파아란 하늘이 드러났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기뻐들 하였다.

해를 보고 제일 반가와하는 사람은 박원작이라고 해야 옳을것이다.

비가 멎었으니 경주에 간 군사들이 마음놓고 귀로에 올랐을게다.

박원작은 가벼운 마음으로 염초장으로 나갔다.

오늘은 날이 들었으니 염초를 달여내기에는 그저그만이다.

박원작이 염초장에 들어서니 염초를 달여낼 차비를 하던 장공인

들이 일손을 멈추고 인사를 차렸다.

《병마도감사님! 밤새 편안하셨소이까?》

박원작은 매번 그러했듯 장공인들에게 깍듯이 맞절을 하였다.

《그대들도 밤새 편안하셨소?》

《고맙소이다.》

《오늘은 한바탕 땀을 내여봅시다.》

박원작은 장공인들에 이어 뜨락을 둘러보았다. 뜨락의 한켠에는 어른들의 키만한 큰 독들이 수십개나 놓여있었다.

그 독들마다에는 구재처럼 맵거나 쓴 흙들과 벼짚재를 섞고 그속에 맹물을 넣어 받아낸 염수(염초물)가 가득가득 차있을것이다.

그동안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속에서도 뜨락에 비가림을 해놓고 마련한 염수였다.

큰 독들앞에는 열댓말들이의 큰 가마가 여러개 걸려있었다.

돌석이 말했다.

《병마도감사님! 일을 시작하겠소이다.》

박원작이 고개를 끄덕여보이자 그는 큰 독으로 가면서 소리쳤다.

《자, 다들 달라붙어 제꺽 〈안부〉부터 해놓고 〈기화〉를 합시다.》

《안부》란 독에 받아놓은 염수를 가마에 넣으라는것이고 《기화》란 소리는 가마에 불을 지피라는 뜻이다.

장공인들이 독들에서 목통에 염수를 퍼담아 가마에 쏟아붓고 있는데 그제서야 남권부가 나타났다.

그는 미안한 기색을 지으며 박원작에게 말했다.

《박공, 늦어 안됐소. 아침밥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만…》

박원작은 웃음을 지었다.

《장공인들처럼 일찍 나오기가 힘들지. 오늘은 독에 받아두었던 염수를 달여 염초를 얻어내는 날이니 여느날보다 주의깊게 살펴야겠소.》

《알겠네.》

남권부는 뜨락에 우뚝 서서 장공인들을 지켜보기만 하였다.

그는 요즘에 와서 날마다 염초장에 나오기는 하지만 언제한번 팔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공인들과 휩쓸려 일한적 없었다.
아무일이나 눈에는 익어도 손에는 설다는 말이 있다.
박원작은 굳이 남권부가 일손을 잡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지금껏 손가락 하나 까딱치 않고 살아온 그가 갑자기 일을 할리 만무였다. 염초를 만드는 일이 몸에 배인 돌석이가 있으니 남권부는 눈으로만 익혀도 별일없을것이다. 염초의 질을 높이려면 염수를 달여 얻은 염초를 두번 더 물에 타서 달여야 한다.
처음 염수를 달여 거친 염초를 얻어내는것을 《초련》이라고 하며 그다음은 《재련》, 마지막 세번째 달이는것은 《삼련》이라고 한다.
벌써 불을 지핀 가마들에서는 김을 뿜기 시작했다. 그러자 좀 지린듯한 냄새가 났다.
박원작은 그 냄새가 구수한 냄새처럼 느껴졌다.
세상에 땀흘려 일하고난 자기의 몸에서 나는 땀내에 얼굴을 찡그릴 사람은 없을것이다.
하듯이 선조들의 슬기와 지혜가 깃들어있는 염초를 달여내느라 풍기는 그 냄새를 어찌 지리다고 할수 있겠는가.
가마에서 물이 끓기 시작해서 그 물이 다 줄 때까지 반나절이 잘 걸린다.
박원작은 돌석이에게 일렀다.
《이보게, 행수! 아궁에 장작을 넣을 사람만 남기고 다른 사람들은 좀 쉬우게.》
《예.》
돌석은 뜨락 한켠에 높이 솟은 버드나무아래에 멍석을 가져다펴고 소리쳤다.
《남돌이 아버지만 남아서 아궁에 나무를 넣고 다들 여기에 와 쉬우다.》
장공인들이 이마에 난 땀을 문대며 멍석우에 둘러앉았다.
박원작이도 남권부를 데리고 멍석의 한켠에 자리를 잡았다.
박원작은 돌석이의 온곱지 않은 눈길이 남권부를 스치는것을 감촉했다.
남권부를 대하는 돌석이의 눈길이 온곱지 않다고 그를 나무랄것

도 못된다.

박원작이 돌석이의 온곱지 않은 눈길을 모르쇠하는데 그는 옆에 앉은 텁석부리에게 말했다.

《〈좌상어른!〉 언제부터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했는데 오늘을 넘기지 않으면 좋겠소이다.》

《좌상어른》이라고 불리우는 텁석부리는 갓 마흔살인데 염초장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아 그렇게 불리운다. 텁석부리는 대번에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돌석이에게 눈을 흘겼다.

그러자 돌석이 웃으며 말했다.

《없는 이야길 꾸미지 말고 〈좌상어른〉이 아버지를 중매서느라 오해를 받았다는데 그걸 들려주시우다.》

《형님! 거 뭘 비싸게 구시우?》

장공인들이 한마디씩 보채자 텁석부리는 언성을 높였다.

《하라면 못할줄 알아?》 하더니 텁석부리는 구수한 이야기판을 펼쳐놓았다.

박원작은 곧 같은 해에 홀아비들이 된 《좌상어른》의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한날한시에 장가들었다는 이야기에 심취되였다.

아버지는 한 과부가 소개하는 처녀를 며느리로 맞으려 왼심쓰고 아들은 그 과부를 후어머니로 모셔오려고 애쓰다가 함께 장가든 이야기를 들으며 박원작은 속으로 탄식해마지않았다.

과연 이 박원작이는 언제 가야 자식된 도리를 지켜 어머니를 모시겠는지…

한편으로는 장공인들의 재미난 이야기를 이제 몇번이나 더 듣게 될런지 하는 서글픈 생각도 갈마들었다.

8

김충지는 아침부터 대동문앞의 강가를 거닐고있었다. 오늘 오전 이곳에서 리순일과 만나기로 약속되여있다.

김충지가 약속된 시간보다 먼저 나와 대동강가를 거니는것은 그동안 심국종을 살피면서 걷어쥔 단서들을 돌이켜보고싶어서였다.

어제밤에도 김충지는 요 며칠새 그러하듯 피에 주린 모기떼의 성화도 마다하고 보통문근처에 있는 심국종의 거처지를 살피였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분명 속에 딴마음을 품은 심국종의 정체는 한겹한겹 벗겨졌다.

심국종이 저는 밤이슬에 흥미가 없는듯 부처처럼 골방에 공손히 들어앉아있다지만 그의 심부름군은 사방에 빚받으러 다니는 빚놓이군처럼 밤이면 장안의 골목들을 개싸다니듯 하였다.

늘 검은 옷을 입고 두눈알만 내놓은 검은 복면을 쓴 그놈은 도적고양이처럼 어찌나 날랜지 매번 종적을 놓치군 하였다. 대개는 경상골에서 때로는 고리문근처에서 꼬리를 사리는 그놈이 도대체 무슨짓을 하려는것일가.

매번 그놈의 종적을 놓치긴 하였지만 그놈의 체격만은 눈을 감고도 그려낼수 있다. 키는 심국종이만한 난쟁이인데 어찌 보면 몸집이나 행동거지가 그와 비슷했다.

혹시 심국종이 제 동생을 심부름군으로 달고온것은 아닌지…

그 의문은 이제 곧 리순일이 나타나면 깨끗이 풀릴것이다.

리순일은 이번에 만날 때까지 심국종의 래력을 알아오겠다고 하였다.

심국종에겐 또 다른 심부름군도 있다.

리순일의 친구라는 서경류수부의 판관이 남권부네 집 사환군을 문초하여 알아낸것인데 중차림을 한 사람이 언제인가 심국종의 심부름으로 한낮에 남권부를 찾아왔다고 한다.

그래서 눈을 밝혔더니 아니나다를가 전번 병마도감이 쉬는 날 심국종의 집에서 키작은 갓쓴 중이 나와 남권부의 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중이 남권부의 집에 무엇인지를 전하고 심국종의 집으로 되돌아갔는데 다시는 집밖으로 나오지 않은것이였다.

이야말로 수수께끼가 아닐수 없다.

하여간 심국종이 그자가 구미여우 한가지로 교활하기 짝이 없다.

심국종의 뒤를 밟으면서 아직도 풀지 못한 의문은 그자가 돈이 어데서 나기에 장공인들에게 쌀이며 닭같은것을 때없이 부조할수 있겠는가 하는 그것이다. 심국종이 병마도감에서 타는 돈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것도 이제 리순일을 만나보면 어느 정도 알아낼수 있을것이다.

심국종의 정체를 밝혀내는데서 절령의 역관지기가 한몫했다.

보름전 절령역관지기의 아들 일랑이 구리방울이 세개 달린 공문서를 가져왔는데 뜯어보니 뜻밖에도 이런 글이 씌여있었다.

《주인님이 관심을 가진 서경물산을 만드는 비방을 곧 살수 있다고 봅니다. 〈대동관〉의 주인이 중병에 걸려서 남에게 서경물산을 만드는 일을 맡아보게 했습니다. 불원간 남이 그 비방을 물려받아가지고 서경물산을 만들것입니다. 그러면 일은 뜻대로 될수 있을겝니다. 인차 기쁜 소식을 보내겠습니다.》

김충지는 아리숭한 글이 씌여진 공문서를 들고 리순일병마부사를 찾아갔었다.

두사람의 지혜를 합치니 글뜻을 어렵지 않게 풀어낼수 있었다.

《대동관》의 주인이란 박원작이였고 남이란 곧 남권부를 가리키는것이니 《서경물산》은 화약으로, 《서경물산》을 만드는 비방은 화약을 만드는 비방으로 통했다.

주인님이란 곧 리자봉을 의미했다.

공문서를 해득하니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

리자봉은 화약을 만드는 비방을 손에 넣으려고 하고있으며 남권부는 중병에 든 박원작이 자기에게 화약의 비방을 배우게 한 이 기회를 절호의 기회로 여긴다는것이였다.

리자봉이 화약의 비방을 뽑아서는 무엇을 하려는가. 병마부사가 그에 대한 답을 주었다.

판북계병마사의 말에 의하면 개경에서 어떤자들이 남몰래 나라의 병기고에서 화약과 《신기한 병기》를 뽑아내여 다른 나라 장사군들에게 팔아먹고있다.

김충지도 최충에게서 그런 말을 들은적 있었다.

그러고보면 저희들의 치부를 위해 나라의 중요한 병기를 뽑아내

여 팔아먹는자들은 권세도 있고 다른 나라 장사군들과 거래도 할수 있는 벼슬아치들이다.
례빈성의 판사인 리자봉이라면 얼마든지 그런짓을 꾸밀수 있을것이다.
리자봉이 어벌차게도 화약의 비방까지 뽑아내여 다른 나라에 팔아먹자는건 반역에 속하는 큰 죄가 아닐수 없다.
그의 형인 리자연은 조정대신으로서 임금의 총애를 받고있는데 그런 집안에서 역적이 나오다니…
하긴 한집안에서 충신도 역적도 나올수 있다는 말도 있다.
김충지는 공문서를 통하여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는 처음 밀봉한 공문서를 뜯어볼 때 그 글을 남권부가 썼음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다시한번 글줄을 뜯어보니 남권부의 글체가 아니였다.
김충지는 각성을 가지고 남권부를 대하다보니 그의 필적까지 알고있었다.
남권부의 글체는 늘 오른쪽으로 누운데다 활달한데 왜서인지 《날 일》자를 《말할 왈》자처럼 썼다. 그런 습관은 못고치는 법이다. 허나 공문서의 글들은 정자이고 《날 일》자도 정바르게 썼던것이다.
병마도감에 돌아와 은밀히 사람들의 필적을 조사하니 심국종이 걸려들었다. 공문서를 꾸민 장본인은 심국종이였다.
김충지는 가짜 공문서를 꾸민 심국종이 제가 직접 역참에 부쳤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마도감에서 가까운 운봉역참에 나가보았다.
운봉역참은 병마도감에서 공문서를 부치는 역이였다.
운봉역참의 역관지기는 키가 작달막하고 얼굴이 가무잡잡한 사람이 병마도감사의 인장이 박혀있는 공문서를 띄우라는 문서를 들고와 공문서를 부치군 하였다고 증언했다.
심국종 그놈이 공문서를 띄우는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그런 망탕짓을 하다니…
공문서를 띄우는 절차는 엄격했다.

개경의 관청들에서 지방고을들에 공문서를 띄우려면 작성한 공문서를 먼저 백관을 통솔하는 상서도성에 보내야 한다.

상서도성에서는 공문서가 조정의 뜻에 맞게 작성되였는가를 따져보고 바로 되였을 경우에만 아래에 내려보내도록 허락한다.

고을들에서는 고을원이 공문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역참에 띄워 개경에 올려보낸다.

병마도감에서는 병마도감사가 부재중인 경우에만 그를 대리하는 소감이 공문서를 작성하여 우에 보낼수 있다.

그런데 일개 장공인에 지나지 않는 심국종이 공문서를 띄웠으니 이런 무법불법이 어데 있단 말인가.

그 죄만 따져도 심국종은 정배살이를 면할수 없다.

이제는 심국종의 정체를 어느 정도 짐작할수 있다. 그놈은 리자봉의 끄나불로서 화약의 비방을 뽑아내여 다른 나라에 팔아먹으려하는 상전과 공범하는자이다.

바로 그 본색을 가리려고 심국종은 잠입한 녀진사람들속에 천균노를 해치려는 나쁜 놈이 배겨있다고 말했을것이다.

김충지가 수일내로 심국종을 붙잡아치워야겠다고 벼르고있는데 등뒤에서 리순일의 목소리가 울렸다.

《김공! 오래 기다렸나?》

김충지는 너무도 반가와 리순일의 손을 덥석 잡았다.

하루만 만나보지 못해도 열스무날 헤여져 산 사람처럼 그리워지는 그였다.

《심가놈의 래력을 알아왔소이까?》

리순일은 너부죽한 얼굴에 미소를 담고 김충지의 손을 흔들었다.

《원, 성미두. 우물에 가서 숭늉 찾겠는걸!》

《어디 급하지 않게 됐소이까. 그놈이 무슨 일을 칠지 모르겠는데.》

《허— 자네 줌안에 들어있는 놈이 무슨 일을 치겠나. 그건 그렇고. 개경에서 그놈의 래력을 적은 공문서를 보내왔네.

심가 그놈은 개경태생이 아니고 명주(강릉)에서 일여덟살때 홀아비인 애비의 등에 업혀왔다는거요. 그놈한테는 후에미도 다른

형제들도 없소.》
김충지는 밤에 복면을 쓰고다니는 그자가 심국종의 동생이 아님을 확신했다. 그렇다면 심가 그놈이 변신술을 쓰는건 아닐가.
《그놈의 애비는 등치고 간빼먹을만치 간사한자인데 개경에 올라와 어느 재상집 사환자릴 얻어가지고 상전을 등대고 갖은 못된질로 재물을 긁어들였다고 하오.》
김충지는 또 한가지 심국종이 물쓰듯 하는 돈이 죄다 아비의 돈주머니에서 흘러나왔음을 짐작했다.
심국종은 바로 자기의 진속을 숨기려고 장공인들에게 인심을 썼을것이다.
《제 애비를 꼭 게워놓은 심가놈은 능갈치고 둘러맞추는 재간이 신통해서 일찌기 리자봉의 눈에 들어 그 집에서 사환질을 했다고 하오. 그후 놈은 리자봉의 주선으로 군기감의 리속으로 들어갔다가 여기 병마도감으로 왔소.》
《아, 알만 하오이다. 심가놈은 아마 군기감에서 화약이며 〈신기한 병기〉들을 빼내다 리자봉이한테 바쳤을겁니다.》
《옳게 봤소. 그건 그렇고, 자넨 천균노를 어느 놈이 해쳤다고 생각하오?》
김충지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그는 이전부터 천균노를 해친 놈이 숯고간에도 불을 지르고 메득이도 죽였다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렇지만 그놈을 밝혀내는 그 어떤 실마리도 가지고있지 못했다.
《아직은… 모르겠소이다.》
《내 생각엔… 화약의 비방을 노리는 놈과 천균노를 해친 놈을 갈라보아선 안되겠다는거요.》
그 말에 김충지의 두눈에서 번쩍 불이 일었다.
화약을 노리는 심가 그놈이 왜 없는 열성을 부렸겠는가. 그때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무토막쯤은 거푸집에 집어넣을수 있다.
리순일은 고개를 수그리고 이를 가는 김충지의 어깨우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자네 여우가 개울을 거의다 건너가서 꼬리를 적신다는 말 알지?》

동서고금의 숱한 책을 읽은 김충지가 그 말뜻을 어찌 모르랴.
세상에 여우만큼 꼬리를 귀히 여기는 짐승도 쉽지 않을것이다. 하기에 여우는 개울과 맞다들리면 꼬리가 젖을세라 잔뜩 꼬리를 쳐들고 헤엄을 치는데 그래서 곧 힘이 빠지고만다. 힘이 빠지게 되니 그리도 아끼는 꼬리라지만 물에 떨구고만다.
하듯이 나쁜짓을 꾸미는자들은 꼬리를 밟힐가 무진애를 쓰지만 종당에는 맥을 잃고 본색을 드러내기마련이라는것을 여우꼬리에 비유한것이였다.
《자네가 그 말뜻을 모를리 없지. 깊이 숨어 못된짓을 꾀하는 나쁜 놈들을 잡아내자면 그놈들이 생각할수 없는 구석을 알아야 하네.》
김충지는 고개를 쳐들었다.
《한가지 의문스러운것은 만일 심가놈이 천균노를 해쳤다고 가정한다면… 화약의 비방이나 조용히 뽑아가면 되겠는데 무엇때문에 천균노를 해치는 무모한짓을 저질렀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리순일이 무릎을 쳤다.
《바로 그거요. 그걸 풀어내야 심가놈의 정체를 다 밝혀냈다고 할수가 있소.》
김충지는 다시 고개를 떨구고 생각을 더듬었다.
이윽고 그는 머리를 들었다.
《병마부사님! 제 생각엔 그걸 풀어내자면 두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보오이다.
하나는 심가놈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말고 살피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경에 사람을 파해 심가놈의 애비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하오이다.》
리순일은 김충지의 손을 꼭 잡아쥐였다.
《배짱이 맞아. 바로 그거요, 그것! 그래서 난 오늘아침 개경에 남아있는 북계병마판관에게 급히 심국종의 애비를 건드려보라는 공문서를 띄워보냈소. 방울을 세개씩이나 달아서 말이요.》
김충지는 앞질러 일처리를 한 리순일을 존경어린 눈길로 쳐다보았다.

이런 사람과 손을 잡았으니 무슨 수수께끼인들 풀어내지 못하겠는가.

《어참, 이 정신 보지. 간밤에 말이요. 군사들이 반묘를 실어 왔소.》

《그렇소이까?》

김충지는 환성을 올렸다. 그는 밤새 심국종의 집가까이에서 그자를 살피다보니 그 일을 알수 없었다.

《이젠 됐소이다. 반묘때문에 박공이 그토록 근심했는데…》

《김공! 자네의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요. 반묘가 왔으니 심가놈이 크게 움직일거요.

난 심가 그놈이 결코 리자봉이만을 위해서 그런짓을 한다고 생각지 않소. 그놈은 나라에 몹시 위험한 놈이요.》

김충지의 두주먹이 불끈거렸다.

《념려마시오이다. 제 꼭 그놈의 덜미를 잡아내서 화약의 비방도 천균노도 지켜내겠소이다.》

《그래야지.》

9

어느덧 선기가 났다. 지겨운 복더위가 쫓겨가고 가을이 찾아온것이였다.

박원작은 날로 여위여갔지만 일하는 정신에 아픔을 이겨내고있었다.

반묘는 그에게 있어서 불사약과도 같은 효험이 있었다.

반묘를 보았을 때 그의 눈은 머루알같이 새까만 아이들 눈처럼 생기를 내뿜었고 웃음이 가득하였다.

박원작은 지체없이 반묘를 가지고 새 화약을 만드는 일에 달라붙었다.

이미 그는 종전의 화약은 그 량이 늘어날수록 불심지에서 퍼지는 불을 고르게 받지 못할뿐더러 먼저 타는 화약의 터지는 힘에

의해 적지 않은 량의 화약을 뿌려버림으로써 자기 위력을 다 낼수 없다는것을 밝혀내였다.

염초를 단번에 태우려면 숯가루와 반묘가루가 조화를 부려야 함을 그는 잘 알고있었다.

박원작은 지루한 장마기간 락심하지 않고 그것들의 제일 적합한 배합비률을 밝혀내기 위한 묘안을 짜놓았다.

첫째로는 염초 7할(70%)에 버드나무숯과 반묘를 각각 1.5할, 둘째로는 염초 8할에 버드나무숯과 반묘를 각각 1할, 세번째로는 염초 7할에 버드나무숯 2할, 반묘 1할 그리고 마감으로 염초 8할에 버드나무숯을 1.5할, 반묘 0.5할로 섞어 시험할 생각을 굳히였다.

박원작의 일손을 남권부와 돌석이 곁에서 거들어주었다. 그들의 도움으로 박원작은 하루만에 네가지 화약을 한섬씩 만들수 있었다.

박원작은 돌석이의 의견을 받아들여 새로 만든 화약의 비방을 엄수하기 위하여 네가지 화약에 차례로 《갑》, 《을》, 《병》, 《정》의 이름을 붙였다.

그는 네가지 화약의 위력을 뢰등석포로 시험할 생각이였다. 시험을 조용히 치르고싶어서보다 아버지의 죽음을 참작해서였다.

만일 수십근이나 되는 화약을 천균노에 넣고 불을 달았다가 뜻대로 화약의 위력이 커지는 경우 어떤 봉변을 당할지 어이 알랴.

아버지는 새로 만든 화약의 위력을 타산하지 못한탓에 참변을 당했다고 할수 있다. 또다시 피를 흘려서야 되겠는가.

박원작은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 모여 새로 만든 화약의 시험을 하기로 하였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더니 시험 당일날의 가을하늘은 동전만한 구름 한점 찾아볼수 없이 맑고 창창하였다.

박원작은 부축하려는 돌석이를 먼저 병마도감의 뒤골안으로 떠나보내고 지팽이에 의지하여 천천히 걸었다.

몸은 비록 병이 들어 발걸음마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날아갈듯 가벼웠다.

마음이 가벼운데 어찌 남에게 부축되여 더우기 뜻을 펴게 될

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이끌려가겠는가.

오늘의 순간순간을 몇순간 맞잡이로 여겨 숨도 쉬고 걸음도 옮겨야 한다.

뒤골안에 이르니 남권부와 돌석이 벌써 만단의 차비를 다 갖춰놓고있었다.

남권부는 보건대 그도 오늘만큼 기쁜 날이 없는것 같았다. 너무 기뻐서인지 그의 얼굴이 웃는 상인지 울상인지 알수 없었다.

사실 그랬다.

남권부는 중병을 앓는 박원작 앞에서 내놓고 웃을수가 없어 그렇지 속으로는 배꼽을 오르내리며 흐드러지게 웃고있었다.

이제는 박원작이 성쌓고 남은 돌 신세가 되고말았다. 남권부는 그토록 나라의 제일가는 보배라 할수 있는 화약을 만드는 비방을 이젠 다 알아냈다고 할수 있다.

그렇게 가지고싶었던 화약의 비방을 송두리채 움켜잡았으니 병마도감사정도가 아니라 군기감, 더 나아가서는 나라의 병권까지도 한손아귀에 거머쥘수 있을것이다 하고 남권부는 생각하였다.

《남공! 시작해보는게 어떻소?》

남권부는 박원작의 물음에 흐뭇한 심정을 누를길 없었다.

박원작이 나를 둘도 없는 친구로 믿는게 틀림없다. 하긴 그러니까 그전같으면 생각할수도 없었던 염초장을 제집 드나들듯 하게 해주었겠지.

오늘일이 순조롭게 된다면 래달에는 리자연이한테로 돌아가리라.

남권부는 속심과는 달리 박원작에게 친절히 평상을 권하고 근달에게 분부했다.

《련장행수가 일을 주관하게.》

근달은 병마도감사랍시고 박원작의 앞에서 행세를 하려는 남권부를 보기 쓰거웠지만 감정을 누르고 장공인들에게 소리쳤다.

《〈갑〉과 〈을〉을 각기 뢰등석포들에 재우라!》

돌석이 주동이 되여 두문의 뢰등석포에 《갑》과 《을》이라 부르는 화약을 따로따로 장약했다.

박원작은 돌탄을 밀어넣은 뢰등석포들에 불을 달려는 돌석이

를 제지시켰다.

《가만!》

남권부는 웬일인가 하여 박원작을 바라보았다.

《불을 달면 다들 멀찌감치 뢰등석포에서 물러나야겠네.》

그의 뜻을 알아차린 돌석이 장공인들에게 알렸다.

《다들 몇십보 뒤로 물러나시오!—》

돌석은 장공인들이 멀리 물러나서야 불심지에 화심을 가져다 댔다.

뒤로 멀찌기 물러앉은 박원작의 긴장한 시선이 불심지들을 지켜보고있었다.

과연 《갑》, 《을》, 《병》, 《정》 의 네 처방중에서 뜻을 이루어줄 명처방이 나오겠는지…

불심지에 불을 단 남권부가 종주먹을 쥐고 뒤로 달아나는데 거의 동시에 쾅—쾅!— 하는 요란한 포성이 울렸다.

그 순간 번개치듯 번쩍 불을 토하며 아름드리돌탄들이 하늘로 솟구쳐올랐다. 하늘로 솟구쳐오른 두개의 돌탄은 쏜살같이 골안으로 날아갔다.

골안을 따라 들어가며 백보간격으로 회가루를 뿌려놓아 누구나 돌탄이 날아가는 거리를 어렵지 않게 가려볼수 있었다.

두개의 돌탄은 허공을 헤가르며 여러개의 표식선을 날아넘었다.

마침내 골안의 막바지에서 두개의 흙먼지기둥이 솟구쳤다.

그 순간 와— 하는 환성이 터져올랐다.

박원작은 평상에서 벌떡 일어나 장공인들처럼 환성을 질렀다.

이거야말로 성공이 아닌가. 성공이 이렇게 빨리 올줄 어이 알았으랴.

반묘야말로 화약의 비방이라고 할수 있었다. 부모님들이 아니였다면 꿈같은 오늘을 볼수나 있었겠는가.

남권부는 새로 만든 화약의 위력앞에 입을 딱 벌렸다.

이전의 화약으로 뢰등석포를 쏘았을 때는 오륙백보를 날아넘은 돌탄이 지금은 골안의 막장에까지 가닿았다. 그러니 팔백보는 넉근하다.

남권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공! 어떻소? 뜻대로 되였소?》
박원작은 가슴이 터질것만 같은 흥분을 애써 누르며 겨우 입을 열었다.
《〈병〉과 〈정〉을 마저 보고…》
《암, 그래야지.》
남권부는 사기가 나서 목청을 돋구었다.
《다들 뢰등석포에롯! 〈병〉과 〈정〉을 재우라!》
돌석이 장공인들을 이끌고 달려나가 뢰등석포들에 달라붙었다.
이번에도 돌석이가 화심을 집어들고 뢰등석포들에 불을 달았다.
박원작은 가슴을 조이며 불심지가 타드는 뢰등석포를 지켜보았다.
이번엔 어떤 결과를 가져올런지…
꽈—꽝!—
번개처럼 날아오른 두개의 돌탄은 바람을 짓부시며 공중에 포물선을 그었다.
이번에도 골안의 막바지에서 두개의 흙먼지기둥이 솟구쳤는데 하나는 좀더 뒤쪽에서 치솟았다. 《병》을 재워 쏜 돌탄같았다.
박원작은 누구에게라 없이 물었다.
《저게 분명 〈병〉이지? 더 멀리 앞에서 솟구친것 말이요?》
환성을 올리던 장공인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옳소이다. 〈병〉이 틀림없소이다.》
박원작은 주먹을 내휘두르며 소리쳤다.
《〈병〉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화약인것 같애.》
또다시 장공인들이 환성을 터치였다.
박원작의 두눈에 핑그르르 눈물이 돌았다.
아버님! 이젠 됐소이다. 염초 7할에 버드나무 숯 2할 거기에 반묘 1할을 섞은 화약을 드디여 만들어냈소이다.
이것이면 얼마든지 천균노의 위력을 보여줄수 있소이다. …
박원작의 눈길이 뢰등석포곁에서 웅장한 몸집을 자랑하는듯한 천

균노에로 옮겨졌다. 먼저번 사격시험에서 실패한 후 그냥 그자리에 놓아두고 파수를 세운 천균노였다.

그는 지금 당장 천균노를 쏘지 않고서는 견딜것 같지 못했다.

하루를 몇달맞잡이로 아껴야 할 오늘이고 보면 어찌 한시인들 시간을 허비할수 있으랴.

《남공! 천균노를 쏘았으면 하네.》

그렇지 않아도 천균노를 곁눈질하며 저것도 쏘아보았으면 하던 남권부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그 말에 입이 가로 돌아갔다.

남권부는 화약이 담긴 요자를 안아들며 소리쳤다.

《다들 못들었나? 〈갑〉부터 천균노에 재워야겠어.》

장공인들이 사기가 나서 천균노에 달라붙었다.

돌석은 제가 직접 긴 장대모양의 화약다지개를 포아가리로 들여밀어 화약을 꼼꼼히 다져넣었다.

격목을 맞춘 천균노에 300근짜리 돌탄이 재워졌다.

박원작은 화로에서 시뻘겋게 단 화심을 집어들었다.

《불은 내가 달겠네.》

남권부는 병든 몸으로 천균노에 불을 달겠다는 박원작이 마음에 놓이지 않아 고개를 저었다.

《박공! 그저 지켜만 보게.》

《아니, 이제 내가 몇번이나 이렇게 할수 있겠나. 그러니 날 말리지 말게. 자 어서들 물러나게. 빨리!》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자 박원작은 천균노에 불을 달았다.

치익—

박원작은 불심지에 불이 타드는 소리를 들으며 장공인들쪽으로 물러섰다.

이어 땅이 움썰하는 순간 지동을 치는 요란한 포성이 울렸다.

박원작은 골안을 뒤흔드는 포성에 귀가 멍멍했지만 두눈을 똑바로 뜨고 하늘을 물어뜯으며 짓쳐나는 거대한 돌탄을 바라보았다.

돌탄을 쳐다보는 순간순간이 그대로 온몸이 쫄아드는듯 하였다.

제발 좀더 좀더…

너무 흥분한탓인지 갑자기 눈앞이 뿌잇해지며 돌탄이 보이지 않

았다.

(?!…)

와!—

박원작은 장공인들의 격찬 환호성에 돌탄이 멀리 날았음을 직감했다.

그러니 뜻대로란 말이지.

박원작은 너무 큰 기쁨이 갈마들어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했다. 중심을 잃은 그는 휘청거렸다.

돌석이 제꺽 박원작을 부축했다.

《보셨지요? 칠백보를 넘었소이다.》

남권부도 박원작을 부축하며 부르짖었다.

《박공! 끝내 해냈어. 해냈단 말일세!》

박원작은 눈물을 글썽대는 남권부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좋은 벗인가. 뜻을 같이하는 이런 벗이 있기에 오늘이 있는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느끼는 남권부의 기쁨은 박원작이 생각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였다.

남권부는 서경살이 여러해에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신상에 찾아든 행운이 너무도 커서 하루종일이라도 울고싶었다.

그는 이어 《울》의 화약을 넣고 다음사격준비를 서두르게했다.

10

남권부는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어디까지가 놀음인지 가늠할수 없었다. 마씨를 끼고앉아 조득국이와 술추렴을 하다가 술기운에 정신이 흐리마리해지고 의식이 몽롱해져서 자리에 누웠다가 다

시 일어나앉은 다음부터는 똑똑히 생각났다.

지금은 배속이 편안치 않고 머리가 멩하면서 속이 메슥메슥하다.

이런 때는 밖에 나가 먹은걸 속시원히 토해버리면 좋으련만 손발이 꽁꽁 묶여있으니 그렇게도 할수 없다. 질기기가 쇠줄같은 머리칼 타락줄에 칭칭 얽매여 멱 찔리울 돼지마냥 웃목에 나뒹구는 이 신세를 어쩌면 구할수 있단 말인가.

남권부는 겁에 잔뜩 질려 아래목을 쳐다보았다.

곰상판 조득국이와 련꽃같이 아름다운 마씨가 아래목에 차려놓은 음식상을 차지하고 남권부를 조소하며 손벽을 쳐댔다.

내가 왜 이꼴이 되였을가.

남권부는 끙끙대며 생각을 더듬었다.

닷새전날은 남권부의 한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할수 있었다. 개경으로 출세해가 부귀영화를 누릴수 있는 담보로서 화약의 비방을 고스란히 전수받았을뿐아니라 천균노의 성공도 이루었으니 말이다.

《병》이라고 잠시 이름을 달아놓았던 염초 7할에 버드나무 숯 2할, 반묘 1할을 섞은 화약의 위력이 으뜸이였다.

그 화약이 바로 수백근짜리 돌탄을 거의 천보나 날리였다.

그날로 온 병마도감은 환희와 기쁨에 휩싸였고 그 다음날에는 천균노를 또 한문 부어냈다.

병마도감에서는 즉시 천균노가 뜻대로 되였다는 표문을 임금께 올리고 최충에게도 알리였다.

박원작은 너무 과로한탓에 끝내 쓰러지고말았다.

그래서 남권부는 오늘 오전 사람들을 시켜 별관방에 누워있던 박원작을 경상골의 제집으로 데려다주게 하였다. 그리고 그 즉시 힘꼴이나 쓸만한 장공인들을 수십명 선발해서 염초장과 천균노에 삼엄한 파수를 세워놓았다.

해질녘에 집에 돌아오니 방금전에 왔다면서 조득국이 마루에서 일어나 반기는것이였다.

조득국이와 인사말을 나누고 방에 들어서니 벌써 요란한 술상이 차려져있었다.

술상을 마주하기바쁘게 조득국은 닭알만한 금덩이를 그것도 세개씩이나 결랑에서 꺼내보이며 퇴등석포 몇대를 뽑아달라고 부탁했다.

금덩이에 혹해서 남권부는 래일이라도 뽑아줄수 있노라 호언했다.

하긴 호언이라고 할것도 없었다. 이제는 박원작이 쓰러져버렸으니 무엇이든 꺼릴게 없다.

남권부는 날아다니는 돈같은 조득국의 금덩이를 받아내려 요며칠째 있은 일들을 늘어놓으며 이제는 자기가 고려에서 제일가는 병기재주를 가진 재사라고 내놓고 자랑했다.

자랑을 늘어놓다보니 주량이 독같은 조득국이와 맞잔을 하여 술몇사발에 취해 쓰러졌다.

얼마나 잤는지…

남권부는 마씨가 흔드는 바람에 눈이 개개 풀려가지고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보니 몸이 꽁꽁 묶어져있었다.

《이놈아, 이게 무슨짓이냐? 빨리 풀지 못할가?》

남권부가 게거품을 물고 소리치니 그 꼴이 가관이라며 마씨는 깔깔 웃어댔고 조득국은 발가락으로 그의 입을 밀어치며 히물히물댔다.

남권부는 미칠것 같았다.

《조가 이놈! 네놈이 날 어떻게 알고 이 지랄이야.》

그랬더니 조득국은 버선을 벗고는 고린내나는 묵직한 엄지발가락을 남권부의 입에 물렸다.

남권부는 기겁하여 아우성을 쳤다.

그 꼴이 재미있다며 손벽을 치여대던 마씨는 조득국의 품에 안겨 암통을 부렸다.

저년이 내 계집이 맞긴 맞는가.

남권부는 억이 막혀 눈만 꺼벅였다.

한참 조득국의 품에 안겨 노죽을 부리던 마씨가 두눈을 치뜬 남권부에게 술사발을 들이댔다.

《이봐, 지금껏 같이 산 정을 생각해서 주는 술이니 받아먹어.》

억지로 술을 입에 쏟아붓는 바람에 남권부는 숨이 막혀 꺽꺽

대며 술을 받아마시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래서 또 술에 취해 쓰러졌다.

이번에는 마씨가 흔들어서가 아니고 저절로 깨여났다.

깨여나보니 두년놈이 아래목에 벌거숭이가 되여 맞붙어있었다.

아니, 어쩜 저럴수 있는가. 남의 사내를 한방에 묶어놓고 남의 계집을 끌어안은 저 조득국이야말로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다.

그런데 조득국이 짐승도 낮을 붉힐 추악한짓을 꺼리낌없이 해대는것은 무슨 까닭일가.

마씨 저년이 더 나쁜 계집이다. 언제이건 자기 사내를 저버리고 달아날것 같다 했더니 아니나다를가…

이제 손목을 풀고 일어나면 마씨 저년을 당장 쫓아버리고말테다.

《조가 이놈아! 넌 대체 어떤 놈팽이기에 갑자기 본색을 달리하느냐?》

옷을 걸친 조득국이 빈정댔다.

《미욱한 놈같으니. 이제야 그걸 알고싶냐? 넌 진작 그것부터 알았어야 했어. 마씨는 사실 고려사람이 아니야. 남몰래 잠입한 녀진사람이지.

마씨는 너를 알기 전에 나와 정분이 났던 녀인이야. 그런걸 큰것을 위해 속이 쓰지만 마씨를 너한테 줬어. 왜 너한테 주었는가 하면 그건 자네가 나한테 소용돼서였네.

나도 문명한 고려에서 글을 배워 이런 리치쯤은 아네. 〈대업을 이루려면 작은 일, 작은 리득을 돌보지 말라.〉

난 바로 그 리치를 뼈에 새기고 마씨마저 내주었던거야. 흐흐흐. 이제 머지않아 난 녀진의 추장자리에 오르게 될거다. 난 원래 만인을 다스릴 용력을 타고났으니까.》

남권부는 조득국의 수작이 하도 엄청나서 믿지 않았지만 그가 뜻밖의 보통 악한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제는 오로지 조득국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였다.

조득국은 모로 쓰러져있는 남권부의 상투를 쥐고 일으켜앉혔다.

《남공! 나에겐 아직 자네가 소용돼. 그런데 자넨 지금 죽어가고있네. 지옥문턱을 들어섰거든.》

남권부는 조득국이 횡설수설한다고 생각했다.

서글픈 표정을 한 마씨가 입술을 삐죽 내밀며 물었다.

《아까 녹두지짐을 먹던 생각 나겠지?》

생각났다.

오늘 마씨는 별스레 녹두지짐이 장수를 도모하는 좋은 음식이라느니 신기를 돋구고 독을 푸는 약이나 같다느니 하며 자꾸 권했다.

감칠맛이 그닥 없어 녹두지짐을 좋아하지 않던 남권부는 마씨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손바닥만한걸 네개나 집어먹었다.

남권부가 고개를 끄덕이자 마씨는 또 물었다.

《단고기장도 한대접 먹었지?》

《먹었다. 그래 그게 어쨌다는거냐?》

마씨는 웃방에 들어가더니 책을 한권 들고나왔다. 의서였다.

책을 벌컥벌컥 뒤지던 마씨는 어느 한 대목에서 소리내여 읽었다.

《녹두지짐과 단고기장을 함께 먹으면 목숨을 잃게 된다. 나쁜 독을 풀던 녹두의 기운이 그것을 방해하는 단고기에 의해 오장을 해치는 무서운 독으로 변하기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복이 화가 된다고 한다. 그러니 두 음식을 함께 많이 먹으면 백가지 의술로도 구할수 없게 된다.》

글을 읽고난 마씨는 눈을 할기죽거리며 남권부에게 책을 내보였다.

《믿어지지 않으면 제 눈으로 보라구.》

마씨가 가리키는 글줄을 더듬던 남권부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였다.

의서의 글줄이 틀리지 않았다.

오늘따라 마씨가 녹두지짐을 차려놓고 자꾸만 권하는게 별나다 했는데 이 의서를 보고 죽일 잡도리를 한게로구나.

그런데 이년이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는걸가.

남권부는 불쑥 배아픔을 느끼였다. 아까부터 배가 불어나는듯 괴롭다 했더니 먹은 음식이 독을 쓰는 모양이였다.

남권부는 눈물을 머금고 마씨에게 빌붙었다.
《이보게, 나와 함께 산 정을 생각해서 날 좀 살려달라구. 난 죽고싶진 않단 말이야.》
마씨는 남권부를 야멸차게 쏘아보며 빈정댔다.
《이미 지옥문턱을 넘었는데 어떻게 살린다구 그러나? 그렇다면 하나 묻겠어. 내가 무엇때문에 독이 되는 음식을 먹인것 같아?》
남권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걸 알게 뭐요. 난 죽을 죄를 진게 없어.》
마씨는 아이를 다루듯 남권부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튕기였다.
《건 네가 화약의 비방을 알고있기때문이야. 너무 많은걸 알거나 알지 말아야 할걸 알면 죽음을 재촉한다는걸 몰라?》
남권부는 고운 눈에 살기가 가득한 마씨의 말이 리해되지 않았다.
화약의 비방이 마씨나 조득국이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독한짓을 꾸밀수 있단 말인가.
남권부를 개다루듯 하는게 재미있어 말없이 지켜보던 조득국이 이를 사려물었다.
《이놈아, 넌 아직도 보은이란 말을 모르겠니? 이 고대광실의 집과 재물, 고운 계집이 그래 공짜란 말이냐? 그건 다 네놈이 고와서 준게 아니라 네가 보은하길 바라서 준거야. 나한테 화약을 만드는 비방이 소용돼. 그걸 가져가야 녀진인들을 다스리는 추장도 될수 있고 또 녀진을 넘보는 거란도 누를수 있단 말이다. 그래서 난 네가 박원작이한테서 화약의 비방을 넘겨받을수 있는 명분을 세우도록 하자는 생각으로 천균노를 만들수 있게 놋쇠까지 대준거야. 이젠 알겠지? 그것만 순순히 내놓으면 널 살려주는건 말할것도 없고 금덩이도 다 주겠다. 그래 어쩔테냐?》
남권부는 머리를 푹 떨구었다.
그러니 길러 잡아먹는 돼지신세가 되였구나. 공짜는 반드시 목에 걸린다는걸 모르는바 아니였지만 재물에 눈이 어두웠으니 이 꼴이 되였구나.
남권부는 심한 후회로 몸부림을 쳤다.
《아, 가련하고 불쌍한 내 신세야!》

조득국은 눈물을 흘리는 남권부를 보자 아이를 달래듯 그의 등을 두드렸다.

《이봐 남공! 내 지금껏 자네한테 신의없이 군게 있었던가? 한번도 없었지. 자, 이걸 보게나.》

조득국은 염낭에서 짐새의 깃털을 꺼내들었다.

《이보라구. 이건 그 어떤 독일지라도 〈해독〉시킬수 있는 황금새깃털일세. 저 남쪽나라에 금을 먹고 사는 황금새란게 있는데 그 새의 깃털을 뽑아 술에 담가먹으면 독으로 당장 죽어가는 사람까지도 살릴수 있어. 독중에서도 제일 센 비상을 먹은 독도 맹물처럼 만드는 이 〈구명약〉을 먹고싶지 않아?》

조득국은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두개의 잔에 술을 붓고나서 짐새깃털로 술을 휘저었다.

《자네 죽은 재상이 산 개만 못하단 말 알지? 자네가 화약의 비방을 지켜 죽는다고 합세. 그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살아야 부귀도 출세도 할수 있어. 죽어야 알아줄 사람도 없지. 암.》

남권부는 고개를 들수 없었다.

조득국의 말이 틀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화약의 비방을 빼앗긴다면 나라앞에 목을 바쳐야 한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바엔 동족을 위해 죽음을 택하는게 떳떳할것이다.

뒤간을 쳐내는 종을 대하듯 오만상을 찌프리고 남권부를 구박하던 마씨도 해죽거리며 간살을 부렸다.

《이봐요. 아까는 내가 너무했어요. 노여운 마음을 푸시고 내 말좀 들으세요. 거기서 남몰래 감추어둔 보물이 지금 내 수중에 있어요. 어디 보겠어요?》

마씨는 웃방에 들어가서 자개박이함을 들고 나왔다. 그것을 본 남권부는 억이 막혀 볼편을 푸들푸들 떨었다.

남권부는 지금껏 조득국이한테서 받은 보물을 남몰래 외헌방의 든든한 장농속에다 감추어두었었다.

금, 은, 야광주를 넣은 저 보물함을 통채로 빼앗겼으니 살아난대도 빈 손가락이나 빨게 되였다.

심국종이 그만큼 벽에도 귀가 있고 문에도 눈이 있다고 일러주

었건만 저 앙큼한 계집을 내버려두었으니 염통을 빼앗길수밖에…
남권부는 비로소 입덕에 화를 입게 되였음을 절감했다.
소한테 한 말은 안나도 계집한테 한 말은 난다고 기생질을 하던 계집을 제 살처럼 여기고 혀를 놀렸으니 이 꼴을 당했다.
조득국이 병마도감의 일에 그리도 환한것은 다 마씨 저년한테 할말 안할 말 가리지 않은 이놈의 탓이였구나.
《이봐요. 후회는 언제나 늦어오는 법이예요. 화약의 비방만 내놓으면 이 보물함을 고스란히 돌려주겠어요. 그리고 오늘일을 영영 덮어두겠어요.》
남권부의 귀가 번쩍 띄였다.
그렇지, 죽을수가 닥치면 살수가 나진다더니 오늘일을 덮어두면 무사할게 아닌가.
남권부는 침을 꿀꺽 삼키고나서 물었다.
《그 말을 믿어도 되겠지?》
조득국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남권부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내 말도 안믿겠나? 남아일언 중천금이랬어. 나 조득국은 하늘신앞에서 다짐하겠네. 오늘일을 눈에 흙이 들어와도 발설하지 않겠다는것을!
자, 이걸 받게.》
조득국은 남권부의 무릎우에 자개박이함을 올려놓고도 부족한지 금덩이 세개를 마저 올려놔주었다.
남권부는 무릎을 내려누르는 보물의 무게를 느끼자 재물욕으로 하여 가슴이 터져나갈것 같았다.
재물이 없으면 적막강산이고 재물이 있으면 금수강산이라 이 보물만 가지면 무엇을 부러워하랴.
《좋네. 그럼 이 손을 풀어주게.》
《아아, 남공! 덤비지 말게. 장사거래는 물건을 맞대놓고 흥정을 해야 공평하거든. 흥정을 한 다음 손을 풀어도 늦지 않아. 자, 보물은 자네것이 되였으니 화약의 비방을 내놓게.》
남권부는 조득국의 강짜에 기가 죽었다.
칼자루 쥔 놈한테 이길수 없다는데…

《이보게, 마씨! 외헌방에 들어가면 장농우에 헌 갓신이 있을거네. 그걸 가져오게.》
마씨는 치마바람을 일으키며 나는듯이 방문을 열고 나갔다. 그는 인차 갓신을 들고 들어왔다.
《갓신속에서 깔개를 꺼내라구. 그밑에 글이 씌여진 종이가 있네.》
조득국이 덮치듯 갓신을 움켜잡고 갓신깔개를 끄집어냈다. 정말 그밑에 착착 접은 종이가 있었다.
조득국은 초불가까이로 다가가서 종이에 씌여진 글을 읽더니 미친 놈처럼 웃어댔다.
한참 웃고난 조득국은 종이를 착착 접어 품안에 집어넣었다.
《일이 참 멋드러지는구나. 염초의 비방과 함께 천균노를 만드는 방법까지 씌여있으니 말이야. 좋아, 아주 좋아. 그럼 언약대로 해줄가?》
조득국은 남권부의 손을 풀어주고나서 짐새의 깃털로 휘저은 술잔을 량손에 집어들었다.
《자, 이 술은 〈구명주〉이자 리별주일세. 이제 헤여지면 우린 영리별이 될수도 있네. 난 헤여지기에 앞서 마씨와 남공이 함께 산결 뜻해서 이 고별주를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네. 자, 받으라구.》
손목이 아파 주무르던 남권부는 살아난 기쁨에 술잔을 덥석 받아들었다.
짐새깃털이 어떤 무서운 독인줄 알지 못하는 마씨도 해죽거리며 술잔을 받아들었다.
남권부가 단숨에 술잔을 비웠다면 마씨는 교태를 부리며 쫄금쫄금 마시였다.
두사람이 술잔을 비우자 조득국은 누런 이발을 드러내고 히죽 웃었다.
《오늘로서 그대들 두사람의 부부지정은 끝나고말았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호들갑을 떨던 마씨와 보물함을 안아든 남권부는 배를 그러쥐였다.
두사람은 온배가 끊어져나가는듯한 격심한 아픔과 목을 조이

는 심한 숨가쁨으로 하여 두눈을 부릅뜨고 마주보더니 조득국을 쏘아보았다.

조득국은 히물대며 자기 술잔에 술을 부었다.

조득국은 털썩 쓰러지는 남권부에게서 얼굴이 시꺼멓게 죽어가는 마씨한테 눈길을 돌리며 조롱했다.

《이년아, 계집이란 한사내만을 섬겨야 하는거야. 이 사내, 저 사내의 품을 파고든 계집만큼 재앙거리는 없어. 내가 남가한테 너를 내줄 때 벌써 넌 죽을 명부에 올라있은거야.》

비명소리 한번 제대로 질러보지 못하고 마씨도 너부러졌다.

조득국은 술잔을 집어 두 주검우에 기울였다.

《잘들 가라구. 이제 골병 든 박원작이도 끝장이 날것이니… 화약의 비방은 내가 독차지하겠구나. 그럼 떠나볼가.》

조득국이 죽어너부러진 남권부의 품에서 보물함을 앗아드는 순간 뒤방문이 열리더니 비수가 날아들었다.

비수는 조득국의 잔등에 깊숙이 박혔다.

《헉—》

조득국은 맥없이 꼬꾸라졌다. 그러자 열려진 뒤방문으로 복면쓴 사람이 뛰여들었다. 키작은 사내였다.

복면을 쓴 얼굴에서 반들거리는 두눈알이 팽이돌듯 하였다. 그자는 조득국의 등에서 비수를 뽑아 또다시 그의 숨통을 면바로 찔렀다.

꾸르륵—

조득국의 숨넘어가는 소리였다.

복면쓴자가 씨벌였다.

《이 소대가리같은 녀진놈아, 무지한 야인놈인 주제에 남먼저 화약의 비방을 훔쳐가겠다구? 흥! 기는 놈우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우에 나는 놈 있다고 난 네놈이 앞장을 치기 기다렸던거야. 이런걸 가리켜 어부지리라고 한단다.》

그자는 조득국의 허리에 찬 염낭을 뒤져 갓신깔개를 끄집어냈다.

그찰나 대문을 다급하게 두드려대는 소란스런 소리가 울렸다.

복면쓴자는 와들짝 놀라 헤덤벼치더니 뒤방문을 차고 뒤뜨락

으로 뛰쳐나갔다.

인차 육중한 대문이 나떨어지고 두사람이 성난 맹호마냥 뛰쳐들었다. 김충지와 리순일이였다.

처참한 주검들이 나딩구는 방안에 뛰여든 그들은 발을 굴렀다.

김충지는 너무 분해 벽을 치며 부르짖었다.

《한발 늦었구나. 심국종이 그 새끼때문에…》

김충지는 오늘도 심국종의 꼬리를 놓지 않고 끈덕지게 따라다녔다.

병마도감에서 일을 마친 심국종은 저녁녘에 거처지로 돌아왔는데 무슨 긴요한 일이 있는지 밥을 먹자마자 밖을 나섰다.

그놈이 어찌도 잰내비마냥 날랜지 이골목 저골목으로 달아나는걸 목에서 겨불내가 나도록 뒤쫓아다녔다. 그러다 자정무렵 경상골마을에서 놓쳐버렸다.

졸지에 그놈을 놓치고보니 눈앞이 아찔했다. 분명 심국종 그놈이 무슨 일을 칠 잡도리인데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할수없이 리순일병마부사를 찾아갔다.

그렇지 않아도 심국종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있던 리순일은 그가 찾아온 사연을 듣자마자 남권부의 집으로 말을 달리였다.

그러나 일은 벌써 망친 뒤였다.

리순일은 샅샅이 주검들을 살펴보더니 조득국의 멱에 박혀있는 비수를 뽑아들었다.

《이보게, 곰같은 이놈을 모르겠나?》

김충지는 험악하게 이그러진 조득국을 가리키는 리순일에게 머리를 저어보였다.

《이놈이 바로 조득국이란 놈일세. 귀화한 녀진사람인데 동상이몽을 하더니 개죽음을 당했어.》

리순일은 김충지에게 비수를 내보였다.

《이 칼이 낯익지 않은가?》

손잡이에 룡대가리가 돋을새김된 비수였다.

그것을 한동안 들여다보던 김충지는 무릎을 쳤다.

심국종이 오얏을 베여먹던 칼이 틀림없었다.

《심가놈의 칼이 맞소이다. 아, 그렇지!》

김충지는 비로소 복면쓴 놈이자 중노릇하는 놈이며 그게 다름아닌 심국종 한놈이라는것을 깨달았다.

《교활한 놈! 내 손아귀에서 못빠진다. 병마부사님! 그물을 거둘 때가 된것 같소이다.》

《암, 그래야지.》

11

너무도 피곤하여 잠에 들었던 심국종은 누군가 몸을 흔드는 바람에 후닥닥 깨여 일어났다.

《엉?!… 어ㅡ》

심국종은 방에 차려놓은 밥상을 가리키며 밥을 먹으라고 손시늉을 하는 벙어리녀인을 보고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요즘 남의 눈을 피해 야밤삼경도 마다하고 뛰여다니느라 너무도 지친탓에 녹초가 되여 굳잠에 빠졌댔다.

바로 이런 때 김충지가 뛰여들었다면 꼼짝할새없이 오라를 지웠을것이다.

오라를 진 제 몰골을 그려보니 가슴이 터져나갈듯 들뛰였다. 생전 처음 사람(메득)을 찔러죽인 그날밤은 어둠속에서 누군가의 억센 손이 덜미를 움켜잡는듯 하여 한잠도 못잤다.

남을 때리고도 발편잠을 못잔다는데 사람을 죽인자야 더 말해 무엇하랴.

그런데 간밤에 또 조득국이란 녀진사람을 죽였다. 바로 그때 대문이 떨어져나가는 소리가 나서 정신없이 도망쳐나왔다.

분명 김충지가 또 꼬리를 물었댔을것이다. 과연 검질긴 놈이다.

심국종은 처음 김충지를 알게 되였을 때 벌써 식자풍인 그가 기껏 련장행수나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여 그를 주의깊게 살펴보았고 그가 최충의 수제자이며 박원작을 도와 천균노도 만들

어내고 화약의 비방도 지켜야 할 일감을 맡았다는것을 알아냈다.
그뿐아니라 밤이면 자기의 뒤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김충지임을 잘 알고있었다.
심국종은 시간이 흘러 가슴이 가라앉자 아직 벙어리녀인이 방안에 서있음을 알아보았다.
《나가봐.》
심국종의 손짓에 벙어리녀인은 깍듯이 절을 하고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나갔다.
벌써 날이 밝았는지 초불을 켜지 않은 방이지만 환했다.
심국종은 한껏 기지개를 켜고는 벌렁 자리에 드러누웠다.
해가 높이 떠오를 때까지 늦잠을 자면서 병마도감을 뚜꺼먹기는 오늘이 처음이였다. 하긴 이제 더는 병마도감에 나갈것도 없으니 머리쓸것도 없다. 오늘로써 병마도감과도 서경땅과도 영영 인연을 끊게 될것이다.
심국종은 천정을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다.
《흥! 젖비린내나는 김충지따위가 날 잡아보겠다구?》
심국종은 정신나간 놈처럼 끅끅대며 웃어댔다. 어찌나 웃어댔는지 눈물이 다 찔끔찔끔거렸다.
눈굽을 문지르며 그는 《주석지신이라 자처하는 최충이 과연 소문만 요란한 헛자배기야!》 하고 씨벌이더니 또 웃어댔다.
조정에 없어서는 안된다는 명관 최충이 코흘리개같은 김충지에게 박원작의 뒤를 지켜주는 일감을 맡긴걸 보면 그 사람의 수완도 가히 알만 하다.
그덕에 바라는걸 어렵지 않게 획득했으니 최충을 고맙게 여겨야 할것이다.
심국종은 꿈만 같아 가슴을 어루만지며 숨을 크게 들이켰다.
김충지가 젖비린내나는 덕에 고려의 제일가는 국보인 화약의 비방을 송두리채 훔쳐낼수 있었다.
토끼도 세굴을 판다는데 거처지를 한군데 정하지 않기를 참말 잘했다. 하기에 검질기게 꼬리를 물고 떨어지지 않으려는 김충지를 마음먹은대로 따돌릴수 있은것이고 귀신이 곡할 지경으로 둔갑

하여 꾀하는바를 거침없이 치를수 있은것이다.

그는 서경에 온지 며칠새로 거처지를 두군데씩이나 정해놓았다.

보통문근처에는 장공인들이 다 아는 집을 정해놓고 늙은 하녀를 하나 두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모르게 박원작이와 한마을의 제일 으슥진 집을 한채 샀다.

등잔불밑이 어둡다고 박원작이와 한동네에 그를 해칠 사람이 산다고 그 누가 생각이나 할수 있으랴. 이 집에 심국종이 살줄은 귀신이나 알것이다.

심국종이 지금 배포유해서 드러누워있는 이 집이 바로 그 집이였다.

그는 이 집에 벙어리녀인을 두고 집을 돌보게 하였다. 그는 벙어리녀인앞에서 해주에서 온 장사군으로 행세했다.

돈이 넉넉하니 장사군행세쯤은 어렵지 않았다.

속이 뜬뜬해서 가슴을 어루만지던 심국종은 품속에서 유지에 싼 종이묶음을 느끼자 으흐흐— 하고 다시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불과 몇장밖에 되지 않는 얄팍한 종이묶음이 장차로 막대한 재부를 가져다줄것이다.

《아, 스즈끼야, 넌 드디여 태묻은 섬나라로 돌아갈수가 있겠구나.》

심국종은 불쑥 귀에 설은 이름을 부르며 벌떡 일어나앉았다.

《스즈끼야!》

혀꼬부라진 이름이 바로 심국종의 본명이였다.

심국종은 끝이 뾰족한 조개턱을 부여잡고앉아 제 본색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그는 고려사람이 아니였다. 그는 고려의 동해건너 섬나라의 헤이안경(교또)에서 스즈끼란 이름을 가지고 왜인으로 태여났다.

헤이안경은 왜나라의 도읍이였다.

당시 섬나라를 쥐락펴락하면서 왜인들을 다스린 사람은 옛적에 백제에서 바다를 건너간 박달겨레의 후손이였는데 후지하라씨라고 불렀다.

후지하라씨네는 대대로 《섭정》과 《관백》이라는 섬나라의 최

고관직을 차지하고 왜왕보다 더 센 권력으로 왜인들을 좌지우지하였다.

무지한 섬나라에서는 땅과 노비를 빼앗기 위한 토호들간의 싸움으로 피가 흐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토호들은 저마다 자기의 땅과 재산을 지키고 남의것을 강탈하기 위하여 사무라이라고 하는 무사들을 가지고있었다. 끝없이 탐욕을 부리는 토호들간의 세력다툼은 숱한 사무라이들이 피를 흘리게 하였다.

싸움에서 이기면 제가 섬기는 상전으로부터 쌀과 재물을 받아 가족을 먹여살릴수 있고 패하면 목을 잘리워야 하는게 사무라이들의 처지였다.

그칠새없는 란리속에서 섬나라의 동북땅에 웅거한 미나모또씨라는자가 맞다드는 적수들을 쳐부시고 급속히 세력을 떨치기 시작했다.

미나모또씨는 수많은 사무라이를 거느리게 되자 어벌차게도 후지하라씨를 몰아내고 권력을 찬탈할 야심을 품었다.

그는 《청화천황》의 피줄이라 자칭하면서 반역을 꾀하였다.

그러나 후지하라씨와의 싸움에서 대패하고 산간벽지로 쫓기우는 신세가 된 미나모또씨는 그 분풀이로 평소에 밉게 보던 부하 몇을 끌어내다 목을 치게 하였다. 그들중의 한사람이 심국종의 애비였다.

잔꾀가 여간아닌 심국종의 애비는 자기를 살려준다면 당장 고려에 가서 위력한 병기를 구해오겠노라 장담했다.

그의 장담이 미나모또씨의 마음을 움직여냈다.

송나라까지 굴복시킨 천하강국 거란과 싸워이긴 고려국이라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력한 병기가 있을상싶어보였다.

미나모또씨는 심국종의 애비가 어려서 어떤 중한테 고려말을 배웠다는것을 알고 은덩이까지 내여주며 한해안에 고려의 병기를 얻어오지 못하면 그의 식솔을 몽땅 죽여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덴겁한 심국종의 애비는 남몰래 외아들인 그를 업고 섬나라를 떠나왔다.

심국종의 애비는 도적고양이마냥 재밤중에 고려땅에 내려 명주고을로 기여들었다.

안해를 잃은 홀아비로 행세한 그는 다른 나라 사신들이 드는 림영관곁에다 거처를 정했다.

명주는 동해바다가의 고을이여서 군사들이 적지 않았다.

한해가량 명주에 터를 잡고 군사들과 접촉하였건만 별로 이렇다할 소득이 없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 림영관에 머무르는 역관(통역관)들에게 접근하였다.

그는 역관 한명을 돈으로 매수하여 그의 연줄을 타고 개경으로 올라갔다.

개경이라면 미나모또씨가 준 분부를 얼마든지 실행할것 같았다.

역관의 소개로 례부상서댁의 사환군이 된 그는 능란한 처세로써 벼슬아치의 환심을 샀다.

몇해동안 애쓴 덕에 개경에 든든히 터를 잡긴 했지만 렴탐만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럭저럭 세월은 류수처럼 흘러 심국종이 어른이 되였다.

심국종으로 이름을 고친 스즈끼는 어릴적에 글방에 다니였다.

심국종이 장가들 나이에 이르자 애비는 그에게 제 본색을 털어놓았다.

그때까지 남의 집 사환질이나 해먹는 아버지의 비천한 신분을 원망하면서 벼슬길에 오를수 없는 제 신세를 한탄하던 심국종은 자기의 본색을 알게 되자 바싹 마른 섶단에 불달린듯 재물에 대한 욕심이 걷잡을수없이 타올라 혈안이 되였다. 그는 뒤늦게나마 고려의 위력한 병기를 만들어내는 비결을 훔쳐가지고 섬나라로 돌아가서 일확천금할 꿈을 꾸었다.

애비는 뜻을 이루고 돌아가자면 고려조정에서 권세있는 벼슬아치들을 등에 업어야 한다면서 그를 리자봉네 집 사환군으로 들이밀었다.

애비 찜쪄먹게 역바르고 간특한 스즈끼는 인차 리자봉의 총애를 차지하게 되였다. 이어 그의 연줄을 타고 군기감으로 들어갔다.

군기감에 리속으로 들어간 그는 곧 실망하고말았다.

군기감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 활이나 창갈은 병기들만 만들고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서경의 병마도감에서 《신기한 병기》를 만들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되였다.

화약이란걸 《신기한 병기》에 재우고 쏘면 화살을 천보나 멀리 날리며 지어는 뢰성벽력이 일면서 바위돌까지 내던져 적진을 짓뭉갠다니 정말 그런 병기만 있다면 섬나라의 주인자리도 빼앗아가질수 있을것 같았다.

심국종이 리자봉을 찾아가 서경의 병마도감으로 보내주기를 청하자 남권부가 화약의 비방을 빼내오지 못해 안달아하던 그는 쾌히 그 청을 들어주면서 오히려 이리이리하라는 밀령까지 주었다.

서경으로 떠나기에 앞서 심국종의 애비는 아들을 꿇어앉히고 이런 훈시를 주었다.

화약의 비방을 걷어쥐자면 남권부를 틀어쥐고 그자를 미끼처럼 써먹으라.

돈은 얼마든지 주겠으니 사람들에게 선심도 쓰고 힘들더라도 땀흘려 일해서 박원작의 눈에 들어야 한다. 뜻을 성취하려면 갖은 권모술수를 다해야 한다.

애비의 훈시를 가슴에 새기고 병마도감에 발을 붙인 심국종은 악을 품고 《신기한 병기》를 만드는 재주를 익히는 한편 화약의 비방을 뽑으려 획책했다.

심국종은 남권부를 사귄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집에 드나드는 조득국이도 화약의 비방을 노리고있다는것을 간파했다.

도적이 도적을 가려본다는 그런 심리가 조득국의 정체를 알아보게 한것이였다.

이제는 그 비방을 손에 넣었으니 섬나라로 돌아가는 일만이 남아있다.

며칠전 심국종은 서경에 비단을 사려온 개경장사군을 통해 아비에게 보내는 글월을 부탁했다.

그러니 며칠후면 아비가 배를 끌고 황주목의 아사나루로 올것

이다.

《암, 만사가 뜻대로 될것이다. 오늘 해저물면 조용히 서경성을 빠져나갈테다. 으흐흐…》

심국종은 배고픔을 느꼈다.

12

귀뚜라미가 처량하게 우는 저녁이였다.

심국종은 통닭구이로 배를 실컷 불리고나자 주섬주섬 옷을 차려입기 시작했다.

밖에서 귀밀을 잔뜩 먹은 황부루가 투레질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좋아, 아주 좋아.》

심국종이 황부루를 타고 아사나루를 향해 달려가는 제모습을 그려보며 기분좋게 방문으로 다가가는데 기다렸다는듯 방문이 벌컥 열렸다.

벙어리녀인인가 하여 무심히 바라보던 심국종은 너무 놀라 하마트면 엉덩방아를 찧을번 했다.

《누… 누구요?…》

잔뜩 겁에 질린 심국종은 엄한 기상을 풍기며 방에 들어서는 병마부사 리순일에게 위압당하여 턱을 떨었다.

리순일을 따라 두명의 군사를 뒤에 달고 들어서는 사람이 김충지임을 알아보았을 때 심국종의 쥐상판은 회가루를 바른듯 하얗게 질렸다.

《허— 범본 똥개처럼 놀라긴?》

리순일은 심국종을 노려보며 말했다.

《우리 통성을 할가. 난 북계병마부사란 사람일세. 빙빙 에돌것없이 직판 말하겠네. 약은 참새 밤눈이 어둡다고 자넨 꼬리가 달린줄도 모르고 이 집으로 기여들었어. 덕분에 우린 쥐둥지를 찾아낼수 있은거야.》

리순일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어도 마디마디가 서리발같이 날카로와 심국종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얼굴이 죽은 송장처럼 창백하였던 놈은 잠시 동안이 흐르자 정신을 차리고 빠져나갈 틈이 없나 해서 머리를 쥐여짰다.

독틈에도 용수가 있다고 이 순간을 어떻게 하나 모면하면 살길이 열린다.

심국종은 지금껏 터득한 꾀를 다해 말재간을 부렸다.

《저같은 소인네 집에까지 찾아주셔서 몸둘바를 모르겠소이다. 헌데 듣기에도 거북한 쥐둥지다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오이까? 우스개소리나 하자고 온것 같지 않은데… 혹시 무슨 심부름을 시킬게 있어 오신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소인이 백사전폐하고 심부름을 해드리겠소이다.》

김충지는 참기름을 바른듯 혀를 슬슬 놀리는 심국종에게 면박을 들이댔다.

《지은 죄가 많을수록 수작이 희떱기마련이야. 넌 지금 성을 빠져나가지 못해 죽을 맛이겠지?》

심국종은 두눈알이 희뜩 뒤집히는듯 하였다. 어찌나도 두방망이질을 하는지 가슴은 터져나갈것 같았다.

김충지가 귀신이 아니고서야 그걸 어찌 알수 있단 말인가.

김충지는 품속에서 종이장을 꺼내보였다.

《여기 쓴 글이 낯익지 않는가? 지금쯤 개경에 있는 아비한테 가닿았어야 할 글이 내 손에 들어왔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심국종은 하늘이 무너져내리는것 같아 두눈을 꾹 감았다.

김충지는 며칠전 정오에 병마도감을 나서는 심국종을 은밀히 뒤따르던중 놈이 시전거리를 접어들어 비단을 사러온 개경장사군에게 어떤 글을 부탁하는것을 목격했던것이다.

심국종은 쥐상판에 억지웃음을 짓고 대꾸했다.

《자넨 너무하구만. 남의 글월을 중도에서 가로챘으니 크게 후회하게 될거요. 난 판례빈성사어른의 분부를 받고 황주옥백미를 사려고 배를 끌고오라는 글월을 부친께 띄웠소.

황주쌀이 좋다는건 세상이 다 알지요. 그런데 중도에서 글월

이 잘못되였으니 일은 망친 대사이고 외국사신을 대접하는 일에 지장을 주게 되였소.》

심국종은 자신만만해서 리순일을 바라보았다.

《병마부사님도 판례빈성사어른이 누구인지 모르지 않겠지요? 이젠 벌은 피할수 없게 되였소이다.》

심국종은 궁지에서도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 변명투가 아니라 위협조로 대들었다.

리순일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다.

《음… 자네 말을 듣고보니 벌은 받아놓았군. 헌데 스즈끼!》

그 말에 심국종은 낯색이 돌변하여 비실비실 뒤걸음을 쳤다.

아, 이게 대관절 어찌된 일인가.

고려에서는 귀신일지라도 알수 없는 왜인의 본색을 저 사람이 다 알다니…

심국종은 벽에 기대서서 이를 쪼았다.

이대로 주저앉아 목숨을 내놓아야 한단 말인가. 아직은…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데 쓰러져선 안된다.

심국종은 이를 사려물고 한걸음 나섰다.

《스즈끼란건 무슨 소리요?》

김충지는 쥐상같은 심국종이 적의를 가득 품고 대들자 더 참지 못하고 그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이놈아, 뉘앞이라고 개수작이냐? 네놈이 낯짝에 철면을 썼어도 분수가 있지 아직도 실토정을 안할테냐?》

리순일이 손을 들어 김충지를 제지시켰다.

《뛰여야 벼룩이요 쥐를 부려야 하늘소인데… 화를 낼게 있는가.》

김충지는 분을 삭일수 없어 심국종놈을 벽으로 떠밀쳤다.

벽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놈은 엄살을 부렸다.

《이봐, 간특하게 굴지 말고 이거나 읽어보렴.》

리순일은 놈에게 종이 한장을 내밀었다.

심국종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장을 받아들고 글줄에 눈을 박았다.

글을 읽던 심국종의 손에서 맥없이 종이장이 떨어졌다.

심국종은 털썩 주저앉더니 머리를 움켜잡았다.

망둥이 제 새끼 잡아먹듯 어쩜 아비가 그럴수 있단 말인가. 아비가 제손으로 20여년 쌓아올린 공든 탑을 허물어버리다니…

리순일은 머리카락을 쥐여뽑으며 몸부림을 치는 심국종을 보자 안도의 숨이 나갔다.

심국종의 정체를 밝히는데서 개경에 남아있는 북계병마판관이 한몫을 해제꼈다.

리순일은 몇달동안 김충지를 도와 심국종을 료해하면서 그가 한갖 화약의 비방을 뽑아내여 다른 나라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리자봉을 위해서 뛰여다니는 심부름군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심국종이 왜나라장사군들이 묵군 하는 림영관이라는 객관이 있는 명주고을에서 왔다는 점은 그가 왜나라간자일수 있다는 추측을 내릴수 있게 하였다.

그 추측이 옳겠다고 생각한 리순일은 북계병마판관에게 심국종의 아비를 만나 그 본색을 발가내라는 공문서를 띄웠다.

공문서를 받아본 북계병마판관은 즉시 왜말을 잘하는 사람을 왜장사군으로 변장시켜 심국종의 아비를 찾아가게 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왜장사군들을 만나지 못해 안달이 나하던 심국종의 애비는 그 계책에 감쪽같이 넘어가고말았다.

하여 그의 정체는 드러나고 병부에 묶이워가 문초를 당하였다. 그는 자기가 섬나라의 간자임을 자백하였고 아들놈의 본명까지 토설했다.

방금 심국종이 떨군 종이장은 애비의 자백서였다.

머리칼을 쥐여뜯으며 몸부림을 치던 심국종놈이 독오른 살모사가 대가리를 쳐들듯 고개를 쳐들었다.

《병마부사님! 소인은 부친이 왜인이라는건 듣느니 처음이오이다. 부친의 말대로 소인의 아버지가 왜인이라고 칩시다. 하지만 소인은 고려에서 자랐으니 고려사람이오이다. 그런 제가 어찌 한번도 덕을 입지 못한 섬나라를 위해 렴탐질을 하겠소이까? 소인은 고려에 해되는짓을 한게 없소이다.》

김충지가 격분으로 주먹을 불끈 쥐였다면 리순일은 웃음을 터뜨

렸다.
걸걸 웃고난 리순일은 허리춤에서 비수 하나를 뽑아들었다.
《스즈끼! 이걸 보면 네 죄를 알거다.》
리순일이 내보이는 비수를 본 심국종은 바람앞의 초불마냥 부들부들 떨었다.
손잡이에 룡대가리를 부각한 비수를 남권부의 집에 내버려두고 달아뺀것은 심국종의 실책이 아닐수 없었다.
그때는 다급한 정황이여서보다 이제 달아나면 기껏 하루 지나 서경성을 빠져나갈것이니 비수쯤은 대수가 아니였다.
심국종놈은 돌연 쥐상판을 쳐들었다.
《그 칼은 달포전에 잃어버린 소인의 칼이오이다.》
《허ㅡ 그놈 정말 가소로운 놈이군.》 하던 리순일은 김충지에게 눈짓했다.
《의농안을 뒤져보게.》
심국종의 면상을 후려갈기려던 김충지는 주먹을 떨구고 벽에 기대놓은 3층의 농을 열어제꼈다.
그는 곧 의농안에서 장삼이며 삿갓, 목탁과 함께 복면을 꺼내놓았다.
리순일이 삿갓과 복면을 집어 심국종앞에 내던졌다.
《이 간특한 놈! 네놈이 그 잘난 오그랑수를 써서 남권부는 속여넘겼지만 우린 못속여. 넌 남권부를 꼼짝못하게 하려고 세상에 없는 부하들을 만들어냈다. 넌 쉬는 날 대낮에는 중의 차림으로, 해가 지면 복면을 뒤집어쓰고 길복이라면서 남권부의 집을 찾아다녔다. 그렇게 해서 그 집을 드나드는 조득국의 행처도 알수 있었다. 이건 다 이 김공이 밝혀낸거다.》
그 말에 심국종은 《아이쿠ㅡ》소리를 지르며 자기 뺨을 때렸다.
젖내나는 아이라고 얕잡아본 김충지가 제 그림자도 속아넘어갈거라며 부린 변신술을 발가놓다니… 이럴줄 알았으면 밤마다 꼬리를 물고 따라다니는 김충지를 죽여버리는건데…
아, 최충의 수제자를 얕보았다가 대사를 망쳤구나.

이번에는 김충지가 분격해서 소리쳤다.
《넌 사람을 여럿이나 해쳤어. 병마도감에서는 한밤중에 숯고간을 불지르고 너를 알아보았대서 메득이를 이 칼로 찔러죽였다. 지난 밤에는 남권부네 집에 뛰여들어 조득국을 또 이 칼로 찔러죽였다. 그래도 할 말이 있는가?》
놈의 머리가 두어깨짬에 파고들었다.
김충지는 심국종을 손가락질하며 열변을 토했다.
《네놈은 메득이를 안죽였노라고 우기고싶겠지. 허나 넌 스스로 그걸 인정했다. 넌 이 칼로 조득국의 잔등을 찌르고도 안심치 않아 숨통을 찔렀는데 메득이도 그렇게 찔렀다. 과연 솜씨있거든.
넌 노루꼬리만큼 배운 재간을 믿고 우리를 홀시했다. 우린 애초에 천균노를 만들면서 천균노를 만들어내는 일이자 화약의 비방을 지켜내는 일임을 명심하고 너같은 놈들을 주시한거다.
그런데도 너같은 왜놈이 렴탐질을 일삼으니 실로 가소로운 일이다.
네놈은 지금 리자봉공의 옷자락에 매달리려 하는데 그 사람도 사람들을 고의로 살해한 네놈의 살인죄만은 두둔못해.》
김충지의 준절한 목소리에 심국종은 죽은듯 대척없었다.
리순일이 군사들에게 령을 내렸다.
《이놈을 묶어 끌어내가라!》
군사들이 심국종의 량팔을 잡아일으켰다.
죽은듯 했던 심국종은 방안이 떠나갈듯 고아댔다.
《그렇다. 내가 메득이를 죽였다. 왜 그뿐이냐? 천균노도 내가 망쳐놓았다. 고려의 힘이 강해지는것이 배아파서 말이다.》
김충지가 웨쳤다.
《이놈아, 그런것까지 꼭 꼬집어말해야 알겠니? 우린 네놈이 남권부의 이름으로 공문서를 띄운것도, 염초장행수에게 화약의 비방을 알아낼수 없을가 하여 화약이 나쁘다고 트집을 건짓도, 어제밤 조득국을 죽이고 염초의 비방이 적혀있는 물건을 빼앗아가진 짓도 다 알고있다. 그 물건은 지금 네놈의 품에 있을게다.
우린 구태여 그 죄를 따지지 않고서도 네놈의 목에 올가미를 씌

울수 있어.》

그제서야 심국종은 한숨을 내뿜으며 군사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몰골은 흡사 고양이에게 물린 생쥐같았다.

13

천균노가 성공했다는 병마도감에서 보내온 공문서를 받아든 최충의 기쁨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

고진감래라고 박원작이 온갖 고생끝에 드디여 나라에 복을 주는 천균노를 만들어냈다.

복은 쌍으로 안온다했지만 이번에는 나라에 복이 쌍으로 겹쳐든 셈이다.

그토록 방대한 공사여서 짧게 잡아 두해는 걸려야 한다고 여겼던 북계구간의 장성공사가 지금의 기세를 늦추지 않는다면 넉넉히 몇달안에 끝을 볼수 있을것이다. 단 한해사이에 엄청난 일감을 해제끼고 북계구간의 장성공사를 마친다면 그것은 실로 기적이 아닐수 없다.

그래 이것이 나라의 복이 아니란 말인가.

이게 다 군력을 떨치려는 마음으로 충만된 고려군사들이 제몸을 돌보지 않고 일한 결과이며 또한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수십만 백성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결과이다.

장성공사가 예상외로 잘 진척되는 속에서 북계의 수만군사가 한해겨울을 날수 있는 군량도 넉넉히 마련해놓았다.

어찌 그뿐이랴. 언제나 눈을 밝혀 거란군과 녀진의 동태를 제때에 알아내여 그들의 있을수 있는 침입을 얼마든지 쳐물리칠수 있게 변방을 지키는 군사도 이전보다 더 많이 주둔시켜놓았고 성들마다에는 뢰등석포같은 《신기한 병기》들까지 그쯘하게 갖추어놓았다.

이러한 때 그토록 바라마지않던 천균노가 성공했다는 쾌보가 날

아들었으니 어찌 서경행을 하지 않을소냐.
최충은 곧 부하들을 불러 장성공사와 관련하여 제기될수 있는 일감들을 위임하고 나어린 전령과 우봉전령만을 대동한채 서경으로 말을 달렸다.
그가 며칠동안 말을 달려 서경성에 입성했을 때는 한낮무렵이였다.
그러나 서경에서는 여러 기쁜 소식을 다 합쳐도 보상못할 가슴아픈 비보가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박원작이 병으로 끝내 쓰러졌다는 소식이였다.
크게 놀란 최충이 《서경명의》를 데리고 경상골을 찾았을 때는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있었다.
최충이 병문안을 온것을 안 박원작은 안깐힘을 다해 일어나 그를 맞이했다.
《박공!》
《사부님!》
박원작은 두팔을 벌리는 최충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여윌대로 여윈 그의 몸이 최충의 가슴을 허비였다.
《내가… 내가 무정했소. 일만 일이라면서 나라에 보배인 자넬 돌보지 못했어.》
박원작이 가냘프게 패인 어깨를 오르내리며 애원했다.
《사부님, 그런 말씀 마소이다. 사부님이 아니였다면 소생의 오늘이 어찌 있겠소이까. 사람이 죽고살고 하는건 다 천명이니 조물주도 어찌할수 없소이다.》
박원작의 앙상한 몸을 어루만지는 최충의 얼굴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런 스승과 제자를 지켜보는 리순일이며 김충지, 여러 행수들과 《서경명의》도 눈물을 글썽거렸다.
《이 사람! 이젠 앉게.》
박원작을 부축하여 자리에 앉힌 최충은 《서경명의》에게 눈길을 주었다.
《의원님!…》

《판병마사어른! 너무 상심마소이다. 이런 훌륭한 인재는 염라대왕이 불러가지 못하오이다.》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 《서경명의》의 안색은 밝지 못했다.

그는 박원작의 손목을 조심히 부여잡았다.

싸늘하게 식은 병자의 손목에서 약한 맥이 알릴락말락 느껴졌다. 생의 기력이 쇠진해버린 꺼져가는 맥이였다.

그는 자기도모르게 한숨을 쉬고나서 박원작의 배에로 손을 옮겼다.

더운 기운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배를 더듬어보니 대뜸 명치아래의 부위에서 돌덩이같은것이 만져졌다.

주먹만한 혹을 가지고 지금껏 일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이제는 천하의 그 어떤 명의일지라도 손을 쓰지 못할것이다. 이미 병자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마지막생의 불꽃을 태우고 있었다.

《의원님! 어떻소이까?》

《서경명의》는 기대가 실린 최충의 눈길을 차마 마주볼수 없어 고개를 수그렸다.

고개를 숙이고있느라니 격한 마음이 꿈틀거렸다.

병이 왜 이렇게까지 빨리 악화되였을가.

이미 지어준 약이면 두달은 아직 먹고도 남는다. 그 약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환생약》은 못될지라도 배안에 든 작은 혹쯤은 서서히 없앨수 있다.

적어도 몇해는 살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병자가 죽게 된것은 약의 탓이 아니라 그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이다. 그만큼 약을 번지면 안된다고 신신당부를 했건만 어쩜 그 당부를 소홀히 했는지…

아니, 이건 병자의 탓만도 아니다.

사람의 병을 고쳐주려는 의원의 지성이 뜨겁지 못하다보니 약이나 지어주고 약을 번지면 안된다는 말을 한두번 해주는것으로 그치고말았다.

아, 의술은 인술인데 좀더 관심을 두고 약을 꼭꼭 들도록 했

다면 이렇게까지는 안되였을것이다.

대답을 못하는 《서경명의》를 대신해서 박원작이 입을 열었다.

《사부님! 너무 상심마소이다. 요즘 배아픔이 좀 덜어진걸 보면… 하늘이 살리려고 재생의 바줄을 내려주려는가 보오이다.》

최충은 박원작의 손을 꾹 감싸쥐였다.

《이 사람아!…》

《사부님! 사부님이 오셨으니 됐소이다. 사부님을 모시고 온 장안이 들썩하게 천균노를 쏘겠소이다.》

《거야 그래야지. 온 나라가 들썩하게 포성을 울려야 하구말구.》

이윽고 박원작은 방 한켠에 말없이 앉아있는 대씨로인에게로 눈길을 옮겼다.

천균노를 만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좀전에 찾아온 그였다.

대씨로인은 그동안 아들이 군교로 가있는 구주에 가있다보니 천균노의 소식엔 깜깜이였다. 그는 어제 서경으로 돌아왔다.

박원작은 대씨로인을 다시 보게 된것이 무등 기뻤다. 그가 아니였다면 어떻게 천균노를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그 하나만으로도 금방석에 앉혀야 할 로인이다.

박원작은 자기의 눈길을 읽는 대씨로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냈다.

이어 그의 눈길은 대씨로인의 곁에 앉은 돌석이에게로 옮겨졌다.

앞으로 이 박원작이란 사람의 목숨은 며칠 더 가지 못할것이다.

며칠후에 화약의 비방을 알고있는 사람은 저 돌석이 한사람뿐일것이다.

그토록 크게 믿었던 남권부가 렴탐군들에게 굴복하여 화약의 비방까지 내놓았다고 하니 천벌을 어찌 면할소냐.

사람의 속을 알기란 참말이지 어려운 일이다.

저 돌석이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화약의 비방을 지킬수 있을가. 나라를 위하고저 뼈심을 들여 일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지조가 굳센 법이니 저 돌석이를 믿고 화약의 비방을 맡기는것이 옳을상싶다.

박원작은 최충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사부님! 소생에게 부탁이 하나 있소이다.》
《부탁?!… 어서 하게.》
《사부님! 지금 화약의 비방을 죄다 알고있는 사람은 저기 저… 염초장행수밖에 없소이다. 앞으로도 그한테만 그걸 맡겼으면 하오이다.》
최충은 눈을 슴벅이며 나직이 응수했다.
《알겠네. 잘 알겠어. 염초장행수가 그 비방을 지키도록 돕겠어.》
한시름 놓인 박원작은 불현듯 깨달아지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지금껏 고구려의 천균노가 어이하여 후세에 전해지지 못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대답이였다.
틀림없이 고구려의 선조들은 망국이 닥쳐오자 천균노같은 위력한 병기들이 적국의 손에 들어가는것을 원치 않았을것이다.
그래서 천균노와 같은 《신기한 병기》들과 염초를 만드는 비방을 깡그리 없애버렸을것이다.
이제는 알만하다. 나라가 없어지면 겨레의 제일가는 보배들이 선참으로 사라져버릴수 있다는것을!
지금껏 풀리지 않고있던 의문이 말끔히 가셔지자 박원작은 가슴이 뻐근해짐을 느꼈다.
다시는 망국의 설음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망국의 설음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자나깨나 자기를 지켜낼수 있도록 병기를 서슬푸르게 벼려야 하리. 바로 그걸 바랐기에 아버지는 나라가 평온한 시절에도 목숨을 바친것이 아닌가.
이 땅을 노리는 외적들을 공포에 벌벌 떨게 하는 위력한 병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병기를 만들어내는 일은 머리가 비상한 인재와 그 인재를 믿어주고 떠밀어주는 몇몇 조정대신의 힘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고 선조들이 물려준 삶의 터를 더 잘 가꾸어나가려는 마음을 간직한 백성들이 떨쳐나서야만 빛을 볼수 있는 법이다.
조정대신들은 바로 그걸 알아야 하리. 천균노는 이 박원작이 아니라 장공인들 바로 충의로운 서경사람들이 힘을 합쳐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그들이 있었기에 이 박원작은 별로 큰 우여곡절이 없이 뜻을 성취한게 아닌가.

허나 박원작은 제아무리 신기한 재간을 부리는 세찬 병기일지라도 그 위력은 나라를 지키려는 불타는 마음으로 굳게 뭉쳐진 백성들의 단결된 힘보다 클수 없으며 천하를 진감시킬수 있는 강력한 병기를 가진 나라도 조정이 병들어 민심을 잃는다면 망국의 쓴맛을 당할수 있다는 진리를 알수 없었다.

더불어 겨레의 자랑인 《신기한 병기》들이 부패하고 무능한 조정아래에서는 무용지물로 버림을 받거나 자취를 감추게 된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최충도 아니, 그 당시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있었다.

14

며칠후, 병마도감의 서기산골안은 아침부터 인파로 설레이고 있었다. 온 병마도감의 장공인들뿐아니라 그들의 식솔까지 천균노의 위력사격을 구경하러 모여든것이였다.

불치의 병으로 병석에 누워있던 박원작은 깡그리 기력을 모아 서기산골안으로 나왔다.

다들 그러하듯 판북계병마사 최충과 서경류수 황보영도 눈물을 머금고 뼈만 남았으나 거포를 틀어잡은 전복차림의 박원작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박원작은 자꾸만 눈앞에서 별찌가 일고 때로는 세상이 온통 암흑인듯 캄캄해지군 하였지만 휘청거리는 몸을 초인간적인 힘으로 지탱하며 천균노결에 다가섰다.

이제는 배가 아프다 못해 얼얼하다.

손에 잡은 거포는 천근인듯 무거운데 그는 그 무게를 나라의 중

임을 말고있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였다.

성돌같이 잘 다듬어진 큰 돌로 든든하게 쌓은 포가우에 틀지게 실려있는 두문의 천균노를 지켜보는 그의 눈에서는 고요히 눈물이 흐르고있었다.

얼마나 많고많은 사연을 안고있는 천균노인가. 천균노를 위해서 메득이는 젊은 목숨까지 바쳤다.

황금빛을 머금은 웅자스러운 천균노는 오늘만이 아닌 후세들에게도 이렇게 깨우칠것이다. 강력한 병기를 만들어내는 일이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라고…

박원작은 눈길을 들어 앞쪽을 바라보았다.

골안의 막바지중턱에 아름드리 바위돌들로 길높은 성벽을 몇십보길이로 쌓아놓았다. 성벽이 끝나는 한켠에는 적군이 성을 칠때면 흔히 쓴다는 집채같은 충차 두대가 서있다.

바로 그것들이 오늘 두문의 천균노가 일격에 짓부셔버려야 하는 파녁물이다.

이제는 고구려의 천균노가 어떤 위력한 병기인지 잘 안겨온다.

고구려군은 천균노로 적의 성루보다도 적의 병기(기마전차)를 요정냈을것이다.

그때의 오랑캐군은 단숨에 상대의 진을 기습할수 있는 병기를 제일가는 병기라고 뽐냈다. 하기에 적군은 고구려를 치는데 수백수천개의 병기를 들이밀었다.

고구려는 적이 뽐내는 병기를 단매에 짓부셔버릴수 있는 천균노가 소용되였을것이다.

하여 그 시절의 천균노는 3만근의 무게를 가진 거대한 화포였지만 염초를 쓰다보니 그 위력이 화약을 쓰는것만 못해 백근정도의 돌탄밖에 날리지 못했을것이다. 그때의 천균노가 백근정도의 돌탄을 수백보 멀리로 날려보냈으면 적의 병기를 단매에 짓부셔버릴수 있다.

그러나 고려의 천균노는 염초가 아니라 화약을 쓰는 우점으로 하여 고구려때의 천균노보다 그 위력이 비할바없이 크다. 고려의 천균노는 수백근짜리 돌탄을 무려 천보나 멀리 날릴수 있어 적의 병

기나 충차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성루라도 짓부셔버릴수 있다.
이제 우리가 만든 고려의 천균노가 어떤 병기인지 천하가 알게 될것이다.
박원작의 눈길은 천균노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로 옮겨졌다.
스승 최충과 서경류수 황보영, 김충지와 리순일병마부사… 근달이네 부자며 번기, 능산이, 군만이, 텁석부리 같은 장공인들… 아들을 업고나온 해연이, 메득이의 안해 설영이, 향분이같은 녀인들… 이름은 알수 없으나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반가운 얼굴들이 또 있다. 그들은 절령역관지기와 그의 아들 일랑이의 얼굴들이다.
서경에서 홀로 살던 녀인이 절령역관지기와 한생을 같이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험한 곳으로 자진하여 갔다니 정말 아름다운 소행이 아닐수 없다.
그들에 이어 뜻을 이루고 돌아올 이 아들을 기다리고계실 어머니와 딸 죽화의 얼굴도 보이였고 천균노가 성공했다는 표문을 받아보고 기뻐할 임금과 태제전하 그리고 서눌시중과 황주량평장사들의 얼굴들도 떠올랐다.
어찌 그들뿐이랴.
형체를 모르는 천균노는 만들수 없다고 임금앞에서까지 반기를 들었던 리자연의 얼굴도 보였다. 그가 뒤늦게나마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천균노를 빨리 만들어내라고 병마도감에 적지 않은 쌀과 천을 보내주었으니 실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수 없다.
용서받을수 없는자가 있다면 그놈은 이미 지은 죄로 하여 천벌을 받은 남권부이며 또한 그를 죄악의 길로 떠민 리자봉이다.
이제 리자봉의 죄행이 조정에 알려진다면 누구보다도 그의 형인 리자연이 동생을 가만두자 안할것이다.
아, 나라의 리익보다 제집의 리익을 앞세우는 그런 추물들이 더는 생겨나지 말아야겠는데…
이윽고 그는 뭉게뭉게 흰구름이 떠도는 북쪽의 하늘을 쳐다보았다.
머지않아 이 나라의 북방에 천리장성이 자기의 완성된 모습을 드

러낸다니 고려의 국력은 무궁무진하다고 할수 있으리라.
박원작은 다시한번 주위를 둘러보고나서 골안을 향해 웅장한 포신을 쳐든 두문의 천균노에서 시선을 멈추었다.
그의 손에 쥔 거포가 서서히 우로 솟구쳤다.
그를 신호로 하여 십여명의 장공인들이 달려나와 천균노들에 달라붙었다.
그들은 여느때와 달리 근엄한 안색으로 조심스럽게 화약을 다져넣고 수백근짜리 돌탄을 재웠다.
그들을 주시하던 박원작은 거포를 내리휘두르며 목청껏 웨쳤다.
《쏘앗!—》
비록 그의 웨침은 이전과 달리 크지 못했지만 장공인들은 골안이 떠나갈듯한 벽력소리로 느끼였다.
쾅— 쾅—
두방의 포성이 천지를 진감하며 골안에 메아리쳤다.
손에 땀을 쥔 사람들은 지심을 울리며 가을하늘로 날아오르는 돌탄에로 일제히 눈길을 주었다.
하늘을 물어뜯을듯 무서운 기세로 날아오른 두개의 돌탄은 순식간에 골안의 막바지중턱에서 요란한 굉음을 일으키면서 먼지기둥을 공중으로 타래쳐올렸다.
사람들은 곧 먼지기둥이 사라진 그곳에서 길높은 성벽이 물먹은 담벽마냥 땅바닥에 주저앉은것을 볼수 있었다.
순간 사람들은 《와—》 환성을 지르며 어깨들을 으쓱했다.
최충은 너무 기뻐 앞을 가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보오, 박공은 해냈소. 해냈단 말이요!》
황보영도 눈굽을 문대며 대꾸했다.
《난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더 적중한 말이 떠오르지 않소이다.》
최충은 여전히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이로써 우리 고려는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도 가져보지 못한, 아니 꿈도 꾸지 못하는 천균노를 가진 강국이 되였소. 이젠 그 어떤 적이 달려든대도 두렵지 않소.》
《옳소이다. 내 한생에서 서경류수로 있는 오늘처럼 뜻깊은 날

은 없을거외다. 난 우리 나라에서 제일먼저 천균노의 위력을 본 그 한사람이 되였소이다.》

최충과 황보영이 서로 손을 잡고 기뻐할적에 박원작은 비오듯 눈물을 흘리며 다시금 있는 힘을 다해 거포를 추켜들었다.

《적의 충차를 향하여!—》

장공인들이 잽싸게 손을 놀려 천균노들에 돌탄을 재워넣었다.

《쏫!—》

박원작의 구령에 이어 또다시 두문의 천균노가 골안을 우뢰쳤다.

꽝— 꽝!—

쏜살같이 허공으로 날아오른 두개의 돌탄이 어느새 골안의 막바지로 팔매선을 그었다.

사람들은 곧 두개의 충차가 단숨에 형체마저 없어지는 장쾌한 모습을 볼수 있었다.

와— 와—

인파는 기쁨과 흥분으로 마냥 설레이고 골안이 떠나갈듯 환호성이 울렸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박원작을 바라보는 최충의 얼굴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다년간의 쌓이고쌓인 과로로 하여 골병에 든 박원작은 며칠 더 살지 못할것이다.

비록 그의 한생은 길지 않지만 나라를 위해 쌓아올린 공적은 영원할것이다.

그가 어떻게 남다른 장거를 이룰수 있었던가.

그것은 단지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끝까지 다하려는 효도의 마음만이 분출해서가 아니다. 바로 전란을 미리 막고 겨레를 흥하게 하려면 평온한 시기에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기에 아버지처럼 살수 있은것이리라.

장하도다. 애국충신 박원작아!…

마감이야기

길지 않은 한생을 고스란히 나라의 군력을 다지는 길에 바친 박원작이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임금은 그를 북계병마도감사로 봉한다는 어지를 내렸다.

그때로부터 5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1093년(계유년) 여름. 고려조정에서는 막강한 군력을 시위하는 천균노의 일제포성을 울리여 변방을 유린하는 녀진오랑캐에게 본때를 보여주라는 령을 내렸다.

이제 거대한 화포의 장엄한 포성이 울리면 이 땅을 넘보던 온갖 오랑캐무리들이 혼비백산하리라.

그러지 않아도 고려의 《신기한 병기》를 천하가 얼마나 두려워했던가. 그것이 있기에 고려는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 륭성의 시대를 맞이한것이다.

천하를 위압하는 《신기한 병기》들이 군진들에 갖춰지고 개경과 서경에서 천균노의 포성이 울리자 고려를 어째보려던 대국들이 저마다 국교회복의 청을 드려오고 례성강의 벽란나루에는 친선의 사절을 실은 타국의 배들이 숲을 이루었다.

군력이 강해지니 나라는 부유해지고 문명은 더 높은 경지에로 치달아올라 고려는 문화의 나라로 만방에 그 존엄을 떨치였다.

바로 이 시기에 천하보물 고려자기의 전성기가 마련되고 구리활자가 창안되여 수많은 책들이 찍혀지고 마을마다 글읽는 소리가 차고넘쳤다.

웅장화려한 동양제일의 사찰이라는 흥왕사같은 거대한 사원들이 일떠섰다.

이러한 때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고 녀진오랑캐가 변방

을 침노하였다.

송화강의 한갈래 아르초가강류역에서 일어선 완안부녀진은 주변의 여러 부족들을 통합하자 기고만장해서 두만강일대로 검은 마수를 뻗쳤다.

두만강일대는 고려에 복속된 동녀진이 사는 땅이자 고려의 변방이였다.

하여 고려조정에서는 녀진오랑캐무리가 감히 이 땅을 범한다면 일격에 요정내리라는 강경한 의지를 담아 천균노의 포성을 울리게 한것이였다.

개경과 서경에서 그리고 동계에서도 고려의 자랑인 천균노들이 일제히 장엄한 포성을 울렸다.

천균노의 포성은 실로 고려의 위엄을 천하에 떨치도록 하였다.

3만근이나 되는 거대한 화포가 북방을 향해 불길을 토하자 고려를 넘보던 녀진오랑캐들은 어쩔바를 몰라했다. 그들은 당장 《신기한 병기》들을 앞세운 고려의 천군만마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된매를 안길가봐 아우성을 질렀다.

하여 동녀진과 서녀진은 물론 완안부녀진까지도 토산물을 가득 실은 마바리들을 앞세운 화친의 사절들을 련이어 개경으로 보내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로써 고려는 피를 흘리지 않고서도 또다시 북방의 녀진족을 제압하고 나라의 존엄을 빛내일수 있었다. …

고려전기의 뛰여난 무기기술자인 박원작의 고심어린 탐구와 서경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나라의 군력강화에 크게 기여한 《신기한 병기》들은 그후 태평성대를 떠들며 일신의 안일과 부귀영화만을 탐내는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에 의하여 하나둘 사라졌다.

지어는 세계최초의 대형화포인 천균노와 화약의 비방까지 자취를 감추고말았다.

조정에 골병드니 섬나라오랑캐들이 앞을 다투어 이 땅을 범하였다.

바로 그때 나라를 사랑하는 충의지사가 있었으니 그는 고려말기의 최무선이였다.

최무선은 비상한 노력으로 끊겨진 화약의 비방을 다시금 밝혀내고 이어 강력한 화약무기들을 만들어냈다.

그는 화포들로 장비된 강력한 고려함대를 이끌고나가 바다에 침노한 섬나라오랑캐무리들에게 불벼락을 안김으로써 진포해전(1380년), 박두양해전(1383년)과 같은 세상에 일찌기 류례가 없는 바다싸움의 대승리를 안아왔다.

이렇듯 군력강화에 크게 기여한 충의지사들의 공적은 화약무기와 더불어 후세에 길이길이 전해져갈것이다.